옥비녀 도깨비

{{ 옥비녀 도깨비 이야기 }}

문희는 부모를 따라 주인집을 드나들며 잡다한 심부름을 했다.

눈치가 빠르고 행동도 시원시원하니 미움받을 일이 없어 종으로 살아가기에는 평탄하겠거니 싶었다.

이찬은 이 씨 부부가 백일 동안 백팔 배를 올려 어렵게 낳은 늦둥이였다.

어렸을 적부터 또래에 비해 점잖고 명석하니 이 씨 부부의 소원대로 나랏일을 할 나리가 되기에 딱이었다.

문희는 온종일 넓은 집안을 뛰어다니기 바빴다.

집 안 구석구석 그녀를 안 찾는 데가 없었기 때문이다.

희야, 툇마루 좀 닦아라

희야, 빨랫감을 모아 오너라

희야, 김 씨네 집에 다녀오려무나

이찬은 매일같이 이리저리 불려다니는 문희의 꽁무니를 구경하기 바빴다.

뺨은 항상 분홍빛으로 물들어선 쉴 틈 없는 하루에도 불평 없이 해맑게 웃는 얼굴이 보기 좋았다.

키도 몸도 작은 주제에 목소리는 어찌나 또랑또랑한 지 누구에게 묻지 않아도 그녀가 어디쯤 있는지 알 수 있었다.

희야, 도련님께 진지 갖다 드려라

네에

문희는 도련님의 심부름을 할 때가 가장 즐거웠다.

아침에 일어나면 맑은 물로 세수하고 도련님이 깰 때까지 방 앞을 기웃거렸다.

운이 좋게 그를 마주하면 작은 심부름을 받고 설탕과자를 얻었다.

설탕과자보단 제 머리를 쓰다듬는 찬의 손길이 더 좋았는데 마음이 간질간질하니 요상하게 혀끝이 달콤해지는 기분이 들어서였다.

이찬은 산책을 갈 때면 도시락을 핑계로 문희를 데려갔다.

찬이 앞서 걸으면 희가 따라 걸었다.

어느 날은 그게 못마땅해

희야, 옆에서 걷거라

라고 말하니 붉어진 얼굴을 푹 숙이고 찬의 옆으로 오는 희였다.

꽃밭 가운데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는 들판은 이찬이 책을 읽기 좋아하는 곳이었다.

그가 느티나무 그늘에 앉아 책을 펴면 문희는 양지에 앉아 꽃놀이했다.

작은 손으로 이것저것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면 희는 꽃보다 향기로워 보였다.

욕심껏 희를 보고 있다 보면 해는 금세 저물었다.

그럴 때면 책은 펼친 곳 그대로라 황당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누가 봐도 예쁘장한 문희는 마을 청년들에게도 당연 인기가 높았다.

혼기가 되니 하루가 멀다고 청혼이 들어와서 정신이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도 희는 기쁘지도 않은지 한숨만 폭 폭 내쉬었다.

우리 마을 가장 잘생긴 놈이 네게 장가들고 싶다는데 기쁘지 않니?

친구가 물었다.

몰라, 부모님이 정해주는 데로 갈란다

문씨 부부가 고른 희의 혼처는 보석 장사로 돈벌이 한 왕 씨네였다.

친구는 질색했다.

왕씨네 아들은 돈 많은 만큼 나이도 많고 얼굴도 못생겼다는데, 괜찮니?

아무렴 어떠니

희에게 찬을 제외한 사내들은 죄 거기서 거기일 뿐이었다.

휴우...

혼인이 다가올수록 기력이 없고 하늘 보는 일이 잦아진 문희였다.

문희의 청혼 소식을 들은 이찬은 그녀를 멀리하기로 했다.

미혼의 여인에게 외간 남자와의 시간은 치명적이었다.

심장이 시도 때도 없이 찌르르 울렸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아니 참을 수밖에.

마음의 병은 삼킬 수록 진해졌다.

문희를 떠나 보낼 시간이 다가올수록 찬의 몸과 마음이 시들시들 병들어갔다.

악몽을 꾸고 열이 나고 힘이 쭉 빠져나갔다.

매일 밤 희의 이름을 부르며 병치레로 누워있기를 며칠, 걱정하다 못해 눈물로 밤을 지새운 문희가 그의 방으로 찾아왔다.

도련님, 도련님 어찌 이리 아프십니까?

희야, 희야 네가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더라

찬은 문희를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돌고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제가 절대 희를 놓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찬은 희의 손을 잡고 느티나무 아래로 달려갔다.

이찬은 품에 숨겨 두었던 옥비녀를 꺼냈다.

문희가 생각이나 벌컥 사버렸던 것이었다.

네 짙은 머리카락과 잘 어울릴 것 같더구나

그는 서툰 손길로 희의 머리를 매만졌다.

영롱한 녹색을 자랑하는 비녀가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에서 푸른 달처럼 반짝였다.

곱다

희가 찬의 품에 안겼다.

꽃이 가득한 들판, 느티나무 아래서 이찬과 문희는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다.

이 씨 부부는 단연코 결사반대를 했으나,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두 사람은 조촐한 결혼식이나마 치를 수 있었다.

이찬과의 결혼은 문희에게 꿈만 같았다.

뒷모습만 보았던 서방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처마 아래 예쁜 밤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었다.

모든 게 벅찼다.

살포시 포갠 손의 체온을 느낄 때면 하늘을 수놓은 달과 별의 빛보다 제 행복이 반짝이는 것을 느꼈다.

희야

듣기 좋은 울림이 전해졌다.

문희는 따뜻한 서방님의 품에 잠이 들었다.

이 모든 게 꿈이라면 죽어도 깨지 않았기를 신에게 기도했다.

그러나 신은 무심했다.

과거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놈에겐 이 가문을 이을 자격이 없다!

수도에 가 합격할 때까지 돌아오지 말거라!

이찬은 문희를 두고 수도로 떠나야했다.

집안에서 의지할 곳이라곤 이찬밖에 없던 문희는 찬의 옷자락을 놓아주어야만 했다.

사랑하니까 그를 위해서라면 금방 돌아오겠다는 약속 하나로 만족해야 했다.

희는 허허벌판에 혼자가 됐다.

하지만 괜찮았다.

시부모가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해도, 집안과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불여우 취급해도 문희는 찬과의 결혼을 후회하지 않았다.

세간의 부정적인 시선 속에서도 찬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버틸 수 있었다.

찬 역시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찬이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 희는 작은 별채로 쫓겨났다.

인적 드문 지붕 아래 찾아주는 이 없이 외로운 곳이었다.

서방을 기다리는 것 외엔 할 일이 없어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늘을 친구삼아 함께했다.

아픈 곳 없으실까, 식사는 잘 챙겨 드실까, 시험은 막힘없이 잘 보셨을까...

매일이 그리움이었다.

그렇게 외로움에 무뎌질 때쯤, 아무도 오지 않던 조용한 별채에 희의 어미가 찬의 소식과 함께 찾아왔다.

작은 주인님께서 장원에 급제 하셨다는구나!

기쁜 소식이었다.

희의 마른 얼굴에 하얀 미소가 번지자 희의 어미가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희는 버선발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얘야, 어떡하니. 불쌍해서 어떡하니!

집안 사람들 모두 기뻐하는 소리가 별채까지 들려오는데, 어머니가 어찌 이리 구슬피 우실까?

도련님께서 수도 양갓집 규수와 혼인을 하신단다!

어미는 주저앉는 제 딸을 안고 또 울었다.

희는 제가 우는 줄도 모르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만 바라봤다.

서방님의 얼굴이 가물가물해서 흐릿할 지경이었다.

작은 주인의 장원 급제 소식으로 이 씨 집안은 축제 분위기로 소란스러웠다.

문희는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조용한 별채에 앉아 멍하니 추억에 잠겨있었다.

지난 밤 이 씨 부인이 문희를 찾아왔었다.

문희를 향한 그녀의 시선은 변함없이 차가웠다.

희는 그녀의 눈빛이 두려워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였다.

네가 정녕 찬이를 사랑한다면 기회를 주마, 어디 한 번 증명해 보아라!

희의 앞에 던져진 것은 길고 하얀 천이었다.

명예로운 줄 알어!

이 씨 부인은 매정한 얼굴을 남기곤 소금을 뿌리며 떠나갔다.

문희는 소금 바닥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한 손에는 하얀 천이, 한 손에는 서방님이 떠나고 난 뒤로 항상 함께하던 옥비녀가 있었다.

옥비녀는 언제나 그렇듯 고운 빛깔을 뽐내고 있었다.

희는 옥비녀를 꼭 끌어안았다.

그녀는 신을 원망할지언정 찬을 원망하지 않았다.

글을 몰랐던 희는 찬에게 전할 편지조차 남길 수 없음에 쓴 눈물을 삼켰다.

대신에 마음속 깊이 하고 싶은 말을 담았다.

서방님 서방님 내 하나뿐인 서방님!

건강히 잘 계신가요?

타지에서 힘들진 않으신가요?

있잖아요, 잘했어요

미천한 저보단 곱디고운 아가씨가 당신께 더 잘 어울려요

제 걱정은 말고 행복하세요

내 몫까지 몇 배로 행복하세요

대신에 부탁 하나 하자면요

우리 시간 우리 추억 나 주세요, 내가 다 가질게요

조금은 쓸쓸해서 친구 삼아 가져갈게요

오늘 밤 달이 참 밝아요

당신과 함께 보았던 하늘보단 못하지만,

별도 없고 어두컴컴한 하늘 덩그러니 있는 보름달이 딱 내 모습 같아 마음에 들어요

서방님 서방님 마지막으로 불러보는 내 서방님아...

나 먼저 가서 미안해요

새색시 손잡고 천천히 오세요

부디 이 마음이 서방님께 닿기를...

희는 하늘로 높이 뛰었다.

하얀 달빛에 반짝이는 옥비녀가 고운 자태를 자랑하며 새카만 밤하늘을 향해 흔들흔들 인사를 했다.

명예롭긴 커녕 문희는 하루아침에 귀중품을 훔쳐 달아난 도둑년이 됐다.

그녀의 시체는 쥐도 새도 모르게 뒷산으로 옮겨져 태워졌다.

연고 없는 종들이나 당한다는 장례는 문씨 부부도 모르는 일이었다.

눈물 흘려주는 이 없이 불길에 던져진 그녀의 마지막은 씁쓸하기만 했다.

검은 머리카락 새에 꽂힌 옥비녀만이 영롱한 빛을 내며 울었다.

불길 속 모든 게 가루가 되고 재가 되고 비녀마저 그 속에 파묻혀 잠잠해졌을 때,

번쩍

어두운 세상에 하얀빛이 비췄다.

쏴아아

기다리기라도 했다는듯 먹구름에서 빗줄기가 쏟아졌다.

우르릉 쾅쾅!

천둥이 천지를 울렸다.

무거운 빗줄기는 문희의 재를 땅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비는 흐르고 흘러 모든 재를 흘려보냈다.

다시금 은은한 녹색의 비녀가 자태를 드러냈다.

옥비녀는 세찬 비를 맞으면서도 꿋꿋이 제 자리를 버티고 있었다.

번쩍

우르르 쾅쾅

두 번째 천둥번개가 쳤다.

번쩍

우르르 쾅쾅

세 번째 천둥번개가 쳤다.

그리고

번쩍

네 번째 섬광이 번쩍였다.

옥비녀가 있던 자리에 발가벗은 여인이 나타났다.

우르르 쾅쾅

네 번째 천둥이 치자,

검은 머리의 여인이 눈을 뜨고 옥색 눈동자를 드러냈다.

번쩍

다섯 번째 빛이 세상을 밝히자,

여인의 검은 머리가 젖지도 않고 바람에 휘날렸다.

그녀의 옥빛 눈이 강인하게 반짝였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날카로운 천둥의 포효가 아닌 부드러운 목소리가 주변을 감쌌다.

다정하면서도 웅대한 여성의 음성이었다.

아이야

여인의 눈이 포근한 목소리에 귀기울이듯 느릿하게 깜박였다.

사랑을 먹은 것에 생명을 주었으니 네 본성 또한 사랑이겠구나

운명이 있을지언정 네가 디딘 곳이 길이 되니 네 세상 사랑스럽구나

네 의지가 담긴 두 발로 마음 껏 세상을 펼쳐라

그것이 내가 너를 만든 이유가 될터이니

순백의 목소리가 멎자 먹구름이 물러가고 청량한 하늘이 드러났다.

청량한 하늘이 드러나고 일곱 빛깔 무지개가 여인의 위로 쏟아졌다.

일곱 빛깔 무지개가 쏟아지자 아리따운 선녀들이 춤을 추며 내려왔다.

일곱 선녀는 녹색 눈의 여인의 탄생을 축하하듯 주위를 뱅글뱅글 돌며 새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사랑스러운 아이야

갓 지은 어여쁜 비단옷을 입자

고운 머리칼이 더욱 윤기 나도록 빗자

좋은 곳으로 보내주는 꽃신을 신자

눈동자가 예쁘구나

마음씨가 예쁘구나

무엇을 담으려고 그리 깊으니?

무엇을 담으려고 그리 깊으니?

짹짹 꺄르륵 소리가 흩어지고,

숲 속이 잠잠해지자 선녀들의 손이 여인의 등을 떠밀었다.

옥색 눈동자가 깜박깜박 움직였다.

어서 발을 딛어보렴

네 눈과 마음 재밌는 이야기 가득 담아 우리에게 들려주렴

여인이 조심스럽게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옥비녀 도깨비의 탄생이었다.

희한한 꿈

머리 위로 톡하고 무언가 떨어졌다.

노아는 제 손을 내려다 보았다.

초록색 풋사과였다.

향긋한 달콤함이 코끝을 파고들어 혀에 닿는 떫은 맛은 전혀 없을 것 같은.

풀들이 무성한 들판에 봄바람이 불었다.

그 가운데, 멀지 않은 곳에 눈에 띠는 인영이 보였다.

길게 휘날리는 검은 머리칼.

꺄르륵 웃는 목소리.

노아의 시선이 그리로 향하자 하얀 손이 반갑게 흔들린다.

새하얀 원피스를 입은 아이가 그를 향해 달려온다.

'아빠!'

포근한 체온이 품을 파고 들었다.

초록색 눈동자에 느티나무의 나뭇잎이 흩날렸다.

'아빠!'

노아가 푸른 눈빛을 번뜩이며 꿈에서 깨어났다.

"아빠...?"

결혼 압박에 시달리다보니 별 희한한 꿈도 다 꾼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노아 몽블라체는 매년 봄이면 꽃이 없는 곳을 찾아 몽베르 섬으로 휴양을 왔다.

수도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바다, 빅블루에 위치한 몽베르 섬은 꽃이 없지만 아름다운 자연과 휴화산으로 이루어진 둥근 섬이었다.

휴화산은 굉장한 규모의 온천수를 품고 있었는데, 몽블라체의 어느 선조가 이를 발견하면서부터 그 쓸모를 찾았다.

몽블라체는 조용한 아름다움을 지닌 몽베르 섬의 자연을 아주 마음에 들어했다.

뱃길을 트고, 마을을 정돈하고, 온천을 다듬었다.

그리고 탁트인 바닷가에 새하얀 별장을 지었다.

그러자 관광객들이 몰려 들기 시작했다.

몽베르섬은 순식간에 관광 명소가 되었다.

뜨끈한 온천은 피부 미용뿐만 아니라 병을 치료한다는 소문이 났고, 잘 가꾸어진 자연은 마음에 평화를 안겨주는 편안한 매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렇게 몽베르 섬은 귀족들과 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있는 휴양지가 됐다.

몽베르 섬은 있는 자들의 허영심을 자극하기에 딱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오고 싶으면 예약하던가.

세간에 몽베르 섬 붐을 일으킨 몽블라체의 운영 방침이었다.

몽블라체는 몽베르 섬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 싶지 않아 했다.

그래서 관광객들은 몽블라체가 인심 써서 지어준 호텔에 예약을 해야만 섬에 방문할 수 있었다.

섬으로 오는 뱃편과 숙소는 항상 예약이 가득 차있었고, 빈자리가 나면 다시 눈 깜짝할 새에 채워지곤 했다.

그러다 보니 몽베르 섬에서 휴가를 보낸다는 것은 허세의 상징이 됐다.

섬의 주인은 대단한 장사꾼도 아니었고 돈에 대한 욕심도 없었다.

몽블라체가 생각하는 몽베르 섬의 매력은 한적하고 여유로운 분위기였다.

욕심을 부린다고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불러들이면 섬만의 매력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혼자만 알았으면 했다.

사유지로 지정하여 아무도 출입하지 않는다면 좋았을 텐데.

노아를 포함하여 이곳에 머물다간 선대들은 늘 그렇게 생각했다.

몽블라체 가는 몽베르 섬을 활성화하라는 황제의 명령만 아니었다면 섬을 독점했을 것이다.

독보적인 독점욕, 지극한 개인주의, 타인에 대한 무관심, 폐쇄적 성격.

웰츠의 제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몽블라체 가 사람들의 특징이었다.

몽베르 섬의 유일한 개인 별장은 몽블라체 가문의 에스티엘라 성뿐이다.

성과 성을 둘러싼 숲은 몽블라체의 전용 구역이었다.

낯선 이를 좋아하지 않는 섬의 주인은 아무리 황제의 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이 구역만큼은 양보하지 않았다.

허락 받지 못한 외부인들은 들어오지 못했다.

에스티엘라 성은 반짝이는 하얀 대리석으로 지어진 거대한 성이었다.

새하얀 모래사장과 초록색 풀이 가득한 숲은 아름답게 어우러지며,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자연이 날 것의 그대로 살아 숨 쉬었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풀벌레 소리와 파도의 철썩임이 섞여들어 편안한 노래를 듣는 듯 마음이 안정된다.

풀잎들이 바람에 스치며 새들이 지저귀면, 살짝 눈만 감아도 달콤한 꿈의 요정이 찾아온다.

그래서 노아 몽블라체의 휴가는 아침 일찍 개운하게 일어나 해변을 달리며 자연을 만끽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일 년 중 그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시간이었다.

푸르스름한 하늘과 수평선 위로 조금씩 번져오는 노란빛.

이곳을 스친 선조들처럼 그 역시 자연을 사랑했다.

절벽의 바위처럼 삶의 낙이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정도는 한두 개 있는 법이었다.

"아침이군."

노아가 동이 트는 하늘을 보며 말했다.

어떤 수식어나 감탄사도 없었지만 상기된 목소리가 즐거운 기분을 표현하고 있었다.

"아침이 아니라 새벽 네 시입니다, 각하. 해가 이제 막 뜨는 새!벽!이요."

제제가 잠이 덜 깨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트집을 잡았다.

즐거운 상사와는 다르게 부하는 현재 굉장히 불만스러운 상태였다.

피곤 앞에서는 상사고 뭐고 눈에 보이는 게 없었다.

걸을 때마다 신발 속으로 파고드는 모래는 짜증을 배로 늘어나게 했다.

잠이 절실했다.

휴가를 와서도 일만 하는 상사 때문에 산더미 같은 서류를 해치우다 겨우 두 시간 전에야 잠이 들었던 그다.

그런데 뭐?

아침 운동을 가자고요?

악덕 상사가 문을 쾅쾅 두드리며 깨우지만 않았어도 제제는 지금쯤 포근한 이불 속에서 단꿈을 꾸고 있었을 거다.

노아 몽블라체에게 휴가란 의미가 `장소만 바꿔서 일하기` 일 줄이야!

제제는 일 중독자를 과소평가했던 과거의 자신을 탓했다.

단지 그 유명한 몽베르 섬이라는 말에 혹해서 판단력을 잃었던 제 잘못이다.

쌓아두었던 연차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따라오지 말 걸 그랬다.

이제야 왜 비서 실장이 저택에 남기를 선택하셨는지 알 것 같다.

공기 좋고 물 좋은 데서 일하는 게 더 괴롭다고...!

햇병아리 수행비서는 오늘도 하나를 배웠다며 자신을 토닥였다.

"예쁘긴, 드럽게 예쁘네."

태양을 담은 바다는 거대한 수정처럼 반짝거렸다.

일출을 담은 물결이 요정들의 춤처럼 넘실댔다.

못 봤으면 후회했을 지도 몰랐겠다는 생각이 살짝 들 뻔 했지만, 제제는 속편한 생각을 털어냈다.

그래도 짜증나는 건 짜증나는 거다.

아침부터 왜 숨이 차도록 뛰어야 하는 건데!

"각하, 저도 꼭 같이 뛰어야겠습니까?"

제제는 노아의 옆으로 가 잘 익은 복숭아 빛 눈동자로 진지하게 물었다.

노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제제는 제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상사의 태도에 뿔이 나려고 했다.

피곤에 절은 그는 지금 초 예민한 상태였다.

제제는 다시 한 번 신경질적으로 물었다.

"예? 저도 꼭 같이 뛰어야 하냔 말입니다!"

"말이 많군."

고작 네 개의 음절에 제제의 분홍색 눈동자가 놀란 고양이처럼 커졌다.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를 으득 간 제제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아니요, 말이 많아지는 건 이제부터 입니다."

좋아, 이제까지 상사라고 참았지만 더는 못 참겠군.

제제는 마음 속 단단히 잠구고 있던 지퍼를 드르륵 열었다.

지퍼을 열자 겨우 잠 재우고 있던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생각해보십시오, 공작님. 우리 온종일 붙어 있는데, 이른 새벽까지 저와 함께하고 싶으신 겁니까?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하진 않으세요? 다 큰 성인이 혼자 다니는 것이 싫으시다면, 각하께선 외로우신 게 틀림없습니다. 외로우시면 연애 좀 하세요. 예? 테오르 님 말씀대로 선이라도 보심이 어떻겠습니까? 만나보기라도 하세요! 부하를 이렇게 괴롭히지 마시고요~~!"

제제는 노아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잔소리 공격과 함께 불만을 토해냈다.

하지만 잔소리를 대충 흘려듣는 것은 노아의 일상이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모두 프로 잔소리러였다.

비서 실장보다 더하는 군.

노아는 작은 한숨을 내쉬고 툴툴거리는 제제를 뒤로하고 속도를 높여 해변을 뛰었다.

부드러운 바람이 기분 좋게 살을 간질였다.

"저게 무엇이지?"

풍요로운 자연을 만끽하던 중, 이질적인 장면이 노아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모래 사장을 가뿐하게 뛰고 있던 걸음이 멈추었다.

파도 끝에 걸려 출렁이는 커다란 나뭇잎과 물에 젖은 작은 인영 하나.

철썩 철썩.

파도 소리가 새삼스레 크게 들려왔다.

뒤 따라 오던 제제는 노아의 손끝에 걸린 인영을 보며 별거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였다.

"여자 아입니다."

누가 보아도 쓰러진 여자 아이였다.

"제제, 내가 그런 것을 물은 줄 아나?"

노아의 진지한 음성이 제제를 타박했다.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좀 좋아?

제제의 직감으로 보건데, 저 아이는 그의 일을 증폭시킬 폭탄이었다.

"네, 각하. 여자아이가 왜 여기에 있을까요?"

"..."

노아는 대답 없이 아이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말엔 대답할 가치도 없다는 듯.

제제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뗏다.

그래, 그렇단 말이지.

그는 애써 웃었다.

"우선 제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하아..."

몽블라체 구역에 외부인이라.

땀으로 젖은 분홍색 머리를 대충 빗어 넘긴 제제는 상사를 의식하여 다급한 것마냥 아이를 향해 다가갔다.

제대로 붙어있는 눈코입,

한 팔에 들리는 가벼운 몸,

정말 작은 아이였다.

새하얀 목덜미에서 느껴지는 맥박과 외관상으로 다친 곳 없어보이는 아이는 일단 멀쩡했다.

몸이 젖어 있었지만, 체온도 정상인 `살아있는` 아이였다.

그런데 이 검은 머리카락은...

"낯선 옷과 이국적인 얼굴로 보아, 『태지천』의 아이이군요."

제제는 고개를 갸웃 기울였다.

"태지천은 저쪽 육지하고만 거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이 아이는 왜 이곳에 있는 겁니까, 각하?"

"그걸 왜 나한테 묻느냐."

노아는 제제의 품에 안긴 아이를 푸른 눈으로 훑어 보았다.

그러다 아이의 검은 머리카락이 제 것과 그리 다르지 않단 걸 깨달았다.

갈색빛도 없는 완벽한 검은색.

가족이 아닌 낯선 이에게서 보는 흑발은 처음이었다.

아무리 태지천인이라 하여도 몽블라체와 같은 짙은 검은색은 드물었다.

신기하군.

싱거운 감상평을 남긴 그는 변함없는 무표정으로 제제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가끔 당연한 것으로 뺀질대는 부하를 향해 말했다.

"이 아이가 왜 이곳에 있는지, 알아 내는 것이 네 일이다."

제제의 낯빛에 망연자실함이 서렸다.

"... 하, 일이 또 늘었..."

제제가 중얼거렸다.

불쌍한 척이라도 해볼까 했지만, 제 상사는 봐주는 법 한 번 없는 철혈 인간이었다.

"하...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이대로 뒀다간 저체온증으로 죽겠네요."

노아는 잠을 자듯 눈을 감고 있는 아이를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작은 체구로 10살도 안 되어 보이는 외관에 이목구비가 오목조목한 것이 『가이아』의 사람은 틀림없이 아니었다.

태지천인은 가이아의 항구마을에 살지 않는 이상 보기가 힘든 지라, 아이가 어떻게 이곳에 있는지 확실히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질이 좋은 천으로 지어진 옷차림은 평민의 것이 아니었다.

파란 비단 치마에는 금색 실이 수놓아 있으며, 심심하지 않은 무늬가 새겨진 하얀 상의는 젖었음에도 빛을 잃지 않았다.

아이의 몸이 창백하고 마르긴 했으나, 영양상태가 나빠보이지 않았다.

귀족의 아이가 가이아에?

혹, 몽베르 섬에 태지천의 사람이 방문한단 보고가 있었나?

그럴 리가.

여러모로 수상한 아이였다.

순간, 잊고 있던 지난 밤 꿈이 떠올랐다.

`아빠!`

참 이상한 꿈이었다.

귓가를 생생하게 맴도는 목소리가 아이의 얼굴과 겹쳐졌다.

오묘한 기분이 들었다.

"일단 데려가지."

꿈은 꿈일 뿐.

"하... 그래요, 데려가야죠."

긴 다리의 상사는 순식간에 멀어지고,

아이와 덩그러니 남겨진 제제는 긴 한숨을 쉬었다.

젖은 아이를 안으면, 내 옷도 젖… 는... 다...

그는 온갖 욕을 삼키며 쓴웃음을 지었다.

"가벼워서 좋네."

아이를 가뿐하게 안아 든 제제는 옷이 축축해져 가는 것을 느끼며 점이 된 상사를 뒤따랐다.

5일 후.

열어 놓은 창으로 청량한 바람이 불어 들어왔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노아의 머리카락이 가볍게 흩날렸다.

"테오르 님께서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서류 위로 바쁘게 움직이던 시선이 멈췄다.

노아는 몽블라체의 전 주인이자 제 아버지인 테오르에게서 편지가 왔다는 사실에 팬을 내려 놓았다.

그리고 관자놀이를 짚었다.

"내용은?"

테오르에게서 온 편지는 항상 내용이 많았다.

그 주제도 늘 노아를 골치 아프게 하는 것들이라 언제나 직접 읽지 않고 부하로부터 짧게 요약해서 듣고 있었다.

테오르는 제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다가왔음에도 연애 한 번 안하고 있단 사실에 걱정이 쌓일 대로 쌓인 상태였다.

얼마나 걱정이 되면 은퇴 생활을 즐기기 위해 영지에 내려가 있으면서도 하루가 멀다고 편지를 보내 아들을 괴롭히겠는가.

그래서 편지에는 언제나 결혼을 해야하는 이유로 시작해 제국 내에 독신인 여자들에 대한 정보와 결혼을 하라는 협박으로 끝맺는 내용이 가득했다.

심지어 가끔은 아들의 피를 끓게 하겠다며 야한 그림까지 보내곤 했는데, 노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제제만 신나게 했다.

"오늘은 아쉽게도 헐벗은 여인의 그림은 없습니다만, 대박인 소식이 있습니다. 테오르님께서 세실리오 가문과 선자리를 마련하셨다는군요! 크으~, 세실리오 영애께서 대단한 미인이신 건 아시죠? 그분과 결혼하려고 줄 선 사람만 해도 제국 한 바퀴를 돈답니다. 공작님, 세실리오 영애까지 거부하신다면... 정말 그땐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미인들을 보시고도 아무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예?"

제제는 노아의 부하 중에서도 가장 입이 날아다니는 녀석이었다.

겁도 없이 상사에게 건방진 말로 나불대는 것을 보며 그의 동료들은 그를 내일이 없는 새끼라고 불렀다.

봐라, 노아가 암만 미간을 찌푸려도 움츠러들긴커녕 어깨를 으쓱거리지 않는가.

"아, 그리고 요즘 테오르 님께서 손녀에 꽂히셨는지 하루빨리 결혼해 손녀를 만들라고 협박하셨습니다. 1년 내로 손녀를 만들지 않으면 네놈을 공작 자리에서 내쫓겠다! 라고."

1년 내로 손녀라니, 굉장한 협박이다.

테오르는 작정하고 아들을 괴롭힐 셈인가 보다.

내일 당장 아무 여자나 잡고 결혼식을 올려야 애를 가질 판인데, 딸인지 아들인지 알게 뭐란 말인가.

노아의 아비는 시간이 갈수록 되지도 않는 억지를 부리고 있었다.

그렇다고 그저 가벼운 말이 아니란 것도 잘 알았다.

이번 선은 꼭 나가란 말이겠지.

"나 몰래 이상한 소리 하는 답장 보낼 생각하지 말고. 몽베르 봄 특산품이나 챙겨 보내드려라."

"알겠습니다."

제제의 분홍색 눈이 샐쭉 휘어졌다.

나중에 쓸데없는 편지를 보내는 건 아닌지 한 번 더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알아보라는 건 어떻게 됐지?"

"음, 결과부터 말하자면 허탕이었습니다."

제제는 지난 며칠간의 수고를 생각하며 마른 눈물을 흘렸다.

"최근 관광객 중 당연히 동양인은 없었습니다. 물론 역대 관광객 중에서도 당연히 동양인은 없었습니다만, 혹시나 했는데 역시였습니다. 육지와 거래하는 태지천의 상단에서도, 제국에 들른 동양인 중에서도 어린아이를 잃어버린 자 역시 없었습니다. 아무리 수소문을 해도 어린 동양인을 찾는 사람들은 전혀 없더군요."

"그쪽도 알아봤나?"

"네, 없었습니다."

하나를 시키면 열을 하는 것이 제제였다.

노예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불법 시장까지 조사 뒤였다.

그는 본인의 일 처리 능력을 마음껏 자랑스러워 하며 당당하게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은 한편은 찜찜했다.

그 아이, 대체 어디서 온걸까.

"일단은 두고 보지."

찜찜한 건 노아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이가 왔을 법한 그 어디서도 관련된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

배를 타고도 한 달을 가야 하는 곳이 동대륙, 태지천이건만 이 아이는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걸까?

미스터리였다.

함께 발견된 나뭇잎을 타고 떠밀려 왔다는 건가? 아니면 땅에서 쏫아났나?

직접 물어보면 알까 싶었지만, 아이는 여전히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

벌써 5일째였다.

의원도 아이의 모든 게 정상인데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단다.

이러다 영영 깨어나지 않는 건 아닐까?

노아는 그 촘촘한 속눈썹 아래 있을 눈동자 색이 무척이나 궁금했다.

관심 없는 듯 관심 있던 노아의 걱정도 잠시,

그날 밤, 아이가 깨어났다.

별이 촘촘하게 박힌 하늘은 잘짜인 천조각 같았다.

노아는 나무 정원을 거닐며 바람을 쐤다.

멀지않은 곳에서 파도소리가 들리고 풀숲에선 귀뚜라미가 찌르르 울었다.

노아는 목까지 잠가 놨던 와이셔츠의 단추를 느슨하게 풀었다.

여유로움이 온몸을 감싸니 이제서야 답답함을 느낀 그였다.

항상 강인해 보였던 벽안도 이 시간 만큼은 빅블루의 밤처럼 부드러운 푸른 빛을 띠었다.

평화로운 밤이었다.

적당한 날씨도, 편안한 마음도 모두.

오늘부로 급했던 일들이 마무리됐다.

방심할 순 없었지만, 눈앞의 것이 일단은 끝을 보였다.

아무리 일하기를 좋아하는 노아라지만, 휴가를 와서도 온종일 집무실에 박혀있지만은 않는데, 이번에는 사정이 안 좋았다.

나랏일이라는 게 대부분 그렇지만 예정에 없던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는 바람에 쉴 틈이 없었던 탓이다.

어찌된 일인지 국경선에 마물의 개체가 증가했다.

습격은 대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급작스러웠다.

국경선 근처의 마을들에서는 인명 피해가 계속해서 증가했다.

노아는 국경선 근처에서 일어나는 마물 습격 사건을 수습하고 경위 파악을 위해 눈코 뜰새 없이 일해야했다.

노아는 웰츠 제국의 10개의 기사단과 300개의 병사 부대를 관리하는 총괄 지휘관이었다.

이럴 때면 신경 써야 할 일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꽤 큰 일이라 꽃가루 알레르기이고 뭐고 휴가를 미룰 뻔했다.

자칫했다간 생에 최악의 몸 상태가 될 뻔했다.

노아에겐 꽃이란 생각만 해도 코가 근질 거리는 단어였다.

그래서 사실 이 휴가에는 피난이란 말이 더 어울렸다.

내일은 주말이니 제제에게도 자유를 줄 생각이었다.

그의 밑으로 들어온 지 겨우 일 년을 채운 신입이었지만, 넘치는 패기만큼 일도 꼼꼼하게 잘 처리해 마음에 든 녀석이었다.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노아를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것이 함께 오래 일한 비서 실장만큼 편하기도 했다.

"...@$%&...%$..."

성 주변을 두른 정원을 한 바퀴 다 돌아갈 때쯤 어디선가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일반사람보다 귀가 밝은 노아는 멀리서 들린 소리의 근원으로 다가갔다.

"...@$%..."

그것은 서대륙의 언어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의 머릿속에 늘 마음에 두고 있던 방 한 곳이 떠올랐다.

노아는 1층의 손님방, 태지천의 아이가 있는 잠든 곳으로 발을 옮겼다.

불빛이 모두 꺼진 정원 속, 어둠을 헤치고 풀밭을 걷는 걸음이 다급했다.

방에서 정원으로 이어지는 테라스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노아는 문턱에 서 방안을 둘러보았다.

거대한 침대에 아주 작은 아이가 덩그러니 누워 있다.

넓은 공간 안에 작은 숨 한 번만으로도 굉장한 존재감을 드러내다니, 묘한 기분이 들었다.

숨소리가 그의 감각을 간질였다.

아이를 돌보는 하녀가 환기를 시키고 자리를 비운듯했다.

"%%&@..."

뒤척이는 아이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보폭이 큰 발걸음이 달빛을 등지고 다가갔다.

하얀 시트 위에 검은색의 머리칼과 가지런하게 누운 아이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

악몽을 꾸는 듯 인상을 쓴 얼굴이 괴로워 보였다.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안타까울 정도로 끙끙 앓는 목소리를 냈다.

어떤 사연이 있는 건가.

아이가 꿈을 꾸면서 울 정도라면 얼마나 아픈 사연일까.

끙끙거리는 모습에 제 마음까지 미워 지려 했다.

노아는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 없이 홀린듯, 아이의 머리맡 침대에 걸어앉았다.

그만 슬퍼해라.

젖은 앞머리를 조심스레 쓸어 넘겼다.

서툰 움직임이었다.

땀이 가득한 하얀 피부는 수년한 햇빛에 그을려온 피부와 대조됐다.

손바닥 하나에 얼굴이 다 가려질 정도로, 아이는 정말 작았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갑갑해 보여 다시 한 번 고운 피부를 보듬었다.

손끝에 닿는 살결이 어떤 새끼 동물보다도 사랑스러웠다.

본인도 모르게 노아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일그러진 미간을 부드럽게 쓰다듬자, 신기하게도 아이의 거친 숨이 잦아들었다.

마음이 뭉클했다.

이상하군...

누나들이 낳은 조카를 볼 때도 무미건조했던 그였다.

노아는 아이와 제 손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새근새근 숨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혔다.

다행히도 악몽에서 벗어났나 보다.

편안해진 숨소리에 안도하며 자리를 피하려는 찰나, 작은 온기가 그의 손가락을 잡아왔다.

"...&$?"

잠에서 깬 흐릿한 시선이 놀란 노아의 두 눈에 들어왔다.

오묘한 빛을 띄는 에메랄드색 눈동자.

`아빠!`

꿈속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예님은 제 손과 발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엄지부터 새끼까지 차례로 움직여 보기도 했다.

멀쩡했다.

열 손가락, 열 발가락 다 그대로 붙어 있었다.

하지만...

"〈작아졌어.〉"

어째서?

셀 수 없는 날들을 보내왔지만 이런 황당한 사건은 처음이다.

몸이 어린아이처럼 작아졌다.

"〈게다가 저건...〉"

"그럼 스프를 가져오겠습니다."

서양인이다…!

신기한 머리카락 색, 눈동자 색, 이목구비를 한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언어로 샬라샬라 대화를 나눈다.

서양인은 백 년 전 즈음, 바다 마을을 지날 때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당시 태지천은 넓은 바다 건너에도 사람이 산다는 사실에 아주 떠들썩했더랬다.

"〈이봐! 내가 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곳에 있는 거지?〉"

예님은 저들끼리 떠드는 서양인들을 향해 물었다.

그녀가 말을 해도 나오는 것은 태지천의 언어였다.

당연했다.

그녀는 평생을 태지천에서 살아 왔는걸.

하지만 태지천어를 저 서양인들이 알아들을 리 만무했다.

그들은 대답 대신 말간 얼굴로 예님을 바라봤다.

"〈맙소사.〉"

아무래도 그녀에게 여간 보통 일이 일어난게 아닌가보다.

주변이 온통 희한한 것들로 가득하다.

그녀가 살던 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 속이었다.

잠든 사이에 누군가 그녀를 옮겨다 놓은 걸까?

"통역가는 언제 오지?"

눈을 뜨자마자 보았던 남자가 입을 열었다.

알아듣지 못하는 서양의 언어가 나직이 흘러나왔다.

그는 유일하게 익숙한 머리카락 색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다.

다들 형형색색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을 지녔는데, 저 남자 만큼은 예님과 같은 머리카락 색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푸른색 눈동자는 적응 안 되게 신기했지만 말이다.

그렇다고 옥색 눈동자를 가진 예님이 신기하다고 말할 처지는 아녔다.

또 그렇다고 변명하자면 그녀는 사람이 아니니까 괜찮았다.

태지천에선 특이한 눈동자 색을 가진 자들은 보통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별난 눈동자 색을 가진 인간들을 보고도 충분히 신기해할 수 있는 거다 .

"〈암 그렇고 말고.〉"

예님은 눈앞의 인간이 너무 신기해서 대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던 점을 합리화 했다.

"〈인간이면서 알록달록한 눈동자를 가지다니, 서대륙의 존재는 암만 봐도 신기하구나.〉"

"통 뭐라는지 모르겠군."

노아는 예님의 언어를 들으며 한숨을 쉬었다.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종알종알 대는 모습은 귀엽긴 했지만 정말 답답했다.

반면 예님은 그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고개를 크게 뒤로 젖혀야해서 목이 아팠다.

"〈키가 어마어마하게 크구나?〉"

예님은 해맑게 웃으며 그를 올려봤다.

"〈준수한 얼굴을 보아하니 여자 여럿 울렸겠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태지천의 말을 배워야 하나.

육지에서 통역가를 데려오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듯했다.

평소 초조함이란 없는 그가 이순간만은 이상하게 다급했다.

노아는 아이가 불안해 할까 봐 걱정이 됐다.

그는 잠시 종알거리는 예님을 빤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대뜸 손가락을 올려 본인을 가리켰다.

"노아."

그리고 예님을 향해 똑같이 손짓했다.

"..."

"〈음?〉"

예님은 저를 손가락질하며 뚫어지라 보는 남자의 행동에 데굴데굴 머리를 굴렸다.

무슨 의미지?

"〈...노아? 노아... 아하!〉"

예님이 짝 소리를 내며 손바닥을 마주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노아인가 보다!

"〈너는 노아!〉"

노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예님!〉"

예님이 싱긋 웃었다.

노아가 예님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밝은 아이군.

허걱!

삐끗

어디선가 부산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집사와 하녀가 노아의 행동에 기겁한 소리였다.

아이들은 제 조카라도 귀찮아 질색하는 노아 몽블라체가 손수 소통을 하고 다정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었다!

전세계 어디서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장면이었다.

제 사용인들이 놀란 줄도 모르고 노아는,

"예님."

작은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곱씹었다.

그의 입꼬리가 조용히 올라갔다.

예님과의 첫 대화가 아주 만족스러웠다.

스스로 아이의 이름을 알아낸 것이 적지 않게 기뻤다.

곱게 올라간 입꼬리가 오래도록 내려가지 않았다.

집사와 하녀가 노아의 뒷모습을 보고 있어 다행이었다.

앞모습을 봤다면 그냥 기절했을 것이 분명하다.

노아의 미소를 본 예님도 기분이 좋아졌다.

다정한 사람이구나!

말은 안 통해도 마음은 통하는 느낌이었다.

노아라, 입에서 굴러가는 발음이 어렵지 않아 좋았다.

백 년 전, 그즈음에 보았던 그 서양인들의 이름은 발음도 어렵고 복잡해서 기억하기 힘들었는데 말이다.

적어도 이름은 노아나 예님처럼 간결하고 쉬워서 입에 잘 붙어야하는 것 아닌가?

뭐였더라, 그 녀석들의 이름은 이제는 가물가물해서 기억도 나질 않는다.

예님.

얼마나 기억하기에 쉽고 예쁜 이름인가.

예님은 제 이름이 아주 좋았다.

정말 정말 소중하고 행복한 이름이었다.

그런데 문득 무언가 이상했다.

어디선가 괴리감이 느껴졌다.

예님...?

그녀의 이름으로부터 느껴진 괴리감이었다.

내게 언제부터 `이름`이 있었더라?

갑자기 머릿속이 멍해졌다.

어느 한 곳이 텅 비어있었다.

'예님'

머릿속에서 누군가 그녀를 불렀다.

'예님!'

내 이름은…, 이 목소리는 뭐지…?

"예님."

커다란 온기가 머리 위로 전해졌다.

노아의 손이었다.

그의 손이 부드럽게 머리를 쓸어내렸다.

머릿속을 얼린 괴리감이 찰나의 순간처럼 흩어졌다.

예님은 멈췄던 숨을 뱉었다.

정말 이상하다.

이름이 없었던 내게 이름이라니.

하지만 이 이름의 존재가 전혀 낯설지 않은 이유는 대체...

잠에서 깨니 어린아이가 된 것부터 연옥산이 아닌 것 역시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일이 분명 있었던 거다.

"각하, 통역가를 데려왔습니다."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더니, 분홍색 머리카락을 가진 청년이 들어왔다.

생각에 잠겨있던 예님의 시선이 무심코 그에게 닿았다.

"〈예쁘다...!〉"

분홍색 머리카락 색, 분홍색 눈동자.

잘 익은 복숭아 냄새가 날 것 같았다.

걱정에 잠겨있던 표정이 어느새 반짝반짝 호기심으로 차있었다.

예님의 시선은 그를 졸졸졸 따라갔다.

청년은 방에 들어오자마자 노아와 그를 뒤따라온 노인과 함께 바삐 대화를 나누었다.

분홍색 눈동자를 자세히 보고 싶것만, 청년은 야속하게도 예님을 향해 눈길 한 번 주질 않는다.

그가 고개를 움직일 때마다 분홍색 머리칼도 사르륵 움직였다.

굉장히 부드러워 보였다.

만져보고 싶다!

예님이 침을 꿀꺽 삼켰다.

"〈어찌 저리 곱다니, 인간이 아닌 것 같구나.〉"

그녀가 중얼거리자 노인이 허허허 웃었다.

"왜 그러는가?"

"꼬마 아가씨께서 제제님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신 듯하옵니다."

제제는 시선을 기울여 침대 위에 얌전히 앉아있는 꼬마 아가씨를 보았다.

데려올 땐 몰랐는데 옅은 녹색의 눈동자 밑에 찍힌 눈물점이 있었다.

그래서인지 더 이국적이다.

아이는 누가 보아도 태지천의 사람, 동양인이었다.

아이의 눈이 새로운 장난감을 본 아이처럼 호기심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제제는 싱긋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제가 숙녀분들께 인기가 많은 외모이긴 하죠."

그의 능청스러움에 통역가 노인을 비롯한 하녀와 집사가 하하 호호 웃음을 터뜨렸다.

차분했던 방 안의 분위기가 밝아졌다.

예님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헤헤 따라 웃었다.

지금 이 순간 웃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 노아뿐이었다.

노아는 갑자기 어딘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통역가를 재촉했다.

더불어 몸을 움직이더니 예님에게 다가가는 척 제제와 예님의 사이를 가려버렸다.

제제는 노아가 언뜻 저를 째려본 것 같았지만, 착각이라고 치부해 버렸다.

이곳엔 그가 날이 설 이유가 없었다.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통역가 노인이 예님의 곁에 선 노아의 옆으로 다가왔다.

주름진 손으로 지팡이를 짚은 그녀는 새하얀 머리를 곱게 늘어뜨린 어여쁜 여자였다.

"〈안녕하십니까? 아가씨. 저는 카손입니다.〉"

"〈어머, 우리 말을 할 줄 아니? 나는 예님이란다!〉"

예님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카손의 말은 완벽한 발음으로 태지천의 언어를 구사했다.

모든 것이 낯선 와중에 반가운 만남이었다.

"〈여긴 어디니?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아니?〉"

"〈이곳은 가이아의 웰츠 제국에 있는 섬입니다.〉"

"〈에엥?〉"

태지천이 아니라 서대륙 가이아라고?

생뚱맞은 소리에 예님은 황당했다.

그녀는 가이아가 어디 있는 지도 몰랐다.

서대륙이라기에 서쪽 멀리 어딘가에나 있는 줄 알았더니, 한 숨 잠든 새에 이동해 있을 만한 곳인가 보다.

"〈바닷가에 쓰러져 있던 아가씨를 이분께서 발견해 돌봐주셨답니다. 어째서 그곳에 계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닷가…? 모르겠어. 나는 얼마 전에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연옥산에 자리를 잡았는걸? 당황스럽구나, 이게 어찌 된 영문이지?〉"

예님의 마지막 기억은 연옥산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 했던 오래된 밤나무 밑동에 앉아 풀피리를 불던 것, 그게 전부였다.

그녀는 작은 손으로 덮고 있던 이불자락을 말아 쥐었다.

젠장할.

당연하게도 그녀의 머릿속엔 스스로 바다를 헤엄쳐 온 기억 따윈 없다.

역시 그녀가 떠올리지 못하는 기억이 있었다.

"〈누군가 장난을 친 게 분명해.〉"

예님은 망연자실하게 제 작아진 몸을 살폈다.

"〈힘, 힘도 엄청나게 약해졌어.〉"

이제보니 아무리 힘을 끄집어내도 전처럼 기운이 돌지 않았다.

손끝을 맴도는 미약한 기운에 입술을 깨물었다.

약해져도 너무 약해진 힘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예님은 머릿속으로 제게 장난을 칠법한 존재들을 생각해봤다.

이가 으드득 갈렸다.

어떤 개자식들이란 말인가!

용의자들은 많았다.

거울 도깨비, 숟가락 도깨비, 문지방 도깨비, 나무 피리 도깨비, 감투 도깨비, 막걸리 도깨비 또 누가 있더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녀보다 하등 못난 도깨비들밖에 없었다.

그것들이 친 장난이라면 예님이 눈치채지 못했을 리가.

그렇다면 대체 누가 내게 이런 짓을 했단 말이지?

한편, 예님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단 소식을 카손에게 전해 듣던 노아와 제제는 희미하게 퍼진 어떤 기운을 느꼈다.

마나와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다른 느낌.

이 공간에서 마나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노아와 제재... 그리고...?

아이의 서글픈 시선이 노아에게 닿았다.

저 아이?

"〈흐엉, 장독대에 잔뜩 담가놓은 내 술들 아까워서 어쩌지...?〉"

연옥산 신령님이 내 술독을 탐내더니 결국 이런 짓궂은 짓을 하셨나?

평소에도 하루가 멀다하고 찾아와 한잔만 달라고 행패를 부리는 고약한 자였다.

예님은 지금쯤 다 털렸을 장독대를 생각하며 울상을 지었다.

"〈내 술들아 잘가렴...〉"

"왜 그러지?"

"그게..."

카손이 대답을 망설였다.

노아는 아이가 기억을 잃은 탓에 엄청난 슬픔에 잠겼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카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이 말을 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예님."

그는 넋이 나간 예님의 곁에 앉았다.

그리고 시선을 맞췄다.

그렁그렁한 눈이 노아를 마음에 파고들었다.

마음 한구석에 대낮의 귀뚜라미가 있는 것처럼 찌르르 울렸다.

카손이 전한 바로는 기억을 잃은 듯한데 참 딱한 처지였다.

예님이 무어라 웅얼거렸다.

"〈얘, 노아.〉"

"?"

"〈여기 술은 맛있다니?〉"

노아가 통역하라는 듯 카손에게 고개를 돌렸다.

어린아이 입에서 술이라니.

카손은 이마를 짚었다.

그녀는 제가 알고 있는 술의 의미를 의심해야 했다.

비유적인 표현인가?

제가 모르는 비슷한 발음의 이름을 가진 음식이 있었던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모든 추측을 향한 답은 없었다.

지금 이 아이가 다른 이유도 아니고 술 때문에 울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도 되는 걸까?

진땀이 났다.

아까는 정말 충격적이었다, 고 제제는 생각했다.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를 아이에게 노심초사하며 이것저것 해주지 못해 안달인 모습이라니.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 방을 나오며 스스로의 볼을 찰싹 때렸을 정도로 말도 안되는 장면이었다.

가족 없음, 기억 없음, 말은 안 통함.

태지천의 사람이란 점만 특이하지 예님은 거리에 널린 고아와 다를 것 없었다.

동정이 헤픈 편도 아니었다.

수입이 많으니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기부하는 것이 전부였을 뿐.

과연 아이의 어떤 점이 노아의 관심을 이끌었던 걸까?

제제는 도통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다.

본인 가족에게조차 무심한 사람이 아니던가!

그런데 이렇게...

“오늘 저녁은 자극적이지 않고 속에 부담이 가지 않을 것들로 준비하라 하고 내일 해가 밝자마자 육지에서 디자이너를 데려와 입을만한 옷을 맞춰주도록 해라. 그리고 카손에겐 넉넉한 급여를 주고, 당분간은 예님 옆에서 생활을 도울 수 있도록 일정을 전부 취소하라 전하도록.”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모습은 뭐지?!

“예? 카손은 대륙 유일의 태지천어 통역가입니다. 그녀가 없으면 항구는 난리가 날것입니다!”

“황실에서 지원해 키우는 제자들이 있다 하지 않았나? 이참에 실력을 발휘해 볼 수 있겠군.”

노아는 계산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와 칼 같은 결정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건 아니지!

같은 편에 선 모두에게 가치 있는 이익이 돌아오게 하는 그의 결정은 언제나 옳았지만, 그 결정이 드물게 잘못되는 날도 있나보다.

지금은 누가 봐도 말이 안되잖아?

상사의 잘못된 행동은 부하가 말려야 한다.

예님, 그 아이를 위해 카손을 잡아둘 수도 없었고 의미 없이 돈과 인력을 낭비할 수도 없었다.

지금까지도 충분히 낭비했다.

다시 말하지만, 제제가 본 예님은 어느 쪽으로든 의미 없는 평범한 꼬마였다.

평소 같았다면 진작에 연고가 없단 걸 확인한 직후 보육원이나 신전으로 보냈을 거다.

뭐 조금 더 선심을 썼다면 태지천으로 보내주던가, 사용인으로 고용했던가.

그는 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상사의 알 수 없는 마음을 한 번 떠보기로 했다.

“아이가 머물만한 곳을 알아볼까요? 보육원이라던가 신전이라던가 아, 마력이 조금 있는 것 같으니 마탑에서도 받아줄 것 같습니다만? 태지천에 돌려보내실 거라면 무역선의 일정도 알아…,“

“제제.”

그를 향한 시선이 아주 살벌한 게, 당장에라도 손에 든 만년필을 냅다 던질 것 같았다.

제제는 침을 꿀꺽 삼켰다.

“시키지 않은 건 하지 않는 게 좋겠군.”

이것 봐봐.

공작이 하루아침 만에 잘 익은 감처럼 물러졌다니까?

“그럼... 계속 데리고 있을 생각이십니까?”

“당분간은.”

제국 안팎으로 얼음보다 시린 남자, 냉혈한이라고 소문난 사람이다.

그의 곁에 머물러본 결과 소문만큼 냉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꼬마 하나에 마음을 뺏길 만한 인물도 아니었다.

왜냐면 어린애는 제 조카들만으로도 과분해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무리 사람 일은 모른대도 그렇지 일 외에는 사람을 대할 줄도 모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정해질 수가 있나?

아니면 노아의 취향이 동양인이었던 건?

헉, 그래서 제국 여자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던 건가?

설마 어린아이가 취향인 파렴치한은 아니겠지??

별의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리고 그 물음이 혀끝까지 다다랐을 때, 제재는 한 번 더 노아를 떠보기로 했다.

“흐음, 예님 그 아이 참 귀엽긴 했죠. 동양적인 매력이 묘하달까요? 조금만 더 크면 인기도 많을 것 같고… 이래서 암시장에 동야ㅇ...”

“제제 오늘따라 같잖은 말을 많이 하는군. 그동안 내가 참 편하게 해줘서 이젠 친구 같아졌나? 입에서 나온 게 쓰레긴 인지 말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 너를 갖다 버려야 하는가 심히 고민이 될 정도야.”

죽고 싶나?

딱 그렇게 말하고 있는 눈빛이 아주 살벌하다.

직접적인 말만 안 했지 한 번 더 노아를 떠봤다간 직장에서 잘리고 목까지 잘릴 판이었다.

깐죽거릴 건 다 깐죽인 제제는 과장되게 겁먹은 척 가슴을 쓸어 내리고 어깨를 움츠렸다.

“죄송합니다. 닥치고 있겠습니다.”

“그래, 얘기를 꺼낸 김에 네가 암시장을 조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군. 아무래도 예님이 했던 말들이 걸리거든.”

암시자앙?

파내도 파내도 끝 없는 정보의 파도가 몰려오는 암시장을?

펜을 쥐고 턱을 괸 상사의 얼굴에 조소가 띄어져 있었다.

제제가 건방지게 굴었다고 벌을 주는게 분명했다.

“하아… 일이 또 늘었다...”

암시장이라니, 골치 아픈데 이거..

노아가 우려한 부분은 예님이 살았단 곳이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란 점일 테다.

산속에 살고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 바닷가였다, 란 증언 역시 납치일 가능성이 농후했다.

예님을 살핀 의사의 말로는 수면제나 마취의 약물 흔적은 없다고 했으니 마법일 가능성도 있었다.

태지천에서 가이아까지 어떻게 옮겼는 지가 문제지만, 마법이란 건 워낙 무궁무진하니까.

“연옥산이란 곳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것 잊지 말고.”

“네, 각하.”

“그 힘, 너도 느꼈다시피... 그냥 아이는 아니다."

당신의 얼음 같은 마음을 녹였으니 평범한 애는 아니죠.

그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으나 제제는 목이 잘리지 않기 위해 입을 꾹 다물어야 했다.

“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거다.”

노아가 한 말의 의미는 잘 알았다.

예님의 방에 퍼졌던 낯선 기운은 미미했지만 소드 마스터와 마검사인 두 사람이 느끼기엔 충분했다.

제제는 노아를 떠보기 위해 마력을 가진 듯하다고 표현했지만 사실 예님의 힘은 마력보단 신력에 가깝고, 신력보단 마력의 본질에 가까운 희한한 힘이었다.

그 의미는 즉, 동양 고유의 힘이라는 것.

어쩌면 노아가 신경을 쓰는 이유가 이 힘 때문일 지도 모른다.

가이아엔 아주 오래 전부터 우주의 근원에 관해 연구를 하는 대규모의 학계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에겐 모든 연구의 뿌리가 된 한가지 가정이 있었다.

'태초에는 신이 내린 힘과 자연이 주는 힘만이 존재한다'

신력과 마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학자들과 가이아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더이상 '가정'이 아니었다.

가이아의 모든 사람들이 맹신한 '정의'였다.

세상의 섭리를 찾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정의.

사람들은 이상적인 정의와 함께 우주의 섭리를 깨우칠 수 있다 굳게 믿었다.

그러나, 정의는 완벽하지 못했다.

거짓이었다.

동대륙의 존재가 밝혀지고, 또 다른 인류의 등장과 함께 그들의 우주는 무너졌다.

세상엔 마법과 신력 말고도 특별한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리고 분노했다.

동양의 힘은 악마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어지럽힐 것이 분명하다!

완벽했던 정의의 오류를 받아들일 수 없던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것 이외의 것을 모두 배척했다.

당시 정의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빅블루 해양을 횡단해 태지천을 다녀온 사람들은 또다른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지고도 그들의 주장에 맞서 싸우다 결국 백기를 들어야 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학계 파는 가이아가 힘을 합쳐 태지천이란 악의 무리를 해치우자며 전쟁을 일으키고자 했다.

당시의 황제가 나서서 제압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평화는 어떻게 됐을지 몰랐다.

그 사건이 있고 난 뒤, 가이아의 삼국은 동양의 힘에 대해 언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100년이 지난 현재, 학계는 언제 그랬냐는 듯 태지천은 존재하지 않는 것 마냥 그들이 원하는 연구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다.

지금도 빅블루 쪽의 해안 도시들을 벗어나 내륙으로 깊어지면, 학계의 주장을 두둔하여 태지천의 문화를 배척하는 경향이 강했다.

노아 몽블라체는 그 점을 염두하고 있을 지도.

동양의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밖을 빨빨 거리며 돌아다녔다간 그냥 무사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몽블라체가 동양 아이를 싸고돈다는 소문이 나면 반태지천파의 사람들이 참견해 올 것은 분명했다.

불난 데 부채질이라고, 예님이 동양의 힘을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좋을 것 없겠지.

그들이 느꼈던 것은 보잘것없이 약하고 티도 안 나는 힘이었지만, 그렇다고 방심할 순 없었다.

암만 그래도 예님을 보는 노아의 시선은 여간 평범하지 않았다.

지금껏 봐왔던 노아의 눈빛하곤 사뭇 달랐으니까.

제제는 생각에 잠긴 노아를 곁눈질 하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떠보기로 아니, 대놓고 물어보기로 했다.

“그래서 예님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드셨습니까?”

“나가.”

“넵.”

제제는 제 상사가 누군가를 따뜻하고 다정한 마음으로 신경 쓰고 있다는 점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게 사실이라면 당장에라도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져 세상이 불바다가 되어버릴 것 같았다.

사실은 사실이었지만...

“사실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 정말 징그럽다고!”

피도 눈물도 없는 철혈 공작 노아 몽블라체는 어디로?

“〈아이들이 바닷물에 젖은 것을 빨아놨답니다.〉”

“〈어머나, 고마워!〉”

예님은 하녀들이 건네준 눈꽃 저고리와 남색 비단 치마에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치마에 걸려 있던 빨간 복주머니도 그대로였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다행이구나.〉”

예님은 복주머니를 소중하게 끌어안았다.

이것이라도 있어 안심이다.

남들이 보기엔 아이 손바닥보다 작고 들은 것도 없는 텅 빈 주머니였지만 예님에겐 전 재산이었다.

어떻게 이 가벼고 조그만 주머니가 전 재산이 되냐고 불쌍하게 여긴다면 큰 오해다.

빨간 주머니는 보통 주머니가 아니었다.

이것의 주인인 예님이 입구를 풀면 보물이 끝도 없이 쏟아지는 요술 주머니였다.

요술 주머니 속에는 그녀가 일평생 모아온 보물들이 수두룩했다.

“〈예님 양, 저녁 식사에 가시기 전에 잠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아아, 이것은 잠옷이구나. 내 어서 옷을 갈아입으마.〉”

예님은 곱게 접혀있던 저고리와 치마를 펼치려고 했다.

그런데 카손이 예님의 손을 잡아 멈췄다.

“〈그 옷은 두시고 오늘은 이 드레스를 입어주세요, 공작님께서 선물하신 옷이랍니다.〉”

“〈선무울?〉”

하녀들이 내보인 것은 햇빛을 잘 받은 나뭇잎 색깔을 머금은 색을 자랑하는 한 벌 치마였다.

태지천에서 입는 것과는 달리 상의는 늘씬하게 허리에서 선이 잡히고 하의는 풍성하게 퍼진 모양하고 있어 신선한 느낌이 들었다.

목 뒷덜미며 치마 군데군데에 긴 천 자락이 나비처럼 묶인 희한한 장식도 많이 보였다.

하녀들은 예님이 옷을 벗고 드레스로 환복하는 과정을 도와줬다.

드레스는 보기보다 불편하고 갑갑했는데 하녀들이 아니었다면 절대 예님 혼자 입을 수 없었을 것 같았다.

“〈요게 뭐지?〉”

“〈리본이랍니다. 또 이것은 레이스라고 하지요.〉”

“〈으음, 이렇게 목에 리본이란 걸 묶는 것은 우리도 한다만... 사람이 아니라 집고양이한테 해준단다. 내가 마치 고양이가 된 것 같구나.〉”

“〈어머나, 귀엽군요. 지금 가이아에선 목에 리본으로 포인트를 주는 패션이 예님 양 또래 아가씨들 사이에서 큰 유행이랍니다.〉”

목에 둘러진 리본은 꽤 답답해서 이곳 사람들이 평소에도 이런 옷을 입고 생활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원수를 진 사람이 있다면 조심해야겠는 걸? 눈깜짝할 새에 목을 졸라 죽이기 딱이잖니.〉”

“〈...예님 양...〉”

“〈저, 카손... 웃자고한 얘기에 심각한 표정을 보일 건 없단다…?〉”

“〈고운 말 고운 생각을 하셔야 아름다운 어른으로 자랄 수 있답니다.〉”

아까부터 사람들이 저를 어린이 취급을 하고 있음을 느꼈지만, 셀 수 없는 세월을 살아온 예님은 그것을 반박하는 것이 제겐 더 손해라는 것을 알았다.

인간들은 보이는 것에 약하니 어린아이의 몸으로 어른이라고 우겨봤자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낮에도 그랬지 않았는가.

예님은 이미 제가 어린이가 아니라는 것을 밝힌 바 있으나 농담을 취급하는 통에 삐쳐있었다.

이 상황에서 다시 제 나이를 밝혀 봤자 어린아이가 거짓말을 우기는 꼴이 될 것이었다.

예님이 연옥산에 두고온 술을 그리워하고 있을 때 카손이 물어왔다.

‘〈태지천에서는 어린아이도 술을 마시게 하나요?〉’

‘〈그럴리가! 어린애는 술맛을 모른단다.〉’

‘〈그럼 예님 양은 어떻게 술을...?〉’

‘〈나는 어린아이가 아니니 마실 수 있지! 당연한 것 아니겠니?〉’

‘〈예님 양... 예님 양은 생각이 성숙한다지만 몸은 아직 어리답니다. 가이아에선 어린이에게 절대 술을 주지 않습니다. 예님 양, 그 술이란 것에 제가 모르는 뜻이 있는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술이란 단어 입에도 올리지 마세요. 어린이에겐 나쁜 것이랍니다. 알겠죠?〉’

아무리 설명해도 풀리지 않는 오해에 힘이 빠졌다.

졸지에 금주를 하게 생긴 예님이었다.

슬픈 생각은 접어 두자.

예님은 드레스를 입은 제가 보이는 거울을 보며 한 바퀴 뱅그르르 돌았다.

"〈노아는 참 착하구나? 이렇게 예쁜 드레스도 선물로 준다 하고, 덕분에 이곳의 격식에 맞는 옷을 따로 찾을 수고를 덜었어. 앞으론 원래 입던 이 옷하고 요 드레스란 것을 번갈아가며 입으면 되겠구나.〉"

예님은 주로 선녀들이 선물로 주는 옷을 입어 왔다.

때가 타지도 낡지도 않은 천계의 비단으로 만든 옷은 다음 옷이 생길 때까지 몇십 년을 입어도 문제없이 아름다웠다.

그러니 굳이 옷을 여러 벌 가지고 있을 생각은 안 하고 살아왔다.

하지만 이곳에선 모두가 이런 옷을 입고 있었으니, 한 벌 정돈 더 있어야 할 것 같았다.

언제 다시 태지천으로 돌아갈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이곳에 머물려면 어울릴 수 있는 옷이 필요했다.

예쁜 것을 좋아하는 예님에겐 예쁜 새 옷이 생긴다는 건 즐거운 일이었다.

노아, 그 아이에게 후하게 보답해야지!

"〈지금 이 옷은 예님 양의 몸에 맞는 수치로 급하게 구해온 것이랍니다. 오늘 중으로 재단사가 방문하기로 했으니, 내일이면 다른 옷도 생기실 겁니다. 원하시는 취향이나 디자인이 있으시면 뭐든 만들어 줄 거예요.〉"

카손이 옷 시중을 들어주던 하녀들의 말을 통역하자 예님은 깜짝 놀랐다.

“〈옷은 한 벌이면 충분하단다!〉”

예님의 태도에 카손도 덩달아 놀랐다.

이 아이, 겸손하고 현명했다.

말투나 행동에서 느껴진 아이는 귀족가 여식처럼 모든 사람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아랫사람 대하듯 했다.

그래서 그녀는 예님이 모자랄 것 없이 자란 황족이나 왕족의 사람이 아닐까 추측을 하기도 했는데, 어쩌면 정말 맞을지도 모르겠다.

아주 작은 어린 아이지만,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

또래의 여느 아이들이라면 대다수가 공작의 호의를 마다치 않고 드레스를 받았겠지.

상위층의 사람들은 풍족함을 당연하게 여겼다.

품위를 위해선 가능한 한 번 입은 옷도 다시 입는 것을 꺼렸으며, 이는 태지천에서조차 마찬가지라고 배웠다.

다 큰 어른도 당연시 했을 법한 배려를 단순히 여겨 넘기지 않았다.

자신의 처지를 고려하여 상황을 판단할 줄 안다라는 건, 엄격한 집안에서 탄탄한 교육을 받았다는 증거였다.

그렇다면 혹시…!

카손의 머릿속에 책 한 권이 촤르르륵 넘어갔다.

한창 태지천어를 공부할 때 즐겁게 읽었던 온갖 소설들이 뒤섞여 상상의 나래가 펼쳐졌다.

이 아이, 역모를 당한 가문의 여식일 지도 모른다.

암살자들에게 쫓기고 쫓기다가 겨우 살아남은 비련의 서사를 가진 주인공처럼!

세상에...!

카손의 시선이 어쩐지 그렁그렁 흔들리고 있었다.

왜 그러지?

예님이 갸웃 고개를 기울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태지천에서 넘어온 온갖 이야기들이 또 하나의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있단 것을 알 리가 없었다.

머리카락을 빗겨주던 하녀의 손길이 끝났다.

예님은 손에 쥐고 있던 복주머니를 드레스의 허리춤에 있는 작은 리본에 매달고 싶었다.

그런데 영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모양새가 안 난다.

“〈이걸 어찌 한담. 잃어버리지 않게 꼭 몸에 쥐고 있어야 하는데.〉”

"저 작은 물건을 몸에 지니고 있고 싶다 하시는 구나."

카손이 쭉 지켜본 예님은 혼잣말을 잘 하는 편이었다.

물론 그 혼잣말을 모두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렇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때 자연스럽게 예님과 주변을 이어줄 수 있도록 통역을 해주곤 했다.

통역자로서의 오랜 경력에서 나온 기지였다.

카손이 전한 예님의 고민에 하녀들이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한 하녀가 살포시 웃으며 옷핀을 내밀었다.

“이걸 이용해보세요.”

“〈이게 무엇이니?〉”

하녀는 옷핀을 물그러미 호기심 가득하게 바라보는 예님을 대신해 복주머니를 받아들어 가볍게 손을 움직였다.

“〈오호라!〉”

복주머니가 만족스럽게 드레스의 허리춤에서 달랑거렸다.

“〈고맙구나! 덕분에 아주 만족스러워졌어!〉”

그녀가 기뻐서 펄쩍펄쩍 뛰자 복주머니도 함께 흔들렸다.

녹색 드레스에 빨간 장식이라.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지만 그 엉뚱함이 참 순수하게 느껴져 어여뻐 보였다.

카손과 하녀들은 예님의 깜찍함에 새어 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집사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곳은 높은 천장에 눈이 부신 보석들이 떨어질 듯 아찔하게 달린 공간이었다.

〈“카손, 저게 뭐니?〉”

“〈샹들리에입니다.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나오지요.〉”

“〈신기하구나!〉”

예님은 멍하니 그것을 올려보다가 후각을 자극하는 맛있는 음식 냄새에 정신을 차렸다.

직사각형의 밥상 앞엔 노아와 제제가 먼저와 앉아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구나! 미안, 미안 여기까지 오는 길에 신기한 것이 얼마나 많던지, 구경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단다.〉”

집사를 따라오면서도 세 발짝에 한 번씩 보이는 신기한 건축 양식, 장식품들에 정신이 팔려 멈춰 섰던 그녀였다.

밖에 나가보지도 않고 고작 실내에서 하루 지내고 있을 뿐인데 처음 보는 것 천지였다.

예님은 하녀가 빼준 의자에 자연스럽게 앉았다, 아니, 앉으려고 했다.

풉 큽...

맞은 편에서 애써 웃음을 참는 소리가 들렸다.

“〈상이... 너무 높구나... 으음, 그래 뭐... 내 작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마가 상에 딱 닿는 아담한 앉은 키에 예님은 머쓱하게 중얼거렸다.

“〈제제는 웃음이 참 많네.〉”

하녀가 급하게 갖다 준 방석을 깔고 앉으니 그제야 밥상 구경을 할 수 있게 됐다.

예님은 눈이 마주친 제제가 괜히 얄미워 보이는 밉지 않게 쓱 흘겼다.

“〈흥.〉”

제제는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예님은 식탁을 쓱 둘러보았다.

난감함의 연속이었다.

밥상에 젓가락이 없었다!

뭔 수저가 이렇게 많고 이 불쏘시개 같은 건 뭐람?

이 칼들은 어디다 쓰라고 있는 거지?!

생전 처음 보는 식기만 가득했다.

그전에, 이거 식기가 맞는 거니?

“들도록 하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식사가 시작됐다.

예님의 왼편에는 노아가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제제가, 오른편에는 카손이 함께 있었다.

다들 행동이 자연스러운 것을 보니 이것이 가이아의 기본적인 상차림인듯했다.

하는 수 없지.

그녀는 가장 가깝고 보기 쉬운 곳에 있는 노아를 곁눈질 했다.

대지천은 대륙 자체가 하나의 통일된 나라였지만 땅덩어리가 넓어 다양한 문화가 존재했다.

사람들 틈에 자연스럽게 섞이기 위해선 그들의 문화를 알아야했다.

예님은 오랜 세월을 떠돌며 문화의 차이를 중요성을 깨달았고 어디를 가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는 태도를 보였다.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서양의 문화가 색다르긴 하지만 눈치껏 행동할 수 있었다.

이쯤이야!

노아는 식기를 들기 전에 앞에 놓인 괴상하게 생긴 유리잔을 집어 붉은 음료로 입을 축였다.

그런데 첫판부터 난처하다.

괴상하게 생긴 유리잔은 예님의 앞에 없는 것이었다.

제제와 카손의 앞에는 있지만 예님의 앞에는 없었다.

왜? 왜 다 있는데 나만 없어?

당황하는 것도 잠시, 그녀의 앞에는 붉은 액체 대신 노란 빛깔의 음료가 든 작은 유리잔이 있단 걸 알아차렸다.

어째서 예님의 것만 다른지 몰랐으나 급한 대로 노란 음료를 들어 조심스럽게 맛을 봤다.

“〈아으, 셔.〉”

덜 익은 귤 맛이 나는 주스였다.

신맛이 입맛을 돋구긴 했지만 다신 먹고 싶지 않았다.

다음은 하얀 죽 같은 요리였다.

노아는 가장 겉에 있는 숟가락을 들어 죽을 떠먹었다.

안쪽에서 바깥으로, 안쪽에서 바깥으로.

방향도 유심히 살폈다.

그의 손동작 하나하나는 악단을 지휘하는 자의 것보다 부드럽고 우아해 보여 따라 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여야 했다.

이 죽은 예님이 일어나서 간단하게 먹었던 것과 비슷했다.

속이 편안해지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이었다.

그런데 이 음식 하나로 저녁 식사가 끝나는 건 아니겠지?

배에 기별도 안 가는 요리에 풀이 죽은 그녀였다.

맛은 있으니 천천히 아껴 먹어야겠다.

어라?

맞은편의 제제가 죽을 다 먹자 하녀가 새로운 음식을 가져와 그릇을 바꿔준다.

다른 요리가 있구나!

채소와 함께 볶은 고기 같았다.

고기라니!

예님은 재빨리 숟가락을 내려놓고 다음 음식을 기다렸다.

그녀의 입꼬리가 실룩거렸다.

노아는 예님을 기특하게 바라봤다.

그는 그녀 모르게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닌척 노아를 관찰하며 따라하는 것까지 전부.

예님의 갓 따온 오렌지를 갈아 만든 순도 100% 주스를 마시고 얼굴을 찌푸리는 것도,

값비싼 비료를 주고 키운 채소들로 만든 브로콜리 수프를 노아를 따라 우아하게 먹으려고 애를 쓰는 것도 전부 말이다.

아이가 식사 예절을 지키리라곤 기대하지 않았다.

허나, 그녀는 그럴싸하게 가이아의 예절을 따라해냈다.

뛰어난 관찰력과 눈치 빠른 행동력이었다.

노아가 지금처럼 식기를 내려놓고 와인을 들고 있으면 눈을 또르륵 굴리더니, 스테이크를 썰고 있는 제제를 보며 칼질을 하는 법을 그럴듯하게 따라해냈다.

희한하군.

어린애들은 조카들처럼 떼만 쓰는 줄 알았던 노아였다.

양볼 가득 고기를 우물 거리는 얼굴이 사랑스러웠다.

노아는 예님의 앞으로 제 몫의 스테이크를 넘겼다.

누군가에게서 들었던 '보는 것만으로도 배부르다'가 어떤 기분인지 알것 같았다.

잠옷으로 환복을 하고 나서야 예님은 혼자가 됐다.

도란도란한 했던 방안이 고요해졌다.

누군가 몸을 씻겨주고 옷을 입혀주는 것은 참으로 어색했지만 저를 신경 써주는 아이들의 선한 마음이 느껴져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었다.

정신없이 지나간 하루였다.

아직도 서대륙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매분 매초 느끼고 있었지만, 가이아에서의 모든 것이 새로웠다.

입는 옷, 먹는 밥, 생활하는 공간, 사용하는 가구...

무엇보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니 앞으로가 걱정이 됐다.

사람들 앞에서 태연한 척 굴어도 예님은 마음이 있는 존재였다.

괜찮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걱정이 태산이었다.

언제까지고 이 집에 빌붙어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깨어나기 전부터 이미 일주일을 신세 졌다고 하니, 빚을 꽤 진 셈이었다.

조만간 나가는 것이 도리에 맞았다.

집을 나가면 유일하게 말이 통했던 카손도 볼 수 없겠지.

가이아와 태지천의 교류가 그리 큰 편은 아니었다.

카손처럼 대화가 통하는 자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어딜 가도 말이 안 통하는 벙어리가 되는 것은 부지기수일 테다.

그렇다면 나가기 전에 간단하게 필요한 말이라도 배워 놔야겠다.

이곳의 화폐 단위도 알아놔야 하고, 기본적인 문화와 상식도 필요하겠지?

발길 닿는 곳으로 간다면 지도는 딱히 필요하진 않을 것 같고...

보자, 또 뭐가 있을까.

생각의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아이고, 머리야.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 막막하구나!〉"

차가운 대리석 방바닥에 앉아 땅을 광광 치던 예님이 발라당 누워 카펫 위로 굴러갔다.

하루아침에 이런 꼴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

내게 이런 짓을 한 녀석, 두고 봐라.

내 크게 벌을 줄테야.

으득, 예님이 화를 내며 이를 갈았다.

평소엔 한없이 순하다가도 화가 나면 밑도 끝도 없는 게 예님이었다.

그나저나 노아에게 보답할 것이 필요했다.

떠나기 전엔 뭐라도 해줘야할텐데, 괜찮은 보답을 해줄 수 있을까 모르겠다.

"〈힘이 없으니 영 시원치 않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약했던 적이 없었다.

어떤 도깨비나 요물들을 만나도 예님이 가장 뛰어났고, 모두 예님의 앞에서만큼은 건방지게 굴지 못했다.

태지천에 사는 요물들은 예님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다.

그런데 지금은?

볼품없는 신세였다.

이 힘으로는 어떤 소박한 소원도 들어줄 수 없을 거다.

끽해야 기분 좋은 꿈을 꾸게 해주는 것 정도?

"〈저 침대란 것에서 자면 악몽은 절대 안 꿀 것 같은데? 구름 위에 누워 있는 기분이란 말이지.〉"

침대는 선녀들과 어울릴 때 몇 번 타봤던 구름이랑 견주어도 밀리지 않을 것 같았다.

어떤 천재가 침대를 발명했는지는 몰라도 가이아의 사람들은 복 받았다.

잠도 신선처럼 자게 해준 은인이니, 정 줄 것이 없으면 복주머니에 있는 어떤 희귀한 보물이라도 마다치 않고 꺼내주기로 했다.

보물들 모두 어떤 금은보화보다 진귀해 예님이 힘들게 모은 것들로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었다.

예님은 카펫에 나뒹굴다 등이 배겨 푹신한 구름 침대 위로 장소를 바꿨다.

문제가 하나 정리되니 다음 문제가 또 등장한다.

"〈예님... 예님이라... 내게 언제 이름이 생겼던 거지?〉"

이름에 대해 생각하면 머릿속 한편이 뻥 뚫린 공간을 만들어냈다.

잃어버린 기억이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하룻밤 만에 연옥산에서 바다를 건너 서쪽의 땅까지 오게 된 것엔 이유가 있을 테다.

이 과정엔 숨겨진 공백이 있었다.

공백을 찾는다면 이 모든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확실하진 않지만 확신할 수밖에 없다.

너무 깔끔하게 지워진 기억이지만, 커다란 오점이 있기 때문이다.

`예님.`

누가 그녀게 이름을 지어줬단 말인가?

이름에 대해 이상하게 여기지 못했다면, 기억이 없어졌는 줄도 모를 뻔했다.

이름에 관한 기억을 찾는다면 이 모든 원인을 알 수 있겠지.

예님은 오랜 세월 동안 이름 없이 살아왔다.

사람들이 그녀를 부르는 호칭은 수없이 다양했다.

묘령의 여인, 초록 눈의 계집, 떠돌이 처녀, 마음씨 넓은 선녀님, 없는 병도 낫게 해주시는 신선님, 대단하신 신령님, 사람 잡아먹는 괴물, 사람 홀리는 요물, 한이 맺힌 귀신 등...

마음 가는 데로 살아온 이야기가 담긴 제목들이었다.

그중에서도 그녀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것을 뽑자면, 유명한 구전 이야기이기도 한 `옥비녀 도깨비`가 있었다.

옥비녀 도깨비 이야기는 실제 예님이 퍼뜨린 것이기도 했다.

어느 곳을 가던 아이들과 어울리기 위해선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쯤은 필수 지참이었기에.

어린이들은 줄곧 재밌는 이야기 해주세요! 하며 모여들곤 했으니까.

그래서 예님은 함께 놀아줘서 고맙단 의미로 기억 속 한 조각을 꺼내 이야기를 들려줬다.

아주먼 옛날 기억을 떠올리며... 옥비녀 도깨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갓 세상에 나왔을 때 도깨비가 뭔지도 몰랐다.

그저 예님은 자유로운 몸이 즐거워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가장 재밌는 것은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일이었다.

우연히 들렸던 사원에서 먹을 것이나 소중한 것을 바치고 기도를 하고 있던 사람들의 소원을 하나씩 이뤄주던 것이 시작이었다.

예님은 대가를 받으면 소원을 들어줬다.

마음이 갈 때는 대가 없이도 소원을 이뤄줬다.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사랑스러웠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이 그녀를 도깨비라고 부르더라.

도깨비님, 도깨비님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도깨비님, 도깨비님 노래를 불러드릴 테니 금은보화를 주십시오!

도깨비님, 도깨비님 제 아들의 병 좀 낫게 해주세요!

도깨비님, 도깨비님...

간혹가다 크게 감동을 한 사람들은 마음 넓은 선녀님, 대단하신 신령님이라고 불렀다.

세상에는 그녀를 칭하는 말이 너무나도 많았다.

이름이 없는 그녀에겐 호칭이 이름이 되었기에, 무엇이라 불리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였다.

예님은 자신이 뭐라 불리든 상관없었다.

내가 즐겁고 그들이 행복하면 그만이었다.

그녀는 사람을 사랑하고 아꼈다.

그래서 그들이 불러주는 말이 무엇이든 좋았다.

예님과 친한 선녀들은 그녀를 인간 수호신이라 불렀다.

그것도 맞는 말이다.

어떻게 따져보면, 예님의 탄생은 도깨비의 것과 흡사했으나, 삶을 보았을 땐 수호신이 적합했다.

어떨 때는 도깨비처럼 장난스런 마음으로, 어떨 때는 수호신처럼 인자한 마음으로 인간의 곁에 머물렀다.

이름 하나 없었어도 즐거웠다.

이곳저곳 떠돌며 자유롭게 살아온 그녀에게 그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어떤 것이든 그녀를 가리킨다면 그게 이름이라고 생각했다.

그래,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스스로를 '예님'이란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었다.

누가 지어준 이름일까?

몇 번을 곱씹어 보아도 그 어떤 호칭보다 마음에 든다.

이렇게나 기분 좋은 이름인데...

머리를 싸매고 끙끙 거려보아도 알 수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

"〈예님...〉"

이름이란 거... 사실 한 번 쯤은 갖고 싶었다.

다만, 어떻게 지어야 좋은 이름이 될 지 몰라서, 어울리는 이름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용기가 안났다.

이 이름은 어떤 의미일까?

눈이 스르륵 감긴다.

예님은 다시 한 번 더 제 이름을 중얼 거렸다.

정말 좋은 어감이야...

발음 할 때마다 마음이 간질 거려...

예님이 구름과 함께 깊은 잠으로 빠져들었다.

"〈예님, 아침이랍니다.〉"

깨움과 동시에 눈을 번쩍 뜨고 벌떡 일어난다.

"〈카손! 가이아의 언어를 알려줘!〉”

일어나자마자 하는 말이 생뚱맞다.

카손은 눈곱을 달고도 자기주장이 강한 녹색 눈동자에 당황했다.

"〈네, 알려드리는 건 어렵지 않답니다. 우선은 세수부터 하시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래! 맞는 말이야.〉"

예님은 벗어나기 싫었지만 눈을 꼭 감고 구름 침대에서 펄쩍 뛰어내려야했다.

카손은 욕실로 달려가는 예님을 보며 호호 웃었다.

아침부터 활기가 넘치시네.

엊그제 밤까지만 해도 정신을 잃고 계셨던 아이가 맞나 싶었다.

에스티엘라 성은 따스한 아침 햇살로 가득했다.

예님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복도를 걸었다.

노아가 또 새 드레스를 줬다.

한 벌만으로도 거뜬하다고 그렇게 사양 했건만!

장밋빛 천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일단 입긴 했지만, 이렇게 받기만 하기엔 양심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

오늘 아침 식사에선 도와주어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갖고 싶은 게 있느냐고 물어볼 예정이었다.

식당으로 가는 길목에서 예님과 제제가 마주쳤다.

어제와 다름없이 기분 좋은 분홍빛 기운을 지닌 제제였다.

그런데 어딘가 안색이 안 좋아 보였다.

"〈안녕?〉"

"잘 잤어요, 꼬마 아가씨?"

카손이 두 사람의 말을 통역했다.

그녀의 능숙한 통역 솜씨는 두 사람의 대화를 전혀 어색하지 않게 이어주었다.

"〈구름 침대 덕분에 꿀잠 잤단다. 제제는 눈이 퀭하구나. 악몽을 꾼 거야?〉"

“보이는 것은 이래도 기분만큼은 최고랍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휴가거든요."

제제는 휴가를 간답시고 무리하게 일을 처리하느라 밤을 새고 말았다.

눈 밑의 자욱한 그림자가 생기긴 했지만 오늘부터 시작하는 휴가에 방해받지 않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몽베르 섬까지 왔는데 일만하다 돌아갈 순 없었다.

남들 하는 건 다 즐기고 갈 생각이었다.

제제는 들뜬 얼굴로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휴가라, 굉장히 신나 보이네.〉"

"그럼요. 예님 양, 이 성의 모든 곳이 제 일터랍니다. 휴가에도 벗어나지 못한다면 정말 끔찍할 겁니다.”

그리 좋은지 베실베실 웃고 있는 제제를 올려다보며 예님도 씩 웃었다.

"〈좋으면 됐지!〉”

바깥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나뭇잎들이 바스락 부딪히는 소리를 냈다.

봄비가 오겠구나.

예님은 바람과 함께 볼을 간지럽히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저녁에 비가 올 것 같으니 젖지 않게 조심하고.〉"

"하늘이 저리 맑은데, 비가 온답니까?"

"〈날씨란 게 어딜 가도 변덕이 심하기 마련이지 않니?〉"

싱긋 웃는 예님의 미소에 제제는 기둥 사이로 보이는 몽베르의 티 없이 맑은 하늘을 올려봤다.

저녁엔 유명한 야외 온천을 하러 갈 계획이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비가 오면 안 됐다.

낭만적인 자연과 함께 심신의 안정을 취해야했다.

설마, 저 꼬마 아가씨가 뭘 알고 한 말이겠어?

찜찜하긴 했지만 그저 짚어 넘기는 제제였다.

예님은 오늘 아침도 야무지게 먹었다.

수프와 다양한 빵이 가득한 아침상은 노아의 명령대로 영양가 가득한 재료들만 올라와 있었다.

예님은 노아가 제 그릇을 끊임 없이 채워주는 것도 모르고 입안 가득 음식을 집어 넣고 우물우물하기 바빴다.

"은혜를 갚고 싶다고?"

"〈성대한 대접을 해줬으니 당연해. 무엇이든 말해 보렴, 노아.〉"

어린아이가 계산이 참 확실하다.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데 노아가 무엇을 바랄지 알고 이렇게 당당한지 모르겠다.

"네가 건강하면 됐다."

"〈잘 생각해봐! 소원을 빌 수 있는 건 흔하지 않은 기회란다. 진귀한 금은보화가 갖고 싶지 않니?〉"

웰츠의 몽블라체 공작가에게 돈을 원하지 않느냐니.

그녀가 얼마나 줄 수 있건, 몽블라체의 재산에 새 발의 피도 안되리.

식사하며 가만히 듣고 있던 제제가 조용히 웃었다.

"돈은 이미 차고 넘쳐서 괜찮다."

"〈더 갖고 싶지 않아? 보통은 더 갖고 싶어 하던데, 보기 드문 아이구나?〉”

정말 드물었다.

노아처럼 금은보화를 마다하는 인간은 별로 없었다.

예님은 재산을 불려줄 만큼 힘이 없었지만 대신 굉장한 물건이 가득한 복주머니가 있었다.

사람들이 예님과 같은 도깨비를 만나고 싶어 환장하는 이유였다.

도깨비들에겐 신기한 물건들이 가득했는데 예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노아라면 복주머니에 있는 박의 씨를 주저앉고 줄 수 있었다.

노아가 박의 씨를 지붕 위에 뿌린다면, 씨는 일주일도 안 돼서 지붕에 주렁주렁 열려 금은보화를 가득 품고 자라날 것이다.

평생을 놀고먹고도 3대가 풍족하게 살 양이었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될 텐데, 그걸 마다하다니.

그럼 또 뭐가 있을까?

"〈병들지 않는 몸은 어떠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내 몸은 건강해서 괜찮다."

소드마스터의 몸은 어떤 사람보다 튼튼했다.

칼에 찔린 깊은 부상도 금방 낫는 초인의 몸이었다.

예님이 노아에게 어떤 방법으로 몸을 건강하게 해줄지는 몰라도, 그의 몸이 반으로 잘리지 않는 이상 필요 없는 사항이었다.

어린 애라 그런지 상상력이 풍부하군.

그녀의 복주머니에 어떤 병도 싹 나게 해주고 병들지 않는 최고의 몸으로 만들어주는 전설의 연못의 물을 담아놓은 물병이 있는 줄도 모르고, 노아는 그저 예님의 기특한 제안을 귀여워했다.

"〈그럼... 혹시... 왕이 되고 싶다거나? 세상을 지배하고 싶은 거니?〉"

가끔 보면 권력 욕심으로 소원을 비는 이들이 있었다.

한 번도 들어준 적 없는 바람이었지만 노아가 원한다면 고려해볼 순 있었다.

욕심이 없는 자라 괜찮은 통치자가 될 듯했다.

"반역을 원하진 않는다. 이대로 사는 게 편해."

권력욕도 없는 게 노아였다.

황가에 충성을 바쳤으니 무를 생각이 없었다.

이미 사는 게 적당히 편하므로 바랄 것이라곤 별로 없었다.

크게 욕심 없이 사는 게 장점이라면 장점이었다.

"〈이렇게 욕심이 없을 수가. 잘 생각해봐. 하나쯤 원하는 게 있지 않겠니? 내가 떠날 때까지 뭐든 괜찮으니 말해줘, 꼭 이야. 알았지?〉"

떠날 때까지?

노아의 미간이 팍 찌푸려졌다.

"떠날 생각을 했나?"

"〈계속 신세를 질 순 없잖아.〉"

"갈 곳도 없잖느냐."

"〈어디든 가면 된단다.〉"

그리 말하는 예님은 참 맑았다.

"태지천은 어떤지 몰라도 여긴 어린아이가 혼자 지내기에 위험해."

"〈노아, 걱정은 고맙지만 난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가 아니란다. 정말 괜찮아.〉"

누가 봐도 어린아이면서 말도 안 되는 고집이었다.

그런 예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럴 땐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아이를 키워본 적 없는 노아가 알고 있을 리 없었다.

그의 불편한 마음을 알기나 하는지 예님은 열심히 포크를 움직였다.

편식 없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언짢던 기분이 사르륵 녹았다.

예님의 사소한 행동 하나에 감정이 갈대처럼 이리저리 기울였다.

기묘한 기분이었다.

이러니까 더 곁에 두고 싶은 걸지도.

노아는 예님이 떠나지 않길 바랐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평소 선호하던 정공법이 아닌 답지 않은 꾀를 부려보기로 했다.

예님을 살살 달래볼 요령이었다.

"가이아에서 살려면 언어 정도는 되어야 할 텐데, 카손에게 언어를 배울 때까진 우리 성에 머무는 게 어떤가? 그 정도는 마음 편히 있어도 좋다."

노아의 바람대로 그의 말에 예님의 얼굴이 눈에 띄게 밝아졌다.

그녀가 원하는 것을 꿰뚫는 데 성공한 것이다.

"〈정말 그래도 될까?〉”

"물론이다."

"〈고마워!〉"

둥글게 웃는 모습이 사랑스러웠다.

아이가 숨을 쉬는 순간 하나하나 놓치고 싶지 않았다.

"후식은 정원에서 먹지."

예님과 노아, 카손은 정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제는 휴가를 얼른 즐기고 싶다며 후식을 거부하고 쌩 사라진 뒤였다.

노아와 예님은 마주 보고 앉아 후식으로 나온 멜론을 즐겼다.

이번에도 그의 몫의 멜론은 예님의 것이었다.

카손은 두 사람의 시간을 위해 테이블에서 살짝 떨어져 앉아 언어를 통역해주는 제 일을 했다.

"멜론을 처음 먹어보시는데 신들이 먹는 과일 같다며 좋아하십니다."

"이런 것 갖고 좋아하다니 오늘 저녁엔 더 굉장한 걸 보여줘야겠군."

"〈공작님께서 저녁엔 더 맛있는 걸 맛보여드린답니다.〉"

"〈더 맛있는 것이 있는 거야? 말도 안 돼!〉"

"나와 함께 있으면 세상에 못 먹을 음식은 없지."

"〈노아 정말 대단해!〉"

"이쯤이야 얼마든지."

서로의 말을 전해주다 보니 카손은 문득 노아와 예님의 조합이 은근하게 잘 어울리고 있단 것을 알게 됐다.

도란한 대화가 어쩐지 부녀지간 같달까?

"가뜩이나 통통한 볼이 아주 터질 것 같군."

노아가 적당한 크기로 잘린 멜론을 포크로 폭 찍어 내밀자 예님이 자연스럽게 앙 하고 불어먹었다.

"〈귀엽지 않은가? 이 볼이 내 매력이란다. 먹을 땐 아주 복스럽지. 신이 주신 선물이랄까.〉"

"숨길 순 없나? 나는 괜찮지만, 이곳 사람들은 사탕을 물고 있는 것 같은 볼을 예의 없다고 여기니까 말이다."

"〈뭐어? 내 사랑스러운 볼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냐? 서양 사람들은 보는 눈이 없구나!〉"

"내 앞에선 괜찮으니 마음껏 해라."

시답잖은 거짓말로 예님을 속여넘기며 다시 한 번 멜론을 입에 넣어주는 노아다.

"사이좋은 부녀지간 같습니다."

카손이 작게 웃었다.

대화는 친구 사이 같기도 했지만, 겉모습까지 보았을 땐 부녀지간이 더 어울렸다.

부녀지간이라.

미혼인 그에겐 기분 나쁠 수도 있는 비유였지만, 노아는 예님이 저와 잘 어울린단 말에 되려 기분이 좋아졌다.

예님 같은 딸이라면 가족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아무래도 각하께서 예님 양에게 푹 빠진듯합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군. 귀여운 녀석이다"

제제가 보았다면 뒤로 발라당 뒤집혔을 대사였다.

노아는 제가 예님에게 관심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인정했다.

카손이 모성애 가득한 미소를 지었다.

거즘 아들뻘인 노아였다.

철혈인간이라고 자자한 소문 속의 그가 따뜻함이 넘치는 눈빛으로 예님을 보살피는 장면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뭉클해졌다.

부녀 같은 두 사람의 배경에 마치 분홍빛이 이는 것만 같았다.

"〈둘이 뭐라는 거야?〉"

예님이 저를 보고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에 멜론을 우물거리며 물었다.

"〈하하, 두 분이 꼭 아빠와 딸처럼 잘어울리시고 닮으셔서요.〉"

아빠와 딸? 우리는 머리카락 색깔 빼곤 닮은 게 없지 않나?

예님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노아의 얼굴을 샅샅이 살펴봤다.

다부진 선에 뾰족하니 날카로운 눈매, 오랜 시간 검을 잡아 왔단 것을 증명해주는 탄탄한 근육.

그야말로 한 마리의 야생마 같았다.

반면 예님은 스스로가 야생마를 잡아먹는 무서운 산짐승이라 여겼으니...

"〈내가 훨씬 무섭지 않아? 난 예전에 죽은 사람도 펄쩍 뛰게 한다는 백호랑이 같다는 말도 들어 봤는걸. 그에 비해 노아는 아직 애기지. 암, 애기고 말고.〉"

"상상력이 참 풍부하군."

노아와 카손에게 재롱을 부리는 꼴이 된 줄도 모르고 머리를 쓰다듬는 두툼한 손길에 그저 베실베실 웃는 예님이었다.

"〈그러고 보니 노아는 미혼인가? 짝이 없대?〉"

카손이 난감한듯 건내주는 말에 노아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오늘 아침에도 아버지께 편지로 시달렸던 주제를 이 작은 꼬맹이에게서 또 들을 줄이야.

"〈예쁜 색시가 생기게 해주는 소원은 어때?〉"

"필요 없다. 네가 신경 쓸 문제는 아니다."

노아는 말없이 예님의 입에 멜론을 물렸다.

"요즘 애들은 별걸 다 아는군."

어쩐지 예님에게 한 방을 먹은 듯한 느낌을 받은 노아였다.

오후가 되자, 타닥타닥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제제 우산 들고 나갔겠지?〉"

예님은 테라스로 나가는 창문 앞에 흔들의자를 끌어다 두고 앉아 정원을 구경하고 있었다.

문을 열어두니 시원한 빗소리가 듣기 좋게 방안을 가득 채웠다.

낮에 시간이 비어 카손에게서 간단한 가이아의 말을 배웠다.

가이아어의 발음은 둥근 경향이 있어서 혀를 열심히 움직여야 했다.

살다 살다 혀 근육이 아픈 건 처음이다.

오랜만의 공부에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열심히 연습했다.

"〈아침은 아침.〉"

"〈저녁은 저녁.〉"

"〈아침 인사는 좋은 아침.〉"

"〈만나서 반가울 땐...안녕… 하…?〉"

찰나의 순간에 누군가와 눈을 마주칠 줄이야.

때마침 창밖의 정원을 뛰어가던 소년을 마주한 건 굉장한 우연이었다.

"안녕…, 하세요…?"

"안녕...?"

예님이 다시 제대로 된 문장으로 인사를 건네자, 소년이 어색하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받아줬다.

인사가 통했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아진 그녀가 배시시 웃었다.

"〈아차, 내 정신 좀 봐. 다 젖겠다, 들어오렴!〉"

손바닥 하나로 비를 피하고 있던 소년에 예님이 허둥지둥 일어났다.

맨발도 개의치 않고 젖은 풀을 밟아 소년의 소매를 끌어당기니 손쉽게 방으로 끌려들어 온다.

얼마나 밖에 있었는진 몰라도 제법 굵은 빗줄기에 소년의 몸은 이미 쫄딱 젖어있었다.

그의 금발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예님은 재빨리 욕실에서 수건을 가지고 와 소년에게 내밀었다.

"〈와, 노오란 머리가 참 신기하구나. 어디 보자, 눈도 노란색이니? 세상에 예쁘기도 하지.〉"

소년은 무언가 얼떨떨한 듯했지만, 제가 선 자리가 물바다가 된 것을 보더니 인상을 쓰곤 예님의 수건을 받아 몸의 물기를 훔쳐냈다.

예님은 소년의 주위를 뱅그르르 돌았다.

"〈노랑노랑 한 것이 흐음, 그래! 병아리 같구나?〉"

졸지에 병아리가 됐으나 태지천의 말을 모르는 소년이 알아들었을 리가 없었다.

예님은 카손에게 배웠던 소개말을 떠올렸다.

그리고 노란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바라보는 소년에게 손을 쭉 내밀었다.

실전이다!

"나는, 예님입니다. 너는 누구입니까?"

"룬...입니다."

오오, 통했다.

신난 예님의 볼이 사과처럼 둥글게 물들었다.

룬은 어색하게 가이아어를 구사하는 아이를 보고 확신했다.

태지천의 사람이다.

처음엔 검은 머리카락을 보고 몽블라체의 사람으로 착각할 뻔 했지만 그럴리가 없단 것을 잘 알았다.

태지천의 사람이 왜 에스티엘라 성에 있지?

몽블라체의 사람들을 전부 알고있는 룬이었지만, 여자아이가 있단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덕분에 공작이 아무도 몰래 딸을 낳은 줄 알고 잠깐 심각한 생각에 빠지기도 했지만.

작은 몸집이 꼭 인형 같다.

그게 첫인상이었다.

미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초록색 눈동자, 이국적인 분위기를 더해주는 눈물점.

가이아에선 보기 힘든 얼굴이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앞의 아이를 뚫어져라 쳐다보고만 룬이다.

"룬, 비!"

"그래, 저건 비이구나..."

어쩌다 보니 실내로 들어왔긴 하는데 난감한 상황이었다.

곧 있으면 훈련이 시작해서 가봐야 하는데, 이 예님이라는 아이가 너무 열정적인 태도로 말을 걸어 왔다.

어눌한 가이아어의 연습 상대가 필요한가 보다.

"밥?"

밥을 먹었느냐는 뜻인 것 같다.

"아까 먹었어."

룬은 예님이 알아듣기 쉬우라고 국어책 속의 지문처럼 대답했다.

"맛있어?"

그럭저럭?

고개를 끄덕이자, 헤헤 웃는다.

예님은 기뻤다.

배운 것을 바로 써먹을 수 있다니, 운이 좋았다.

어설픈 발음이어도 통하긴 하는 것 같아 자신감이 붙었다.

"눈. 코. 입."

어쩌라는 건가 싶었지만, 룬은 애써 고개를 끄덕였다.

"음..."

예님은 제 귀를 잡고 망설였다.

귀를 뭐라 부르는지 안 배웠다니!

얼굴에 붙어 있는 것은 이목구비 네 개인데, 귀가 알면 따돌림을 당했다고 슬퍼할 일이었다.

참고로 예님은 본인의 모든 신체부위를 살아있는 각각의 생명체로 존중했다.

"귀. 이건 귀야."

"귀!"

착하기도 하지, 예님은 룬에게 감동하여 펄쩍 뛰었다.

병아리를 닮은 소년, 룬의 덕분에 귀가 슬퍼하지 않아도 됐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

"〈...고맙다를 안 배웠잖아?〉"

배운 말도 벌써 하나 남고 다 떨어졌다.

꽤 많이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대화가 오 분도 아니 일분도 안 간 것 같다.

예님은 머리를 긁적였다.

"〈잘 가.〉”

다음에 볼 땐 더 많이 배워둘게!

몽블라체의 까마귀 기사단은 점심시간을 가장 중요한 휴식시간으로 여겼다.

룬에겐 그런 휴식 시간조차 아까웠다.

연습벌레라는 별명까지 있는 그에게 휴식이란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이 전부였다.

오늘도 룬은 점심을 먹자마자 바로 야외 훈련장을 나와 연습을 시작했다.

쨍쨍한 햇볕 아래 연습하는 사람이라곤 그뿐이었지만 룬은 이 조용한 시간을 가장 좋아했다.

조급하지 않고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었다.

몽베르 섬에 온 뒤로는 혼자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좋았다.

지금은 공작의 휴가 기간이었다.

현재 몽베르 섬에 있는 까마귀 기사단원들은 호위를 목적으로 소수정예로 뽑혀온 자들이었다.

호위가 목적이라곤 하지만 평화로운 몽베르 섬에서의 시간은 까마귀들에게도 휴가나 마찬가지였다.

널널하게 짜인 훈련일정을 제외하곤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니 말이다.

물론 연습벌레 룬이 휴가를 얻겠다고 억지를 부려가며 선배들을 제치고 여기까지 왔느냐 하면 대답은 노우! 였다.

남들이 휴가를 꿈꾸며 몽베르섬 여정에 지원을 했다면, 룬은 몽블라체 공작 하나만 바라보고 쫓아온 것이었다.

짧은 훈련이라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으로 말이다.

노아 몽블라체는 룬의 우상이었다.

젊은 나이에 소드마스터의 경지에 오른 것도 모자라, 현재는 그랜드 소드마스터까지 바라보고 있는 굉장한 사람이었다.

검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노아의 발자취를 동경했다.

그러나 룬만큼 그를 따라가고 싶어 피나는 노력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룬은 노아를 존경하는 것을 모자라 그처럼 되고 싶어 했다.

또 최대한 가까이서 노아를 보고 싶어서 피나는 노력으로 소드 익스퍼트가 되어 최연소 나이로 까마귀 기사단에 입단까지 했다.

16살에 소드익스퍼트가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다.

그런데도 룬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노아가 16살에 소드 마스터가 됐다는 사실이다.

노아는 타고난 천재였고 룬은 노력형 몽상가였다.

타고난 재능을 쫓을 수 없다는 것은 그를 우울하게 만들 법했으나, 룬은 개의치 않고 연습 또 연습했다.

한발이라도 더 노아의 수준에 닿아 그의 옆에 서고 싶었다.

몽베르 섬에 온 지 몇 주일 째, 공작은 바쁜지 훈련장에 머리카락 한 올 비치지 않고 있었다.

국경에 마물들이 출몰했단 소식은 들었으나, 몽블라체의 기사단과는 무관한 일이었기에 돌아가는 상황은 알 수 없었다.

노아가 이렇게 바빤 걸 보면 일이 꽤 큰가보다 짐작할 뿐.

그래도 오늘 아침 단장의 말에 따르면 드디어 공작이 오후 훈련엔 참여할 예정이란다.

룬은 오랜만에 만나는 공작에게 조금이라도 성장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연습했다.

그러다 아침까지만 해도 맑았던 하늘에 구름이 몰려오더니 갑작스럽게 비가 내렸다.

하인이 달려오더니 오늘 오후 훈련은 실내 훈련장에서 하기로 했다는 말을 전해줬다.

옷이 다 젖어 방에 갈아 입어야 했으므로 정원을 가로질러 지름길 삼아 가기로 했다.

공작이 아낀다고 소문난 에스티엘라의 정원은 꽃 한 송이 없었지만, 갖은 종류의 나무들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다.

황실의 모든 정원을 합쳐도 이것보단 못하겠단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렇게 풀냄새를 맡으며 정원을 가로지르는데 저 멀리 활짝 열린 유리창에서 빛이 새어 나오는 것이 보였다.

이쪽 1층은 손님 전용 방인 줄 알았는데, 누가 방문을 했던가?

눈에 띄지 않게 문앞을 지나가려 마음을 먹었을 때,

룬은 예님에게 시선을 뺏기고 말았다.

명랑한 분위기가 오로지 훈련에만 몰두하고 있던 룬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꼬맹이에게 완전히 말려 들었다, 고 생각했다.

"〈잘 가.〉"

알아 들을 순 없었지만, 쪼그만 한 게 제법 재밌는 녀석이었다.

예님과 헤어지고 급하게 옷을 갈아입은 뒤 훈련장으로 향했다.

안으로 들어서자 준비 운동을 시작한 단원들이 보였다.

검이나 무기 연습을 하도록 갖춰져 있는 야외 훈련장과는 달리 체술을 연습하는 곳이었다.

룬은 체술에 가장 약했다.

검이 있으면 어떻게든 막아내고 상대하면 되는데 몸이 포박당해 공격을 받으면 속수무책이 됐다.

그래서 여지껏 혼자 연습한 것도 검술 뿐이었다.

노아에게 칭찬을 받긴커녕 쓴소리를 들을 판이었다.

왜 비가 와선…!

룬이 시무룩한 얼굴로 몸을 풀기 시작하자 때마침 노아가 훈련장으로 들어왔다.

오늘도 멋지시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런데 노아의 얼굴에서 아까 보았던 예님의 얼굴이 겹쳐졌다.

"전혀 안 닮았는데, 이상하네."

머리카락 색을 빼곤 비슷한 점이라곤 찾을 수 없는데 희한했다.

예님이 노아의 딸이라고 해도 믿을 판이었다.

"설마 진짜 숨겨둔 딸은 아니겠..."

어쩐지 싸해지는 등골에 룬은 스트레칭을 하고 있던 동기에게로 다가가 속삭였다.

"제프,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각하께 숨겨둔 딸이 있다거나 사생아가 있단 소문은 없어?"

"뭐, 딸...? 여자 보기를 돌로 하시는 우리 각하께서...? 미친, 그런 헛소문을 만드는 똥멍충이가 있어?"

그치, 그럴 리가 없지.

룬은 제프의 말에 수긍했다.

제프는 룬에 비해 소문이나 정보에 귀가 밝은 편이었다.

녀석이 모르면 그런 일은 없는 것이 분명했다.

아이는 누가 봐도 태지천의 사람처럼 동양의 분위기를 짙게 풍기는 데다, 눈동자 색은 파란색이 아닌 초록색을 띠었다.

몽블라체의 검은 머리카락과 벽안이 강한 유전자를 띠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인데, 괜한 의심을 한듯싶다.

묘하게 닮은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럼 에스티엘라 성에 머무는 방문객에 관한 얘기는 없어? 오다가 낯선 사람을 봤거든. 어린아인데 태..."

"설마 너 태지천의 아이를 본 거야? 각하께서 주워 오셨다는?"

연습벌레 룬만 모르고 있던 이슈였나 보다.

제프가 룬의 말을 가로채더니 눈을 또롱또롱 빛내며 흥분을 했다.

"우리 단원 중엔 본 사람이 없어서 다들 추측만 하고 다녔다고! 정말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신비로운 기운이 막 뿜뿜해? 너무 작고 아담해서 툭 치면 날아갈 것 같은 연약함과 눈만 마주쳐도 사랑에 빠질 것처럼 귀여워?"

"뭐...?"

"하녀들이 그랬단 말이야, 그 꼬마 아가씨 정말 굉장히 사랑스럽다고!"

예님이라는 아이에게 엄청난 수식어가 붙어 나돌고 있을 줄이야.

룬은 제프의 호들갑이 부담스러워 한 발짝 물러났다.

"바다에서 떠내려왔는데 각하께서 엄청나게 예뻐하신대,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는대! 각하께서 썩소가 아니라 따스한 미소라니! 믿어져?! 그걸 본 사용인들도 모두 게거품을 물고 쓰러졌데.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와... 각하께서 애정을 주신다고?"

"대박이지? 선배들도 아무도 안 믿더라. 사용인들이 왜 우리한테까지 거짓말을 하겠냐만은... 나도 반신반의해."

누가 믿겠어, 남한테 관심도 없던 노아 몽블라체가 생판 남인 어린애를 예뻐한다니.

룬은 노아가 예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연신 웃음을 짓는 장면을 그려봤다.

일단 웃는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안 가는데?

"나도 못 믿어."

응, 못 믿어.

능구렁이같은 황제도 쩔쩔 매는 게 노아 몽블라체의 무표정한 얼굴이라고.

예님의 방 창문 앞 정원에서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다.

“〈정말 이럴 거니?〉”

티 없이 뽀얀 살결을 자랑하는 두 볼이 빵빵하게 부풀었다.

“〈안됩니다. 며칠을 누워계셨기 때문에 갑자기 움직이면 근육들이 놀란답니다. 더욱이나 예님 양은 아직 어리셔서 근육이 많이 약해요.〉”

카손의 표정은 단호했다.

글쎄 나 그렇게 약하지도 않고 어리지도 않다니까!

맨밥만 먹은 것처럼 속이 콱 막힌 기분이었다.

“〈집안 구경도 안되는 거니? 정말루?〉”

“〈성이 너무 넓어서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오늘은 정원 산책 조금 하셨잖아요?〉”

“〈겨우 삼십 분도 안 걸었단다.〉”

오늘 아침 의원이란 사람이 와서 남기고 간 말이 화근이었다.

과한 움직임은 자제하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운동량을 늘리라나?

“〈이건 순 억지다! 내 몸은 내가 잘 알고 나는 미친 소보다 더 팔팔하다!〉”

“〈네, 물론 알죠. 하지만 성 구경은 내일 더 하기로 해요.〉”

자식을 둘이나 키운 어마어마한 경력의 카손은 능숙하게 예님의 떼를 달랬다.

“〈예님 양 말 배우고 싶어 하셨잖습니까. 이어서 공부해야죠? 오늘은 더 많은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밌겠지요?〉”

“〈그것도 좋지만, 점심을 먹은 배도 아직 부르고 나는 산책을 더…으으...〉”

카손의 인자한 웃음에 담긴 단호함은 명백했다.

예님은 노아에게서 방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잠에서 깨어나고 본 세상이 고작 방과 식당, 정원이 전부였다.

노아의 집은 무척이나 컸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가 지내는 방이 있는 복도만 해도 무수한 문이 있었고 식당으로 가는 길의 골목골목은 다른 곳으로 뻗는듯한 갈림길이 틈틈이 보였다.

정원에서 건물을 올려다보면 대체 몇 층까지 있는 건지 뾰족한 지붕이 하늘에 닿을 듯 찌르고 있었는데 힘만 있었다면 진즉 벽을 타고 올라가 하늘을 구경해보았을 거다.

“예님, 무슨 일이지?”

“〈노아!〉”

소리가 들리는 쪽을 바라보니 온종일 얼굴 한 번 못 보고 있던 노아가 걸어오고 있었다.

그가 가까이 오자 작은 바람과 함께 지난밤의 비에 젖은 풀잎의 냄새가 훅 끼쳐왔다.

일이 있다 하더니 점심이 한참 지나서야 집으로 돌아왔나 보다.

재단사가 찾아와 옷 치수도 재고 갔고 의원이 찾아와 건강 검사도 하고 갔지만 유별나게 무료한 하루였다.

방에만 있는 건 예님의 성격에 맞지 않았다.

이리저리 움직이며 알차게 시간을 보내야 성에 찼다.

그래서 집구경이라도 하자며 졸랐던 거고.

“〈노아야, 마침 잘 왔다! 카손의 고집 좀 말려 보렴!〉”

노아는 몽베르 섬의 관리자들과의 브런치 선약이 있어 다녀오는 길이었다.

고작 몇 끼를 함께 했다고 예님과 식사를 같이하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섬의 시내에서 새로 생겼다는 디저트 가게의 마카롱을 사 온 참이었다.

“먹어라.”

“먹어? 감사합니다!”

“하루 배운 것치곤 상당한데.”

한마디 한 것치곤 과한 칭찬이었다,

노아는 예님이 배운 말을 빠르게 습득하여 사용했단 것에 감탄했다.

“천재일지도 모르겠군.”

그의 투박한 손이 어느 정도 자연스러워진 손길로 예님의 머리칼을 쓰다듬었다.

“예님 양이 성을 구경하고 싶어 하시는데 의사의 말로는 당분간은 안정이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고집이 워낙 강하셔서...”

카손은 말끝을 흐리며 노아의 곁에서 마카롱 상자를 열어 끄집어 먹는 예님을 보며 고민했다.

그러다 문득 좋은 생각이 카손의 머리에 떠올랐다.

그녀가 뜻모를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외람되지만, 각하께서 시간이 되신다면 예님 양을 안고 성을 소개해 주는 것이 어떠실까요? 저보다는 각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훨씬 재밌을 겁니다.”

“그래, 여유가 있으니 나쁠 것 없군.”

카손은 예상보다 쉽게 나오는 공작의 태도에 살짝 놀랐다.

긍정적일 것이라고는 생각했으나, 단번에 제안을 승락할 줄은 몰랐다.

노아는 흔쾌히 예님을 안아 들어 제 팔에 앉혔다.

처음치고는 굉장히 안정적인 자세였다.

마카롱을 음미하고 있던 예님은 노아로인한 갑작스러운 시야 상승에 깜짝 놀랐다.

“〈이잉? 나 무겁단다, 내려놓아라, 노아!〉”

“〈공작님께서 성 구경을 시켜준다 하십니다. 무리하게 걷는 건 안되니 오늘은 이렇게라도 다녀오세요. 괜찮으시죠?〉”

그렇게 말하는 카손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걸려있었다.

“보기 좋네요.”

성 구경은 좋지만 내가 원한 건 몸을 마구 움직이는 것이란 말이지.

“〈새삼 노아의 키가 크구나. 나무 위에 올라선 것 같아.〉”

바둥 거려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예님은 잠자코 노아의 품에 안겼다.

“어딜 보여주는 것이 좋을까?”

노아는 정원을 나와 정문으로 향했다.

정문에는 하얀 대리석이 깔린 마차로가 가운데 나팔을 부는 여인의 조각상이 있는 분수대가 있었다.

정문을 지나 성으로 들어가니, 커다란 홀과 2층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보였다.

한 눈에 보기엔 어려운 크기였다.

예님은 고개를 돌려 천천히 홀을 구경했다.

홀에는 몽블라체 가의 사람들을 담은 그림들이 벽에 가득 채워 있었다.

자세히 보니 개중에는 노아의 어릴 적 모습을 담아 놓은 그림도 있었다.

“〈와, 이거 노아야? 이 상은 대회에서 탄 건가보구나?.〉”

예님은 신이나서 그림들을 구경했다.

“〈이 집사람들은 노아처럼 검은색에 푸른색이 내력인가 보다. 어쩜 다 똑같이 생겼지?〉”

노아는 예님이 키득 이며 태지천의 말을 종알거리니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카손이 없었다.

카손이 따라오지 않은 것이었다.

아빠와 딸 같은 두 사람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라며 자리를 피한 탓이었다.

카손의 마음을 알 리가 없는 노아는 난처했다.

예님이 이것저것 손짓을 하며 종알거리는데 대화를 할 수 없어 답답했다.

결국 노아는 예님이 손짓하는 그림에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설명을 해주기로 했다.

예님과 소통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이었다.

노아는 방금 전 예님이 가리켰던 벽화를 다시 가리켰다.

역대 공작의 초상화가 달린 벽의 옆 벽을 가득 채우고 있는 벽화는 말 그대로 '몽족의 서사'였다.

“이 벽화엔 우리 가문의 역사가 담겨있다. 우리 가문이 다른 데에 비해 검술 능력이 특화한 것은 우리에겐 사냥꾼의 피가 흐르기 때문이지. 몽족이라 불렸던 선조들은 숲에서 맹수를 사냥하며 생존했단다.”

노아는 예님을 위해 최대한 정확한 문장을 말하기 위해 노력했다.

언어란 것은 많이 노출될수록 빨리 는다는 것을 어젯밤 잠이 들기 전에 읽었던 내 아이 알차게 키우기, 어렵지 않아요!>란 책에서 보았기 때문이다.

“〈늑대를 때려잡고 있어! 전쟁이 있었나 보네. 예전엔 이런 옷을 입었던 거야?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를 그린 것 같구나.〉”

하지만 아직 가이아어 공부 2일차인 예님이 알아 듣기엔 무리였다.

“무려 이천 년 전의 이야기를 그려놓은 것이지. 우리 가문의 보물이다.”

그래도 예님은 노아가 무어라 말하면 그것이 그림에 대한 설명임을 짐작 정도는 할 수 있었다.

물론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혼자 상상할 뿐이었다.

거대한 푸른 생물, 싸우는 사람들, 검은 머리 사이에 노란 머리를 가진 사람들, 빛이나는 검, 쓰러진 용, 새롭게 생겨난 나라.

대충 감이 온다.

용을 무찔렀군!

예님이 아는 용은 뱀처럼 길고 입에 여의주를 물고 있는데 그림 속의 용은 키가 크고 거대한 날개를 달고 두 발로 걷고 있었다.

하지만 생김새가 아주 비슷하여 그것이 용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용을 무찌르고 기뻐하는 자들에겐 빛이나는 검이 있었다.

저 검은 뭘까?

“이 그림은 우리 제국의 탄생이다. 2,000년도 더 되었지만 아주 중요한 역사이지. 네가 알아들었을진 모르겠지만, 역사에 꽤 흥미를 보이는군. 언어를 습득하면 역사 선생님을 붙여주도록 하지.”

노아의 음성을 가만히 듣고 있던 예님은 노아에게서 손을 뻗어 벽화를 만지작거렸다.

예님이 노아의 그림을 만져보기 위해 손을 뻗자 아이가 불편한 것으로 이해한 노아가 예님을 조심스럽게 바닥으로 내려주었다.

“조금 걷는 것쯤은 문제없을 거다.”

두 발이 자유롭게 땅에 닿자 예님은 노아에게서 요리조리 움직이며 그림들을 구경했다.

넓은 벽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작품들 속엔 노아와 똑 닮은 자들이 나와 있어 더 흥미로웠다.

예님은 다시 한 번 용의 그림이 그려진 그림을 보았다.

키가 산만큼 크고 푸른 비늘을 가진 용.

볼수록 신기하네.

신수인 용도 다양한 종이 있다니.

“이제 다른 곳도 가보자.”

노아는 예님의 손을 잡고 천천히 발을 움직였다.

평소 빨랐던 발걸음을 아이에게 맞춘 건 특별한 생각이 거치지 않은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야외 연무장이 나오고 직진해서 가면 실내 훈련장이 있지. 오른쪽으로 가면 사용인들이 머무는 별채가 나온다. 저 큰 문은 응접실이고 다용도로 쓰이는 방들이라 볼만한 게 없다. 2층에 있는 서재를 보여주마. 그곳이 더 재밌을 거다.”

예님을 데리고 일 층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던 노아는 높은 계단에 다다르자 그녀를 다시 안아 들었다.

“〈다 큰 처녀로 태어나 누구한테 안겨 본적 없건만 가뿐하게 들어주니 나쁠 것 없구나.〉”

항상 사람에게 의지가 되어왔지 의지했던 적이 없는 예님은 노아에게서 편안한 기분을 느꼈다.

노아는 예님을 안고 3층에 올라갔다.

무엇을 보여줄까 하다가 그곳이 떠올랐다.

복도에는 수많은 문이있었다.

노아는 그중 가장 거대한 문을 열었다.

그곳은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커다란 방이었다.

가이아의 천장은 태지천보다 높은 편이었는데, 이 방의 천장은 평균보다도 훨씬 높았다.

층이 하나 더 있었기 때문이었다.

말했듯이 책이 어찌나 많은지 온 벽면을 채우고도 장들에 가득 나열되어 있었다.

"〈와아!〉"

노아는 예님의 순수한 감탄에 짧게 웃으며 서재에 있는 계단을 또 올랐다.

위층을 본다면 훨씬 좋아할 것이 분명했다.

“〈세상에! 바다야!〉”

예상대로다.

위 층으로 이어지는 서재는 한쪽 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바다가 넓게 펼쳐져 보였다.

선조가 에스티엘라 성을 지을 때 가장 공들인 부분으로, 기분 좋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예쁘다, 어쩜 저리 푸를까.〉”

어디선가 바닷소리가 난다 했더니 이렇게 가깝게 있을 줄은 몰랐다.

노아가 저기서 날 발견했겠구나.

“〈바다가 굉장히 넓구나.〉”

예님은 창에 기대어 끝없는 푸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바다를 구경했다.

“〈태지천은 어디 있는지 가늠할 수도 없어.〉”

노아는 예님의 말에서 익숙한 단어를 캐치했다.

“태지천은 수평선을 따라가면 나온다.”

노아는 예님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지 궁금했다.

원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돌려보내 줄 수야 있지만...

“바다는 아주 위험한 곳이다.”

무턱대고 돌려 보내고 싶진 않았다.

이곳에 오게 된 이유도 명확하게 모를 뿐더러, 아이를 조금 더 곁에 두고 잘 대해주고 싶었다.

모든게 확실해진다면 그때 보내도 괜찮지 않을까.

“당분간은 이곳에 머무르 거라. 그게 제일 안전할 것이다.”

어쩐지 집을 그리워하는 아이를 잡아두는 느낌이 들어 미안해진 노아였다.

한편, 예님은 노아의 마음도 모르고 창문에 찰싹 붙어 바깥 풍경 구경하고 있었다.

태지천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 그녀의 마음을 휘어잡았다.

멋있어!

생각해보니 서양에 온 것은 흔치 않은 기회였다.

“〈어떤 좀팽이 같은 놈이 날 여기로 보냈는진 모르겠다만.〉“

온 김에 즐겨야겠다.

“〈덕분에 해외여행 좀 하고 가마.〉”

노아도 예님의 마음을 몰랐다.

어느 정도의 집 구경이 끝나고 하루가 마무리되었지만, 예님은 아직 만족할 수 없었다.

노아가 가장 중요한 옥상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5층까지 올라갔으면서 바로 위에 있단 옥상은 야속하게도 그냥 넘어갔다.

예님이 바둥 거리며 옥상을 보고 싶단 걸 강력하게 드러냈으나, 노아는 알아듣지 못했는지 저녁을 먹자며 그녀를 식당으로 데려갔다.

예님은 높은 곳이 좋았다.

높은 곳에 있으면 온 세상이 가득히 눈에 들어오는 기분이 마음을 참 벅차게 했다.

잠옷까지 입고 침대에 누워있던 예님은 주변이 조용해지자 이불을 걷고 일어났다.

“〈이 늙은이가 잠이 안 오는 구나. 바람 좀 쐐야겠어. 너희가 말릴 것이 분명하니 몰래 갈 것이란다. 후후후.〉”

일종의 암행이었다.

“〈룬?〉”

“으헉, 깜짝이야!”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하얀 옷을 입은 인물에 귀신이라도 나타난 줄 알았다.

룬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사람이라 배로 놀랐다.

예님이 왜 거기서 나와?

야밤에 훈련하다 몰래 야식을 먹으러 온 룬이었다.

한창 성장기인 룬은 요즘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야식을 찾았다.

오늘은 기사단의 저녁으로 나와 남은 닭고기였다.

몰래 먹는 야식은 꿀맛이었다.

기사단에 들어와 익힌 나쁜 습관은 그동안 쌓아왔던 격식의 신조를 와르르 무너뜨렸다.

어렸을 땐 식욕이 없는 편이라 야식이란 개념을 몰랐던 것은 둘째치고, 정석대로 차려진 요리가 아니면 교양 없는 음식이라 치부해 손을 대지도 않았던 그였다.

까마귀의 사람들은 상상 이상으로 야만적이었다.

배가 고프면 아무대서나 음식을 펼쳤다.

식사 예절같은 건 신경도 쓰지 않았다.

저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며 다짐했던 것도 잠시, 룬은 눈 깜짝할 새에 야만인들만 바글거리는 세계에 물들어 버렸다.

교양이고 뭐고 체면을 버리게 된 것이다.

룬은 까마귀 기사단과 함께하며 '맛있는 것 앞에선 장사 없다'는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됐다.

배고프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음식이라도 달갑게 먹을 수 있었다.

심지어 직접 찾아 먹기까지 했다.

누군가 차려주지 않으면 음식 생각도 없던 그가 말이다.

“예님, 여기는 어떻게 왔어.”

테이블 뒤에서 등장한 예님은 맨발에 잠옷 차림이었다.

지금은 아이가 돌아다니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여기까진 어떻게 온 거지.

이런저런 추리를 하는 데, 예님의 번뜩이는 시선이 눈에 들어왔다.

“맛있어요?”

그녀의 두 눈이 룬의 손에 들린 닭 다리에 꽂혀 있었다.

“먹을래...?”

야밤에 맨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고 있다는 민망함도 잠시,

룬은 눈부신 시선에 못 이겨 소중한 닭 다리를 양보해야만 했다.

“왜 밤 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람.”

“맛있다!”

기사단과는 다른 저녁 메뉴를 먹었던 예님은 닭고기구이에 감탄했다.

하늘 아래 어딜 가도 닭 구이는 맛있나 보다.

“말이 안 통하네.”

룬은 예님이 제 말을 아예 못 알아듣는 태지천인인 걸 상기했다.

이상하게 예님이 먹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다.

그냥 방으로 돌아갈까 싶었지만, 예님을 혼자 두고 가기엔 찝찝했다.

정신은 말짱해 보여 몽유병같은 건 아닌 듯 했지만 혹시 모르니 방으로 데려다줘야 할 것 같았다.

“예님.”

룬은 열심히 닭다리를 뜯고 있던 예님을 불렀다.

초록색 눈이 그를 향했다.

룬은 과장된 몸짓으로 입구를 가리키고, 두 손을 모아 새근새근 자는 시늉을 했다.

“안 자?”

대충 알아 들었는지 예님은 웃음기 가득한 눈매로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검지를 들어 본인과 천장을 차례로 가리켰다.

무슨 의미지?

룬이 고개를 갸우뚱하자, 저도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좋은 생각이라도 난듯 아하! 하는 소리를 낸다.

우물우물 꿀꺽!

그러더니 먹고 있던 닭고기를 한 입에 넣어 우물 거리다 뼈만 골라 뱉었다.

“〈자, 하는 수 없지! 포도주는 나중에 마시고. 룬, 나랑 같이 가자꾸나.〉”

예님은 닭 다리를 집었던 기름기 잔뜩 묻은 손으로 룬의 손목을 잡아챘다.

“야! 더럽게… 손 좀 닦고…! 잠깐, 어딜 가는 거야!”

쉬잇

까치발을 듣고 손을 올려 룬의 입을 막은 예님의 표정엔 장난기가 넘쳐 흘렀다.

기사단이 되어 교양, 체면 다 버렸다지만 더러운 것은 여전히 싫어하는 룬은 예님의 미끄덩한 손에 울상을 지었다.

입을 막은 손에선 닭고기 냄새가 났다.

“〈잠자코 따라와!〉”

예님은 룬을 이끌고 신나게 옥상으로 향했다.

어린 꼬마는 숨도 고르지 않고 단번에 옥상으로 가는 계단을 뛰어올랐다.

룬은 지금껏 해온 훈련이 있다지만, 실내에서 별로 움직이지도 않았을 것 같은 애가 가졌다기엔 대단한 체력이었다.

그나저나 웬 옥상?

“〈룬, 별 좀 봐! 예쁘지!〉”

옥상에 들어선 예님이 위를 보며 펄쩍 뛰었다.

룬은 온기가 사라지고 기름기만 남은 손목을 매만지며 예님을 따라 고개를 들었다.

금가루를 뿌린 것처럼 밤하늘 위로 별들이 빼곡했다.

매일 밤 훈련을 하면서도 좀처럼 위를 올려보지 않았던 룬이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이 바로 머리 위에 있었다니.

시원한 바닷바람이 온몸을 쓰다듬고 지나갔다.

예님의 까르륵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바다도 정말 멋지다!〉”

제 키만큼 벽으로 쌓아올린 난간에 기댄 예님은 새카만 밤바다를 향해 실없이 웃고 있었다.

“〈생각보다 더 멋지구나!〉”

“예쁘다...”

룬은 팔뚝에서부터 온몸에 오소소소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짜릿했다.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음에도 짙은 밤에 퍼진 별빛들의 아름다움은 이 장소를 특별하게 만들었다.

그가 며칠째 머무는 곳이었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자 할 때면 몇 번이고 와본 장소였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근사한 하늘과 바다를 모르고 있었지?

헛웃음이 나왔다.

룬은 그동안 제가 너무 여유 없이 달려왔단 것을 깨달았다.

저렇게 예쁜 걸 왜 몰랐을까.

크게 숨을 쉬고 뱉어내자,

항상 무거웠던 마음을 밤바람과 파도 소리가 쓸어간 듯 속이 가벼워졌다.

“룬, 이름.”

멍청하게 하늘을 올려보는데 예님이 소매를 잡아왔다.

제가 가리키는 것의 명칭을 알려달라는 눈치였다.

“저건 하늘. 저건 별. 저건 바다.”

“별, 하늘, 바다?”

룬은 예님에게 별과 하늘을 구별해주기 위해 온갖 손발 짓을 해야 했다.

끝내 별과 하늘을 구별한 예님은 만족스러운 웃음으로 바다가 있는 난간으로 돌아갔다.

룬은 예님의 옆으로 섰다.

“좋아요 바다?”

“네, 좋아요.”

이제야 알아서 나 자신에게 미안할 정도로.

룬은 턱을 괴고 결 좋은 검은 머리카락을 휘날리는 예님을 보았다.

왼쪽 눈 밑의 점이 별보다 더 시선을 끌었다.

반짝이지도 않는 데 자꾸 보게 되네.

꼬마 주제에 괜히 사연 있어 보이게 하는데 한몫하는 점이었다.

아직도 고기를 물고 있는 거 아니야?

콕

볼이 아주 통통한 게 저도 모르게 손이 나갔다.

“〈에엥? 뭐하니?〉”

아, 어머니가 여자애들 몸엔 함부로 손대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실수했다.

예님의 동그란 눈망울에 검지를 멋쩍게 등으로 숨겼다.

손끝에 남은 부드러운 감촉을 주먹을 말아 쥐어 감쌓다.

“미안.”

“〈흐음, 알면 됐다. 얘, 얼른 저기를 보렴. 얼른.〉”

예님의 손끝이 바다의 동쪽을 가리키고 룬이 고개를 돌리자,

기다란 빛의 선이 번쩍하고 순식간에 번졌다가 사라졌다.

“별똥별?”

“〈소원 빌었니? 선녀님께서 재채기하시며 행운을 떨어뜨리셨단다. 행운은 별똥별을 보고 가장 먼저 소원을 빈 자에게만 가는 거야. 자, 이번엔 저쪽!〉”

북동쪽 꼭대기에 별 무리가 쏟아졌다.

“〈제법 귀가 따가운 재채기였어.〉”

예님은 귀를 매만지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어떻게 별똥별이 떨어지는 곳을 안 거지? 태지천의 아이라 그런가?”

가이아의 사람들은 태지천에 대해 환상이 있었다.

그곳 사람들은 모두 비범하더라는, 증명되지 않은 소문이 무성했다.

룬의 외숙부는 태지천에 대해 박식한 편이었다.

그는 태지천과의 교류를 지지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는데, 그의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태지천에 다녀온 이야기를 항상 해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외숙부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룬에겐 증조 외할아버지가 태지천에 다녀온 셈이었다.

숙부는 항상 말했다.

태지천엔 눈만 마주쳐도 생각을 전할 수 있는 등 신기한 사람들이 많다고.

숙부는 증조부처럼 늘 태지천에 가고 싶어 했다.

몸만 불편하지 않으셨어도 한 번쯤은 가보셨을 텐데.

나중에 기회가 돼 예님을 만나신다면 좋아하실 것 같다.

수도에 돌아간다면 한 번...

근데 이 녀석,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공작이 아낀다는 말은 믿지 않지만 불쌍한 애를 그냥 버리진 않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제다!〉”

예님은 재빨리 몸을 낯춰 숨었다.

룬은 옷깃을 끌어당기는 손길에 덩달아 허리를 숙여야 했다.

예님의 시선이 향한 곳엔 어두운 밤에서도 예쁜 분홍 색을 자랑하는 머리가 바다를 향해 나아 있는 후문을 통해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예님은 제제가 바다와 후문 사이에 있는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자주색 빛과 함께 나타난 것을 목격했다.

어디서 튀어나온 거지?

도인인가?

저런 도술은 본 적이 없는데?

예님의 상식에선 요물들만 쓸 수 있는 기술이었다.

그녀는 숨을 죽여 제제의 걸음을 지켜봤다.

후문을 지나 잘 다듬어진 나무들의 곁을 걸어 나무 의자가 있는 곳에 달았을 때,

제제는 걸음을 멈췄다.

기지개를 쭈욱, 하품을 하암

그때 예님의 뒤에서 세찬 밤바람이 몰아쳤다.

“꼬마 아가씨, 거기서 뭐 하세요?”

제제의 토끼 같은 분홍색 눈이 예님을 또렷하게 올려 보고 있었다.

“꼬마 아가씨, 거기서 뭐 하세요?”

조용한 성에 제제의 목소리가 울렸다.

내가 있는 것을 어찌...?

예님은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후문에서 옥상까지의 거리는 상당했다.

보통사람이라면 기척 같은 건 꿈에도 못 느꼈을 거리였다.

그런데 제제는 마치 처음부터 알았던 것처럼 그 분홍 시선을 또렷하게 맞추어 왔다.

옆에 있는 룬만 해도 예님이 아니었다면 제제가 온 걸 몰랐을 거다.

가늘어진 눈매가 흥미로운 빛을 띠었다.

제제는 예님을 물끄러미 올려보다가 그 옆에 있는 룬을 발견하고서야 손을 흔들거리며 씨익 웃었다.

“저 녀석...”

룬은 이를 으득 갈았다.

이 시간에 저 재수 없는 판떼기를 마주할 줄이야.

룬의 시선으로 본 제제는 노아의 옆에 서서 이래요, 저래요, 어째요, 안돼요, 싫어요. 뺀질거리고부터 보는 망나니였다.

허우대부터 여우처럼 약아빠진 놈이 어떻게 노아의 수행 비서가 됐는지, 뒷배가 있는 것은 아닌가 수상했다.

매번 하는 일 없이 여기저기 참견하기만 바빠 보이는 녀석은 눈엣가시였다.

감히 우리 노아 님의 옆자리를 차지했다고 자만을 해?

훗날 노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은 룬에겐 제제가 아니꼽기만 했다.

일할 때, 훈련할 때, 행사를 갈 때, 식사할 때, 화장실을 갈 때, 심지어는 잘 때도 함께한다는 수행비서의 역할은 놈팡이 같은 제제에게 어울리는 자리가 아니었다.

이 나라엔 인제가 저런 것밖에 없나?

오늘도 음흉함이 뚝뚝 흘러내리는군.

룬은 제제에 대항하는 억지 미소를 지어냈다.

노아 공작에게 넌 어울리지 않아.

“쳇.”

암암, 평생 인정할 수 없다.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제는 멍청하게 헤실 거리더니 멈췄던 걸음을 뗐다.

예님은 그 모습을 잠자코 지켜봤다.

그녀는 제제가 건물 안으로 사라지고 나서도 한참을 같은 곳을 응시했다.

뭐였을까, 그 ‘요술’은.

낯선 기운이 느껴졌더랬지.

난간에 기대어 있던 몸을 돌려 호기심을 애써 지우는데 옥상의 입구에서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옳다구나, 이쪽으로 오는 구나!

확인 해보자!

예님의 입꼬리가 실룩거렸다.

“안 주무시고 여기서 뭐 하십니까.”

제제가 머리를 쓸어올리며 재등장했다.

룬이 예님의 앞을 막아섰다.

제제의 풀어헤친 단추가 퍽 상스러워보여 미간이 저절로 찌푸려졌다.

“네가 알 것 없잖아?”

불친절한 목소리였다.

제제와 룬의 사이가 별로인가?

제제는 룬의 까칠한 태도가 익숙한 듯 되려 즐거워 보였다.

“어른은 아이들이 밤에 자지 않고 돌아다니는 것을 지도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만.”

아이…들?

룬의 눈썹이 비대칭을 그리며 불편한 심기와 함께 일그러졌다.

“예님은 내가 잘 돌려보낼 거다. 신경 쓰지 말고 꺼져.”

“제가 보기엔 룬 님도 아입니다.”

애써 참고 넘어갔건만 굳이 한 번 더 발톱을 세워 할퀴어 오는 녀석이었다.

생긋 웃는 얼굴이 어찌나 얄미운지.

룬은 주먹을 꽉 쥐었다 펴며 숨을 크게 쉬고 뱉어냈다,

품위를 지키자, 품위를...

“두 분, 이 높은 곳에서 뭐하셨습니까. 언제 친구가 되신 것이지요?”

내가 그걸 말해 줄 것 같냐.

머리 하나 이상 차이가 나는 키도 짜증이 났다.

룬은 제 어깨를 짚어오는 제제의 손을 뿌리치며 제 뒤에서 멀거니 서 있는 예님의 손을 잡았다.

“방으로 가자. 데려다줄게. 어...? 너 맨발이었어?”

이제야 아무것도 신고 있지 않던 예님의 발이 눈에 들어왔다.

하얀 잠옷의 끝이 발목에서 살랑거리는 탓에 쉽게 눈치채지 못했다.

“저런, 바닥이 많이 차가웠을 텐데요.”

“무슨 애가 이렇게 칠칠치 못하게...”

룬이 당황해 우왕좌왕하고 있자 제제가 다가와 예님의 앞에 무릎을 굽혀 앉았다.

“제가 안아서 옮기겠습…?”

예님의 허리에 팔을 두르려 하는 순간, 작은 손이 제제의 이마에 차악 올라왔다.

옅은 녹색 눈이 시야를 가득 채웠다.

마치 속이라도 꿰뚫듯 빤한 시선.

단 몇 초가 수십 분처럼 느껴지고,

“〈너 뭐니? 사람 행세를 하고 앉아있잖아?〉”

의미를 알 수 없는 언어였지만, 오싹 소름이 돋았다.

뭐지, 이 느낌?

“〈뭐,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됐다. 꽤 수상쩍지만.〉”

예님의 손이 떨어지고 그녀의 체온이 차가워졌을 때 제제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다.

“왜 저래?”

룬은 갑자기 조용해져서 멍하니 예님을 바라보는 제제를 이상하게 흘겨 보았다.

작은 여자애가 무거워서 못들고 저러고 있는 건가?

쯧, 허접한 녀석.

“〈요물도 아닌 것이 재밌구나.〉”

예님이 웃음기 가득히 중얼거렸다.

가이아에는 지금껏 보지 못한 신기한 것들이 많았다.

앞으로 가이아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궁금해졌다.

"예님, 많이 크겠지만 이거라도 신어. 발 다치면 어쩌려고 맨발로 나왔어."

룬이 제제를 제치고 다가와 제 신발을 벗겨 예님에게 내밀었다.

어여쁜 마음씨였다.

마음이 따뜻해진 예님은 그의 성의를 거절하지 않고 커다란 신발에 발을 넣었다.

"〈가자!〉"

룬이 신발끈을 묶어줄 새도 없이 예님이 룬의 손을 잡아 당겼다.

가죽 신발이 터덜터덜 소리를 내며 문을 나서고, 계단을 내려가고, 점점 멀어졌다.

홀로 남은 제제는 말없이 예님의 뒷모습 바라보았다.

그건, 뭐였지?

제제, 제노아키바의 휴가는 에스티엘라 성에서 멀리 떨어진 섬의 반대편에서 시작했다.

성을 나오자마자 공간이동 마법으로 일터에서 단번에 멀어진 그는 자유의 냄새에 황홀해 했다.

“’그것’만 아니었어도 그딴 일 중독자 밑에서 굽신거리진... 하, 됐다.”

제제는 해변을 즐기는 관광객들의 틈에 꼈다.

물놀이에 신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소란스러운 곳이었다.

아직은 이른 봄이었지만 몽베르의 낮의 여름의 햇볕처럼 따사로웠다.

제제는 사람 구경을 하며 일광욕을 즐겼다.

물에 젖는 건 별로여도 기분을 내기 위해선 수영복을 빼놓을 순 없었다.

화려한 핑크 수영복을 입고 선베드에 나른하게 누워 아름다운 여자들을 구경했다.

음, 이런 게 휴양이지.

꼬고 있던 발이 고양이 꼬리 흔들 듯 살랑거렸다.

그림자 하나가 그에게로 내려앉았다.

“제제 님.”

붉은 가면을 쓴 남자가 하얀 모래사장 위로 한쪽 무릎을 꿇었다.

시끌벅적했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멀어지고 순식간에 주변이 고요해졌다.

“기쁜 소식을 가져왔나?”

제제가 교태롭게 물었다.

“죄송합니다. 못 찾았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푹 숙이며 사죄했다.

제제는 뒤로 베고 있던 팔을 내려 단정하게 깎인 손톱을 매만졌다.

“그래, 여기도 없구나.”

“...”

“빌어먹을 몽블라체.”

모든 웃음기가 사라지고 차가운 음색이 흘러나왔다.

그의 주위로 자주색 기운이 꿈틀 대기 시작했다.

“아주 꼭꼭 숨겨놨네, 그치?”

연기 같은 자주색의 힘은 남자가 저항할 틈도 없이 온몸으로 파고들었다.

남자의 숨통은 조이고, 조이고, 졸렸다.

커헉...

“죄송합니다...”

남자는 괴로움을 삼키고 한 번 더 사죄했다.

“네가 죄송할 건 없지, 가봐.”

제제의 말과 함께 남자의 몸을 조르던 연기가 순식간에 흩어졌다.

그와 동시에 가면을 쓴 남자는 숨을 돌릴 새도 없이 모습을 감추고 사라졌다.

바닷가에 다시 소리가 채워졌다.

뜨거운 햇볕이 살갗 위로 떨어진다.

문득, 오늘 아침에 꼬마가 실없이 뱉은 말이 떠올랐다.

“이렇게 마른하늘에 비가 온다고?”

구름 한 점 안 보이는 하늘을 보며 제제가 중얼거렸다.

확률 낮은 도박이지만, 비가 온다면 야외 온천은 글렀다.

속는 셈 치고 보험을 들어볼까?

제제는 시선 끝에 걸쳐있던 사람들을 느릿하게 훑었다.

갈색 단발머리의 여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제제는 그녀를 향해 생긋 눈웃음을 지었다.

몸매를 드러내는 원피스의 자락이 여자의 걸음 마다 살랑였다.

가까워진 그녀가 간드러진 목소리로 물었다.

“혼자 왔어요?”

뻔한 수법,

“그쪽은요?"

그러나 뻔하지 않은 얼굴.

몽블라체 때문에 바닥을 쳤던 흥이 다시금 오르기 시작했다.

오후가 되자 예고 없이 먹구름이 몰려왔다.

값비싼 레스토랑에서 여자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던 제제는 갑자기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에 헛웃음을 지었다.

진짜잖아.

어린애가 때려 맞춘 거겠지, 반신반의 했지만 창문으로 고개를 돌릴 때면 예님의 하얀 얼굴이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샤론, 식사는 마음에 들었어요?”

풍성하게 굽이 친 단발머리가 잘 어울리는 샤론은 보기 드문 미인에 능력 좋은 자산가였다.

평민임에도 웬만한 귀족도 무시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이 자리에 있다며 본인을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그녀가 운영하는 화장품 브랜드는 젊은 여성들의 소비 심리을 겨냥한 색조 화장품으로 평민뿐만 아니라 귀족들의 관심까지 사로잡으며 몸덩이를 부풀렸다.

기존에 남성들이 만들었던 상품보다 질 좋고 아름다운 색감을 가진 화장품은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제제 역시 노아의 비서로 일하며 샤론의 이름을 들어봤다.

대단한 사업가인 만큼 까칠하기로 유명한 여자였는데, 지금 만큼은…

“아까 얘기한 술집으로 모시죠.”

“좋아요, 제제.”

그에게 푹 빠진 아름다운 숙녀에 불과했다.

제제는 능숙하게 샤론을 에스코트했다.

미치겠다.

“어딜 도망가요?”

날이 밝자 제제는 곤히 자고 있던 샤론을 두고 떠나려고 했다.

오늘은 부하 놈들한테 맡겼던 수색이 영 못 미더워 몽베르 산을 한 번 더 뒤질 생각이었다.

그런데 이 여자, 무섭다.

“순한 강아지인 줄 알았더니, 양심 없는 도둑고양이였네?”

제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다.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었다.

서로 가벼운 밤을 보내고 싶은 것 아니었어?

여자의 하얀 손가락 새에 걸린 담배가 유독 새하얗게 보였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렇게 꼬셨는지 모르겠는데 말이야...”

라이터의 불꽃에 담배 끝이 화르륵 타들어 가며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거 나한텐 안 통해.”

침대에 누워 팔을 괴고 올려보는 얼굴에 매력적인 자신감이 비쳤다.

담배 냄새 사이로 장미향이 섞여 방안을 가득 채웠다.

“나, 당신이 마음에 들었어.”

장미같은 매력에도 불구하고 제제는 당황스러웠다.

이런 인간 여자는 처음이다.

샤론의 거미줄에 잘못 걸린 제제는 온종일 그녀에게 끌려다녀야 했다.

야외 카페에서 브런치를 먹고, 길거리를 거닐며 시덥잖은 대화에 말 맞추어주며 몽베르에서의 휴가를 만끽해야했다.

당장이라도 사라지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럴 수 없었다.

팔짱을 낀 샤론의 팔이 너무나도 여려서 함부로 쳐내기 어려웠던 것일까?

제제는 샤론과 마주 앉아 먹은 점심이 끝날 때쯤 겨우 이별을 고할 수 있었다.

“이제 일하러 가야 합니다.”

제제는 그럴듯한 변명을 토해냈다.

제발 놔줘...

제제는 당차고 우아한 그녀가 절대 만만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수도 가서 만나기로 한 거 잊지 않았죠? 나 보다시피 집착 대단한 여자야. 세상이 반쪽이 난 다 해도 내 흥미가 떨어질 때까진 당신 못 놔줘. 무슨 말인지 알지?”

벗어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붉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은 굉장히 고혹적이면서도 섬뜩했다.

“아아, 공작한테 질투 나서 어쩐담. 당신을 뺏기는 기분이야.”

쪽 촉촉한 입술이 볼에 살짝 닿았다 떨어졌다.

“나의 귀염둥이 토끼.”

졸지에 강아지에서 고양이, 고양이에서 토끼가 된 제제는 어색하게 웃으며 멀어지는 샤론을 배웅했다.

제제는 제 볼에 남은 립스틱 자국을 쓱쓱 닦아냈다.

당분간 인간 여자는 안 만나도 될 것 같다.

아니, 못 만날 것 같다.

샤론이 살벌하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내가 지켜보고 있어, 당신.

무서운 여자였다.

자정이 넘는 시각.

제제는 그토록 바랐던 온천에 갔다가 개운한 몸으로 귀가했다.

귀찮았지만 후문 앞으로 공간이동 마법을 쓴 후 짧은 거리를 걸어야 했다.

에스티엘라 성의 내부 결계가가 3써클 이상의 마법을 허용하지 않는 탓에 결계 탓에 4서클의 공간이동 마법은 근처에서만 허용됐기 때문이다.

그의 구두가 후문을 넘어서자,

바람에 뒤섞인 어떤 냄새가 코끝을 간질였다.

예님이었다.

저를 항상 아니꼽게 보던 금색 머리 꼬맹이도 있었다.

꼬마들이 이 밤에 저기서 뭐하는 거야.

어서 자러 가라고 훈계를 해야겠군.

그리고 잠시 뒤,

제제는 괜한 오지랖을 부린 것을 후회하게 됐다.

예님이란 인간 ...

아니, 애초에 인간이 맞나?

그로부터 일주일 후.

예님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식사 예절을 완벽하게 터득하고 적응했다.

덩달아 노아의 끊이지 않는 드레스, 액세서리 조공에도 익숙해져 있었다.

“고기 맛있어요. 더 주세요. 많이. 많이.”

말을 배우고자 하는 욕심도 커 필요한 상황에서는 막힘없이 가이아어를 구사해냈다.

“소입니까?”

“그래, 이 섬에서 방목하여 키우고 윤리적으로 도축한 소다.”

노아의 말을 쉽게 하자면 비싼 고기란 말이었다.

카손이 한 번 더 태지천어로 바꿔서 설명해주자 제 방식대로 이해한 예님이었다.

“주스 다 마셨어요. 노아 것 마셔도 돼요?”

예님이 입맛을 다셨다.

오늘도 와인을 한 입이라도 맛보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

제 앞에 놓인 사과 주스를 급하게 벌컥벌컥 마신 이유였다.

가이아의 포도주는 어떤 맛일까?

복분자주 같은 맛이 날까?

냄새는 쌉싸름한 것이 색다를 맛이 날 지도.

“여기 음료를 더 채워줘야겠군.”

예님의 속을 훤히 뚫고 있는 노아는 어림도 없다며 제 술잔을 들고 하녀를 불렀다.

순수 과즙만 투명하게 뽑아낸 사과 주스가 쪼르르 유리잔을 채웠다.

예님의 기대에 찼던 입꼬리가 쭈욱 쳐졌다.

노아는 익숙해진 동작으로 예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제가 선물한 에메랄드 보석이 박힌 핀을 꼽고 있어 주의해야 했지만, 변함없이 보드라운 머리칼이었다.

“제제, 안 먹어? 내가 먹어요.”

제제는 일주일 내내 예님을 마주칠 때마다 저 모양이었다.

식사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빠안히 쳐다보는 데, 아주 부담스러웠다.

할 말이 있으면 하던가...

처음엔 싱글벙글 웃어주기도 하고 웃긴 표정을 지어보기도 했다.

허나 돌아오는 한결같은 표정은 해맑은 예님마저 고개 젓게 했다.

두 눈에 경계심이 가득한 것이 꼭...

“〈마을 앞에 세워둔 장승 같구나.〉”

그거 되게 못생겼는데.

왜 이렇게 닮아 보이지?

“뭐라한 거죠, 카손?"

제제는 예님이 태지천의 말을 할 때 마다 카손을 향해 통역을 부탁했다.

토씨 하나도 놓지지 않겠다는 기세로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였다.

노아는 손도 대지 않는 제제의 음식을 들어 예님의 앞에 놓았다.

예님은 노아처럼 우아하게 나이프와 포크를 들어 세 번째 고깃덩어리를 썰었다.

"닳는다 그만 봐라."

제제는 노아의 냉랭한 목소리를 듣고서야 예님을 탐색하는 것을 그만뒀다.

예님에게 숨겨진 무엇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듯했던 시선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했다.

그날 밤만큼 수상한 점도 못 찾겠고…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었다.

“〈흐아아,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 술이 당기구나.〉”

저 혼자 중얼거리는 말이 대체 뭐냐는 거지.

카손은 가끔 예님이 혼자 중얼거리는 말을 통역해주는 것을 불편해했다.

대체 무슨 이유로?

예님이 그날 밤 이후 노아에게 특별히 말한 건 없어 보였지만, 혹시라도 제제의 계획을 알고 있다면 곤란했다.

그냥 죽여버릴까, 싶었어도 공작이 난리를 칠 게 뻔한 데 일을 벌이기도 모호했다.

한동안은 몽블라체의 수족 행색을 하며 지내야했다.

하는 수 없이 지켜볼 수밖에.

빠안히, 일거수일투족 내가 널 보고 있단 것을 숨기지 않으며.

일종의 경고였다.

예님은 전혀 몰랐지만.

“제제, 대체 왜 그러지?”

노아가 서류에 서명하다 말고 물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왜 그렇게 애를 노려보느냐고.”

“제가요?”

“그래.”

노아는 아예 제제를 향해 의자를 돌린 채 깍지를 끼고 바라보고 있었다.

“예님이 무서워하는 거 못 봤나? 그런 멍청한 행동은 그만해줬으면 하는데.”

“무서워했다고요? 저를?”

“매일같이 웃음이 가득했던 아이 얼굴이 너만 보면 얼음처럼 굳는데, 그게 두려움이 아니고 뭐겠나.”

노아는 몰랐지만, 사실 당시 예님은 ‘쟤 또 저러네.’ 하는 마음으로 제재를 보았더랬다.

어떻게 질색하는 표정이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보였는지는 몰라도 예님을 지극하게 여기는 마음은 대단했다.

제제는 잠시 제가 그날 밤에 정신이 팔려 과한 행동을 했단 것을 깨닫곤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저녁에도 예님을 무섭게 한다면 앞으로 너와는 같이 식사를 하지 않을 거다.”

언제는 혼자 먹기 싫다며 제제와 비서실장님을 꼭 붙들더니 이제 예님이 생겼다고 서운한 말을 한다.

이젠 예님이 제 자식이나 다름없군.

아주 그냥 입양까지 하시지그래?

항상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하는 노아에 징그럽다고 질색팔색을 했던 제제였다.

그런데 이제는 내쫓겠다니... 은근히 섭섭한 제제였다.

예님은 신이 나 있었다.

오늘은 룬이 예님을 훈련장으로 초대한 날이었다.

초대는 두 사람은 매일 밤 옥상에서 야식을 먹는 것을 일과에서 비롯됐다.

‘체술이 늘지 않아 고민이다.’

룬은 알아듣지는 못해도 듣기는 잘 들어주는 예님에게 고민을 풀어놓곤 했다.

처음이 어렵지 한 번 털어놓으니 속 시원하더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맨몸으로 싸우는 거 말이야.’

‘아! 오른손, 왼손 퍽퍽?’

‘그래! 그거!’

‘싸움은 나빠요.’

본격적으로 말을 배우기 시작했는지 예님의 말투가 상당히 부자연스러웠다.

교과서에서 문장이랑 단어를 통째로 외웠나.

맞다, 예님은 알파벳을 깨우치자마자 카손이 서재에서 골라온 책을 통째로 외워버린 상태였다.

‘아니, 나는 그게 일이라... 내가 싸우는 건 안 나쁘다고… 아아, 됐고! 예님, 내일 훈련장 구경 올래?’

그렇게 해서 잡힌 약속은 예님을 온종일 들뜨게 했다.

책만 읽고 공부하느라 지쳤었는데 잘된 일이었다.

훈련장이라던가 연무장은 노아가 절대 보여주지 않는 곳이었다.

이상한 놈들이 어쩌구 했던 것 같은데 못 알아들어서 이유는 잘 모르겠다.

“예님, 또 성 구경 하시려고요?”

“응!”

예님은 최근 과보호로부터 벗어났다.

몸이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노아와 카손 앞에서 재주 넘기를 열 바퀴 돈 덕이었다.

오랜만에 하는 재주넘기라 속이 울렁거려 토할 뻔했어도 보람찬 일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가야 하더라?

야외 연무 어쩌구 옆에 훈련장이랬는데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성의 중심부, 홀에 선 예님은 다양한 갈림길을 앞두고 있었다.

왼쪽? 오른쪽? 중간?

이쯤 되면 감으로 찍어야 했다.

“〈어느 곳으로 갈까요, 척척박사님 알아맞혀 보세요... 어?〉”

“늦었다, 늦었어!”

룬이 항상 입고 있던 옷과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손목에 찬 시계를 보며 뛰어가고 있었다.

“단장님께서 화를 내실 거야!”

어쩐지 지난밤 잠들기 전에 카손이 읽어줬던 동화의 첫 장면이 생각났다.

제목이 이상한 나라의 엘비수였던가…?

예님은 검은색 망토를 휘날리며 뛰어가는 남자의 꽁무니를 쫓기로 했다.

허리춤의 칼도 그렇고 룬이랑 옷이 같으니 함께 훈련하는 친구라고 추측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다.

하나둘 셋, 하나!

하나둘 셋, 둘!

멀리서 우렁찬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여러 사람이 한 데 모여 구령을 외치는 소리였다.

“〈으아악, 벌써 시작했잖아!〉”

앞서 가는 남자는 속도를 올려 제 키만 한 하얀 담의 검은 문을 밀고 들어갔다.

“〈오오, 저기가 훈련장인가 보구나!〉”

풍겨오는 땀 냄새가 그녀가 맞는 곳에 도착했단 사실을 간접적으로나마 알려주고 있었다.

“후은려언장. 〈맞네!〉”

문에 새겨진 글자에도 보기 쉬운 글자로 훈련장이라 적혀있었다.

어제 하루종일 무리를 해서 글자를 익힌 보람이 있었다.

잘 찾아왔군.

그녀는 무거운 검은 문을 밀고 훈련장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힘껏 외쳤다.

“루운! 나 왔다!”

수십 개의 시선이 집중되고,

사방이 고요해졌다.

아무렴, 쏟아지는 시선에 면역이 강한 예님은 그 속에서 노란 병아리를 찾아냈다.

“안녕! 하세요! 룬!”

예님!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예님은 꼭 예상치 못할 때 튀어나왔다.

준비 운동을 하고 있던 룬은 제 눈을 의심해야 했다.

아무리 비벼봐도 저건 예님이다.

그는 재빨리 예님에게로 뛰어가 어깨를 잡고 속삭였다.

“예님, 내가 밤에 오라고 했잖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화가 안 통했던 모양이었다.

어쩐지 ‘검술 훈련장’이라는 말에 심각할 정도로 정신이 팔린 상태였더니, 자기가 편한 시간을 내어 찾아 왔나 보다.

“룬, 그 애는 누구지?”

단장이 저벅저벅 다가오고 있었다.

예님은 제 시야를 막아선 룬의 뒤편이 궁금한지 자꾸 얼굴을 빼꼼빼꼼 내 미려고 했다.

“〈비켜 보렴, 가이아의 검술은 어떤지 궁금했단다. 에엥? 왜 이러니? 나 좀 보자! 저리 비켜보라니까?〉”

“안 돼, 안 돼. 가만히 있어. 저 변태들이 너를 봤다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은 쥐처럼 룬으로부터 잽싸게 빠져나온 예님은 단장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나는 예님입니다. 너는 누구입니까?”

예님의 얼굴을 제대로 본 까마귀들이 웅성거렸다.

“저 꼬마 앤 누구야? 특이하게 생겼는데?”

“검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잖아?”

“귀족 가의 영앤가?”

“야, 혹시 그거 아냐? 공작님께서 주워오셨다는...”

“설마... 와, 대박! 맞는 듯?”

“맙소사!! 완전 귀엽잖아? 하녀들이 과장한 게 아니었어!”

“웃는 모습이 튤립보다 사랑스러운 거 실화야? 저 하늘의 햇살보다 눈부신 거 실화야?”

“뭐야, 그 오글거리는 표현은? 아오, 소름. 나 정색했다? 내 웃음 돌려놔라? 아앙?”

“내버려둬, 이 새끼 원래 이러잖아. 그나저나 넌 대가리 좀 치워봐. 천사님의 얼굴이 안 보이잖아.”

까마귀 기사단이 단숨에 시끌벅적해졌다.

룬은 땀을 삐질 흘렸다.

이러자고 훈련장을 보여준다고 한 게 아닌데...

단장의 이름을 얻어낸 예님은 작은 손을 여기저기 내밀며 통성명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예님입니다. 너는 누구입니까?”

“으윽, 깜찍해... 말투마저 소중해...”

“너는 깜찍입니까?”

“지랄할 거면 저리 꺼져, 나 인사하게. 안녕하세요, 예님? 하하하, 제 이름은 베라입니다. 반가워요.”

너도나도 먼저 인사를 하겠다고 몸싸움을 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반갑습니다, 막스.”

“읏, 내 심장...”

“나도나도! 예님, 저는 레이먼드 에요. 레이먼드 하고 한 번만 불러주시겠어요?”

“레이먼드! 안녕하세요?”

“동료들아 나는 먼저 하늘나라로 가마. 예님 만나 즐거운 인생이 보내고 간다 남겨주오.”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사람이 하나둘 속출했다.

룬은 당장에라도 예님을 데리고 나가고 싶었지만, 그녀를 둘러싼 선배들과 동기들의 장벽을 뚫기란 하늘에 손닿기 보다 어려웠다.

그런 것도 모르고 변태들의 틈으로 사라진 예님은 수많은 친구가 생겨 아주 기쁜 상태였다.

“단장님, 저 사람들 좀 말려주십시오...”

울상을 지은 룬이 중얼거렸다.

단장은 고개를 저었다.

“쟤들이 미치면 약도 없다.”

소수 인원이라 망정이지 까마귀 전원이 모여있었으면 배로 야단법석이었을 거다.

단장은 차라리 그것에 감사했다.

“무슨 소란이지?”

낯익은 저음이 훈련장을 울렸다.

그러자 놀랍게도 단원들이 입을 싹 닫고 목각인형처럼 삐걱거리며 목소리의 주인공을 향해 돌아보았다.

히익! 공작님…!!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렁찬 인사가 울려퍼졌다.

“안녕하십니까!”.

“우와, 노아!”

모두가 웃지 못하는 가운데 예님만이 방실방실 웃으며 그를 맞이했다.

대충 상황을 파악한 노아의 얼굴 근육이 꿈틀댔다.

연습은 안 하고, 예님이랑 놀아났겠다?

그의 뒤에 서 있던 제제는 흥미로운 상황에 가만히 팔짱을 꼈다.

“이것은 내 친구들입니다. 새 것입니다. 이건 막스, 이건 레이먼드, 이건 아놀, 이건 베라, 소피아...”

예님의 해맑은 소개에 단원들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호한 감정을 느꼈다.

졸지에 이것저것 취급까지 받는 중이었다.

그중에서 가장 울고 싶은 건 룬이었다.

내가 훈련장의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거야...

젠장, 노아님께서 화내시겠지...

더 열 받으시기 전에 자수하자.

“죄송ㅎ...”

“예님, 이리 온.”

꿈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다정한 미소와 목소리였다.

우다다다

예님이 달려간다.

무릎을 굽혀 앉아 팔을 벌리고 있던 노아의 품에 아이가 쏘옥 자연스럽게 안착했다.

???

뭐지?

룬이 마른 눈을 꿈벅였다.

“연습해라.”

제 품에 안긴 예님을 누가 볼세라 푸른 망토로 가려버린 노아가 짧은 문장과 함께 뒤도 안 돌아보고 훈련장을 빠져나갔다.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뭐였지...?"

"뭐가 지나갔나, 나 잠깐 졸았냐…?"

부성애 가득한 공작이라니...

에이!

설마!

까마귀 기사단은 그날 단체로 환상을 보았다고 치부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다음 날부터였다.

예님이 시도 때도 없이 훈련장으로 놀러 오기 시작한 거다.

기사단은 전날 본 것이 환상이 아님을 싫어도 자각해야 했다.

지난날 공작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애한테 손끝 한 번 대면 죽는다.’

그들을 노리는 죽음의 사신이 그녀의 뒤에 서 있었다.

귀여운 걸 만끽하는 시간도 아까운데 어째서 두려움에 벌벌 떨어야 하는가...

“그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그렇다고 귀요미를 무시할 수도 없고, 단원들은 눈물을 머금고 손가락 하나, 머리카락 한 올 닿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침착하고 정중하게 예님을 대하기로 했다.

“나도 하고 싶습니다.”

아이는 가끔가다 단원들이 하는 훈련을 보고 따라 하고 싶어 했다.

안된다고 하면 실망이라도 할까, 작은 목검을 찾아 넘겨주면,

휙 휘익 휙!

놀랍도록 민첩하게 몸을 움직였는데,

“풉,,,귀여…ㅂ끄윽...흐으으윽...”

그게 민첩하기만 하지 상당히 엉성하고 허술해서 단원들은 숨을 죽여 괴로워해야 했다.

“어때요?”

“이야, 천재야. 천재. 검술 천재! 예님 퍼얼풱트~!! 모두 박수!!”

짝짝짝

호우! 와우! 예님 최고예요!

“제정신이 아니야.”

초반엔 어떻게든 예님을 내보내려 했던 룬은 모든 걸 포기하고 제 할 일을 할 뿐이었다.

“공작님 오신다! 제자리로!”

예님과 신나게 놀다 보면 망을 보고 있던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와 신호했다.

그러면 그녀의 근처에 몰려있던 단원들이 잽싸게 열을 맞춰 연습하는 시늉을 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정확히 5초 뒤,

“예님.”

“노아~.”

예님이 노아에게로 폭싹 안겼다.

“또 여기서 놀고 있었느냐. 간식 먹으러 가자.”

노아가 예님을 안아 훈련장을 빠져나가면,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내는 단원들이었다.

“아까 공작님 아카데미에 자식 데리러 온 학부모 같았지…?”

“오우야, 딱 그거. 인정!”

예님이 건강하단 증거로 재주넘기를 보여준 이후부터 노아에겐 예님과 해변 산책을 하는 것이 새로운 일상이 됐다.

노아는 앞서 걸어가는 예님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발을 내딛는 곳마다 작은 자국이 남았다가 파도에 쓸려 지워졌다.

오렌지 빛깔 노을이 아이의 검은 머리카락 위로 내려앉았다.

평화롭다, 고 노아는 생각했다.

싱거우면서도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담백한 감상 표현이었다.

“요즘 까마귀의 군기가 빠진듯합니다.”

“친구가 필요한 건가?”

“예? 제 얘기는...”

“놀이 친구를 데려와야 할까.”

기사단원들의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꺼낸 서론이다.

노아의 동문서답에 까마귀의 단장 베럴드는 할 말을 잃었다.

얘기가 이렇게 샐 줄이야...

함께 걷고 있던 수행비서 제제가 별일 아니라는 듯 어깨를 토닥이며 속삭였다.

“앞으로 자주 보실 겁니다.”

베럴드는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바쁜 예님을 보며 집에 두고 온 제 딸아이를 생각했다.

지금은 훌쩍 커서 까칠해진 탓에 하루에 말 몇 마디 나누기도 힘들어졌지만, 딱 저만할 땐 예님만큼 작고 소중해 눈 밖에 두면 불안해서 못 견디곤 했다.

공작이 아이를 끼고도는 것도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다.

저리 어여쁜데 어찌 신경이 안쓰이겠나.

“아시다시피 훈련장은 위험해서 예님께서 놀이터처럼 여기시지 않도록...”

“역시 그렇지?”

“예?”

“예님이 그 장소를 좋아하는 것 같으니 기사단 훈련장을 밀어버리고 놀이터를 짓는 게 좋겠군.”

”... 각하, 그럼 기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제제도 말도 안 된다며 베럴드를 거들었다.

“훈련에 장소가 중요한가?”

중요합니다...

베럴드는 차마 꺼낼 수 없는 말을 꿀꺽 삼켰다.

“성의 왼편 숲 속 깊은 곳에 대충 만들어놔. 예님이 찾지 못 할만한 곳으로. 그리고 새훈련장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기사단은 내일부터 일주일 정도 특훈을 가는 게 좋겠군.”

아이고, 제제가 이마를 짚었다.

노아 이 인간, 기사단에 쏠리는 예님의 관심이 질투 나서 이러게 틀림없다.

“예, 알겠습니다. 훈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단장 짬밥 정도면 공작을 말려줘야하는 것 아닌가.

고분고분 답하는 베럴드에 제제가 이마를 짚었다.

하아, 또 일이 늘어났다.

다음 날, 까마귀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새벽같이 산행을 떠나야 했다.

예님도 갑작스러운 소식에 벌떡 일어나 그들을 배웅했다.

안타까웠지만 꽤 좋은 훈련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전쟁과 전투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법! 무사는 긴장은 항시 놓쳐서는 안된다!

이런 현실적인 방법을 고안해낸 노아가 대단했다.

이런 예님의 생각을 까마귀들이 들었다면 아주 식겁했겠지만 예님은 아직 이정도의 문장을 구성할 수준의 가이아어를 하지 못했기에 다행이었다.

예님은 떠나는 까마귀들을 보며 열심히 손을 흔들었다.

열심히 도를 쌓고 오너라.

따라 가고 싶은 걸 꾹 참아야 했다.

까마귀들이 돌아올 날이 몇 밤을 자도 한참 남아있었다.

“〈무료하구나, 무료해.〉”

읽고 있던 동화책을 탁 소리 나게 덮었다.

한동안 함께 놀아줄 친구들이 있어 즐거웠는데 모두 수행을 하기 위해 떠나버렸으니 예님의 친구는 이제 노아와 제제, 카손 뿐이었다.

“〈카손은 일하러 갔고, 노아는 지금쯤 뭐하려나.〉”

그런데 그나마 있는 카손마저 잠시 육지에 다녀온다고 나간 차였다.

미치도록 심심한 예님은 노아의 집무실에 가보기로 했다.

집무실은 예전에 노아를 따라 한 번 가본 뒤로 처음 가는 곳이었다.

똑똑똑

안쪽에서 저벅저벅 구두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문이 달칵하고 열렸다.

분홍 머리가 쑥 튀어나왔다.

그는 앞을 두리번거리다가 문을 닫으려는 찰나, 시야의 한참이나 밑에 있는 예님을 보더니 아 하는, 소리를 냈다.

마치 개미가 있었던 걸 모르고 밟을 뻔한 사람처럼.

제제 녀석 알면서 일부러 저러는 것이다!

순간 예님은 제 작아진 키가 서러워서 껑충 뛰어 제제의 머리카락을 빼죽 잡아당겼다.

“아악, 예님 양?!”

“여~ 제제! 노아는?”

갑자기 공격 당해 울상을 지은 제제를 뒤로 하고 예님은 문을 활짝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예님?”

제제가 문을 활짝 열자 책상에 앞에 앉아 있던 노아가 의자에서 일어나 한달음에 걸어 나왔다.

“어쩐 일로 왔느냐.”

번쩍 예님을 안아 든 노아의 표정은 언뜻보기엔 무뚝뚝하기 짝이 없었으나, 제제의 눈엔 잔뜩 신이 난 꼴이랑 다름없어 보였다.

“나는 심심합니다. 친구 없어요. 친구 만나요.”

대충 번역하자면 친구가 없어 심심하니 친구를 만나러 왔다는 말이었다.

“바빠요?”

“아니.”

거짓말.

방금까지만 해도 통신 석에 대고 회의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놀아요?”

“놀자고?”

“응!!”

이왕이면 밖으로 나가자.

카손이 그러는데 성 밖으로 나가면 번화한 마을이 있단다.

이왕 노는 거 예님은 바깥을 구경하고 싶었다.

예님은 고민에 빠진 노아의 옷깃을 잡고 졸랐다.

“마을, 마을, 섬 구경. 내 말 알겠습니까?”

유리구슬 같은 눈동자가 깜박깜박 대답을 재촉했다.

모르겠다고 하면 금방이라도 와그작 깨져버릴 것 같았다.

“그래, 가자꾸나.”

노아 인생 최초로 일보다 다른 것을 선택하는 순간이었다.

세 마리의 흑마가 푸르르 소리를 내며 멈춰 섰다.

검은색과 금색으로 화려하게 잘 꾸며진 마차에선 위엄이 느껴졌다.

“몽…베르…체.”

예님은 마차에 쓰인 글씨를 천천히 읽어봤다.

노아의 성이자 두 번째 이름이었다.

“멋져요!”

예님의 칭찬에 노아가 그녀의 머리를 투박하게 쓰다듬었다.

그는 턱이 높은 계단 위로 예님을 들어 올려 앉히고 따라 올라탔다.

“저도 갑니까?”

제제가 망설이며 물었다.

혹시나 샤론을 마주칠까 봐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이미 돌아갔을 테지만 그녀라면 제제를 우연에라도 보기 위해 돌아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날 시달린 것이 꽤 충격적이었는지 제제는 답지 않게 불안해했다.

“제제, 빨리!”

“얼른 타라잖나.”

마차 바닥에 닿지 않아 파닥거리는 발이 유난히 앙증맞아 보였다.

제제는 심호흡과 함께 마차에 올라탔다.

문이 닫히고,

몽베르 마을로 가는 마차가 출발했다.

덜컹거리는 승차감은 태지천에서 먼 길 갈 때면 얻어탔던 손수레를 생각나게 했다.

물론 푹신한 의자에서 오는 편안함부터 굉장히 달랐지만.

창밖으로 우거진 숲이 보였다.

키가 크고 초록 잎이 무성하다.

놀러 가기 딱 좋은 날이었다.

마을 초입부터 예님은 입을 떡 벌렸다.

길바닥은 걷기 편하도록 반들반들한 돌이 깔렸고 건물들 모두 벽들이 쌓여 올려져 3층 이상인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작은 마을이 아니라 세련되고 기획이 잘 된 도시처럼 보였다.

"선조께서 신경을 써서 발전시킨 마을이다. 조화로운 아름다움이 장점이지."

노아의 말은 아직 알아듣기 어려웠으나, 어쨌든 좋은 곳이란 건 알겠다.

"〈왜 사람들이 고개 숙여 인사하지?〉"

잠깐, 잠깐...

설마 내가 소원을 들어주는 도깨비란 사실이 여기에도 소문이 났나?

물론 그럴 리가 없었다.

사람들은 공작가의 마차를 보고 공경하하는 마음으로 꾸벅이는 것이었다.

몽베르 섬의 주인 몽블라체 가는 이곳에서만큼은 황실 위의 절대권력자였다.

마을 주민들은 어느날 번쩍 나타나 쓰러져 가던 섬의 경제를 일으켜준 몽블라체 가에게 존경하고 감사해 했다.

침략이 잦았던 원주민에게 육지의 사람들과 맞서서 교류하는 법을 알려주고, 섬을 개발하고 발전 시켜 먹고 사는 법을 알려주었다.

외딴섬에 갇혀 있던 그들이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몽블라체가 섬을 개발시키고 육지 사람들을 불러 준 덕이 컸다.

이러한 사정을 예님이 알 리가 없었다.

그렇다고 그녀의 착각이 근거 없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자의식 과잉이냐~ 하면, 아니다.

절대로 '노우'다.

예님에게도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다.

그녀가 살아온 생을 본다면 그녀가 어떤 이유로 착각했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모든 것은 시달림에서 비롯됐다.

초록 눈의 도깨비가 소원을 들어준대!

앞마을의 장덕철이도 그 도깨비를 보고 부자가 됐다더라!

동대륙의 천지에 굉장한 도깨비에 대한 소문이 돌았다.

발 없는 말은 천 리 밖으로 뻗어 그녀가 밟는 곳마다 구름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초록 눈의 도깨비님 제 소원 들어주세요

아이고 도깨비님 내 소원 들어주고 우리 집 들어와 잠시 쉬었다 가시오

도깨비님 도깨비님 어디 있다 오셨습니까 잘 오셨소이다 내 소원 먼저 들어보소

매정한 도깨비님 눈 쪽 잃어 세상 가장 불쌍한 놈 소원 하나 못 들어 주십니까

당시에 인간들은 초록눈의 도깨비 찾기에 혈안이 나있었다.

불쌍하게 여기어 시작한 선행이 눈덩이가 되어 그녀를 향해 굴러 떨어진 셈이었다.

네가 그 유명한 도깨비구나 나 널 잡아서 평생 호사를 누리며 살 테다!

도깨비 알기를 저희집 누렁이마냥 알았는지 보이는 족족 달려들어 목줄을 달려했다.

초록 눈 도깨비를 잡아오는 자에겐 살 50척을 내리겠다!

천 년을 넘게 살면서 그런 일 그저 한두 번 겪었을까.

인간들의 입은 참 무서웠다.

전설이란 게 얼마나 끈질기던지.

저 도깨비를 잡아라!

초록 눈의 도깨비다!

눈이란 건 영혼의 본질을 보여주는 매개체다.

둔갑해도 유일하게 바뀌지 않는 부위인지라 다른 곳을 아무리 꽁꽁 숨겨도 들키기 마련이었다.

초록눈을 보고 몰려든 자들은 예님을 달달 볶아 괴롭혔다.

그깟 욕심 때문에.

예님은 인간의 지저분한 욕심이 싫었다.

이기적일수록 추악했다.

인간들에게 친화적인 예님일그럴 리가 없었다.

사람들은 공작가의 마차를 보고 공경하하는 마음으로 꾸벅이는 것이었다.

몽베르 섬의 주인 몽블라체 가는 이곳에서만큼은 황실 위의 절대권력자였다.

마을 주민들은 어느날 번쩍 나타나 쓰러져 가던 섬의 경제를 일으켜준 몽블라체 가에게 존경하고 감사해 했다.

침략이 잦았던 원주민에게 육지의 사람들과 맞서서 교류하는 법을 알려주고, 섬을 개발하고 발전 시켜 먹고 사는 법을 알려주었다.

외딴섬에 갇혀 있던 그들이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몽블라체가 섬을 개발시키고 육지 사람들을 불러 준 덕이 컸다.

이러한 사정을 예님이 알 리가 없었다.

그렇다고 그녀의 착각이 근거 없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자의식 과잉이냐~ 하면, 아니다.

절대로 '노우'다.

예님에게도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다.

그녀가 살아온 생을 본다면 그녀가 어떤 이유로 착각했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모든 것은 시달림에서 비롯됐다.

초록 눈의 도깨비가 소원을 들어준대!

앞마을의 장덕철이도 그 도깨비를 보고 부자가 됐다더라!

동대륙의 천지에 굉장한 도깨비에 대한 소문이 돌았다.

발 없는 말은 천 리 밖으로 뻗어 그녀가 밟는 곳마다 구름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초록 눈의 도깨비님 제 소원 들어주세요

아이고 도깨비님 내 소원 들어주고 우리 집 들어와 잠시 쉬었다 가시오

도깨비님 도깨비님 어디 있다 오셨습니까 잘 오셨소이다 내 소원 먼저 들어보소

매정한 도깨비님 눈 쪽 잃어 세상 가장 불쌍한 놈 소원 하나 못 들어 주십니까

당시에 인간들은 초록눈의 도깨비 찾기에 혈안이 나있었다.

불쌍하게 여기어 시작한 선행이 눈덩이가 되어 그녀를 향해 굴러 떨어진 셈이었다.

네가 그 유명한 도깨비구나 나 널 잡아서 평생 호사를 누리며 살 테다!

도깨비 알기를 저희집 누렁이마냥 알았는지 보이는 족족 달려들어 목줄을 달려했다.

초록 눈 도깨비를 잡아오는 자에겐 살 100척을 내리겠다!

천 년을 넘게 살면서 그런 일 그저 한두 번 겪었을까.

인간들의 입은 참 무서웠다.

전설이란 게 얼마나 끈질기던지.

눈이란 건 영혼의 본질을 보여주는 매개체다.

둔갑해도 유일하게 바뀌지 않는 부위인지라 다른 곳을 아무리 꽁꽁 숨겨도 들키기 마련이었다.

'초록눈 도깨비'란 전설은 태지천 구석구석에 퍼져 있었고,

예님과 눈이 마주친 자들은 초록눈을 보자마자 소원을 들어달라며 달달 볶아 괴롭혔다.

그깟 욕심이 뭐라고.

마을이 들썩이고, 온 세상이 들썩였을까.

예님은 인간의 지저분한 욕심이 싫었다.

사랑스러운 만큼 추악한 이면을 가진 것이 인간이었다.

그래서 예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예뻐하다가도 미워하고 싫어했다.

오랜 세월을 그렇게 들쭉 날쭉 인간의 곁에 머물었다.

저 도깨비를 잡아라!

초록 눈의 도깨비다!

가끔 예님은 참다못해 폭발했다.

내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오를 때면 용암처럼 부글부글 끓어 넘쳤다.

그녀는 가장 못된 놈들을 잡아왔다.

너희의 추악함이 어디까지인지 내게 그리 보여주고 싶은 것이냐?

너희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 만들어주마!

그녀가 그르렁 거리며 이를 드러내자 벌벌 떨던 사람들의 몸들이 쭉쭉 작아지기 시작했다.

나무 옆에 있는 바위만 하다가 산기슭에 핀 들꽃만치 줄어든다.

그러더니 흙밭에 검은 돌덩이 같은 것만 남고 어디선가 맴맴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목청껏 울어도 찾아주는 이 없고,

사랑하는 사람 찾아 안기고 싶어도 알아봐 주지 않으니 슬프고,

징그러운 벌레라며 매질 받아 목숨 잃어 깨어나 보니 꿈이 아니다

욕심 가득했던 세월 허탈하기만 하니

잘못 살아도 참 잘못 살았구나

뒤늦은 후회의 쓴맛을 느끼거라

빌고 빌어도 소원 들어주는 이 없을 게다

남은 색 허망함 속에 죄를 뉘우치며 살 거라!

그렇게 그들은 예님의 말대로 후회의 삶을 살다 결국 아이들 손에 사지가 찢기는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여야 했다.

예님은 사람들을 좋아했지만, 막무가내로 소원을 들어주는 멍청한 대인군자가 아녔다.

물론 모든 사람들 그리 혼낸다고 소문은 쉽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잔인한 명성 앞에 벌벌 떨던 사람도 녹색 눈을 보면 야욕을 비추었다.

어찌 인간만의 잘못이겠는가.

씁쓸해진 예님은 소문이 산 들어가 살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찾아간 곳이 연옥산이었다.

산중에 작은 마을이 있었지만, 깊은 숲엔 사람 발길 드물고 경치가 어여쁘니 술 취향 잘 맞는 술주정이 산신령이랑 한잔 두잔 주거니 받거니 하며 세월을 보내기 딱 좋은 곳이었다.

신선놀음하며 딱 백 년만 살아보자, 그랬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 날 눈 떠보니 가이아이고,

내 소문이 여기까지 나있구나.

발 없는 말, 너 참 대단하다!

가이아와 태지천이 무역을 고려해보자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몽베르는 두 대륙의 교류가 활발한 해안 마을의 항구와 가까운 곳에 있는 섬이니 가능성이 더욱 컸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은 예님의 추리로 따져보자면 아주 말이 됐다.

“〈하하, 나란 존재의 인기는 그 넓은 바다도 막을 수가 없단다!〉”

“봐요, 봐. 나 참, 못 알아 듣겠네. 각하,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나 너무 궁금한데.”

“혼잣말은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해서 궁금하진 않다만, 귀엽다는 건 알겠군.”

다그닥 다그닥

고개를 조아린 사람들 틈을 달리던 마차가 어느 건물 앞에 멈춰 섰다.

예님은 아무도 제 얼굴을 볼 수 없도록 꽁꽁 가리기 위해 애를 썼다.

지금 이 상태로 욕망의 눈들을 본다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녀의 하차를 돕기 위해 먼저 내려 손을 내민 노아가 눈에 들었다.

노아야, 잠시 네 품 좀 빌리자꾸나!

가뿐히 뛰어 노아의 품에 폭삭 안겨 얼굴을 숨긴 예님이었다.

지금은 힘이 없으니 소원 못 들어준단다!

대뜸 제 재킷 안 쪽에 얼굴을 넣다니.

예상치 못했던 온기에 노아는 잠깐 당황했던 마음을 추스리며 예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왜 그러지?”

셔츠 위로 아이가 꼼지락댔다.

“사람, 안 보입니다.”

사람들이 안 봤으면 좋겠다고?

평소엔 쉼 없이 당차더니 막상 주목을 받으니 부끄러운가 보다.

그렇다고 제게 쏠린 이목을 강제로 거둘 순 없는 일이었다.

몽블라체에겐 피할 수 없는 관심이었다.

“구경하고 싶어지면 나오너라.”

풀썩

예님은 제 머리 위로 덮어진 따스한 온기에 눈을 데구르르 굴렸다.

제제의 냄새가 났다.

노아가 제제의 옷을 벗겨 얼굴을 아예 숨겨준 것이었다.

“고맙습니다!”

예님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노아의 친절에 기분이 좋아졌다.

이걸로 얼굴을 가리면 될 터.

우리 노아 참 착하기도 하지.

예님은 옷감 사이로 구멍을 만들어 눈이 보이지 않도록 끙끙대며 마을을 구경했다.

사람들이 참 많았다.

선망이 가득 차 있는 듯했다.

소원, 안 들어 준대도.

양반들은 서민들 사이에 도는 소문을 잘 모르기도 했는데 노아와 그의 집에 사는 사람들도 초록 눈의 도깨비에 관해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아니면 예님을 그냥 내버려두진 않았겠지.

그녀가 떴다 하면 부자, 양반 심지어는 왕족 황족이라 할지라도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으니까.

또 아니면 욕심 없고 착한 노아가 성 사람들의 입단속을 단단히 해놓아 나를 불편하지 않게 해놨거나?

노아는 욕심이 정말 없는 아이니 그럴 만도 했다.

모쪼록 예님에겐 반가운 일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재킷 안이 답답해졌다.

그렇다고 얼굴을 내밀긴 싫고...

쯧, 유명세란 썩 좋지 않은 것이야.

“그렇게 보고 있으면 불편하지 않나? 넓게 구경하고 싶을 텐데. 로브가 하나 있으면 좋겠군.”

“...?”

“백화점에 들르자.”

노아의 품에 안겨 건물로 들어서니 휘황찬란한 세계가 펼쳐졌다.

눈부신 보석들이 벽에 박혀있다!

반짝이는 것을 좋아하는 보석 수집가 침을 꿀꺽 삼켰다.

그들이 들어간 곳은 백화점이었다.

인기 있는 고급 브랜드부터 친절한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 직원들까지 우아한 분위기가 풀풀 묻어나는 곳이었다

몽베르 섬의 관광객들은 90%가 상위층 계급이었다.

관광지의 중심에 있는 가게들은 백화점을 기반으로 값비싼 물품을 파는 상점들이 즐비해 있었다.

몽베르 섬은 몽베르만의 한정판들이 가득한 쇼핑의 메카였다.

예님은 노아가 말한 로브가 태지천에서 여자가 머리에 뒤집어쓰는 두루마기류의 장옷이나 쓸 치마라는 같은 옷이란 걸 금방 알 수 있었다.

“마음에 드는 색을 골라봐라.”

로브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색별로 있었으며, 무늬의 종류도 수없이 다양해서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다.

선택지가 많은 건 좋으나 어려웠다.

“〈종류가 많아서 무엇이 좋은지 모르겠구나...〉”

“고객님께는 이런 색깔들이 어울릴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고민의 빠진 예님을 향해 직원으로 보이는 자가 몇 종류를 추려 내밀었다.

분홍색, 흰색, 남색, 청록색, 검은색, 금색 등등…

분홍색과 흰색은 예쁘지만, 시선을 뺏길 정도로 눈에 띄고,

금색은 예님이 정말 좋아하는 ‘금’ 색이었지만 정신 사납게 반짝거리니 쉬이 눈에 띌 수밖에 없었다.

무난한 남색과 검은색은 예님의 취향 이하로 너무 칙칙해서 싫고...,

이 무지개는 뭐다니?

눈이 아주 어지럽구나.

흐음, 뭐가 좋을까?

옳다구나, 저 청록색이 좋을 것 같다.

“어머, 안목이 좋으시네요. 토쿠아제 블루보다 한 단계 채도가 낮은 틸 블루 색감은 고급스럽고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동시에 세련된 이미지를 잡아준답니다.”

응? 뭐라고…?

직원의 말은 눈 깜짝할 새에 귀를 핥고 지나갔다

이런 게 진짜 실전이란 말이야?

우리 국어 배워보아요! 초등교육 편>에서는 이런 대화 상황이 없었는데, 그 책 순 엉터리였다.

“자수를 놓아드릴까요? 요즘은 그림보다 이니셜을 새기는 것이 유행이랍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엔 카손의 도움 없이도 괜찮다 생각했는데 집안사람들이 그녀를 위해 일부러 배려를 해주었나 보다.

사람마다 억양과 빠르기가 있단 걸 전혀 헤아리지 못했다.

열심히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현지화하기엔 아직 한참 먼듯했다.

예님은 약간 침울해졌다.

그때 옆에서 듣기 좋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님.”

“응?”

“이름.”

한숨을 포옥 쉬던 예님의 앞으로 종이와 펜이 내밀어 졌다.

까무잡잡하고 큼직한 것이 안 봐도 노아의 손이었다.

“이름?”

“태지천어로 이름을 써봐라.”

예님은 뜬금없는 요청에 고개를 갸웃했지만, 종이엔 어떠한 글자도 없었고 딱히 계약서 같은 건 아닌 듯했다.

아주 옛날 사기꾼에게 당해봐서 고생한 경험이 있던 예님은 자나 깨나 서명을 할 때면 조심하고 있었다.

그녀는 또박또박 나름 명필이라 자부하는 글씨로 이름을 써 내밀었다.

“이걸로 자수를 부탁하지. 색깔은 금색이 잘 어울리겠군.”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예쁘게 완성하여 가져오겠습니다.”

예님은 노아와 나란히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다.

머리를 뒤덮고 불편하지 않은 지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다.

근데 그게 또 귀여웠는지 노아의 입에 미미한 미소가 떠나질 않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제제가 혀를 찼다.

비관적인 제제가 아니라 카손이 있었다면, 웃음을 지었을 장면이었다.

잠시 후 직원이 로브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녀가 보여준 밑단에 예님이 쓴 그대로 ‘예님’이란 이름이 작은 손바닥만 한 크기로 금실 자수가 놓여 있었다.

“예쁘다! 감사합니다!”

로브를 쓰고 거울을 보니 천자락이 발목에서 찰랑거렸다.

뭘 입었다고 생각도 안들 정도로 가벼웠는데, 직원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어리둥절해 있던 예님에게 제제가 이해하게 쉽게 설명해주기를 이 로브 물에도 안 젖고 마구 깔고 앉아도 구겨지지 않는 것이란다.

혹시 천계에서 선녀님들이 가져다 판다니?

직원은 예님의 로브가 벗겨지지 않도록 목 가에 금색 리본을 단단하고 예쁘게 나비 모양으로 묶고 나서야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일어섰다.

모자가 얼굴을 보이지 않게 그림자를 적당히 지게 했는데, 예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

노아 역시 표정엔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기뻐하는 예님을 보며 덩달아 기뻐했다.

애가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는 것에 이어, 아이가 행복하기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하다라는 말도 어렴풋이 느끼는 그였다.

재킷을 돌려받은 제제는 노아의 다정한 얼굴을 보고도 더는 기절초풍하지 않았다.

“그러려니 합니다, 이젠...”

마음껏 좋아하세요.

짧은 인생 한 번 사는 거 행복하면 됐죠.

어쩐지 노아와 예님 사이에서 존재감이 투명해진듯 한 건 착각일까?

이런 것도 한 두번이 아니라 또 그려러니 한다.

제제는 앞서가는 예님과 노아의 뒤를 천천히 따라갔다.

뽈뽈 거리며 여기저기 쏘다니는 예님을 보아하니 텐션이 평소로 돌아간 것 같았다.

저럴 땐 진짜 평범한 어린애 같은데, 분명 그냥 인간 여자 아이는 아니란 말이지.

생각할수록 미스터리하고 수상해서 어떻게든 알아내고 싶었다.

그래서 그림자들을 통해 물건을 하나를 구해오게 했다.

지금쯤 구했을라나?

제제의 입가에 호기로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아, 그러고보니 '그 편지'도 목적지에 잘 도착했겠군.

비록 지금은 수행 비서 따위로 묶여있지만,

호락호락한 마음으로 노아와 예님에게 당해주지만은 않을 것이었다.

그 시각 웰츠의 남쪽에 있는 몽블라체 가의 영지.

테오르 전 공작은 올해도 노아로부터 몽베르 섬의 특산물인 햇사과를 포함한 과일을 받았다.

매정한 아들나미가 또 편지 한 장 안 보내 한동안 속이 좀 꾸낏한 상태였다.

오늘은 옆 동네에서 놀러 온 은퇴 동기와 체스를 두는 날이었다.

판돈을 크게 걸고 한창 체스판에 집중하고 있는데,

집사가 사과 밑에 숨겨져 있었다며 분홍색 편지봉투를 들고 왔다.

으아니, 그것은…!

제 차례에서 끙끙 머리를 굴리고 있던 테오르는 급히 편지를 받아들여 내용을 읽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편지의 중앙에 달았을 때,

“뭬에야!!”

벌떡

체스의 판이 엎어지도록 요란하게 기립했다.

“으이익? 자네!! 내가 이기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짓인가? 어어? 또 뭔 수작질이야!”

“이보게! 내 아들의 맘을 녹인 여자가 생겼다네!”

“아이고! 이런 경사가!! 당장 짐을 챙기게! 어서 가봐야하지 않겠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담도록.

노아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쥬얼리 매장 까르띠부띠의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목걸이와 귀걸이는 한 데 담고 반지는 치수를 맞춰 꺼내와!

직원들은 점장의 행동 지시에 따라 맡은 일을 하면서도 작은 어린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개구리 같은 초록 실루엣으로 여기저기 넘치는 사랑스러움을 뿌리고 다닌다.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몸짓 하나하나에 귀여움이 묻어나니 어째서 공작이 한시도 아이와 떨어지지 않으려 하는지 알겠다.

뭐든지 사주고 싶어 안달이 난 공작.

그녀의 눈길이 닿은 물건이라면 모두 쇼핑백에 담고 보는 공작.

백화점에 입사한 지 20년이 돼가는 점장도 처음 보는 장면이었다.

어릴 적부터 물욕이 없기로 유명하신 공작님께서 백화점을 털러 오시다니...

로브를 뒤집어쓴 작은 아가씨께서 어떤 분이신진 몰라도 감사합니다!

제제의 양손 가득히 들려있다 못해 수레까지 동원되어 가득 쌓인 쇼핑백들 속 물건은 죄다 백화점에서도 제일 가는 명품이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가늠조차 못 할 어마어마한 가격.

그러나 그의 재산엔 흠집도 안 날 가벼운 지출이었으니.

예님은 아마 평생 모를 일이었다.

지금도 노아가 저에게 선물을 사줬다는 것도 모르고 공작 눈치에 쩔쩔매는 직원들과 친구 먹기 바쁜 예님이었다.

“나는 예님입니다. 반갑습니다?”

후에 이날은 몽베르 백화점의 전설로 기록된다.

몽베르 백화점의 평소 매출의 10배를 뛰어넘었다는 어마무시한 전설로 말이다.

매출액의 90%가 공작의 지출이었단 건 비공식적이면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실로 남게될 것이었다.

“야시장이 열릴 시간이구나. 가볼 텐가?”

“야시장...?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해가 지면 물건을 파는 곳이다.”

“원해요! 야시장!”

야시장이라 하면 태지천에도 있는 문화였다.

특별한 축제가 열리는 날에는 괴상하게 생긴 가면을 쓰고 돌아다니기도 했고, 바글바글한 인파에 몸을 부딪치며 걷는 게 재밌어 일부러 사람들을 치고 다니기도 했다.

“맛있는 것 많아요?”

“이 세상에 네가 맛없다 하는 것도 있을까.”

몽베르 섬의 쇼핑 거리, 그 세련된 가로수길 위로 주황빛이 떨어지고 노아와 예님이 손을 잡고 걸어갔다.

“저기요, 각하~ 제 말이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방!해!만 되는 것 같으니 마차에 있으렵니다! 물론 짐꾼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제제는 언제나 항상 각하를 위해 출동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꽤 큰소리로 외쳤지만, 제제의 목소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연기처럼 돌아오는 대답 없이 공허함만 남겼다.

산처럼 쌓인 쇼핑백들과 외로이 남은 제제는 가로수에 기대 에효 하고 탄식했다.

“내 신세야...”

야시장의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시장 특유의 번잡함이 온몸으로 느껴졌다.

예님이 알고 있던 시장과 크게 다를 것 없는 광경이었다.

“노아, 노아!”

신이 난 예님은 노아를 끌고 구석구석 빠진 곳 없이 눈에 담고 있었다.

햇빛을 잘 받아 새빨간 사과를 빼곤 요상하게 생긴 과일들이 진열된 과일 가게.

작은 호리 박 모양처럼 생긴 초록색 과일은 이곳의 배의 맛이 났고,

양파처럼 생겼지만, 상큼 달콤한 향이 나는 과일은 석류라는 것이었다.

제 가게의 과일에 생기 가득한 호기심을 보이는 꼬마 손님에 한껏 기분이 좋아진 사장은 이것저것 친절히 설명해주면서 맛보기 과일을 아낌없이 내주었다.

과일 가게 사장의 열띤 설명에 따르면 가이아의 남쪽 제국에서 어렵게 수입해오는 것인데 태지천의 사람도 맛있는 걸 알아 모조리 쓸어가는 바람에 없어서 못 파는 과일이란다.

하지만 예님이 알아 들었을 리가 없었다.

손에 쥐어 주는 과일을 열심히 먹을 뿐이었다.

“바나나란다. 어때, 달콤하니 맛있지? 우리 가게는 최상품만 판단다. 맛 없을 리가 없지!”

“맛있어요! 더 주세요!”

“그래, 그래! 잘 먹어서 보기 좋네. 여기 많단다! 더 먹으렴!”

노아는 몇 발짝 떨어져 흐뭇하게 예님을 지켜봤다.

그리고 예님이 작별 인사와 함께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자, 품에서 지갑을 꺼내 과일 가게 사장에게 지폐를 내밀었다.

“내일 아침까지 여기 있는 과일들을 에스티엘라 성으로 보내주오.”

“흐익! 공작님! 여긴 어쩐 일로... 가, 감사합니다! 거스름돈을 금방...”

“됐다.”

노아가 지불한 가격은 좌판에 있는 과일을 다 합쳐도 반이나 남는 큰 액수였다.

“다 합쳐도 100 갈라가 조금 넘는데 200 갈라를 그냥 받기엔 너무 큰 돈입니다...”

“그럼 가지, 예님.”

예님을 잃어버리기라도 할까 마음이 조급했던 노아는 사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라진 지 오래였다.

원치 않게 혼잣말을 하고 있던 과일가게 사장은 제 손에 쥔 100 갈라 짜리 지폐 2장을 보며 난감해 했다.

“데비드! 나와보려무나!”

“잠시만요~!”

가게의 안쪽, 우람한 대답이 들려왔다.

“부르셨어요, 어머니?”

근육질 덩치의 청년이 열린 문에 걸린 알록달록한 비즈발의 자잘자잘한 소리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눈가에 난 직선의 큰 흉터가 조금 험악해 보이는 인상을 만들어 냈으나, 그가 짓고 있는 웃음만큼은 무엇보다 부드럽고 순수해 보였다.

“저녁하고 있었니? 맛있는 고기 스튜 냄새가 나는구나.”

“네, 어머니께서 아침부터 드시고 싶다 하셨잖아요.”

“내 아들 착하기도 하지. 사람들이 무섭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예쁘고 기특한 놈 어딨다고 시집 오기를 꺼리나 몰라... 속상해, 증말.”

매일 듣는 어머니의 잔소리가 듣기 싫을 법도 했지만 데비드는 신경질 한 번 내본 적이 없었다.

“험악하게 보이는 걸 제가 어쩔 수는 없죠. 저는 어머니와 있는 게 좋으니, 어머니와 평생 살 겁니다! 결혼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아이고, 우리 효자. 내가 아들 때문에 산다. 으응?”

“헤, 그런데 무슨 일로 부르신 거예요?”

“참, 내 정신 좀 봐! 데비드, 내일은 에스티엘라 성에 다녀와야겠구나.”

“공작님께요?”

데비드의 얼굴이 놀란 사자같은 얼굴을 했다.

“방금, 우리 가게의 과일을 전부 사셨지 뭐니. 내일은 가게 문도 못 열 것 같구나. 단골손님들이 화내시겠어.”

사장은 난감하면서도 기분이 좋은지 연신 입가에 꽃을 피우고 있었다.

데비드는 커다래진 눈으로 제 어머니의 손에 들린 100 갈라 지폐 2장을 내려봤다.

"정말 저 많은 과일을 전부 사셨다고요?"

굉장해!

정말 굉장한 일이야!

우리 가게에 공작님께서 다녀가시다니!

이건 일기에 꼭 적어 놔야겠어!

“킁킁, 데비드 스튜가 넘치는 것 같은데?”

“이런!”

우당탕 데비드는 겉보기와 달리 귀여운 면이 흘러넘치는 사내였다.

한편, 예님은 한창 시장 구경에 신이 나 있었다,

“예님, 그게 먹고 싶으냐.”

“아니야, 괜찮습니다.”

“근데 왜 그리 빤히 바라보느냐.”

“아냐, 괜찮습니다.”

“사주겠다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동물 모양의 솜사탕만 헤벌레 보고 있는 게 10분 째다.

침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입 이것만 사주겠다 해도 연신 싫단다.

인제 와서 양심에 찔리는 것이 우습지만, 시장에 들어와 이것저것 사 먹은 게 많아 노아에게 더 돈을 쓰게 하기 미안했던 예님이었다.

“자아, 우리 왕자님 끼끼 마우스 나왔습니다~!”

토끼, 곰, 사자 모양에 이어 생쥐까지!

솜사탕 장인은 현란한 기술로 설탕 가닥을 늘어뜨려 귀여운 작품을 만들어냈다.

예님은 다른 아이들의 솜사탕이 하나씩 완성될 때마다 짝짝짝 박수를 쳤다.

이 멋진 예술가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그는 어린 손님을 닮은 동물을 만들어 주는듯했는데, 예님은 제게 어떤 솜사탕을 만들어 줄지 궁금해 이것저것 상상해 봤다.

나는 아무래도 곱상하니 사슴 같다는 말도 많이 들어봤지.

눈도 초롱초롱, 얼굴은 갸름하고 몸매는 빼어나 사슴이 딱 좋겠구나!

“거기 공주님! 공주님은 솜사탕 안 먹고 싶어~?”

저를 닮은 사슴 솜사탕은 어떻게 생겼을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고 있는데 솜사탕 장인이 씨익 웃으며 말을 걸어왔다.

“배, 배가 부릅니다!”

“정말로오? 아이, 이거 어쩌나! 우리 공주님께서 박수를 하도 잘 쳐주셔서 내가 서비스로 솜사탕 하나 공짜로 주려 했는데, 이거 아쉽네~.”

“공짜?”

다른 건 너무 빨리 지나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공짜라는 단어는 명확히 들었다.

돈을 안 내도 된다는 의미의 단어!

동공이 커진 예님이 사실 확인차 고개를 올려 노아를 바라봤다.

노아가 마음대로 하라는 듯 살짝 끄덕이자 예님의 두 손이 꼬옥 모였다.

“공짜 주세요!”

“좋지, 좋지! 공주님 기다려 보세요. 내가 공주님 닮은 솜사탕 금방 만들어 줄게~.”

실가닥 같은 설탕이 나무 막대기에 돌돌돌 말린다.

둥그런 공 모양이 된 솜사탕 위로 작은 공이 두 개 더 올라가고, 눈이 생기고, 입이 생기고...

“〈개구리이?!〉”

“귀엽지? 아저씨가 열심히 만들어 봤어. 마음에 들어~?”

주위에 몰려있던 꼬마들이 와하하 웃어댔다.

“개구리다~ 개구리! 엄마, 쟤는 개구리예요! 나는 토끼인데!”

내가 어찌 개구리를 닮았단 말이냐!

예님의 입술이 빼죽 튀어나왔다.

동그란 솜사탕은 귀엽긴 했지만, 어쩐지 심통이 났다.

공짜라 무를 수도 없고, 나 원 참.

“흥! 개구리 아닙니다! 공짜 감사! 나 개구리 아닙니다!”

새초롬하게 휙 뒤를 돈 예님은 저를 보고 깔깔 웃는 꼬마들 틈에서 나와 분수대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노아에게로 달려갔다.

그녀의 걸음마다 예님의 로브 모자에 달린 초록색 귀가 팔랑거렸다.

여기서 예님이 모르고 있던 것이 있으니...

예님이 고른 초록색 로브는 사실 모자를 쓰면 귀가 뾰족 달린 어린이용이었다.

거울을 봐도 눈치채지 못했던 건 귀의 위치가 뒤쪽을 향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조금 더 귀여운 각도로 달려있었기 때문이었다.

로브를 푹 뒤집어쓴 예님을 본 사람들은 얼굴이 안 보이니 폴짝하는 개구리 같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다.

예님은 심술 궂게 이를 드러내고 개구리의 볼을 왕 물어뜯었다.

기대했던 동물이 아니라 실망했지만 달달하니 맛있긴 했다.

“먹을… 어? 울어요?”

노아에게 한 입 권할 생각으로 올려보니 노아가 제 큼지막한 손 하나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다.

“어라?”

손 틈을 자세히 보니 우는 게 아니라 웃고 있다.

예님의 입이 모이고 눈이 동그래졌다.

노아를 만나고서 처음 보는 커다란 감정 표현이었다.

보기 좋게 잘 웃네.

항상 변화 없던 눈썹 끝이 내려가고 눈가엔 보기 좋은 주름이 접히고 볼에는 호랑이 보조개도 있다.

작게 벌린 입술 틈으론 끅끅, 뭐가 그리 웃긴 지 숨을 넘기기 바쁘다.

역시 웃는 게 예쁘구나.

그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며 잊지 않도록 눈에 담는 예님이었다.

“하… 귀여워서 못 살겠군...”

겨우 웃음을 멈춘 노아가 예님의 로브 위로 손을 올려 쓰다듬었다.

“늦었으니 인제 그만 돌아가자.”

“응!”

그의 말에 예님은 솜사탕을 모아 모아 입으로 단번에 넣었다.

입안에서 달달한 설탕이 사르르 녹아내렸다.

입안은 행복했지만, 손이 아주 끈적거리고 있었다.

노아가 손을 내밀고 있었지만 이 상태로는 그의 손을 잡을 수 없었다.

그녀의 고개가 주위를 두리번 거렸다.

분수대가 있었다!

우다다 달려간 예님은 분수물에 손을 열심히 닦고선 옷에 쓱쓱 물기를 지웠다.

예님 저를 기다려주고 있던 노아에게로 가 손을 잡았다.

노아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람들 틈에 섞여 야시장을 빠져나왔다.

백화점 근처로 돌아가니 제제가 마차에 기대 기다리고 있었다.

“재밌게 노셨습니까?”

“응, 완전 재밌었습니다! 심심 없습니다!”

“저런, 손에서 바닷물 냄새가 나네요. 뭐 만지셨습니까?”

공작은 또 어떻게 저 손을 잘만 잡고 왔데?

노아의 깔끔한 성격을 아는 제제였다.

“손 닦고 가자. 분수대 물이 바닷물이라 시간이 지나면 따가울 거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 위로 까만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집사, 주방장에게 내일 시장에서 산 과일이 올 거라 일러 둬."

저택에 도착하고 예님을 방으로 들여보낸 노아가 집사에게 말했다.

집사는 공작의 생뚱 맞은 과일 구매에 의문이 들었지만 이유를 묻는 대신 제 직업에 충실한 대답을 했다.

"예님 아가씨의 아침 디저트로 준비하라 이르겠습니다."

노아는 만족하며 걸음을 집무실로 옮겼다.

방으로 들어가던 예님의 표정이 만족스럽게 놀았는지 밝아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요 며칠 간은 예님이 심심할만 했다.

제가 놀아줄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인 데다 기사단도 훈련을 보냈고, 카손도 육지로 갔으니 말이다.

한 달에 한 번 가이아로 오는 태지천의 배가 너덜너덜 선체의 반 이상이 뜯겨 나간 채로 입항했다.

바다 위를 날뛴 태풍을 만난 것이다.

많은 사람이 살아남았다는 건 기적적인 일이었으나 피해 정도가 상당했다.

130명의 사람이 부상을 입었고 20명이 실종됐다.

130명 중 120명가량이 태지천의 사람이었는데 말이 통하지 않으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과정이 더뎌졌다.

통역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 일당백 카손이 빠질 순 없는 상황이었다.

카손은 당분간 계속 돌아오지 못할 예정이었다.

노아는 집사로부터 성의 운영을 보고받던 중 심심한 예님이 성안을 이리저리 쏘다닌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사용인의 이름을 모조리 외워버리고 사적인 안부까지 물을 정도로 사이가 좋다고.

아이의 굉장한 친화력에 헛웃음이 나왔다.

말 몇 마디로도 성을 정복해 버렸는데 실력이 더 늘면 가이아의 사람들을 전부 친구로 만들 기세였다.

예님이 많이 심심한 것 같으니 이번 주중으로 한 번 더 시간을 내어 마을 구경을 또 다녀와야겠다.

백화점과 야시장을 구경시켜줬을 때의 반응이 좋았던 것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졌다.

몽베르 섬엔 보여줄 게 많았다.

시장에서는 사람들의 시선을 부담스러워하는 아이를 위해 부러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도록 기척을 지우고 있었다.

기척을 죽이고 있는 동안은 튀는 행동을 해서는 안됐다.

그런데 아이가 눈 여겨보던 것을 모두 구입한 데다 평소 보다 배로 깜찍한 모습에 웃음을 크게 터뜨렸었다.

젠장, 개구리가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었다.

예님과 함께 있으면 공작으로서의 긴장감이 조금 완화된다.

일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져 모두 때려치우고 예님의 옆에서 온종일 함께고 싶었다.

취미마저 일 아니면 검술, 운동이던 그에게 일탈을 시켜주는 무언가가 생긴 것이었다.

그녀가 그의 땅에서 발견되어 다행이었다.

예님에게도 노아에게도 모두 다행이었다.

안 되겠다.

생각이 난 김에 내일 해가 밝으면 아침을 먹고 예님과 함께 놀아줘야겠다.

제제를 두고 섬 반대편에 있는 멋있는 절벽 바위에도 가고, 다양한 동물들이 있는 생태숲에도 갈 것이다.

"재미있어하겠지."

노아가 팔짱을 끼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다 읽었다.〉”

오늘은 유난히 눈이 일찍 떠졌다.

어제 그렇게 놀고도 심심하다고 돌아오자 마자 자서 그런가.

아침에도 할 일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그녀는 책을 읽었다.

카손이 직접 번역과 해설을 달아준 동화책이었다.

이상한 나라의 엘비수>는 5번이나 읽었고, 가장 마음에 든 백설왕자>는 8번이나 정독했다.

마지막 한 권인 개구리 공주님>은 그다지 읽고 싶지 않아 한 번 보고 말았다.

카손이 주고 간 숙제도 다 해놨는데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다.

독학을 하려 해도 읽을 수만 있고 뜻은 모르는 것이 대부분이니 소용이 없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학습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었다.

가장 만만하게 놀자고 매달릴 수 있었던 친구들인 기사단과 룬은 언제 돌아올까?

훈련을 가서 죽은 것은 아닌지 몇 밤을 자도 안 온다.

오기만 해봐 매일 놀러 가서 내 멋진 검술 실력으로 혼내 주마.

룬과 제제는 일하느라 바빠 보여 종일 붙잡고 있을 수 없었고 하녀들도 할 일이 있으니 정해진 시간이 아니면 놀 수 없었다.

“〈잠이나 더 자면 좋을 걸 눈이 일찍 떠지는 것은 뭐람? 독서를 해도 시간이 안 간다.〉”

아침을 들기까진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고 배는 고픈 것 같고 잠은 안 오고.

예님은 방을 한 바퀴 쭈욱 돌다가 정원이 보이는 창문을 활짝 열었다.

풀 냄새가 싱그럽게 바람을 타고 들어왔다.

테라스를 나가 땅을 밟자 이슬이 맺힌 잔디의 촉촉함이 간지럽게 전해졌다.

“〈맨발로 다니지 말라고 했지만 난 이게 편하단다.〉”

오른쪽, 왼쪽?

저 나무를 타고 밖으로 넘어가 볼까?

그건 아침부터 너무 과한 움직임일 듯싶다.

아침엔 가벼운 산책이 좋지.

예님은 발길이 가는 곳으로 걷기 시작했다.

가다가 주방이 나오면 먹을 것을 얻어먹어야지.

상황을 봐서 은근슬쩍 와인이 어디 있는지도 물어야겠어.

룬이 있을 때 야식을 먹는답시고 주방을 여러 번 뒤져봤지만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던 와인이었다.

얼마나 맛있으면 술을 어디 숨겨놓고 자기들끼리만 먹는담!

몸이 돌아가기 전까진 어린이라며 술 같은 건 입에 대지도 못하게 할 거다.

그렇다면 몰래 먹는 것이 정답이지.

예님은 술을 찾기 위한 모험이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있었다.

발길이 가는 데로 걸어 도착한 곳은 나팔 부는 여인의 동상이 있는 정문이었다.

그곳에서 익숙한 얼굴의 하녀가 한 명 보였다.

주근깨가 매력적이고 어린 나이에도 어른스러운 마음을 가진 엠마였다.

엠마는 예님을 돌봐주는 하녀가 아니라 자주 볼 순 없었지만, 성을 걷다 보면 빨랫감을 들고 이리저리 가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곤 했다.

그녀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정문을 향해 시선을 두고 있었다.

마침 멀리서 달그락거리는 말굽 소리가 들려왔다.

나무 수레를 끄는 조랑말과 함께 들어오는 남자.

그의 거대한 덩치는 조랑말을 누렁이로 보이게 했다.

노아보다 큰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또 있구나!

예님이 입을 모아 감탄했다.

“데… 데비드?”

떨리는 목소리가 고요한 아침 하늘에 퍼졌다.

“엠마?”

남자의 얼굴에 놀란 기색이 서렸다.

엠마가 두 손으로 입을 막고 뒷걸음질을 쳤다.

그녀의 얼굴에 핏기가 사라졌다.

둘이 아는 사이인가?

놀란 것도 잠시 싱글벙글 웃고 있는 데비드와 대조되는 엠마의 하얗게 질린 표정이 꼭 못 볼 사람을 본 것 같다.

“너희 가게에서 과일을 판 거였어...?”

“응, 감사하게도 공작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지 뭐야. 덕분에 엠마 너도 보고 참 좋다! 오랜만이야!”

“...따라와.”

데비드가 통나무 같은 손을 기쁘게 내밀었으나 어딘가 좋지 않아 보이는 엠마는 그것을 무시하고 홱 돌아서 걷기 시작했다.

데비드는 헤 웃으며 멋쩍게 머리를 긁적이곤 엠마를 뒤따랐다.

어찌 저리 까칠한 것이야.

호기심이 생긴 예님은 종종종 뛰어 조랑말이 끄는 수레 뒤로 다가갔다.

두 사람의 공기가 서먹하기 짝이 없다.

데비드는 엠마에게 어떤 말이라도 붙이고 싶어 하는 듯 보였지만 엠마의 냉랭한 뒷모습은 꿈쩍하질 않는다.

남자의 눈엔 칼에 베인 듯 큰 흉터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눈동자는 다치지 않았는지 순수한 마음이 그대로 보였다.

대부분의 사람은 진심을 곧잘 숨겨 마음을 보고자 하면 깊이 바라봐야 했는데, 데비드의 경우엔 꾸며진 것 없이 내면이 투명하게 비쳤다.

그만큼 선한 아이라는 말이었다.

엠마는 왜 데비드의 눈을 똑바로 보지 않는 걸까?

데비드는 엠마를 잔뜩 걱정하고 있었다.

“저 엠마,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지금은 일하는 중이야. 너랑 얘기할 시간 없어.”

“아, 미안...”

볼 때마다 웃는 얼굴로 예님의 안부를 물어주던 엠마의 입에서 흘러나온 뾰족한 말에 예님이 다 무안해졌다.

데비드는 멋쩍게 조랑말의 줄을 고쳐잡았다.

미련이 남은 그의 시선이 엠마의 뒷모습을 몇 번이고 바라봤다.

“데비드.”

“어, 어?!”

걸음을 멈춘 엠마가 뒤를 돌자 멍하니 걷던 데비드가 화들짝 놀라 대답했다.

“저쪽 문이 주방이야. 아무나 붙잡고 과일 가져왔다고 하면 돼. 혼자서 해도 되겠지? 나 먼저 갈게.”

“잠깐만 엠마! 조금만 시간을 내주면 안 돼?”

“없어, 시간.”

입술을 짓이긴 엠마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똑하고 떨어졌다.

참고 있던 것이 넘쳐 흘러나온 것이었다.

당황한 그녀는 소매로 눈물을 훔쳐내며 빠른 걸음으로 멀어졌다.

그녀가 휭하게 떠나버리고 난 뒤 데비드는 엠마가 사라진 곳을 보며 허망하게 고개를 떨궜다.

“나 때문이야...”

“괜찮습니까?”

“윽, 깜짝이야!”

불쑥 튀어나온 예님에 쥐를 본 코끼리처럼 펄쩍 뛴 데비드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안녕하세요. 예님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님.”

노랑색 잠옷을 입은 아이가 언제부터 수레에 타고 있었는지 과일 상자 위에 앉은 모양이 자연스러웠다.

“저는 데비드에요. 수레가 튼튼하진 않답니다. 위험하니 내려오시겠어요?”

데비드는 아이를 안아줄 요량으로 손을 뻗었지만, 힘이 넘치는 예님은 괜찮다며 폴짝 가볍게 뛰어내렸다.

“엠마, 슬퍼요. 데비드, 슬퍼요? 왜 슬퍼요?”

“내가 슬퍼 보였어요?”

예님은 뭘 당연한 걸 묻느냐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예님도 친구가 있죠?”

“많이요.”

인싸 예님이 대답했다.

“친구랑 싸워본 적은요?”

예님은 싸워본 기억은 얼마 없는 것 같아 고개를 저었다.

“예님도 언젠간 친구와 싸우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엠마는 저에게 화가 났거든요. 그래서 저를 이제 안 좋아하나 봐요. 예님도 친구가 화를 내지 않도록 잘해줘야 해요.”

좋아하지 않는데 그렇게 울었다고?

예님은 엠마의 눈물을 똑똑히 봤다.

원망, 슬픔, 자책이 담겨있었지만, 싫다거나 혐오의 감정은 전혀 없었는걸.

“데비드 싫어요, 없어요. 엠마 좋아요.”

널 싫어하는 게 아니야, 엠마도 널 좋아해!! 라는 뜻이었다.

“물론 저는 엠마를 여전히 좋아죠. 제 유일하고 소중한 친구니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뜻이 제대로 전달된 것 같진 않다.

“왜 싸움입니까?’

“왜 싸웠느냐고요? 그건...”

“어이, 거기 총각! 오늘 오기로 한 과일 가게 사람인가?”

“예! 맞습니다. 금방 그리로 가겠습니다!”

예님은 멀거니 서서 수레를 끌고 주방으로 뛰어가는 데비드를 바라봤다.

“과일…?”

어쩐지 달달한 냄새가 났다.

배고파!

아침 일찍 일어난 예님의 배가 꼬르륵 소리를 내고 있었다.

예님은 데비드를 따라 주방으로 갔다.

그리고 예님은 주방장에게 혼이 나야했다.

“아가씨, 잠옷에 맨발이라니요! 다음번엔 절대로 맨발 입장 불가입니다? 주방은 아야! 하는 거 많아요. 아야! 알았지요? 배고파서 오신 거죠? 기다려 보세요 이 청년이 가지고온 딸기가 아주 싱싱하니 금방 씻어서 드릴테니."

잔소리를 듣고 딸기를 얻었다!

품에 딸기 그릇을 안은 예님은 다시 당나귀와 함께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던 데비드에게로 다가갔다.

“데비드, 나랑 놀아요. 딸기 먹어요.”

“미안해요, 저는 제 할 일을 다해서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놀아요. 그리고 딸기 먹습니다. 왜 싸움했습니까? 난 궁금합니다. 왜 싸움?”

왜 싸웠는지 딸기 먹으면서 말해줘 궁금하니까!

그러나 데비드는 곤란한 듯 머리를 긁적였다.

“지금은 집에 가서 어머니께 아침밥을 해드려야 해요. 다음에 또 만나면 얘기해요.”

“궁금합니다!”

“정말 가야 하는데...”

“같이 갑니다, 집!”

“저희 집에 오겠다고요...?”

“응!"

그렇게 예님은 데비드의 수레를 타고 마을로 갔다.

달그락, 달그락

조롱말이 듣기 좋은 박자감을 만들며 흙길을 걸어갔다.

데비드는 귀여운 꼬마 친구 예님을 집으로 초대했다.

저를 무서워하지 않은 아이는 오랜만이다.

예님이 뭐하는 아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엠마에 대해 관심이 많아 보였다.

시간이 되니까 저를 따라왔겠지, 어쩌면 예님이 엠마와 화해를 할 방법을 알고 있을지도 몰랐다.

물론 모른다고 해도 상관없다.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지도.

데비드는 수레에 앉아 딸기를 맛있게 먹는 예님을 보며 씨익 웃었다.

“운이 좋으시네요? 오늘 아침은 내가 제일 잘하는 햄, 달걀과 야채 볶음밥이거든요.”

예님은 데비드가 마을로 향하고 있단 걸 알아챘다.

아차차, 마을에 사는 친구였구나.

로브도 안 가져왔는데 나를 알아보고 소원을 빌면 어떡하지?

조금 걱정이 됐다.

성의 사람들은 예님의 눈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아 하는 게 아무래도 소문을 듣지 못한 것 같았다.

아니면 모두 모르는 척 하는 걸까?

그러나 단 한 명도 조금의 욕망도 내비치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한 명 정돈 달려들 법도 한데...

마을 사람들은 마차에 있는 예님을 단숨에 알아보지 않았던가.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우선 마을에서는 최대한 몸을 숨겨야 했다.

이른 아침에도 마을은 생기가 넘쳤다.

시장 가에 있는 데비드의 집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다.

예님은 수레에 있던 모포를 뒤집어쓰고 사람들을 구경했다.

오늘은 솜사탕 장인이 안 보이네.

아이들도 많이 안 보이고.

다들 아침 장사 준비에 바빠 보였다.

수레가 멈춘 곳은 익숙한 가게였다.

예님에게 과일을 잔뜩 주었던 아주머니가 있던 바로 그곳!

반가운 우연이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친구도 왔어요!”

“안녕하세요!”

“친구? 이게 웬 어린애니?”

“안녕하십니까? 예님입니다!”

“공작가에서 만났는데 저랑 놀고 싶다고 해서요. 활기차죠?”

과일가게 사장은 예님의 맨발을 보고 시리지 않으냐며 실내화를 꺼내줬다.

실내화는 어른용이라 매우 컸지만 그런 것 따위 개의치 않는 예님은 잘만 집안을 뛰어다녔다.

내 눈을 봐도 멀쩡한 자라면 편히 있을 수 있겠어!

데이비드의 집은 거실과 주방 방 두 개가 있는 평범한 가정집이었다.

문에 걸려 있던 비즈발을 시작해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었는데, 예님의 관심을 끌 만한 것들이 여기저기 있었다.

강아지 그림이 있는 액자와 꽃모양 거울, 창문을 알록달록하게 해주는 투명한 스티커.

분홍색 그릇과 하늘색 숟가락, 포크까지.

“하얀색 옷을 입었으니, 턱받침을 해야겠구나. 데비드가 어렸을 때부터 칠칠 맞아 만들어 놓았던 턱받침이란다.”

사장이 예님의 목에 둘러 준 것은 꽃모양이 잔뜩 수놓아진 천이었다.

“예뻐요.”

“고맙다. 예님, 맛있게 먹으렴. 데비드가 요란하게 요리하긴 해도 맛은 수준급이란다!”

데비드가 우당탕 소리를 내면서 차린 아침은 황홀한 냄새가 나는 소시지와 노른자가 터지지 않고 잘 구워진 달걀, 채소가 들어간 볶음밥이었다.

예님은 숟가락을 들어 볶음밥을 한 숟갈 떴다.

고소하고 담백하니 질리지 않고 몇 그릇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먹고 더 먹어요?”

“그럼, 먹고 더 먹어도 돼!”

와구와구, 예님의 숟가락이 바빠졌다.

저보다 덩치가 큰 데비드 보다 한 그릇 더 먹은 예님은 부른 배를 안고 푹신한 소파에 앉았다.

맛있는 것에 정신이 팔려 본래 목적을 잊어버릴 뻔 했다.

이제 배도 부르겠다.

이제 얘기를 한 번 들어볼까?

“나는 농장에 좀 다녀오마 예님과 재밌게 놀고 있으렴.”

“네, 어머니. 다녀오세요.”

예님은 손을 흔들어 과일 가게 사장님을 배웅했다.

설거지를 마친 데비드가 따듯하게 탄 레몬차를 가져왔다.

상큼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불렀던 배는 거짓말이었는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잔을 집어 들자 시큼함에 침이 고였다.

“직접 담근 레몬 청을 탔어요. 쿠키랑 함께 드세요.”

덩치는 커도 손은 야무졌다.

아기자기한 그릇에 담아온 쿠키가 꽃 모양으로 담겨있었다.

찻잔에도 세심하게 풀잎 하나 올려놓은 모양이 더욱 입맛을 돌게 했다.

예님은 가장 가운데 것으로 쿠키를 집어 한 입 베어 물었다,

바삭하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향이 퍼졌다.

견과류 맛이 나는 과자였다.

자세히 보니 마른 과일도 잘게 잘게 박혀 있었는데 덕분에 레몬차와도 잘 어울렸다.

식후에 먹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데비드가 기분 좋게 웃었다.

“말해요. 엠마 싸움. 궁금합니다! 알고 싶습니다.”

엠마하고 싸운 이유가 궁금하니 인제 그만 말해 보아라!

“아아, 저와 엠마 얘기를 듣고 싶다고 하셨죠? 엠마하곤 친한 사이세요?”

“응!”

성의 모두와 친하다고 자부하는 예님이 대답했다.

“부럽네요. 엠마하고 저는 오랜 친구였어요.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데비드가 쓰게 웃었다.

그의 눈이 접히자 흉터가 길게 쭉 연결됐다.

어떻게 생긴 흉터일까? 궁금해하면서도 예님은 데비드를 위로했다.

“데비드, 엠마 친해요. 친구입니다. 나는 알 수 있어요.”

“정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예님이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따라 이런 아기자기하고 알록달록한 것을 좋아했어요. 꽃도 좋아하고 귀여운 인형도 들고 다녔죠. 그래서 친구가 없었어요. 남자답지 못하다고 놀림을 받았거든요.”

그런 그에게 다가와 준 유일한 친구가 엠마였다.

또래 중에서 가장 착하고 어른스러운 그녀는 매일 혼자 놀고 있던 데비드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곤 했다.

‘데비드, 뭐해?’

‘민들레 꽃이 폈어.’

‘와! 저번 주엔 노란색이더니 벌써 활짝 폈네?’

엠마는 데비드의 옆에 나란히 앉았다.

몽베르 섬엔 꽃이 없었으나, 가끔은 드물게 바람을 타고 날라온 씨들이 꽃을 피워내는 경우가 있었다.

이 강가에 핀 민들레처럼.

데비드는 품에 있던 여자아이 모양의 봉제인형을 꼭 끌어안았다.

그의 엄마가 만들어주고 그가 직접 머리를 땋아준 인형이었다.

‘예쁘다. 그 인형 이름이 뭐야?’

‘라라. 6살. 우리랑 친구야.’

‘반가워, 라라. 너 머리스타일이 참 좋구나?’

‘내가 해준 거야. 머리끈도 내가 만들었어.’

‘진짜? 대단하다! 완전 예뻐! 나는 내 머리 혼자 못 묶거든. 우리 할머니는 매번 아프게 머리를 빗겨줘서 요즘엔 나 혼자 빗고 있어.’

부모를 여의고 조부모와 함께 사는 엠마는 예쁘게 꾸미고 다니는 친구들을 항상 부러워했다.

스스로 꾸밀 수 있는 건 머리띠를 하거나 핀을 꼽는 것이 전부였다.

‘나도 잘하고 싶은데… 왜 안 되지? 데비드가 하는 걸 보면 엄청 쉽게 되는데. 손재주가 좋은 것 같아.’

데비드의 옆에 앉아 열심히 배웠지만 늘지 않는 실력에 엠마가 시무룩해졌다.

데비드는 엉망이 된 엠마의 인형을 받아 제 인형처럼 예쁘게 꾸며줬다.

‘엠마 머리도 내가 묶어줄까?’

엠마의 새로운 머리스타일은 데비드의 손에서 탄생했다.

길게 기른 붉은 갈색 머리는 데비드의 실력을 발휘하기에 딱이었다.

기본적인 포니테일, 반 묶음부터 화관을 쓴 듯이 땋은 머리, 높게 쌓아올린 머리, 꽃과 함께 땋은 머리 등등 데비드는 못하는 게 없었다.

섬의 모든 여자아이가 엠마의 머리스타일을 부러워했다.

‘데비드 너랑 놀면 시간이 무척 빨리 간다? 예쁜 머리도 아주 좋고 구슬 꿰기로 팔찌 만드는 거랑 인형 놀이를 하는 것두 재밌어.’

데비드 역시 엠마와 노는 시간이 좋았다.

데비드는 보통 여자아이들이 좋아하는 일을 잘했고 엠마는 힘을 쓰거나 책을 읽거나 머리를 쓰는 일을 잘했다.

데비드가 손수건에 자수를 놓고 있으면 엠마는 책을 가지고 와 그에게 읽어줬다.

두 사람은 단짝이 되어 서로를 즐겁게 해주었다.

그렇게 10년을 꼭 붙어살았다.

‘내 옆집의 마가렛이 너의 팔찌를 사고 싶대! 마가렛뿐만 아니라 제시, 페퍼도!”

‘정말? 내 팔찌가 마음에 든대?’

‘그럼! 내가 찬 팔찌를 보며 잔뜩 부러워하는 걸 데비드에게서 사면된다고 홍보했어. 잘했지?’

손재주가 좋은 데비드는 액세서리, 손수건, 머리끈 등을 직접 만들어 엠마에게 선물하곤 했다.

그러면 엠마는 그것들을 동네 여자아이들에게 자랑했는데, 그게 데비드의 돈벌이로 곧잘 이어지곤 했다.

‘이참에 시장에서 너의 작품들을 팔아보는 게 어때? 내가 도와줄게. 수당은 네가 짠 모자면 충분해!’

야시장에서 가판을 놓고 수제 장신구를 팔게 된 데에는 엠마의 응원이 컸다.

‘예쁜 장신구 사세요! 모두 수작업을 통해 만들었답니다! 한정판! 소장가치 대박! 싸고 예뻐요! 원석으로 만들어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답니다!’

엠마는 장사에 소질이 뛰어났다.

마을 사람들, 관광객 할 것 없이 데비드의 가판대로 몰려들었다.

팔리지 않을까 봐 소량만 준비해 놓았던 장신구는 순식간에 없어서 못 파는 수준이 됐다.

어릴 적 마을 사람들로부터 보통 사람과 다른 아이라며 손가락질을 받고 자라온 데비드는 제 실력에 대해서 늘 자신감이 부족했다.

가판대도 엠마가 아니었다면 도전할 생각도 못 했을 일이었다.

그런데 제 작품들이 이렇게 인정을 받다니…!

첫 장사에서 성공을 맛본 데비드와 엠마는 강가에 앉아 서로의 등에 기대 축하의 맥주를 마셨다.

‘거봐, 네 실력은 귀족들도 인정한다니까? 네가 수도로 간다면 굉장한 디자이너가 될 거야.’

‘네가 잘 팔아줘서 그래. 디자이너와 비교할 수준은 아니야. 게다가 무섭게 생긴 나랑은 어울리지 않는 일인걸?’

‘뭐? 또 그런다. 또. 너는 덩치만 크지 마음은 작아선 대범할 줄 모른다니까? 세상에 생긴 대로 노는 사람은 없어. 나는 네가 자부심을 느끼면 좋겠어. 그게 내 바람이야.’

‘고마워...’

‘오늘처럼 시장에서 꾸준히 물건을 팔다 보면 좋은 후원자를 만날지도 몰라. 그럼 수도로 올라가 디자이너로서의 발판을 쌓아 유명해질 수 있겠지. 내가 브랜드를 관리할게. 너는 마음껏 재능을 펼쳐!’

‘엠마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줄 알아?’

‘이런 걸 빅픽쳐라고 하는 거야. 야망 있는 사업가가 되기 위해선 갖춰야 할 덕목이지.’

데비드는 엠마가 있어 든든했고, 엠마는 데비드가 있어 보람찼다.

두 사람의 꿈은 컸고 작은 곳에서부터 천천히 성장해갔다.

지붕도 없이 간이 책상 하나만 달랑 초라한 가판대임에도 사람들은 끊이질 않았다.

데비드의 재능과 엠마의 장사 실력 덕이었다.

인지도도 어느 정도 생겨 제대로 자리를 잡았을 즈음, 데비드도 엠마 없이 손님을 상대하는 데 익숙해졌다.

‘이 파란색 돌은 뭐예요?’

‘그건 빅블루 해안에서만 나오는 돌을 깎아 충분히 빛을 머금도록 가공한 아블리라는 원석이에요.’

‘대단하다. 이 가방도 직접 짠 거예요?’

‘그럼요. 이 손수건의 자수도 제가 했답니다. 원하신다면 자리에서도 하나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멋있다~! 내 남자친구는 설거지는커녕 이런 건 하나도 할 줄 몰라. 데비드 씨 반만 닮으면 좋겠다.’

‘반전 매력이 사람 마음 설레게 한다니까? 귀여워요, 데비드 씨~.`

손님을 향한 진심이 가득 담긴 순둥한 미소는 주 타켓인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했다.

엠마의 말로는 데비드의 수줍은 접대가 손님들을 더 불러들인다고 했다.

그래서 데비드는 부끄러워도 손님들을 응대하려고 노력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데비드의 핸드메이드 가판대 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가 봐도 상당한 자산가인 화려한 여자가 방문했다.

엠마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데비드 혼자 가판을 지키고 있을 때였다.

‘아,안녕하세요, 친절한 데비드의 핸드메이드 가판대 입니다...!’

‘예쁜데? 이 정도 실력이라면 수도에서 팔아도 손색없겠어. 왜 친구들이 여기에 꼭 와보라고 했는지 알겠네. 노점상이 얼마나 대단하냐 무시했던 내가 미안할 정도야.’

새빨간 립스틱과 새빨간 구두, 딱 붙는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세련되고 당당한 분위기를 풀풀 풍겼다.

‘제작 주문도 가능해요?’

‘한 번도 해 본 적은 없는데요...’

‘그럼 한 번 해봐요. 나에게 어울리는 귀걸이를 만들어 줘요. 기간은 일주일이면 충분하죠?’

‘그렇지만...’

‘부담 갖지 말고 한 번 해봐요.’

강렬했던 여자 손님이 가고 그녀의 향수만이 데비드의 머리를 가득 채웠다.

그녀에게 어울리는 귀걸이라고?

내가 그런 걸 만들 수 있을까?

후에 엠마에게 그녀가 없을 때 나타났던 여자 손님에 관해 설명했다.

엠마는 이것도 좋은 경험이라며 데비드를 격려해줬다.

그녀는 그 여자 손님이 어쩌면 대단한 거물일지도 모른다며 설레발을 치기도 했다.

데비드는 엠마의 말에 힘입어 귀걸이를 구상했다.

고혹적인 매력을 돋보일 수 있게 해주는 디자인.

손님이 온몸에 두르고 있던 붉은 색을 써도 좋을 것 같지만, 그녀에겐 이미 붉은 보석이 많이 있을 것 같았다.

그렇다면 흔하진 않지만 귀테를 휘감는 형식의 이어커프는 어떨까?

손님은 귀걸이를 원했지만, 이어커프는 귀걸이보다 매력을 극대화 시켜주는 효과가 있었다.

그녀의 이미지를 보면 무난한 것을 좋아할 것 같진 않았다.

화려한 구두와 립스틱처럼 장신구도 틀에 박히지 않으면서도 고상한 스타일을 선호할 것 같았다.

광이 나는 검은 자개와 은을 사용하면 머리카락 사이에서 은은하게 빛을 내며 은하수가 핀 모습을 연출시켜줄 것이다.

튀는듯하면서도 우아함을 돋보여줄 아이템이었다.

데비드는 약속한 날짜에 맞춰 손님의 물건을 완성했다.

고급스러운 보관함에 들어간 이어커프는 영롱하게 빛났다.

뿌듯했다.

이걸 받는다면 조금 무서워 보였던 손님도 기쁜 얼굴을 해주실까?

덜덜덜, 덜덜덜

데비드의 다리가 지진이 난 것처럼 떨렸다.

‘야, 진정해! 잘 될 거야. 그 이어커프 내가 다 탐나던걸? 어떤 여자라도 마음에 들어 할 거야.’

엠마는 데비드의 손을 꼭 잡아줬다.

해가질 때쯤 찾아오기로 한 손님이 오려면 아직 한참 남아있었다.

엠마는 데비드에게 점심이라도 먹고 오라며 권유했다.

어머니의 식사도 차려드리고 엠마의 샌드위치를 싸올 겸 데비드는 집으로 향했다.

‘아들, 너무 떨지 말고. 그분도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한결 편안해진 마음으로 엠마가 좋아하는 에그 샌드위치를 싸들고 돌아가는데 가판대 앞에 반갑지 않은 무리가 보였다.

오래전부터 데비드를 괴롭히던 말썽꾸러기들이었다.

그들의 말썽은 이제 장난을 넘어서 사람들의 시비를 털고 다니는 양아치가 됐다.

그들은 엠마를 둘러싸고 저급한 말을 던지고 있었다.

‘계집애 같은 놈이 밤일은 잘하디? 예전부터 그 새끼랑 붙어먹더니 이젠 부인질까지 하고 앉아있네?’

‘장사 방해하지 말고 꺼져.’

엠마는 그들의 희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맞섰다.

‘장사는 무슨 장사야. 이딴 허접스러운 거나 파는 게.’

‘보는 눈은 X도 없어가지곤. 네 수준 자랑하니?’

‘이 X이 예쁘장해서 봐줬더니, 건방지네? 오늘 데비드 새끼만 손봐주러 했더니 너도 그냥 못 두겠다. 여자라고 안 봐줘. 엉?’

‘하, 얘쟤래고 앤바져~? XX났네.’

‘아오 이게 진짜 겁을 상실했나.’

양아치의 손이 높이 올라가고 지켜보는 모두가 숨을 죽일 때 두꺼운 손이 그의 팔을 저지해왔다.

데비드였다.

양아치는 제 팔을 막은 데비드를 보며 격분했다.

‘놔!’

‘푸핫! 콩알만한 놈! 어딜 덤벼?’

데비드의 가슴에도 안 닿는 양아치의 키를 보며 엠마가 비웃었다.

‘너 때문에 내 여자친구가 얼마나 짜증을 내는 줄 알아?!’

양아치는 제 여자친구에게 매일같이 데비드의 반만 닮아보라는 말을 귀에 가시가 박히도록 듣는 중이었다.

툭하면 데비드는 몸도 좋고, 어쩌고~ 섬세하기까지 한 가정적인 남잔데 너희는 할 줄 아는 게 뭐냐며 어쩌고~ 하다가 결국엔 꼴 보기도 싫단다.

더구나 요즘에는 잘 만나주지도 않는다.

‘너 때문이라고!’

양아치들은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소홀해진 것을 데비드에게 풀고자 하고 있었다.

‘그걸 왜 내 탓을 하는 거야?’

‘네가 사내놈답지 못하게 계집애 같은 일이나 하니까 그렇지!’

‘뭐...?’

계집애 같은 일이 뭔데…?

데비드의 손에 힘이 살짝 풀리자 틈을 노려 손을 빼낸 양아치는 시뻘게진 얼굴로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여자들한테 관심받고 싶었냐? 어? 이딴 거나 만들면서 알랑방귀 뀌고 싶었냐고!’

양아치는 손을 뻗어 가판대에 있는 물건을 잡히는 데로 데비드를 향해 던지기 시작했다.

‘야, 뭐하는 거야! 하지 마! 미친놈아 하지 말라고!’

엠마가 양아치를 말리려 했지만 흥분한 남자의 힘을 막기엔 무리가 있었다.

심지어 양아치의 무리는 가판대를 향해 발길질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뭘 보냐며 손님들을 쫓아내고 있었다.

엠마는 장신구를 보완하거나 수선을 할 때 사용하던 도구 함에 있던 송곳을 집어 든 양아치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달려들었다.

양아치의 손에 두 손으로 매달린 그녀의 모습은 아슬아슬 해 보였다.

자칫하면 그녀가 송곳에 찔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떨어져, 빌어먹을 계집아!’

‘돌았어?! 이건 송곳이라고! 사람 죽일 셈이야? 놔, 이거 놓으라고!! 꺅! 데비드!!!’

촤악

날카로운 송곳의 끝이 데비드의 눈을 위에서 아래로 긁고 내려왔다.

피가 송골송골 새어나오더니 주르륵 쏟아졌다.

엠마의 얼굴로 닿을 뻔한 송곳을 데비드가 손을 뻗어 방향을 바꾼 탓이었다.

엠마의 손이 덜덜덜 떨려왔다.

‘내, 내가 한 거 아니야. 이 녀석이 내 손을 가져다가 지 얼굴을 들이민 거라고! 너희도 봤지?’

‘데비드, 데비드 괜찮아? 응? 데비드 일어나봐 빨리 의원에게 가자...!’

‘...래…’

‘응? 뭐라고?’

‘나, 안 할래.’

‘다친 건 치료해야지! 무슨 말이야!’

‘이런 거 그만둘래.’

데비드는 피를 뚝뚝 흘리면서 떨어진 물건들을 가방에 주워담았다.

정성스레 만든 머리끈, 팔찌, 귀걸이, 목걸이, 가방, 손수건, 모자... 전부 데비드의 손에서 탄생한 아이들이었다.

한쪽 눈은 고통스러워 뜰 수 없었고 한쪽 눈은 눈물이 가득 차서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그런데도 그는 모든 것들을 가방에 넣어서야 일어났다.

여전히 충격에 빠져 발악하고 있는 양아치의 발밑에 노랑 손수건이 하나 보였다.

데비드는 양아치를 밀치고 손수건을 주웠다.

종이처럼 나가떨어진 양아치가 보안대를 부르라고 난리를 쳤다.

‘이 새끼가 날 죽이려고 해!’

데비드는 노란 손수건으로 피가 나는 눈을 꾹 눌렀다.

그리고 희미하게 보이는 엠마를 향해 다시 말했다.

‘나랑 안 어울리는 건 안 할래. 미안.’

‘데비드!’

데비드는 몸에 익힌 길을 따라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다.

과일 가게나 물려받아야지...

어머니를 도와 일하자.

나처럼 덩치 산만한 놈이 무슨 디자이너야.

그치.

라는 비관적인 생각이 담긴 그의 발걸음엔 힘이 하나도 없었다.

어릴 적부터 또래 친구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의 자존감은 유리 같았다.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자신을 향한 시선에 몸을 숨기기 급급했다.

엠마와 함께 지낼 때만큼은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 믿었는데 그것마저 착각이었나 보다.

작은 돌덩이에 깨진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이 무너졌다.

데비드의 어미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를 끌어안았다.

‘힘든 일이 있었구나. 나의 소중한 데비드.’

상처는 다행히도 각막까지 가지 않았다.

그러나 피부 깊숙이 들어간 송곳에 흉터가 진하게 남을 것이라 했다.

데비드는 흉터와 함께 여성적인 취미는 버리기로 했다.

그가 좋아하는 게 왜 ‘여성적인’ 것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이 따로 나누어진 의미를 모르겠지만...

세상이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더 이상은 ‘틀린’ 아이가 되고 싶지 않았다.

‘데비드, 정말 이대로 그만둘 거야?’

‘응, 하고 싶지 않아.’

‘그때 그 손님이 네가 만든 이어커프를 보고 너를 수도로 데려가 키우고 싶다 하셨어. 이 기회를 놓칠 거야?’

‘더는 관심 없어.’

‘우리 함께 계획한 미래였잖아!’

‘미안.’

데비드는 엠마의 눈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나도 강요하고 싶지 않아...’

‘고마,’

‘이렇게 된다면 나 너랑 친구 못할 것 같아. 그 흉터를 볼 자신이 없거든. 앞으로 마주치지 말자.’

‘엠마?’

‘꿈을 버린 네 모습도 보기 싫어.’

너는 나와 놀아줬던 거니?

우리의 다짐이 이 정도로 버려질 만큼 가벼운 것이었어?

엠마는 하고 싶은 말을 꾹 참고 뒤를 돌았다.

분노한 그녀는 그대로 양아치의 집으로 찾아갔다.

너 죽고 나 죽자.

무턱대고 양아치의 집으로 쳐들어간 엠마는 양아치의 머리를 반쯤 뽑아 놓고 하이힐을 신고 중요부위를 있는 힘껏 짓밟았다.

내 친구 그렇게 만든 새끼는 용서 못 해!

양아치의 신고로 보안대에 끌려갈 뻔한 그녀는 평소 바람을 피우던 양아치에게 앙금이 있던 여자친구의 도움으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자기를 때리려던 걸 엠마가 도와줬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

그녀의 주장은 평소 양아치의 행실이 뒷받침해주는 힘이 있었고 엠마는 무리 없이 의심을 덜 수 있었다.

엠마는 마을 어디든 녹아있는 데비드의 추억에 괴로워했다.

그녀는 공작 성의 하녀로 들어가기로 했다.

데비드를 마주칠 일이 적어지겠지.

“그 뒤로 1년간 엠마의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오늘에서야 엠마가 성에서 일하고 있단 걸 알았죠.”

예님은 모든 걸 이해하진 못했지만 데비드의 눈을 보며 그의 마음에 담긴 감정과 생각을 읽어낼 수 있었다.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그리움.

“원해요? 친구 엠마.”

“할 수 있다면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원해요? 꿈?”

“...글쎄요.”

데비드가 쓰게 웃었다.

“뭔가 만들고 싶어지면 여기가 욱신거려요.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 봐 그게 두려워요.”

“음식, 맛있어요.”

“요즘엔 요리 정도야 누구나 하니까요. 어머니께서 요리를 못 하는 것도 있고.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죠.”

“데비드."

예님은 데비드에게 가까이 다가가 시선을 제게로 고정시켰다.

“나 말 이상해요? 틀려요?”

“아니요? 알아들을 수 있는 걸요. 이상하지 않아요.”

“데비드도 이상 안 해요. 틀려요, 아니요! 특이해요, 특별해요. 나 특별합니다. 너 특별합니다.”

예님은 제가 아는 단어 중 고급 어휘를 끄집어냈다.

데비드는 예님이 문법에 맞지 않는 말을 구사한다고 이상하거나 유별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알아들을 수 있으면 됐지.

하는 마음은 타인에게 관대함을 보여줬다.

그의 ‘틀렸다’란 기준은 본인에게만 맞춰 있었다.

예님은 그가 스스로 채운 억압에서 자유로워지길 바랐다.

그렇다면 세상의 시선에서도 한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사람, 힘 있어요. 생각 힘. 그래서 마음이 말합니다. 행복 원해요. 원해요 합니다? 데비드 행복해요 합니다. 행복 안 이상합니다. 행복 좋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 맞아요...”

데비드, 인생은 짧단다!

“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나 아닙니다 너. 데비드.”

“믿어… 볼게요...”

얼떨결에 자기 다짐을 하게 된 데비드가 침을 꿀꺽 삼켰다.

“그럼 내가 데비드 소원 주겠습니다.”

“소원이요?”

당장 큰 힘은 없지만 나에겐 살아온 세월과 똑똑한 머리, 살아 움직이는 입, 좋은 운이 있단다.

“자, 그럼 가요!”

“어디로요?”

“나쁜 친구 집!”

한편, 에스티엘라 성에서는 비상이 났다.

예님이 사라졌다!

"예님! 예님! 어디로 숨으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예님! 아침 식사 하세요~!"

노아의 기분이 오랜만에 가라앉았다.

새벽 운동까지만 해도 최상의 상태로 보였는데, 예님이 사라졌단 소식에 단번에 흉흉해졌다.

제제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꼬마가 갔으면 어디로 갔겠어.

끽해봐야 이 성이 전부겠지.

"경비병의 말로는 새벽에 과일 가게 사람이 드나든 것 이외에는 출입이 없었답니다!"

"아니, 성 밖도 뒤져라. 방심해선 안 돼."

아이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나도 간다."

공작이 직접 나서서 아이를 찾겠다고 선언했다.

"그렇다면 저도, 가야겠군요..."

귀찮아.

제제가 볼을 긁적였다.

아침부터 느낌이 안 좋단 말이지.

공작이 저를 노려보고 있지도 않은데 어쩐지 뒷목이 서늘하다.

오늘 하루 무사히 넘어갈 수 있겠지?

데비드는 예님의 손을 잡고 양아치의 집 앞에 서 있었다.

내가 왜 여깄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예님을 내려보자 그녀가 맑고 동그란 눈동자로 그를 올려봤다.

“할 수 있따!”

대체 뭐를요...?

“말해요! 나쁜 친구 나 안 이상합니다 특별합니다!”

어서 가서 네 솔직한 마음을 말하고 와보렴!

예님의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났다.

그러나 날 때부터 소심했던 사람 에게 갑자기 그렇게 말도 안되는 짓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데비드는 어린 예님의 장단에 맞추어 주는 것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했다.

예님의 강단 있는 눈빛에 홀린 듯이 이곳까지 나왔지만 말이다.

예님은 데비드의 집에서 가져온 담요로 얼굴을 꽁꽁 가리고 있었다.

맨발이었던 발에는 데비드의 커다란 실내화를 신고 머리엔 겨울용 담요를 두르고 말이다.

꼴이 꽤 해괴망측해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녀를 쳐다 봤지만 아랑곳 하지 않는다.

예님이 그를 올려다보며 싱긋 웃었다.

행인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앞만 보는 모습이 참 당당해 보였다.

문득, 갑자기 데비드는 예님이 신기해졌다.

어린아이라 그런가?

오늘 처음 만났지만, 대화를 통해 느낀 예님은 참 순수한 존재였다.

세상을 보는 시선이 막힘없고, 세상을 대하는 감정이 풍부했다.

그녀의 모든 감정은 따뜻해 보였다.

복잡하고 어두운 마음을 가진 데비드와는 대조됐다.

예님은 원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행동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삶.

말은 쉬웠지만 품고 행하기 어려운 신조였다.

데비드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너 같은 덩치에겐 디자이너 따윈 어울리지 않아!

원하는 삶에서마저 손가락질을 받을까 봐.

‘우리가 즐거워하는 일로 돈을 버는 느낌은 어떨까?’

언젠가 엠마가 물었다.

‘세상을 정복한 느낌이 아닐까?’

데비드는 막연하게 말했다.

‘사실 나에게 돈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 날마다 행복하진 않아도 최선을 다하는 것에서 보람을 느낄 것 같거든.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달려가는 매 순간이 소중할 거 아냐. 돈을 받았다는 건 그 시간을 인정받았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때가 온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 네 말대로 세상을 정복한 느낌을 받을지도 몰라. 너는 인정받을 수 있어, 데비드. 그게 내 성공이 될 거야.’

밝게 웃는 엠마의 미소가 선명했다.

엠마는 데비드의 성공을 진심으로 소망했다.

그의 재능이 멀리멀리 알려지길 원했다.

‘네가 유명해져야 그만 소심해지지!’

데비드 스스로가 틀린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닌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길 바랐기 때문이다.

데비드는 제가 엠마의 진심을 등져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를 이상하게 보는 세상으로부터 숨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이기적이게 굴었다.

그녀의 마음을 안일하고 당연시했다.

데비드는 언젠가 엠마가 저를 이해해줄 것으로 생각했다.

나는 남들과 다르니까...

스스로 씌운 잣대에 목매달았다.

‘넌 틀렸어. 그렇게 남들과 다른 아이로 살아가면 안 돼! 남자는 남자 다운 걸 해야지!’

누군가 인형을 좋아하는 데비드에게 말했다.

그가 좋아하는 것들은 틀렸다고, 정답이 아니라고 혼을 냈다.

엄마는 내가 좋아하면 그게 정답이라고 했는데.

데비드는 혼란스러웠다.

부정적인 단어의 힘은 어린 그를 괴롭혔다.

평생의 대부분을 그 말에 갇혀 살았다.

나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언젠가부터는 다름의 의미에 위로를 받고 스스로를 인정하기 위해 애를 썼다.

그런데 그마저 데비드를 억압하고 있었다.

틀림도, 다름도 아닌…

나는 나인데.

엠마는 데비드 그 자체를 봐줬는데.

한심한 잣대에 세상의 모든 시련을 겪은 것처럼 휘둘렸다.

작은 세계에 박고 있던 머리를 끄집어내 한 발짝 멀리서 바라보니 제 모든 행동이 우스워 보였다.

그깟 할 일 없는 양아치들이 뭐라고, 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의 말이 뭐라고.

데비드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은 충분했다.

무엇이든 믿고 응원해주는 어머니, 항상 곁에서 자신감을 불어넣어 줬던 엠마, 제 물건들을 사고 칭찬을 아낌없이 해주었던 손님들...

그거면 됐는데, 왜 몰랐을까?

데비드는 지난 시간을 극복하고 엠마에게 달려가 사과하고 싶어졌다.

그는 예님이 이곳으로 오자고 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얽매여 있던 과거와 스스로를 옭아맸던 마음을 버릴 것.

그러자 속에서 이상한 용기가 쏫았다.

이상한 용기는 데비드를 아주 충동적으로 만들었다.

머릿속의 잡다한 생각들은 사라져 버린 뒤였다.

데비드는 양아치 집의 나무 대문을 밀고 들어섰다.

그리고 크게 소리쳤다.

“이봐! 할 얘기가 있어!”

“아침부터 뭐야?!”

탈모와 생식기능 장애로 우울한 삶을 살고 있던 양아치는 데비드에게 복수할 날만 생각하며 이를 빠득빠득 갈고 있던 참이었다.

“데비드? 네가 양심도 없이 날 찾아와?!”

“양심 없는 건 너잖아. 내 눈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과도 없었잖아.”

“그건 네가 얼굴을 들이민 거고, 나는 너 때문에 친구도, 여자도, 정자도 잃었다고!”

정자?

데비드는 굳이 알고 싶지 않던 사실에 눈살을 찌푸렸다.

“그렇다면 너 고...”

아차, 밖에서 예님이 듣고 있을 텐데!

차마 어린이 앞에서 고자라는 단어는 입에 올릴 수 없었다.

“이 자식이...! 오늘이야말로 네 얼굴에 직접 상처를 내주마!”

그리고 이 무용담으로 친구와 여자를 되찾을 수 있겠지!

양아치는 집안으로 달려가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나왔다.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노아가 나서자 긴장감이 고조됐다.

예님 찾기에 나선 에스티엘라 성의 병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빠른 시간 내에 아이를 찾아내야 함을 직감했다.

아이가 사라졌다고 추정한 게 새벽 5시였으니 지금은 11시, 실종 6시간이 경과됐다.

공작이 예님이 사라졌다고 알아챈 건 3시간 전, 아침 식사를 앞두고서였다.

성을 아무리 뒤져도 나오지 않는 아이에 공작의 화가 최고치의 수준에서 머물고 있었다.

검은 말에 올라탄 노아는 성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인 마을로 향했다.

병사들이 그의 뒤를 잇따랐다.

제제는 일이 커져 몽베르 섬의 분위기가 불안함으로 술렁일까 봐 우려했다.

지금의 노아라면 예님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었다간 관련된 사람을 모조리 죽이고도 남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공포에 떨겠지.

섬의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불만이 나오거나, 나아가 섬의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면 그 수습은 오롯이 제제의 몫이 될 것이 분명했다.

그가 상상하는 모든 일을 방지하기 위해선 예님을 빨리 찾아 노아의 앞으로 대령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노아가 마을로 향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자, 제제는 결계 밖에 있는 숲으로 걸어 들어갔다.

적당히 고요하다 싶은 곳에 달았을 때, 주황색 가면을 쓴 인영이 서서히 또렷해지며 나타났다.

“어딨지?”

“안내하겠습니다.”

검은색 연기가 제제의 몸만 한 타원을 만들었다.

제제는 망설임 없이 타원의 안으로 몸을 넣었다.

그는 눈 깜박하기도 전에 마을의 한편 작은 골목에 서 있었다.

“골목을 나가 왼쪽으로 가시면 아이를 만나실 겁니다.”

주황색 가면이 점점 투명해지더니 이내 사라졌다.

제제는 그의 말대로 골목을 나가 왼쪽으로 꺾었다.

마을 주민들의 집이 몰려 있는 지역이었다.

무슨 일로 예님이 이쪽까지 왔을까?

정말 예측 불가능이었다.

“오늘이야말로 네 얼굴에 직접 상처를 내주마!”

소란이 들려왔다.

이 소란의 중심에 예님이 있는 걸까?

이거 상당히 귀찮아지겠군.

아니나 다를까 소리가 난 집 앞에 무언갈 잔뜩 뒤집어쓰고 있는 예님이 보였다.

그녀는 울타리 안쪽에서 벌어지는 소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를 따라 시선을 옮긴 곳엔 비실이와 덩치 큰 놈 하나.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비실이는 주방 칼을 들고 금방이라도 덤벼들 것마냥 덩치와 대치 중이었다.

역시 평범하지 않은 꼬마답게 싸움 구경도 할 줄 안다.

비록 보잘 것도 없는 시시한 싸움이지만.

그래서 우리 꼬마아가씨는 둘 중 누구 편인 건데.

제제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단도를 꺼내 가볍게 손목을 풀었다.

"제제?"

때마침 예님이 그를 발견했다.

싱긋 웃는 그의 단도가 비실의 손을 향해 날라간 것은 순식간이었다.

보는 눈이 아무리 없어도 저 비실이는 아니지.

탕!

금속음이 울리고 제제가 던진 단도와 함께 남자의 손에 있던 주방 칼이 울타리를 넘어 날라갔다.

“이익!! 뭐야!!”

제제가 혀를 찼다.

“미안합니다. 남의 싸움에 끼어들고 싶진 않지만, 몽베르 섬에서 끔찍한 짓을 하려던 자를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 또한 제 일인지라. 살기 좋은 섬, 일생에 한 번쯤 오고 싶은 섬, 그 좋은 이미지 망칠 일 있습니까?”

“넌 또 누구야?!"

“제제 잘했습니다!"

예님이 해맑은 얼굴로 박수를 쳤다.

꼬마 아가씨, 방금 눈 앞에서 칼부림이 일어날 뻔했다고요.

놀란 기색 하나 없네.

“넌 또 누구냐고!!"

비실이가 씩씩 거리며 제제에게 다가왔다.

제제는 제 분홍 머리를 쓸어 넘기며 호기롭게 웃었다.

“누구냐고 하셨죠? 그렇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전 몽블라체 공작의 수행비서 제제입니다. 당신을 살인 미수로 감옥 관광 보내드릴 사람이죠.”

내 일거리는 내가 관리한다.

나 방금 좀 멋있...

“꺄악~ 제제 씨 멋있어~!”

제제는 익숙하고도 섬뜩한 목소리에 반자동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리둥절하게 서 있는 예님의 옆으로 또각또각 구두 소리와 함께 걸어오는 그녀.

여자는 입가에 모았던 두 손을 내리고 씨익 웃었다.

“샤, 샤론...?”

“이런 데서 다 만나고 우연 아니 운명이네?”

그녀의 빨간 입술이 매력적으로 움직였다.

“보고 싶었어, 내 토끼.”

제제는 못 볼 것을 봤다는 듯 눈을 비볐다.

“샤론이 어째서 여기에... ? 어? 공작님?”

샤론이 타고온 마차 뒤에서 말굽 소리와 함께 노아가 등장했다.

지금 샤론하고 노아가 같이 온 건가?

왜?

왜 저 여자가 여기 있는 건데?

어여쁜 미소의 샤론이 제제에게로 다가갔다.

제제가 뒷걸음을 쳤다.

비실이는 도망을 쳤다.

제제가 샤론에게 외쳤다.

"샤론님! 저놈입니다! 저놈을 잡으세요!”

샤론은 그를 와락 끌어안았다.

"뭐래, 내가 잡는 건 제제에요."

철푸덕,

비실이를 잡는 건 노아고 말이다.

비실이는 왜 멍청하게 공작 옆으로 도망을 가서 넘어지는 건데...

노아는 왜 기사답지 못하게 발을 걸어 자빠뜨리는 건데...

나는 왜 이 여자한테 기를 못피는 건데...!

제제는 샤론의 장미향에 머리가 띵해졌다.

짙은 장미 향.

한 번 맡으면 쉽게 잊을 수 없는 늪 같은 매력의 장미 향.

하루종일 시달렸던 그날의 추억이 떠올랐다.

어쩐지... 오늘 느낌이 쎄 했더랬다.

“노아! 좋은 아침.”

해맑은 예님이 팔자 좋게 인사했다.

노아가 그제서야 굳어있던 얼굴을 폈다.

그는 비실이를를 근처에 있던 병사에게 넘기곤 예님에게 뚜벅뚜벅 걸어가 번쩍 안아들었다.

“예님, 여기 있었군.”

“데비드, 엠마 싸워요. 나 도와줘요. 안 싸워요, 원해요. 데비드, 엠마 좋아요!”

데비드와 엠마 사이가 멀어져서 둘이 화해하도록 도와주고 있었단다!

“데비드 특별합니다, 이 친구 나빠요. 데비드 말해요. 나는 특별합니다. 그럼 친구 이겨요!”

데비드는 특별한 앤데 이 친구가 괴롭혔다지 뭐니?

그래서 데비드가 나쁜 친구한테 극복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얘기하라고 했지!

“용기!”

어떤 상황을 전환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단다!

방에 있는 사람 중 예님의 말을 알아들은 건 노아와 데비드 뿐이었다.

칼로 소동을 일으키려 했던 비실이는 제제의 목격 증언으로 보안대에 넘겨지고, 데비드와 예님, 샤론은 성의 응접실로 옮겨졌다.

노아는 무서운 표정으로 예님을 응시했다.

예님은 겁이 없는 건지, 제 죄를 아직도 모르는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 대담한 건지 그저 똘망똘망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공작가의 분이신지도 모르고 멋대로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일 쩔쩔매고 있는 건 데비드였다.

데비드는 처음부터 예님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았다.

귀족이 서슴 없이 제게 말을 걸어줄 것이라곤 꿈에도 몰랐다.

그저 제게 말을 걸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아이가 오랜만이라 대접하는데 정신이 팔려있었을 뿐이다.

별 생각 없이 집으로 데려간 게 화근이 되다니...

이런 상황까지 벌어질 줄 몰랐다.

공작을 코 앞에서 마주하니 얼굴도 못 마주칠 정도로 숨이 막힌다.

소문처럼 정말 살벌한 남자였다.

“버, 벌을 내리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데비드 좋은 친구입니다. 벌 없습니다!”

“그래, 예님. 잘 아는군. 이번 일은 네 잘 못이다.”

“에엥?”

나 뭐 잘못한 거 있었니?

“모르는 사람을 따라 나서면 되나, 안 되나?”

“데비드는 친구입니다!”

처음 본 사람도 금세 친구가 되는 예님에겐 모르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모호했다.

“하아, 허락 없이 집을 나간 벌로 오늘 저녁 후식은 없다.”

“거짓말!”

후식이 없다고?!

예님의 눈에 절망이 가득 찼다.

반면 제제는 그딴 게 노아의 입에서 나온 벌이 맞는지 의심했다.

고작 후식 한 번 못 먹는 데에서 애가 잘못을 뉘우치겠어?

“미안해요! 잘못했습니다! 내 후식!”

뉘우쳤다.

샤론이 귀여운 예님을 보며 후후후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이 여잔 왜 여기까지 따라 온 거야...

“공작님께서 소중히 여기실 만 하네요.”

샤론이 차를 홀짝이곤 말했다.

예님에게 쏠려 있던 이목을 제게 집중시킨 샤론은 매력적인 입꼬리를 올려 싱긋 웃었다.

“인사가 늦었군. 샤론, 예님을 찾는 데 도움을 줘서 고맙소.”

“뭘요, 마침 제가 찾고 있던 사람이 둘이나 있었거든요. 한 명은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그녀가 야살스럽게 웃으며 제제의 볼을 콕 찌르자 제제가 화들짝 놀라 제 볼을 매만졌다.

“둘이 면식이 있는 사이였나?”

노아가 수상쩍은 분위기에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그게,”

제제가 어떤 말로 샤론을 수식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이, 간드러진 목소리가 먼저 선수를 쳤다.

“제노아키바, 제 마음을 가져간 괴물 같은 남자죠.”

뭐지?

저 오해하기 충분한 대사는?

공작이 제제를 묘한 시선으로 바라봤다.

제제의 억울하다는 듯 눈썹이 산처럼 휘어졌다.

노아와 예님을 비롯한 응접실의 모든 인간이 저와 샤론을 번갈아 가며 훑고 있었다.

“그런 게 아니,”

“쉬잇, 제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샤론의 손가락이 제제의 입을 막아왔다.

장미 향이 짙게 다가왔다.

“...그렇군.”

노아가 수긍하니 더 환장할 노릇이었다.

그녀와 제제는 만나는 사이도 진지하게 알아가는 사이도 아녔다.

하룻밤 함께 보낸 것이 전부였고, 샤론이 일방적인 관심을 표현할 뿐이었다.

이 정도면 샤론에게 어떤 꿍꿍이가 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

나한테 왜 이러는 겁니까?!

“오오...”

예님이 짝짝짝 박수를 쳤다.

“제제, 축하합니다.”

미쳐버리겠다.

샤론이 붉어진 볼을 감싸며 좋아했다.

오늘 제제를 마주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와는 정말 붉은 실로 엮였는지 운명처럼 마주쳤다.

샤론이 제제를 만나게 된 것도 참 운명 같았다.

어느날이었다.

출근을 하기 위해 치장을 하던 샤론은 액세서리 함에서 잊고 있던 이어커프를 발견했다.

어떠한 옷을 입던 샤론의 매력을 끌어올려 주는 섬세한 디자인의 작품이었다.

일 년 전 몽베르 섬에 들렀을 때 거리의 공예가에게 재미 삼아 맡겼다가 생각보다 뛰어난 퀄리티에 놀랐던 작품이었다.

이 자라면 새로운 브랜드의 디자이너 자리에 견줄만 할지도.

샤론이 운영하는 브랜드는 슬슬 새로운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야할 때였다.

기존의 화장품 판매뿐만 아니라 악세사리 숍까지 운영하고자 했다.

액세서리 사업에 앞서 신선한 디자인으로 샤론의 브랜드를 세간에 각인 시켜줄 유능한 디자이너가 필요했다.

그녀는 기존의 액세서리 시장을 뒤집고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 만한 인재를 찾고 있었다.

이어커프를 만들었던 청년은 당시 제 후원 제안을 거절했었다.

그때야 욕심 없이 돌아섰지만,

아무리 다시 봐도 이 이어커프는 그녀가 찾고 있던 '남다름'이 잔뜩 묻어 있었다.

안되겠어, 반드시 붙잡아야겠어.

결심이 선 샤론은 몽베르 섬으로 가는 배편과 숙소를 예약했다.

그 어렵다는 몽베르 섬의 예약이었지만 성공한 사업가인 그녀에게는 참 손쉬웠다.

샤론은 섬에 도착하자마자 청년 공예가가 있던 가판대를 찾았다.

청년은 더 이상 가판대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다른 곳에 스카우트가 됐다는 소문은 없었으니 섬의 어딘가에 있을 터였다.

샤론에게 데비드를 찾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만나는 것이 어려웠을 뿐이다.

‘우리 아들 일 관둔 지 오래니 찾지 마세요!’

데비드의 어머니라는 과일 가게 사장은 문지기처럼 데비드를 향해 가는 길을 열어주질 않았다.

데비드 본인은 칩거 생활을 하는지 집 밖으로 나오는 일이 드물었다.

며칠 내내 그를 만나기 위해 찾아 갔지만 머리카락 한 올 보기가 힘들었다.

심지어 잠복까지 하며 집 앞을 서성 거렸으나, 심부름을 하다 얼굴을 빼꼼 내미는 것이 전부였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시간이 될 때마다 몽베르 섬에 들러 데비드를 찾아갔다.

그러는 와중에 제노아키바란 남자를 만났다.

얼굴도, 몸도 괜찮은 남자였다.

새하얀 모래 사장 위에서 운명처럼 눈이 마주쳤더랬다.

말했던가, 샤론은 한번 꽂히면 질릴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타입이었다.

그녀의 친구들 말로는 미친 사냥개 같다더라.

말이 좋아 사냥개지, 그녀의 집착을 경험해본 자에 따르면 그냥 개 같단다.

샤론은 제 끈기를 칭송하는 그 별명이 좋았다.

그리고 오늘.

그 끈질김이 빛을 봤다.

공예가도 잡고, 제제도 잡았다.

햇살 많은 아침 몽베르에 도착한 샤론은 섬을 저의 집 마당처럼 돌아다니던 중이었다.

이쯤 되면 제가 몽블라체 가의 사람보다 몽베르섬의 마을 지리를 잘 알고 있을지도 몰랐다.

다른 때와 달리 마을이 좀 어수선했다.

병사들이 웬 꼬마를 찾는다며 시장을 뒤지고 있었다.

귀족의 아이가 미아가 됐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샤론은 제가 좋아하는 몽베르 섬에 숨겨진 맛집으로 향했다.

주민들만 아는 브런치 가게였는데, 섬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쯤에 있었다.

그런데 웬 횡재람?

데비드가 저 앞에서 걸어가고 있었다.

얼핏 봤다면 몰랐을 수도 있지만, 매의 눈을 가진 샤론에겐 먹이처럼 걸려들었다.

샤론은 데비드의 뒤를 따랐다.

그런데 저 꼬마, 병사들이 찾고 있던 애 아닌가?

온몸을 칭칭 두르고 있었지만, 빼꼼 내민 얼굴로 병사들이 몽타주로 말하고 다니던 초록색 눈과 검은 머리가 훤하게 보였다.

샤론은 제 경호원을 병사들에게 보냈다.

이런 기회에 귀족에게 빚을 지이는 것도 나쁘지 않았으니까.

데비드에게 다가갈 타이밍을 찾는데, 한 집 앞에서 웬 대머리가 나와 데비드와 대치했다.

영 불쾌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았다.

제 경호원을 보내 데비드를 보호하려는 찰나 분홍 머리의 남자, 제제가 나타났다.

알고보니 아이는 공작이 끼고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그 아이였고, 어쩌다 보니 공작을 도운 신세가 됐다.

좋네.

오늘은 하늘이 돕는 날인가 보다.

물론 신따위 믿지 않지만 말이다.

“공작님, 오늘 바쁘지 않으시다면 제제 씨를 빌려 가도 될까요? 오랜만에 데이트 좀 하고 싶었거든요.”

샤론이 당당하게 요구했다.

노아는 브랜드 샤론>의 샤론이 예님을 찾는 데 큰 도움을 줬단 걸 알았다.

더구나 솔로인 줄 알았던 제제에게 연인이 있었단 것을 알았으면 일찍 퇴근시켜주거나 자주 휴일을 줬을 거다.

비서실장이 칼같이 퇴근할 수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제제가 노아에 대해 모르는 사실 중 하나는 노아가 가정을 중요시한단 거다.

“…그러지.”

“각하, 저 할 일이 많습니다.”

제제가 다급하게 말했다.

어쩐지 샤론과 함께 나가면 일보다 더 피곤한 일이 생길 것 같다.

본능적인 느낌이었다.

“자네 사생활도 있는데 내가 너무 일만 시킨 것 같군. 내일 보도록 하지.”

“상냥하시네요.”

샤론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이어커프가 반짝였다.

데비드의 눈이 커다래졌다.

그를 본 샤론이 입꼬리를 올렸다.

"공작님 송구하지만 제가 이분께 볼 일이 있어서요. 실례 좀 해도 될까요?"

"그러게."

샤론이 뒤에 서있던 경호원을 향해 손을 내밀자, 정장을 입고 있던 경호원의 안주머니에서 반듯한 종이가 나왔다.

그것을 받아든 샤론은 데비드를 향해 테이블 위로 쭉 밀어 건넸다.

“데비드 씨, 읽어보세요. 섭섭한 조건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내일 집으로 찾아갈 테니 꼭 나와 있어요. 어머니란 분이 어찌나 그쪽을 안보여주시던지. 엠마라는 그 친구랑 함께 있으면 좋고요. 부탁해요?”

샤론이 손끝으로 테이블 위에 올려 놓은 종이를 톡톡 쳤다.

데비드는 영문을 모르고 종이를 집어들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차 맛있게 마시고 갑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해요, 공작님."

"샤론 씨, 이건 좀 놓고..."

샤론이 제제를 데리고 응접실로 나가고, 종이 위에 반드시 쓰인 다섯 글자를 읽은 데비드가 눈물을 뚝뚝 흘렸다.

『사업 제안서』

예님이 제안서를 안고 우는 데비드를 토닥였다.

“왜? 왜 슬퍼요?”

“예님, 그는 놔두고 나 좀 보지.”

노아는 예님의 관심이 필요했다.

“데비드 슬퍼요.”

“기쁜 것이다.”

“이거 좋아요 입니까?”

예님이 종이를 가리키며 물었다.

노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 돈입니까?”

노아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말했다.

“돈이랑 관련됐지.”

예님은 노아의 말에 살짝 생각하는가 싶더니 이내 이해가 됐는지 고개를 끄덕였다.

돈과 관련된 종이라면 계약서라던가 서명을 해야 하는 것과 관련 있겠지.

저건 계약서가 분명하다!

“데비드, 이름 씁니다. 조심해요. 가짜 조심해요.”

사기 경험이 다수한 예님이 인생 선배로서의 조언을 전했다.

“노아 후식 없어요, 거짓말?”

“벌은 받아야지. 후식은 없다.”

혹시나 기대했던 예님이 볼을 빵빵하게 부풀렸다.

“네 방을 옮길 생각이다. 앞으론 방을 나갈 때마다 어디로 갈지 보고하도록.”

“보고?”

“말하라는 거다.”

“왜?"

“어린 애는 어른의 보호가 필요하다.”

또 어린 애란다.

예님은 허리에 손을 올리고 한숨을 푹 쉬었다.

굳이 나이를 운운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참에 말뚝을 박아놔야겠다.

어린애 취급은 제약이 많아 피곤했다.

“나 천칠백이십오살입니다.”

예님은 기회가 되면 말하려고 연습해 뒀던 제 나이를 또박또박 말했다.

이러면 이제 어린 애 취급은 없겠지?

노아가 입꼬리를 실룩 대더니 손바닥으로 제 이마를 짚었다.

옳다구나 지금까지 날 애 취급 한 걸 후회하는 구나?

“예님… 흡, 푸하! 귀여우시네요. 앗, 죄송합니다 공작님.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울고 있던 데비드가 참지 못한 웃음을 터뜨리곤 노아의 눈치를 보면서도 헤실헤실 웃음을 숨기지 못했다.

“왜? 나 1,725살. 안 귀엽습니다.”

예님이 어깨를 으쓱였다.

“1,725살이라 해도 넌 어린 애다.”

어깨를 들썩이며 웃던 노아가 팔걸이를 잡고 일어섰다.

그의 얼굴엔 웃음기가 한가득했다.

그는 예님을 번쩍 안아 들었다.

그리고 데비드를 향해 말했다.

“오늘 일은 그냥 넘어가지.”

예님을 데리고 나간 것이 아무래도 괘씸했지만 예님의 친구라니 감옥에 넣을 수도 없었다.

예님이 울면 그것대로 싫고 악의가 없었으니 속 좁게 굴지 않기로 했다.

품에 안긴 예님이 바동 거렸다.

“나는 처언 치일백 이십 오 살입니다!”

“그래그래, 1,725살 어린이.”

노아가 웃으며 예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예님은 제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답답해 미칠 것 같았다.

인간들에겐 겉 모습이 끼치는 영향이 지대했다.

“카손! 카손!”

카손이 필요했다.

예님은 제가 세간에 떠도는 초록 눈의 도깨비란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

나는 몸만 작아졌을 뿐 어린아이가 아니라 오랜 세월을 산 도깨비이니 보호하지 않아도 되고 술을 마셔도 된단다!

왜 진작에 인간이 아님을 밝히지 않았을까?

예님은 얼마 전만 해도 사람들이 제가 인간이 아니란 사실을 알고 있는 줄 알았다.

그저 몸이 작으니 어린이 취급을 하는 줄 알았지, 나이를 밝히면 괜찮을 줄 알았건만 단단히 잘 못 알고 있는 모양이다.

이곳 인간들은 요물들처럼 눈과 머리카락 색이 알록달록하니 인간과 요물을 구분을 하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이곳에선 도깨비 같은 것을 무어라 하는지 알아 둘걸.

“노아 나는 도깨비란다. 도깨비. 도깨비.”

그가 알아들을 리 없었다.

태지천에선 눈만 보면 인간이 아닌 자를 구분할 수 있었다.

카손은 태지천에 대해 잘 아니 이곳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예님은 어서 빨리 오해를 풀고 싶었다.

“카손이라면 단번에 알아들을 것이야.”

노아의 품에 안긴 예님이 시무룩하게 중얼거렸다.

“카손이 보고 싶은 건가?”

노아는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는 것을 느꼈다.

예님이 카손을 더 보호자라 생각하는 것인가, 싶었다.

노아의 구겨진 미간도 모르고 예님은 노아의 품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예님을 데리고 점심을 먹이러 갈 생각이었던 노아는 예님을 다시 내려 놓아 주어야 했다.

카손이 없는 현재로써 예님은 한 수 접기로 했다.

우선은 데비드의 상황부터 마무리해주자 구나.

“데비드, 엠마 싸움 끝. 힘내요. 다 말해요, 마음. 알겠습니까? “

뭔 말인지 알지?

예님이 강렬한 눈빛으로 뜻을 전했다.

알 것 같아요, 예님.

데비드가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하게만 말하면 된다.

예님은 깊은 우정을 가꿨던 두 사람 사이에 오작교만 있다면 모든 오해가 풀릴 만한 자리가 생긴단 걸 알았다.

예님이 그 오작교였다.

제대로 대화할 자리를 만들어 주면 됐다.

하아 나와 노아의 사이에도 오작교가 필요하구나, 카손이란 오작교가...

예님은 데비드에게 여기 있으란 말과 함께 우두커니 서 있는 노아의 손을 이끌고 어딘가에 있을 엠마를 찾아 나섰다.

그녀는 정문에서 금방 마주할 수 있었다.

근심이라도 있는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하며 안절부절못하고 있었다.

예님이 노아와 함께 그녀의 곁으로 가자 엠마가 허리를 굽혀 숙였다.

“고, 공작님.”

“난 됐고, 예님이 할 말이 있는 듯하군.”

“예님...?”

엠마가 살짝 고개를 들어 올렸다.

“데비드, 할 말 있어요. 다시 기회 있어요.”

“예?”

“데비드가 할 말이 있다 하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가서 얘기해보라는군. 그는 1층 응접실에 있다.”

엠마는 잠시 생각에 잠긴다 싶더니 눈물을 방울방울 떨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꾸벅 인사를 하고 응접실로 뛰어갔다.

“예님.”

엠마의 뒷모습을 보던 예님을 향해 노아가 팔짱을 끼고 나직이 이름을 불렀다.

“응?”

“카손이 엄마라고 생각하나?”

“엄마?”

카손은 친구지.

뭘 당연한 걸 묻느냐는 듯 노아를 빤히 바라봤다.

“카손 친구!”

노아는 조금 희망이 생김을 느꼈다.

“그럼 난?”

“친구.”

다른 말이 듣고 싶었던 노아는 내심 실망했다.

다행인 건 카손을 저 대신 보호자로 생각하지 않아 다행이다.

동급인 것이 그나마 다행이려나.

노아는 오늘부터 예님과의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그 첫 번째로…

“예님, 오늘부터 잠들기 전에 동화책을 한 권씩 읽어주마.”

갑자기?

예님이 고개를 갸웃했다.

노아는 차마 더 친해지고 싶어서, 란 말은 못했다.

“배 안 고픈가? 점심 먹을 시간이다.”

예님은 아직도 점심이란 사실에 놀랐다.

역시 일찍 일어나니 하루가 참 길구나.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이 반나절 만에 벌어진 ‘예님 가출’ 사건이었다.

데비드는 자기 연민에 빠져 엠마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한 잘못을 털어놓고 사과했다.

엠마 역시 저 때문에 생긴 흉터에 미안해했다.

사실 엠마가 가장 화가 났던 것은 그의 얼굴에 난 흉터였다.

엠마 역시 데비드 마음을 끝까지 위로해 주지 못했던 것에 자책하고 있었다.

친구라면 서로를 이해해줄 수 있어야 했는데.

데비드는 샤론에게 받은 제안서를 보여주며 너와 함께 이 기회를 잡고 싶다고 했다.

네 말대로 좋아하는 것으로 행복하게 일해보고 싶다고.

예님 덕에 하루아침에 화해를 하게 된 데비드와 엠마는 기쁜 얼굴로 그녀를 찾아왔다.

점심을 먹고 부른 배를 두드리며 졸린 눈으로 걷고 있던 참이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정말 고맙다며 인사를 했다.

얘기를 들어보고 조금 참견을 하며 말 몇 마디 해준 것이 전부였다.

심심한 참에 부린 오지랖은 간만의 보람을 전해줬다.

정말 틀어진 사이처럼 보였다면 오지랖도 안 부렸을 거다.

데비드와 엠마가 웃는 모습으로 멀어졌다.

떨어지면 도자기처럼 쉽게 조각나는 것도 우정이었고,

진할수록 잘 뭉쳐지는 진흙 같은 것도 우정이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지만,

적어도 예님이 지켜보기엔 그랬다.

그리고 일주일 뒤, 엠마는 성의 하녀 일을 그만뒀다.

데비드와 샤론을 따라 수도로 가 데비드의 일을 돕기로 한 것이다.

엠마의 마지막 날, 데비드도 성으로 찾아와 예님에게 인사했다.

“예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가씨, 감사해요. 수도에서 꼭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허리를 숙이며 인사하는 두사람에게 뒷짐을 지고 있던 예님이 씨익 웃으며 솜덩이 같은 홀씨가 된 민들레을 내밀었다.

“어머 민들레잖아? 성안엔 꽃이 필 리가 없는데 어디서 나셨어요?”

“오다 주웠습니다.”

꽃 하나 없는 성에서 주웠을 리가 없었다.

더구나 뽀송한 민들레가 필 철도 아닌 봄에 말이다.

이 민들레는 그냥 민들레가 아니었다.

예님의 복주머니에 있던 ‘행복을 빌면 이루어지는 민들레’씨앗에서 자라난 민들레였다.

예님이 약간의 요술을 불어 넣어 예쁘게 피워낸 것이었다.

꽃을 피우는 것쯤은 적은 힘으로도 무리 없어 다행이었다.

예님은 엠마와 데비드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줄 수 있어서 기뻤다.

“행복해지고 싶다고, 후우 해요.”

하나, 둘, 셋

세 사람이 민들레를 향해 후우 입바람을 불었다.

바람을 타고 하얀 민들레 씨앗이 둥실둥실 날아갔다.

예님은 두 사람이 수도에 가서도 좋은 우정을 이어가길 바라며 행복을 기원했다.

엣취

집무실에서 창문을 열어두고 일을 하고 있던 노아가 재채기를 했다.

민들레 씨앗 하나가 그의 서류 위로 떨어졌다.

엣취

데비드와 엠마의 우정을 위해 한사람이 희생되는 것은 예님은 꿈에도 모를 일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카손이 돌아왔다.

그녀를 가장 먼저 반긴 것은 역시나 예님이었다.

창밖으로 바다의 풍경이 펼쳐졌다.

모래사장을 따라 평평한 돌들로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길을 따라 마차가 알맞은 속도로 굴러갔다.

제제는 제 맞은편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는 여자의 시선을 곧이곧대로 받아냈다.

그녀의 짙은 갈색 눈은 바다 위의 배에 타고 있는 것처럼 속을 울렁거리게 했다.

바람에 머리 모양이 엉망이 될지라도 마차의 창문을 활짝 열어 놓고 숨을 쉬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아찔한 장미향에 취하지 않도록, 기묘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환기가 필요했다.

결국 그녀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돌렸다.

닫히지 않는 유리문 너머 마부의 어깨에 의미없이 시선을 고정했다.

여자란 종속에 한없이 약한 제제였다.

아름다운 미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선 무엇이든 내어줄 수 있는 것처럼 굴었다.

관심, 시간, 보석, 힘.

그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든.

미인이라면 제 모든 것을 취해 마땅했다.

그래야 그가 원하는 것도 얻을 수 있으니까.

즉, 그는 여자를 밝혔다.

이른바 바람둥이인 그는 여성 편력이 대단했다.

샤론에게 처음 접근한 이유도 그랬다.

환심을 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심보로 눈웃음을 치고 혀를 놀렸다.

샤론은 드문 매력을 가진 여자였다.

당돌하고 적극적이었다.

평소 같았다면 그녀의 대시를 넙죽 받아들여 장단 맞춰 놀아줬을 거다.

그가 지금껏 보내왔던 여자들처럼 말이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다.

제제는 왜 제가 샤론을 보면 이상한 기분이 드는지 몰랐다.

그 기분은 시간이 갈수록 강해졌다.

그녀의 곁을 떠나 당장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 느낌.

단지 샤론이 제제를 좋아한단 이유로? 집착한단 이유로?

아니다.

단단하게 메마른 돌도 물렁거리게 하는 성격을 가진 제제였다.

인간 여자의 집착 하나 견뎌내지 못한다면 그의 카사노바 명성은 쓰레기통에 처박혀야 했다.

잘 생각해보자.

매끈한 유리에 아주 작게 난 흠처럼, 자세히 훑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점이 있을 거다.

샤론의 어떤 점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을까?

차창의 햇살에 닿는 갈색 단발머리,

상징적인 붉은 입술,

솔직하고 당돌한 성격,

자부심 있는 커리어까지.

아무리 봐도 평범한 여성 자산가이지만...

단 한 가지 놓친 게 있다면,

제제를 어지럽게 했던 장미 향.

문득 진한 향에 마비되었던 후각이 시큰해짐과 동시에,

한 놈이 떠올랐다.

'장미'하면 빼놓을 수 없는 놈.

그 무섭다는 노아 몽블라체에게도 겁없이 덤비는 제제에게도 피하고 싶은 놈이었다.

내일이 없는 새끼도 더러워서 피해가는 똥 같은 존재로 말할 것 같으면,

제제를 고혈압으로 뒷목잡게 만들어 버리고,

정말 미친 제제의 입에서 진짜 미친 새끼라는 감탄사를 멈추지 않게한 정녕 미친놈.

그 이름,

안테르므슈.

생각만으로도 인상이 써지는 군.

대체 왜.

어째서.

샤론, 이 아름다운 여성에게서,

그 개자식의 형상이 떠오른 거지?

제제는 장미 향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숨을 골랐다.

샤론에게 전매특허인 떠보기를 사용해보기로 했다.

“우리 어디로 가는 중이죠?”

“레스토랑. 오늘 종일 한 끼도 못 먹어서 죽을 것 같거든.”

“거짓말.”

“거짓말?”

“네, 거짓말 하셨네요. 배 하나도 안 고프잖아요?”

샤론이 붉은 입술의 살점을 살짝 깨물었다.

“우리 처음 봤던 날에도 샤론 씨는 와인만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당신 눈썰미가 좋네. 기억력도 좋고.”

얇은 손가락이 부드러운 갈색 머리를 뱅뱅 꼬았다.

샤론은 얹고 있던 다리를 바꾸며 차창 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드디어 그녀의 시선이 제제에게서 떠나갔다.

샤론의 눈빛이 가라앉고 입술이 꾹 맞물렸다.

원피스를 구기는 핏기 없는 손,

초초하듯 흔들리는 발끝,

당황한듯한 태도.

“배가 고프지 않아도 먹어야지, 살아야 하니까.”

그녀가 살짝 높게 올라간 음정으로 말했다.

“물론이죠, 뭐가 들어가야 일할 힘이 나잖아요?”

“…그래, 맞아. 먹고 살자고 소처럼 일하잖아.”

심심하게 맞장구를 친 샤론이 피식 웃었다.

그리고 마른 침을 삼키듯 목울대를 넘겼다.

“흐음...”

꼭, 먹기 위해 사는 사람처럼 말하네.

별로 먹지도 않으면서.

확신이 갔다.

엮여도 이렇게 엮이네.

어쩐지 샤론만 보면 숨이 턱 막혔다.

아직도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군, 안테르므슈.

불쌍한 여자.

제제는 허리를 숙여 샤론에게로 가까이 다가갔다.

한 손은 마차의 벽에, 한 손은 그녀의 귀를 넘기며 속삭였다.

제제는 지독한 장미 냄새에 남몰래 인상을 썼다.

“당신이 왜 내게 끌리는지 알았어요. 내가 왜 당신만 보면 도망가고 싶어지는 지도.”

“흐음, 왜일까?”

샤론이 제제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달콤한 칵테일을 담은 듯한 분홍색 눈빛.

샤론은 다시금 매력적인 자태로 돌아왔다.

덫에 걸린 토끼처럼 옴짝달싹 못 하고 있던 남자가 단숨에 태도를 바꿔온다.

그녀가 마음에 들어했던 첫 모습처럼.

그래, 이렇게 나와줘야 내 취향이지.

샤론의 입꼬리가 유려하게 올라갔다.

“그냥, 잘생겼잖아.”

제제의 목소리가 간지럽게 속삭였다

샤론의 얇은 목이 제제의 커다란 손에 쥐어진 것도 순간이었다.

카손이 돌아왔다.

드디어 예님이 어린이가 아니라 도깨비라는 것을 밝힐 날이 온 것이다.

서양 사람들은 머리카락도 눈동자도 색별로 다양해서 요물과 평범한 인간이 구별되지 않는단 사실을 깨달은 것은 고작 어제였지만.

밤새 답답했다.

반의반은 제가 도깨비란 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통하지 않아 답답했고,

반의반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변한 모습을 완전하게 믿는 사람들 때문에 답답했다.

왜 이 안에 1,725살 먹은 도깨비가 있단 사실을 상상하지 못하는 거지?!

한 번쯤은 할 수 있지 않나?

나머지 반은 서양과의 문화 차이를 의식주의 단순한 면에서만 따진 본인의 편협했던 사상에 답답했다.

서양은 기본적으로 동양과 인종부터 다른 곳이었다.

태지천과 다르게 눈색으로는 본질을 탐색할 수 없었다.

제제가 인간 행세를 하고 있는 것처럼, 가이아에선 도깨비란 존재나 요물들을 쉽게 구별하지 못할 지도 몰랐다.

역시 사람이 한 곳에만 오래 있으면 편협해진다.

지금이라도 가이아에 와서 넓은 세상을 보고 다양한 인종을 경험할 수 있어 다행이다.

모쪼록 일찍이 알았으면 좋았을 테지만 말이다.

그들이 제 눈을 보고도 도깨비란 사실을 알고 있을 거라 착각한 자신이 바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저의 초록 눈을 알아보는 듯했는데...

그건 뭐였을까?

예님이 마차에서 창밖을 보자 허리를 꾸벅 숙여 인사하던 사람들...

설마, 그것도... 착각?

예님은 노아와 함께 성안 어디를 가던, 사람들이 예의를 갖춰 인사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 했던 것을 떠올렸다.

처음엔 제게 인사하는 줄 알고 서양에서의 도깨비의 위엄에 뿌듯해 하며 위풍당당했었다.

그래, 나 도깨비란다!

무섭게 굴진 않지만 멋있긴 하니 마음껏 동경하렴!

그런데 어느 날 우연찮게 노아의 뒤를 한 발짝 늦게 걷다 알았다.

모두 성의 주인인 노아를 향해 고개를 숙였단 것을.

예님에게 보내는 것은 반가운 미소 그 뿐이었다.

그랬구나.

마을 사람들도 노아에게 인사했던 것이구나.

노아가 꽤 높은 지위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예님은 베개에 뜨거워진 얼굴을 묻고 소리를 질렀다.

으악, 민망하도다!!

예님은 태지천에서 코흘리개 아이들에게 들었던 전래동화 한 편을 떠올렸다.

호랑이의 부하가 된 여우가 제가 호랑이가 된 줄 알고 으스대는 이야기.

내 행동이 호가호위가 아니면 뭐더냐!

그렇게 지난밤, 예님은 침대에서 이불을 마구마구 차다 잠들었다.

예님은 성에 오자마자 노아의 집무실로 간 카손을 기다렸다.

할 얘기가 많은가?

언제쯤 나오려나...

복도를 서성이던 예님은 아예 카펫에 철퍼덕 앉았다.

안쪽에서 이모저모 대화를 이어가는 음성이 들리긴 하는데 죄다 모르는 단어라 내용을 모르겠다.

치료가 어쩌고

복구가 어쩌고

시일이 어쩌고

그렇게 몇 분이 지났을까?

이쯤이면 뻔뻔하게 문을 열고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을 때,

“예님, 들어오세요.”

제제가 문을 열어 줬다.

적기로구나!

“카손, 보고 싶었습니다!”

예님이 치마를 펄럭이며 뛰어갔다.

노아는 카손을 반갑게 맞이하는 예님의 미소에 작은 질투를 느꼈다.

카손에게 역시 없잖아 의지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말 있어요. 할 말.”

예님이 팔을 펄럭였다.

카손은 저를 올려다보는 아이에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무릎을 굽혔다.

“예, 예님 말씀해보세요.”

예님은 크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입속에 담아 뒀던 말을 꺼냈다.

“〈너희에게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어떤 오해 말입니까?〉”

샤론의 부드러운 눈에 물음표가 떴다.

예님은 입가에 주먹을 쥐고 큼큼 목을 가다듬었다.

글쎄, 놀라지 마렴.

“〈나는 사람이 아니다. 도깨비다. 나는 어린아이가 아니란다!〉”

으음?

카손이 고개를 기울였다.

예님은 상기된 볼로 답변을 기대했다.

나 도깨비라니까?

얼른 깜짝 놀란 반응을 보여준 다음에,

노아와 사람들에게 내가 도깨비란 것을 전해줘!

예님은 무언가 미묘한 표정을 카손의 얼굴에서 찾아냈다.

“〈왜, 왜 그러니?〉”

“〈도깨비가 무엇인가요?〉”

맙소사.

“〈...도깨비는 도깨비지...〉”

“〈도깨비...〉”

“〈잘 생각해봐 한 번쯤 들어봤을걸? 그 왜 초록눈의 도깨비라던지... 그런 구전 말이다!〉”

카손의 양어깨를 잡은 예님이 간절하게 물었다.

네가 이것만 알면 난 와인이란 것을 먹어볼 수 있단다.

네가 이것만 알면 난 어린아이 취급에서 오는 부당한 제재를 뿌리칠 수 있단다.

제발...!

“〈상상 속의 친구인가요? 제 상상 속 친구는 〈유니콘〉이었답니다. 〉”

그런 것이 아니야!

예님이 고개를 휙휙 저었다.

“〈나는 도깨비란다! 소원을 들어주는 도깨비!〉”

카손이 난감한듯 웃었다.

역시 모르겠단다.

예님은 도깨비를 설명하기 위해 애를 썼지만 카손은 이해하지 못했다.

마치 가이아엔 도깨비 같은 존재가 없는 것처럼 말이다.

“예님이 왜 그러지?”

노아가 예님의 옆으로 다가오더니 물었다.

“예님이 자신을 스스로 〈도깨비〉라고 하는데, 저는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어제부터 그 도깨비란 것을 계속 말하더군.”

“〈태지천의 사람들은 알 것이야! 태지천의 사람을 만나게 해줘.〉”

예님이 평소 부리지 않던 떼를 썼다.

카손도, 노아도 난감했다.

도대체 그 도깨비가 무엇이길래...

예님의 황소 같은 고집에 노아는 육지로 갈 채비를 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애가 아주 울상인데 달랠 도리가 없었다.

예님은 소파에 앉아 턱을 괴고 중얼중얼 거렸다.

“〈어찌 이보다 더 자세히 보여줄 수 있냔 말이야. 힘도 없는데 도깨비란 것을 증명할 도리도 없다니! 나는 도깨빈데, 도깨비인 것을 도깨비라 해도 알아듣질 못하구나!〉”

노아는 제제가 가져온 겉옷에 팔을 끼워 넣으면서도 뾰루퉁하게 앉아 있는 예님을 바라봤다.

예님을 알고 지낸 이후 이렇게 심술이 난 듯한 모습은 처음이었다.

“각하, 30분 내로 폭우가 올 것 같다며 배가 뜨지 못한다고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하늘이 어둡고 공기가 무거웠다.

카손이 제때 몽베르로 온 것이 다행이었다.

창밖으로 내다본 하늘의 먹구름은 금방이라도 비를 토해낼 듯 거대한 몸집을 자랑하고 있었다.

카손에게 말을 전해 들은 예님은 어깨가 축 쳐져 소파에서 일어났다.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린애가 아닙니다... 알아야 합니다... 꼭...”

노아는 예님을 다독여주려다 카손이 그를 조심스럽게 불러오자 시선을 돌려야 했다.

카손은 직접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통신석을 이용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을 꺼내왔다.

태지천의 사람들이 머무는 숙소에는 통신석이 없기에 무역처에 있는 사람에게 연락을 취하자는 것이다.

사람을 불러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약간의 시간과 번거로움이 필요했지만 지금으로써 예님의 기분을 풀어주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그 사이 제제는 방으로 돌아가는 예님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마침 좋은 기회가 왔다.

노아는 육지와 연락할 방법에 대해 카손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통신석을 이용해 무역처로 연락할 생각인 듯싶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서 제제는 예님의 뒤를 따라갔다.

그리고 품에 넣어두었던 작은 상자를 꺼냈다.

터벅터벅,

예님은 힘 빠진 걸음을 걸었다.

“〈이 답답한 상황을 벗어날 줄 알았더니 허탕이구나. 저 먹구름도 예전 같았으면 내 그냥 날려 버렸지.〉”

3층으로 올라간 예님은 제 방 앞의 복도 창문에 매달려 혼자 무어라 무어라 중얼거렸다.

비가 오기 전 날씨가 기승을 부리는지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

이 바람에라도 기대 답답한 속을 달래야겠다.

그나저나 저 아이는 뭐하는 거지.

“제제, 뭐해요?”

계단 쪽에 몸을 숨기고 있던 제제를 향해 예님이 물었다.

너는 왜 거기 서 있니?

“〈예님, 사람이 아니라고요?〉”

“〈…? 너 어떻게 태지천의 말을...〉”

놀랍게도 제제가 태지천의 말을 자연스럽게 구사했다.

“〈어찌 태지천의 말을 하는 것이냐? 원래 할 줄 알았던 거니?〉”

“〈사람이 아니라면, 너 정체가 뭐지?〉”

제제가 태지천의 말을 하긴 하는데 영 시답잖은 말만 했다.

평소보다 더 건방진 태도로 말이다.

“〈말했지 않으냐, 나는 도깨비다!〉”

으휴, 오늘 이 말만 몇 번째인지.

속이 터진다, 터져!

“〈도깨비가 뭔데?〉”

“〈모르면 말아. 도깨비가 도깨비지 뭐니?〉”

카손에게 아무리 설명했지만 똑똑한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다.

같은 가이아의 존재인 제제라고 이해할 수 있을리 만무했다.

사실 예님은 '소원을 들어준다!'라는 것 외에, 도깨비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지 몰랐다.

제 정체성이 도깨비인데 무슨 수식어가 필요하단 말인가.

일반적인 사람들도 예님의 상황에 있다면 마찬가지일 테다.

어떤 놈이 인간에게 인간이 뭔데? 라고 묻는다면 반 이상은 제대로 스스로에 대해 표현하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설명할까?

그저 숨을 쉬고 있을 뿐인데...

눈을 깜박일 뿐인데...

살아 있는 생명체일 뿐인데...

조금 막막하지 않을까?

피교육자라면 학교라던가 책에서 배웠던 어떤 설명이라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예님은 본인의 정체성, 생명의 정의에 대해 따로 생각해 본적도, 배워본 적도 없이 살아왔다.

그러니까 도깨비가 뭐냔 질문은 그녀의 말문이 콱 막히게 하는 백설기 떡이나 다름없었다.

“〈도깨비가 뭐냔 말입니다...〉”

제 존재의 정의를 구축하기 위해 생각에 빠진 예님에, 그녀가 토라진 상태라고 생각한 제제는 중얼거리며 머리를 쓸어넘겼다.

드워프가 만든 『어떤 말이든』 팔찌를 힘들게 구해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 직전이었다.

그의 팔목에 감긴 푸른 테가 찰랑거렸다.

“〈너흰 아무리 말해도 모른다!〉”

결국 도깨비의 정의를 내리는 것에 실패한 예님이 팔짱을 끼며 말했다.

제제는 손목과 함께 팔찌를 매만졌다.

말이 통해도 쓸모가 없었다.

하지만 쓸모가 있게 만들어야했다.

제제는 예님의 시선에 맞춰 무릎을 굽혀 앉았다.

그리고 태도를 바꾸어 조곤조곤 묻기 시작했다.

“〈예님, 천천히 설명해보세요. 일단 도깨비는 어떻게 생겼죠?〉”

“〈내가 도깨비니 나처럼 생겼지.〉”

“〈어린아이의 모습 말입니까?〉”

“〈아니, 평범한 성인의 모습에 눈은 인간과 달리 본질의 색을 띠어. 여기 가이아의 사람들은 하도 형형색색이라 구분이 안 가지만 태지천에선 확실히 인간과 요물이 분간되지.〉”

“〈아, 그럼 도깨비는 뭐 특별한 능력 없나요? 이 팔찌를 만들어준 종족은 물건에 특별한 힘을 불어넣곤 합니다.〉”

드디어 조금씩 말이 통하고 있었다.

제제는 큰돈을 주고 구해온 `어떤 말이든` 팔찌에 드디어 뿌듯함을 느꼈다.

“〈그래서 도깨비는 인간보다 훨씬 오래 살고, 요술로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기도 하는 뭐 그런 개체군요.〉”

“〈어째서 이 땅에는 도깨비가 없단 말이냐. 그럼 누가 사람들에게 장난치거나, 소원을 들어주지?〉”

“〈도깨비는 인간을 위한 존재라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더불어 살 뿐이다. 나는 그저 인간의 친구다.〉”

스무고개를 하듯 몇 차례 질문이 오고 가서야 제제는 도깨비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말투 진짜 할머니 같네.〉”

“〈너 몇 살이니.〉”

“〈쪼그만 한 게 1,725살이라니. 기대했던 것보다 아무것도 아니네요.〉”

“〈제제 네 녀석을 따끔하게 혼내줄 힘은 남아있다!〉”

예님이 손을 올려 제제의 코를 꽉 잡아당겼다.

“〈아야야, 뭐하는 겁니까!〉”

“〈능글 맞은 요물 녀석! 수작 부릴 생각 마라! 네가 이렇게 온 것도 노아는 모르지? 무슨 꿍꿍인지 관심 없지만 어서 가서 노아에게 도깨비가 무엇인지 설명이나 해줘.〉”

예님은 제제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어떻게 내가 사람이 아니란 걸 안 겁니까?〉”

“〈기운을 느끼면 알지, 네 눈에서 오는 기운이 있어. 여기선 너를 뭐라고 부르니.〉”

“〈어, 비 온다.〉”

“〈얌체같이 말을 뱅글뱅글 돌리는구나. 끽해봐야 제비, 바람둥이 그 정도이려나. 나도 딱히 궁금하진 않단다. 어서 가서 노아에게나 전하라니까?〉”

“〈각하 모르게 온 거 알잖아요? 못 전해요.〉”

“〈못났어.〉”

예님이 제제의 『어떤 말이든』` 팔찌를 뚫어지라 바라봤다.

“〈탐나요?〉”

“〈그 팔찌 내놓아 봐라. 잠시만 빌려줘. 그걸 끼면 가이아의 말을 할 줄 알게 된다며, 가이아의 말로 내가 도깨비란 무엇인지 알려줘야겠다.〉”

“〈맨입으로?〉”

“〈그럼?〉”

예님의 얼굴에 순식간에 경계가 서렸다.

네 녀석 뭘 원하는 것이야.

그런 것까지 내 봐줄 줄 알고?

“〈조력하시죠. 마침 예님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제제가 생긋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노아 몽블라체를 아빠라고 불러보세요. 이왕이면 진짜 딸이 되면 좋고요.〉”

“〈뭐?〉”

한낱 요술 팔찌로 나를 마음대로 다루려고 들어?

“〈결혼도 안 한 총각을? 미쳤느냐.〉”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말이죠. 나도 팔불출 득 좀 보고.〉”

어이구? 예님은 더 생각해볼 필요도 없이 팽 뒤를 돌아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저 놈 말은 더이상 들을 가치도 없었다.

수상한 놈.

어떤 못된 짓을 꾸미고 있는지 몰라도 노아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한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방으로 들어온 예님은 구름 침대에 올라가 앉았다.

제제는 이상한 놈이었다.

처음엔 뺀질 거리지만 괜찮은 아인 줄 알았더니 아니였다.

속이 거어먼 요물.

무슨 생각을 하는 지 몰라도, 노아에게 아빠라니!

별 이상한 것을 요구한다!

그런 팔찌 없이, 열심히 말 공부하면 된다.

내 머리는 비상하니 금방 배울 수 있을 거야, 라고 뒤돌아 서놓곤 살짝 후회가 됐다.

그 팔찌, 오늘처럼 답답한 일이 생기면 요긴하게 쓰일 텐데...

예님은 입맛을 다셨다.

아쉬운 대로 복주머니에 비슷한 게 있을지도.

치마 춤에 걸어놨던 복주머니를 집어 입구를 활짝 열었다.

어디 보자…

매번 무언가를 찾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물건이 너무 많다.

예님은 카펫 위로 복주머니 속 물건들을 쏟아 부어냈다.

그러자 쫘르륵 요란한 소리와 함께 예님의 허리만큼의 산이 만들어졌다.

이게 반도 꺼내지 않은 양이었다.

복주머니엔 남은 물건이 꺼낸 것보다 더 많았다.

예님은 우선 밖으로 나온 물건들을 살펴보기로 했다.

이것은 백 년산 나무로 만든 연필,

시장에서 100원 주고 산 꽃핀,

나무꾼의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준 대가로 받은 나무도끼,

한창 태지천 전국을 유행시켰던 색안경도 여기 있구나,

호랑이가 어디서 주워왔다고 준 곶감은 썩어서 버려야 하고...

쓰레기가 사이사이 보이는 듯했지만 예님에겐 모두 추억이 담긴 보물이었다.

요리조리 보물 더미를 살피며 발을 옮기는데 와작, 하고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게 뭐지?〉”

예님은 부서진 씨앗을 주웠다.

마른 씨앗은 그녀의 새끼손가락만큼 컸는데 어떤 과일에서 나왔는지 감이 안 왔다.

자두인가? 복숭아씨 같기도 하고.

언제 이런 걸 먹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

“〈나도 늙었나 보구나.〉”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고.

예님이 퍽 우스운 소리를 하며 부서진 씨앗을 쓰레기통에 담았다.

그리고 뒤를 도는데

심장이 저릿하며,

'〈신령님, 이거 드세요!〉'

눈물방울이 톡 떨어졌다.

이 목소리는 뭐지…?

환청인가?

'〈엄청 달고 맛있지요?〉'

예님은 한참을 멈추지 않는 눈물에 가만히 서 있어야 했다.

눈을 깜박이지 않아도 물방울이 똑똑 밖에서 쏟아지는 비처럼 흘러내렸다.

“〈내가 왜 우는 것이지...〉”

예님은 메인 목을 애써 삼켰다.

애틋하고 아린 감정이었다.

너무나 멀리 있는 듯한 목소리는 심장 깊숙이서 전해졌던 희미한 감정에 손끝이 저릴 정도였다.

예님은 쓰레기통에서 부서진 씨앗의 작은 가루 한 톨마저 주워내 손수건에 올렸다.

“〈목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인연이라면 절대 잊었을 리가 없어.〉”

이 텅 빈 자리에 대체 어떤 기억이 있었던 게야.

예님은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녀는 있는 힘껏 조각난 씨앗을 원상태로 돌렸다.

물기 없이 딱딱하게 말라 칙칙한 색을 지닌 씨앗.

그 안에 들어있던 한 톨의 기억.

정다운 목소리의 주인은 누구일까?

노아가 통신석으로 연락을 걸자, 시간이 걸렸지만, 무역 처는 태지천의 사람을 연결해줬다.

그는 얼마 전에 있었던 태풍 사고에서 그나마 적은 부상 당한 사람으로 현재 태지천 무역 단의 임시대표를 맡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카손 씨. 비가 오기 전에 무사히 도착하신 것 같군요.〉”

“〈걱정해주신 덕에 잘 올 수 있었습니다. 박 휘찬씨 이쪽은 노아 몽블라체 공작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태지천과 가이아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많이 힘써주신다고요. 저는 태지천의 무역단 선원 박휘찬입니다.〉”

“반갑소.”

흑갈색 머리와 갈색 눈.

태지천의 사람이라고 검은 머리카락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휘찬 씨, 여쭤 볼 게 있습니다. 도깨비란 말을 아십니까?〉”

“〈도깨비 말입니까? 물론입니다.〉”

“〈상상 속의 동물입니까?〉”

“〈아닙니다. 도깨비는 요술을 부릴 줄 아는 요물입니다. 어떤 이는 신이라고 떠받들기도 하지요.〉”

카손의 통역을 들은 노아의 눈이 가늘어졌다.

카손도 덩달아 마른 침을 삼켰다.

“〈그건 왜 물으십니까?〉”

“〈아닙니다.〉”

“〈가이아에서 태지천의 이야기를 들으니 반갑군요. 저희 동네에선 도깨비를 마주하면 못 본체를 하란 말이 있지요. 그들은 장난이 심해서 인간을 골려 먹길 좋아하니 봉변을 당하지 않으려면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아, 어떤 도깨비는 작은 대가로도 소원을 들어준다고도 하지요. 그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땐 온 마을이 그 도깨비를 찾아다닌다고 난리였습니다. 초록 눈의 도깨비라 했던가… 만나게 된다면 소원을 빌고 싶어서 온동네를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깨비란, 참 신비하고도 재밌는 존재이지요.〉”

초록 눈의 도깨비...!

카손은 그제서야 예님의 어린아이 답지 않던 성숙한 말투와 생각, 행동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내릴 수 있었다.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던 것이 진심이었고 혼자 떠돌아도 괜찮다는 말도 진실이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자신을 인간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었다.

모두 믿지 않았을 뿐이지.

그렇게 착하고 순수한 아이가,

인간이 아니라니!

두 사람에게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노아는 카손을 잠시 방으로 돌려보냈다.

집무실에 홀로 남은 노아는 짧게 깎인 손톱으로 탁탁 책상을 두들겼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예님에 대한 의문이 몇 가지 풀려나갔다.

마법과 같은 요술을 부린다는 존재, 도깨비.

예님에게서 느껴졌던 그 희미한 힘에 관해 설명이 됐다.

아이답지 않게 의젓했던 성격과 제 나이를 1,725살이라 우기던 모습과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항상 눈을 가리기 바빴던 상황까지... 대략 이해가 갔다.

휘찬이란 남자가 말했던 초록눈의 도깨비가 예님이라면 퍽이나 시달렸을 것이다.

안 봐도 뻔한 전개였다.

그래서 힘이 없어진 건가?

소원을 너무 많이 들어줘서?

마음이 아팠다.

아이의 정체를 몰랐을 때보다 더 아끼고 보살펴주고 싶었다.

노아는 하던 일을 접고 예님의 방으로 향했다.

창밖을 보니 세찬 비바람이 치고 있었다.

똑똑

노크했다.

안쪽에서 작은 걸음 소리가 들렸다.

이내 문고리가 돌아가며 동그란 얼굴이 나왔다.

“노아?”

평소보다 촉촉한 눈망울이 깜박였다.

“울었나?”

“조금 울어요. 그냥, 몰라요.”

이유를 모르고 울었다니 신선한 변명이었다.

제가 도깨비라 설명한 것을 몰라주니 답답해서 울었구나.

마음이 아팠다.

“네가 〈도깨비〉라는 것을 알았다. 그 도깨비>가 무엇인지도 말이다.”

“음...? 정말? 정말?”

“태지천의 사람에게 연락해 그것이 무엇인지 물어봤지.”

노아는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췄다.

“사람이 아니란 것도, 1,725살이 맞단 것도 알았다.”

큼지막한 손이 예님의 머리를 조심스레 쓰다듬었다.

“서운했겠구나. 안 믿어줘서 미안하다.”

눈꺼풀 한번 깜빡이지 않는 눈이 가만히 노아를 마주했다.

그의 말을 곱씹어 이해하듯 입술이 우물쭈물 움직이며 천천히 말을 꺼냈다.

“괜찮습니다. 노아 나 주웠습니다. 도왔습니다. 나 안 믿어 한 번 괜찮아요.”

“고맙다.”

“나 화나면 무서워요. 다음부턴 내 말 믿어. 나는 거짓말 안 합니다.”

그래, 예님은 언제나 사실만을 말했다.

노아는 다시 한 번 더 예님에게 미안해졌다.

그는 예님의 젖은 눈꼬리를 매만졌다.

예님이 코끝을 긁적이며 웃었다.

오늘은 그냥 답답해서 고향에서 아주 먼 외지에 혼자 동 떨어진 것이 실감이 나서 심술이 났다.

어쨌거나 결국엔 믿어줬구나.

그럼 됐다.

드디어 오해가 풀렸구나!

“노아.”

예님이 제 눈가를 매만지는 노아를 비장하게 불렀다.

“왜 그러지?”

“술.”

“...”

“나 어린이 아닙니다. 그렇죠?”

날씨도 꾸릿꾸릿한데,

기념으로 와인 한 잔 내어보는 게 어떻겠어?

그녀가 씨익 웃었다.

“와인 어디 있습니까?”

예님은 와인잔에 찰랑거리는 검붉은 액체를 노려보았다.

색깔에선 아무 차이가 없어 깜박 속았으나, 맛을 보는 순간 알았다.

이것은 술이 아니다!

어디 주스로 속이려고 해?

노아가 먹어왔던 것과 비교해 봤을 때 냄새부터 달랐다.

예님은 의자에서 일어나 노아의 잔을 뺏으려고 했다.

노아는 얼마나 얍삽 빠른지 예님의 손으로부터 와인잔을 지켜냈다.

하지만 예님은 끈질기게 노아에게 들러붙어 잔을 뺏어냈다.

이것도 포도 주스잖아!

“거짓말쟁이! 나 술 어딨습니까!!”

“미안하다, 예님. 그 모습엔 술을 줄 수 없다. 어린 애의 몸이지 않느냐.”

“노아 입 하나, 말 두 개. 나 화났어요.”

예님은 포도 주스를 벌컥벌컥 들이키고 의자에서 뛰어 내렸다.

“술 주세요!!!”

“줄 수 없다.”

노아가 애써 눈을 감아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카손도 예님의 원망 가득 찬 얼굴을 피했다.

도덕심 넘치는 노아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그대로인 예님에게 차마 술을 내줄 수 없어 포도 주스를 준비하라 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여태 어린아이라 믿었는데 오늘에서야 갑작스레 알게 된 사실이 예님이 1,725살 먹은 존재라니, 아직은 믿고 싶지 않았다.

예님이 많이 속상해하길래 믿으려고 노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어린이 취급은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다잡았다만… 당장 술을 주는 건 좀… 그렇다.

노아에겐 시간이 더 필요했다.

예님이 노아의 팔을 잡고 늘어졌다.

차나 와인을 마시는 공간으로 평소 잔잔함만 머물던 티룸이 예님으로 인해 시끌벅적해졌다.

보다 못한 제제가 나섰다.

“예님, 각하께선 다 예님을 생각하는 마음에 이러시는 겁니다. 사실 지금 성에 맛있는 술이 다 떨어졌습니다.”

“네...?”

“각하께선 예님에게 맛있는 술을 내줄 수 없는 바에 차라리 드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제제는 노아의 곁에 있던 예님에게 다가가 시야를 맞추고 생긋 웃었다.

“와인은 어느 정도 숙성되어야 제대로 된 맛이 납니다. 그런데 현재 성에 남은 술은 전부 몇 달 전에 담은 것뿐이라 떫고 맛이 없습니다. 예님께 그런 술을 대접할 수야 있겠습니까? 저희 몽블라체 가문의 술은 가이아에서 제일 가는 술입니다. 예님께 이 술을 꼭 맛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참아주세요.”

“뭐어? 다른 술은 없습니까?”

“각하께서 그동안 다 드셔버려 없어졌답니다.”

“…노아... 사실입니까?”

“…사실이다.”

제제가 그럴싸한 꾀를 내었다.

“지금 있는 술이 맛있어지려면 10년이 걸립니다. 10년이 지나야 담근 술을 딸 수 있습니다.”

“〈10년…? 노아가 10년 치의 술을 남겨 놓지도 않은 것이야? 그동안 먹을 것도 없어?〉10년, 노아 술 없어요?”

10년 동안 먹을 술 하나 쟁여 놓지 못할 정도로 맛있다면, 얼마나 맛있는 거야?

“술이 아주 맛있다 보니… 전부 드시고 없답니다. 아시다시피 각하께선 식사 때마다 한잔 하시잖습니까? 그러다 보니...”

10년이란 시간은 예님에게 기다리는 것이라곤 별것도 아니었다.

“꼭 맛있는 술을 대접하고 싶어서 그러니 10년만 기다려주심이 어떻겠습니까? 예님께 술 같지도 않은 술로 대접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님은 제제의 눈동자를 뚫어져라 봤다.

저 속이 거먼 녀석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지.

흠... 미덥지 않아.

거짓말이 분명해.

“두 번째 맛있어 술 주세요. 다른 거 주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저희 공작가의 술이 최고입니다.”

“거짓말!”

제제 이 녀석이 내게 술 한 모금 안 주려고 침도 안 바르고 입을 놀려?

예님은 손을 올려 제제의 머리에 딱밤을 때렸다.

“아야!”

“나 바보 아닙니다. 제제 바보!”

“그럼 맛없는 술이라도 드릴까요?”

제제가 딱밤을 맞은 데를 쥐고 억울하다는 연기를 하며 말했다.

“〈있는 것 중에 맛있는 것으로 내오려무나.〉”

예님이 태지천어로 말을 하자 카손이 곧바로 통역했다.

예님은 제게 술을 내주지 않은 노아를 살짝 흘겼다.

“〈술을 주지 않으면 놀랍도록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깽판을 칠 것이야.〉”

노아의 표정이 영 탐탁지 않아 보였다.

그리고 한숨을 쉬더니 제제를 향해 말했다.

“가장 도수가 낮은 샴페인을 가져오라 해.”

깽판을 치는 것은 성이 부서진다 해도 상관없었다.

예님이 정말 먹고 싶어 한다는 게 보여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그렇게 원한다면 일단 맛보기만 보여주자.

톡톡 따가운 공기 방울이 입안을 가득 찌르고 사라졌다.

까칠한 목 넘김에 약간의 달달함이 혀끝을 감싼다.

상큼한 과일 향이 나는데 적당히 쌉싸름하다.

미미하지만 알싸한 맛이 술이라는 것을 알려주니 크으하고 목 긁는 소리가 절로 났다.

맛있다, 맛있어.

드디어 서대륙의 술을 마셔보는구나!

처음 마셔보는 재밌는 식감이라 맛있고,

그게 또 평소 좋아하던 과일주처럼 맛있고,

오랜만에 먹는 술이라 더 맛있다.

아껴먹는다고 홀짝였는데 노아가 직접 ‘딱 한 잔만’이라고 따라준 잔이 벌써 반이나 비어있었다.

더 없어?

간절한 얼굴로 바라봤지만, 노아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이것만. 다음에.”

예님은 입맛을 다셨다.

알딸딸한 느낌도 안 나고 먹다가 만 것이 찝찝했다.

노아도 최대한 노력한 것이겠지.

다음을 기약했으니 지키리라 믿는다.

며칠 후.

큰 일이다.

예님이 술맛을 보더니 술타령을 더 심하게 했다.

노아는 저녁 식사마다 곁들였던 와인을 더는 먹을 수 없게 됐다.

노아가 마신다면 예님에게도 줘야 했기 때문이다.

예님이 1,725살 어르신이란 것을 안 지 며칠이 지났다.

예님의 겉모습은 여전히 어린 아이라 그런지 속에 어르신이 들었다는 사실은 노아에게 여전히 실감나지 않았다.

제제와 카손은 노아와 달리 1,725살 먹은 예님을 대하는 모습이 자연스럽다.

예님에 대해 받아들이게 된다면 겉모습에 개의치 않고 함께 술을 마시게 될까?

글쎄, 모르겠군.

예님은 술 얘기만 꺼내면 눈치 빠르게 자리를 피하는 노아에게서 제제와 카손에게로 표적을 바꾼듯했다.

그녀는 두 사람에게 매달려 술을 내놓을 때까지 거머리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그럼 두 사람이 견디다 못해 술을 한잔시켜주면 그제야 개구쟁이처럼 웃었다.

요즘 예님에게선 알코올 향이 은은하게 났다.

제제와 카손에게 하루에 딱 한 잔만 주도록 했는데 꾀를 부려 안 먹은 척을 하고 또 얻어먹기도 하는 듯했다.

그렇다고 많지도 않은 양인데 어찌 술 냄새가 나는 걸까?

어디서 술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겠지.

노아는 예님의 방을 제 옆으로 옮겨서 다행이라 여겼다.

기척으로 예님을 감시할 수 있었다.

전날엔 술을 찾으러 주방으로 가길래 잡아오기도 했다.

본인은 주방에 술이 없다며 배가 고파 갔다며 결백하다 했지만, 저녁부터 주방을 기웃거리던 예님이었다.

요리용 와인이 꺼내져 있던 건 어떻게 알고.

혹시 도깨비란 것을 밝히기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 캐물었더니, 술이 어디 있는지 알았다면 굳이 밝히지도 않았을 것이란다.

진심 같았다.

지금 예님은 방에서 오늘 배운 말 공부를 하고 있었다.

옹알옹알 거리는 목소리가 미미하게 귓가에 감겨왔다.

집사가 예님 몰래 가져온 몽블라체의 38년산 와인이 투명한 유리잔에 채워졌다.

평소 자주 혼자 마시던 술인데 몰래 마시는 기분이 드니 한동안은 혼자 즐기지도 못하겠다.

예님이 도깨비란 사실은 노아와 카손, 제제만 알고 있는 일이었다.

사용인들은 눈치 채더라도 모르는 척 하도록 했다.

예님에게 이것저것 물어본 것에 따르면 예님은 원래 강한 힘이 있었고 성인의 몸을 하고 있었는데 가이아에 오면서 몸이 작아지고 약해졌다고 한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녀는 힘이 강해지면 몸이 원상복구 될 거라고 믿고 있었다.

노아는 예님이 사람이든 아니든 정체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단지 전이나 지금이나 예님이 떠날까 봐 걱정이 됐다.

그녀가 1,725년의 세월을 살아온 존재라면 언제든지 노아의 곁을 떠나 가고 싶은 곳으로 향할 수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아닌 삶의 지혜가 쌓인 도깨비였다.

노아와 달리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예님의 행동 하나엔 단순한 순수함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무수한 이면을 알고도 타인을 품을 줄 아는 세월이 담겨 있었다.

생각과 행동이 자유로운 이유도 그 때문일 것이다.

큰 정처 없이 떠돌았다는 그녀는 지금이라도 미련없이 노아의 곁을 떠나갈 것 같았다.

그나마 언어를 가르쳐 준다는 핑계로 묶고 있었다.

예님에겐 보호가 필요했다.

가이아는 위험했다.

작고 소중한 존재는 범행의 표적이 됐고,

대부분 지역에서 태지천의 사람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 눈에 띄는 아이를 누가 탐내지 않을까?

노아는 예님을 지켜주고 싶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타닥타닥 두드렸다.

노아는 예님이 방문을 나서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를 들었다.

방을 옮기고 나서 알게 된 것은 예님이 매일 밤 방을 나와 옥상으로 간다는 거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성을 한 바퀴 돈다는 것 등의 사소한 일상이었다.

소드마스터인 그의 감각은 누구보다 섬세해서 예님이 맨발로 복도의 카펫을 밟고 있단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는 비워지지 않은 잔을 두고 일어섰다.

노아는 조심스레 예님의 뒤를 따랐다.

매일 밤 옥상에 가서 무얼 하는 걸까?

한 발 두 발 깡충깡충 계단을 지치지 않고 올라간다.

기척을 지운 그는 옥상 난간에 걸터앉은 예님의 뒷모습을 팔짱을 끼고 바라봤다.

난간에 앉은 모습이 아슬아슬해 보였지만 노아는 언제든지 예님이 떨어지려 하면 받아줄 준비가 되어있었다.

곧이어 작은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알 수 없는 언어와 친숙하지 않은 리듬.

태지천의 노래인가.

나 있는 곳 그대는 없소

나 있는 곳 별들은 많소

별들의 빛은 수다스러워서 내 목소리 그대에게 닿지 못할까 걱정이 되오

가장 높은 곳에 있어도 하늘보다 높을 수 없소

소리를 질러도 메아리만 울리오

당신이 좋아하던 노래를 부르리

당신이 좋아하던 노래를 불러 당신에게 닿으리

나 여기 잘 있소

나 그대 없이 잘살고 있소

아주 많이 보고 싶지만 추억으로 견디오

하루가 일 년처럼 길지만 그대 볼 마음으로 견디오

예님은 언젠가 만났던 나무꾼의 가락을 흥얼거렸다.

그에게 소원을 들어주고 대가로 받은 가락은 예님이 좋아하는 곡조 중 하나였다.

당시 예님은 선녀님들과 슬픈 노래 부르기 대결로 열과 성을 내고 있었다.

슬픈 노래를 짓는다고 영감을 받기 위해 태지천 방방곡곡을 떠돌고 있을 때였다.

그 나무꾼은 산중에 달랑 지어 놓은 저의 집의 지붕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듣기 좋은 가락과 심금을 울리는 가사가 근처 숲에서 놀던 예님의 귀에까지 들어왔다.

예님은 병으로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는 나무꾼이 흥얼거리는 노래를 갖고 싶었다.

그녀는 나무꾼에게 소원을 이루어 줄 테니 곡을 가르쳐 달라 청했다.

나무꾼은 소원이 없다고 했다.

예님은 노래가 받고 싶어 날이면 날마다 나무꾼을 찾아가 꼬드겼다.

어느날 나무꾼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죽은 아내가 보고 싶다고.

예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순 없었다.

다른 소원은 없느냐 물었다.

아내의 옆으로 가고 싶다 했다.

하지만 자기는 제 수명을 다 채우고 옆으로 간단 약조를 하여 죽을 수 없단다.

그래서 나무꾼에게 예님이 들어줄 수 있는 소원은 없었다.

노아처럼 욕심이 없던 인간이었다.

나무꾼은 제 노래를 그냥 가지라고 했다.

대신 하늘에 있는 아내가 제가 잘 있다고 안심되도록 그 노래를 자주 불러주라고 했다.

예님은 약속했다.

나무꾼의 아내가 들을 수 있도록 노래를 불러주겠다고.

예님은 좋은 전경을 보며 술을 먹을 때면 나무꾼의 노래를 불렀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잘 닿도록.

따뜻한 사랑을 지녔던 나무꾼을 기리기 위함이었다.

무엇보다 예님이 이 노래를 마음에 들어한 것은 노랫말이 옛날 어떤 사람과 참 닮아있기 때문이었다.

아주 먼 옛날의 어떤 사람과 말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못하던 그 사람을 떠올리던 그 사람.

예님은 그 자를 나무꾼과 함께 기렸다.

하늘에서는 두 사람 모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를.

그녀는 넓은 소매에 숨겨두었던 술통을 꺼냈다.

제제를 괴롭혀 얻어낸 것이다.

제 말을 들으면 협조해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니 금세 술을 대령하더라.

‘〈매일 이렇게 가져오면 생각해볼게. 네 재미를 보고 싶으면 협조하려무나.〉’

‘〈술 중독자...〉’

예님도 그렇게 야비한 방법이 먹힐 줄 몰랐다.

혹시나 해서 찔러본 것이 이렇게 유용할 줄이야.

물론 협조할 마음은 없었다.

샴페인의 탄산이 재밌어서 자꾸 먹고 싶어지는 걸 어쩌란 말인가.

한 번 술 구멍이 뚫리니 지금껏 못 마신 만큼 주체할 수 없이 마시게 된다.

통의 뚜껑을 열자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왔다.

크으, 이거지.

그리고 고개를 들어 꼴깍 한 모금 삼키고 눈을 뜨니,

“예님.”

어느 틈에 나타난 노아가 병을 뺏어갔다,

“이래서 술 냄새가 났던 것이군. 난 너를 주정뱅이로 만들 수 없다.”

“안 돼요! 술!”

예님의 비명이 에스티엘라 성에 울려 퍼졌다.

제제는 아침부터 예님의 입술이 빼죽 나와 있는 예님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고 턱을 괴었다.

어제 분명 술을 가득 담아 준 것 같은데?

예님은 아침부터 공복에 한 잔을 들이켤 정도로 알코올중독자였다.

어제는 기분 좋게 헤실헤실 웃으며 앉아 있더니 오늘은 물만 벌컥벌컥 마신다.

“제제, 네가 예님에게 이것을 줬느냐.”

들켰구먼.

제제는 노아의 손에 들린 병을 보고 머리를 긁적였다.

“예님이 내놓지 않으면 제게 저주를 내릴 것이라 겁을 주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예님이 발끈했다.

노아도 제제가 저주 같은 것에 겁을 먹을 녀석이 아니란 것을 알아 그냥 듣고 넘길 뿐이었다.

“왜 나 마시면 안 돼요?”

“…가이아의 술은 중독성이 강해 조절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아는 답지않게 입에서 나오는 대로 둘러댔다.

엥? 정말?

그래서 내가 매일같이 술을 찾았던 것이니?

그럴 리가 없었다.

술에 들어간 알코올은 다 같다.

만드는 방법만 여기저기 다를 뿐이지 중독성이 유별나게 다르진 않았다.

하지만 예님은 노아의 말을 믿었다.

어쩐지 한 번 마신 뒤로 하루라도 안 마시면 손이 떨리더라.

“아무튼, 처음 마실 땐 조절이 필요하다. 그래서 많이 못 마시게 하는 거다. 알겠나?”

“응...”

참기는 힘들 테지만 하는 수 없었다.

중독자가 되면 큰일이니까.

매일같이 얼굴이 벌게서 비틀비틀 걸어 다니던 술 도깨비처럼 될 순 없지 않은가.

그렇게 예님을 설득하고 아침 식사가 시작됐다.

노아는 예님 몰래 안심했다.

예님은 술이 없어 서운한 마음을 뒤로하고 식기를 잡았다.

오믈렛이 탱탱하니 고소한 냄새로 그녀의 허기진 배를 자극했다.

예님은 숟가락으로 크게 자른 노란 오믈렛을 한입에 넣어 우물거렸다.

그때 누군가 식당으로 허겁지겁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공작님! 식사 중에 죄송합니다!”

성 앞을 지키던 경비병이었다.

“테오르 님께서 오셨습니다!”

노아의 아버지가 등장했다.

테오르 몽블라체.

몽블라체 가문의 전대 공작이자, 노아의 아버지.

건장한 체격과 까만 머리는 그가 10대 손자를 세 명이나 가진 육십 중반의 남성이란 사실을 믿을 수 없게 했다.

그나마 눈가와 입가에 자리 잡은 주름만이 그의 세월을 짐작게 해주었다.

제제는 응접실에 마주 앉은 부자의 사이에 미소를 머금고 서 있었다.

몇 분 째 적막이 오갔다.

말 많은 부자가 아니었다.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이었지만, 따뜻한 카모마일 차가 식어갈 때까지 첫마디 하나 꺼내지 않고 있었다.

마치 동물들이 냄새를 맡으며 서로를 탐색하듯 조용히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것 같았다.

“오시기 전에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아버지.”

무뚝뚝한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여전히 잘생겼구나.”

테오르는 저를 똑 닮은 아들을 감상하는 것을 마치며 말했다.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원, 자식들은 매번 서운한 말만 하는지.”

“자식이라, 아버지께서 막무가내로 오실 때는 꿍꿍이가 있단 걸 잘 알아서 그럽니다.”

테오르의 자식 사랑은 예전부터 남달랐다.

그는 자식들을 향한 애정이 강했는데, 노아 위로 두 명 있는 누나들과 노아에게 일이라면 사족을 못 썼다.

첫째 누나가 첫 번째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 막무가내로 노아를 데리고 딸의 데이트를 감시를 하질 않나, 둘째 누나가 나쁜 남자에게 차여 울고 불며 실연을 겪었을 때는 상대 남자를 향해 결투신청을 걸어 몽블라체의 두 딸을 잘못 건드리면 '지옥'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줬더랬다.

테오르의 연애의 참견은 막내 아들이 사춘기에 들자 더욱 심해졌다.

떡잎부터 남달랐던 노아는 잘생긴 외모로 인기가 많았다.

테오르는 하루가 멀다하고 고백을 받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지만, 혹여 잘못된 관계를 가져 사고를 칠까봐 걱정했다.

그는 날마다 노아를 붙잡고 부자간의 대화랍시고 사사건건 이성관계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며 귀찮게 했다.

그래서 노아는 이때부터 여자와 가깝게 지내면 아버지가 귀찮을 정도로 호들갑을 떤다는 사실을 깨닫고 멀리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노아의 연애 감정이 매말라 간 것이다.

아들의 연애 세포를 죽여버린 장본인은 꿈에도 모를테지만.

“그래. 노아, 드디어 여자가 생겼다고?”

이럴 줄 알았다.

어디서 또 이상한 소문을 들으셨군.

노아는 대충 짐작하고 있었다.

테오르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올 이유는 몇 가지 없었다.

제제 이 녀석이 또 일러바쳤군.

녀석은 들어온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노아의 사생활을 테오르에게 일러바치는 편지를 붙이다 적발되곤 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럴 리가, 내 정보통은 정확하다.”

테오르는 분홍색 편지에 적혀있던 내용을 신뢰했다.

‘공작님께서 어떤 여자에게 푹 빠져계십니다.’

분명 그렇게 쓰여 있었다.

그는 싱긋 미소만 짓고 있는 제제를 살짝 곁눈질했다.

그때 노아가 한숨을 쉬었다.

“제제가 장난을 친 것입니다.”

“난 제제가 알려줬다고 말 안했다?”

“두 사람이 전부터 내통해왔다는 것은 진작 알았습니다.”

노아가 당연한 듯 말하자 테오르는 하는 수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였다.

“상사를 배반한 저놈의 목을 치려무나, 아비는 죄가 없다.”

“테오르님 너무하십니다.”

“네가 먼저 내게 정보를 판다고 한 게 아니냐. 네가 책임을 물어라.”

“수요가 있으니까 파는 것이니, 사는 사람의 잘못입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준 놈이 괘씸한 말을 하는구나.”

제제가 두 손을 들어 올리는 시늉을 했다.

“꾸며 쓰긴 했지만 거짓 정보는 아닙니다?”

뻔뻔한 녀석, 대범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공작가를 상대로 겁도 없었다.

전 공작이었던 자신을 상대로 장난을 치다니 건방졌지만 노아가 녀석을 왜 옆에 두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뛰어난 실력의 마검사라는 것과 일 처리가 좋다는 것은 둘째 치고 녀석은 가족을 제외하고 노아를 가장 편하게 대하는 사람이었다.

무뚝뚝한 인상과 무심한 성격으로 인해 친한 사람이 몇 없는 노아에겐 필요한 존재였다.

제제는 일하기 바쁜 노아의 찌든 일상을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제 말은 정말 사실입니다. 공작님께서... 여자아이에게 빠지셨거든요.”

“여자...아이?”

“아이와 함께 계실 때면 얼마나 다른 사람 같으신지 테오르님께서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제, 허튼소리 하지 말아라.”

노아가 인상을 썼다.

“내 너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거늘…!”

테오르의 눈에 힘이 잔뜩 들어갔다.

그의 머릿속에 차마 입에는 담지 못할 의심이 서렸다.

내 아들이... 설마 그런 파렴치한...!

테오르는 팔걸이에 기대 놓았던 칼집을 들어 올리려고 했다.

그러자 제제가 능글맞게 입을 열었다.

“조카도 그렇게 안 챙기시던 분이 그 아이를 얼마나 '딸.처.럼.' 잘 챙기시는지 다들 깜짝 놀란답니다.”

평소 제노아키바가 쌓인 게 많았는지 몽블라체 부자를 아주 들었다 놨다 한다.

노아는 아슬아슬하게 도를 넘지 않고 장난을 치는 제제에 한숨을 쉬었다.

테오르는 다시 칼집을 내려놓고 온기가 날아간 카모마일 티로 입을 축였다.

“그럼 그 아이가 누구더냐. 숨겨둔 아이가 있던 것이야? 노아, 네가?”

이 물음 또한 설마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다.

목석같은 아들이라 여자라곤 없었는데, 숨겨 놓은 아이가 있을 리가.

“아닙니다.”

“각하께서 만나시는 분이 없단 것은 제가 맹세합니다.”

“그럼 누구냐 말이냐.”

“백 번 설명하는 것보다 보시는 것이 빠를 겁니다. 테오르님, 이쪽으로.”

제제가 창문을 손짓했다.

노아처럼 소드마스터까지는 아니었지만, 뛰어난 검술가였던 테오르는 감각을 세워 정원에 있는 한 아이의 기척을 감지했다.

주변의 하녀를 비롯한 여러 사람 중에서도 작지만 강렬한 존재감을 가진 아이였다.

굉장히 깨끗한 기운이었다.

테오르는 일어서서 창문으로 걸어가 테라스에 섰다.

꽃나무없이 푸른 잎사귀만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

3층의 응접실 아래에 노아의 성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기자기한 분위기의 디저트 타임이 한창이었다.

그 안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아담한 생명체가 있었다.

베이지 색의 피크닉 매트 위로 퍼진 연보라색 드레스 자락.

작고 하얀 손이 딸기를 집어 들었다.

양 갈래로 가지런하게 땋은 흑발 사이 통통한 볼이 우물거린다.

그리고 마주한 에메랄드색 눈동자.

테오르의 마음속 깊숙이서 단어 하나가 새어 나왔다.

“엘리나...”

엘리나, 엘리나 몽블라체.

그것은 테오르가 오래전부터 언젠가 태어날 손녀를 위해 지어놓은 이름이었다.

저 아이에게 몽블라체의 핏줄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맑고 깨끗한 눈빛을 마주한 순간 그 이름이 반사적으로 튀어나오고만 것이다.

말도 안된다.

테오르 본인도 잘 알았다.

모르는 아이에게 핏줄의 감정을 느끼다니 우수운 일이었다.

허나, 이 심장의 두근 거림은...

첫눈에 반해버린다는 것이 이런 기분일까?

저 아이를 손녀라고 부르고 싶었다.

저 아이의 사랑스러움은 이 세상의 것이 맞는 건가?

등에는 날개라도 달린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겁을 먹으면 작은 새처럼 날아가 버릴 것 같다.

“인정...”

“예? 테오르님 뭐라고 하셨습니,”

“노아 네가 저 아이를 딸처럼 챙겨주고 있다 하였느냐?”

“왜 그러십니까.”

“이해가 가는구나. 저 아이라면 노아 네 딸로 인정한다.”

개연성이 없어도 너무 없었다.

이건 제제가 예상했던 상황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제제는 이런 반응을 기대하고 테오르를 이곳까지 불러들인 것이 아니었다.

그저 노아 공작이 예님으로 인해 난감해 하고 괴로워하길 바랐다.

몽블라체의 집안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길 바랐다.

그래서 결국엔 제제의 노아 괴롭히기 작전은 성공되고, 괴로워하는 노아를 보며 꼴 좋다고 깔깔거릴 계획이었다.

아들을 끔찍이 아끼는 테오르라면 노아가 어린아이를 보모처럼 데리고 있는 모습을 싫어했을 테니까 제제의 계획은 완벽했다.

아니, 했었다.

그런데 이게 뭐람?

저 이상한 동양 계집애가 뭐길래 테오르마저 보자마자 푹 빠져버린 거지?

“저런 딸이라면 미혼부가 되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입양하여라, 어서 서류를 작성하도록 해. 그럼 난 내려가서 저 천사를 가까이에서 봐야겠구나.”

사실 테오르가 노아에게 결혼을 독촉하는 이유는 아들이 걱정되어서도 물론 있지만, 무엇보다 손녀가 보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다.

노아와 제제는 그가 손녀를 일 년 안에 데려오라는 말이 단순히 협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정말 순도 100% 진심이었다.

테오르는 손녀를 보고 싶었다.

그는 주변 친구들로부터 손녀 자랑에 기가 죽어있었다.

있는 손자 녀석들은 누굴 닮았는지 무뚝뚝하거나 장난이 짓궂고 사악했다.

노아의 누나들이 어려서부터 따박따박 말을 잘하긴 했으나, 줄곧 마음에 안 들었던 사위 녀석들이 문제일 게 틀림없었다.

그래서 테오르는 손녀를 원했다.

그에겐 손녀에 대한 꿈이었었다.

무얼 해도 예쁜 손녀.

이상하게 제 자식보다 예뻐 보기만 해도 마음이 사르륵 녹고 치유가 된다더라.

손녀가 있다면 손자 녀석들의 장난도 좀 누그러질 것이고 무엇보다 그가 가장 행복할 것 같았다.

딸아이의 웃음은 자연 치유제였다.

악을 써도 노랫소리처럼 들리고, 눈물을 흘리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기분일 테다.

드레스도 장신구도 꽃도 선물할 맛이 나겠지.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무엇이든 지원해주고 싶을 것이다.

마법, 무술, 정치...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으리.

테오르의 부인, 할머니가 살아생전 기사로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리 자라도록 할 것이다.

어느날 문득 손녀가 갖고 싶은 순간부터 테오르는 자식들에게 구걸했다. 손녀를.

하지만 시집간 딸들은 더 이상의 출산계획은 없는 듯했고, 그나마 아직 결혼도 안 한 노아를 꼬드기기가 쉬웠다.

물론 그에겐 셋째 손주 역시 남자아이라는 가정 따윈 없었다.

무조건 딸이라고 맹신하고 있었다.

왜냐고? R=VD 생생하게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

설레는 발걸음으로 응접실을 나서려던 테오르를 노아가 다급하게 붙잡았다.

“아버지, 저 아이는... 갈 곳이 없어 돌봐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 동양적인 생김새로구나. 태지천 사람의 아이이더냐?”

“태지천의 출신이지만 평범한 '아이'는 아닙니다, 테오르님.”

“제제.”

예님이 도깨비란 사실을 테오르한테 굳이 말해봤자 소란만 커질 것을 우려한 노아는 제 말에 끼어든 제제를 향해 굳은 표정을 지었다.

다행이도 테오르는 창밖의 예님에게 신경이 온통 쏠려있었다.

위를 올려다보고 있는 예님이 환한 웃음을 지었다.

테오르가 아이를 따라 저도 모르게 세상 행복한 웃음을 지었다.

“맙소사... 사르륵 녹는 웃음이구나. 내 마음이 다 녹았어... 저 아이의 부모는 어디 갔느냐? 이리 사랑스러운 아이를 두고.”

“없습니다.”

“저런... 딱하기도 하지! 더더욱 네가 책임져야겠구나. 이건 운명이야! ”

테오르는 예님을 가까이서 만나보고 싶은 마음을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아들의 말을 들을 생각도 안하고 응접실의 문들 박차고 나섰다.

엘리나, 할아비가 간다!

문이 닫히고 노아가 낮은 목소리로 제재를 불렀다.

“무슨 생각으로 아버지를 불렀지?”

노아 몽블라체는 평소에는 포커페이스로 표정변화가 없이 무뚝뚝하지만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화가 나면 이마 근육이 미간을 중심으로 찌푸려진다.

“내가 허락하지 않은 짓을 하는 것을 귀엽다고 봐주는 것도 한두 번이다. 아무리 내 아버지라고 하나 개인사를 함부로 누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나?”

제노아키바는 고개를 숙이고 노아의 꾸짖음을 들었다.

물론 대부분 설렁설렁 흘려들었다.

“널 부하로 부리고 있지만 다른 녀석들보다 봐주고 있단 것은 잘 알고 있겠지?”

“네, 알고 있습니다.”

“벌로 목요일부터 4일간 주기로 한 휴가는 없던 일로 하지. 오늘부터 출장이다.”

제제의 입이 할 말을 찾지 못하고 떡 벌어졌다.

“휴가를 뺏으신다니 너무하십니다...!”

“덕분에 나도 반성하고 있다. 그동안 너를 너무 봐준 것 같군.”

노아는 악마보다 더 사악했다.

제제가 가장 좋아하는 휴가를 보내고 보복하다니...

거기에 가장 싫어하는 일까지 얹어서!

제제는 마른 눈물을 삼켰다.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꼴이었다.

그 시점에 예님은...

“〈붕어빵이구나!〉”

테오르를 보고 깜짝 놀랐다.

3층의 테라스에 나온 테오르를 언뜻 보고 노아인 줄 알았더니, 다시 보니 다른 사람이었다.

카손에 따르면 그가 노아의 아빠란다.

핏줄이 강한 집안이었다.

“그래 이름이 뭐니?”

“예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상 좋은 사람이었다.

제게 시선을 맞추어 풀밭에 무릎을 꿇은 남자는 예님에게 잔뜩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나는 할아버지라고 부르렴.”

“할아버지?”

“옳지 옳지!”

나보다 한참 어린 자에게 그 호칭은 좀 그렇지 않나?

예님은 고개를 기울였다.

하지만 테오르는 예님이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른 줄 알고 박수까지 치며 좋아했다.

“태지천에서 왔다고 했는데 가이아 말을 곧잘 하는구나!”

“정말입니까?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만세! 가이아어 실력을 처음 본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았다!

예님의 입꼬리가 귀에 걸렸다.

“나 과일 먹어요. 맛있습니다. 우리 함께 먹어요.”

신이 난 예님은 피크닉 매트로 테오르를 끌어당겼다.

그리고 과일 접시를 내밀었다.

말친구가 한 명 더 늘었다!

“오오, 이 할아버지도 나눠줄 거니? 착하구나.”

테오르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서 광대가 아플 지경이었다.

미소가 멈추지 않았다.

손녀와 오순도순 햇살 아래 과일을 먹는다는 것은 이런 기분이로구나!

그는 예님이 손에 쥐여준 포크에 꽂힌 사과를 기쁘게 베어 물었다.

그리고 예님이 종알종알 이야기하는 것을 경청했다.

“카손은 제 선생님입니다. 가이아어 배웁니다. 어제는 배웠습니다. 아기 돼지 세 마리 이야기. 그런데 나는 이해 안 갑니다. 늑대 바람 후우 안돼요. 집 안 날아가요. 너무 약해요, 늑대 후우 바람. 나는 그 이야기 믿지 않아요.”

예님은 진지하게 토론을 원했다.

어째서 늑대가 입바람을 불 수 있는 거란 말인가?

늑대의 힘이 아무리 세더라도 입바람으로 짚으로 지은 집이라 할지라도 날릴 순 없었다.

실제 늑대였다면 집 같은 건 부수고 들어가 돼지를 잡아먹었을걸.

얼마 전부터 예님은 동화를 읽는 데 집중할 수 없었다.

왜냐면 내용이 정말 이상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읽은 이상한 나라의 앨비수>나, 백설왕자>와 같은 이야기들은 있을 법한 이야기였으나, 아기돼지 삼형제>라던가 스프를 끓여 먹는 곰 다섯 마리>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다.

요물이 아닌 이상 동물이 사람처럼 행동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었다.

카손은 동화는 동화, 상상일 뿐이라며 예님을 이해시키려 했지만 예님은 그런 것을 일절 받아들일 수 없나 보다.

“돼지는 벽돌집 없어요. 못 만들어요. 나는 이해 안 돼요.”

“오구오구, 그랬구나.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렴. 사실 이 이야기 속의 돼지와 늑대는 모두 사람이란다. 동물에 비유한 것이지. 돼지는 평범한 사람이고 늑대는 사람을 괴롭히는 나쁜 마법사인 것이지!”

“마법사? 마법사가 무엇입니까?”

“마법사는 신기한 힘을 다루는 사람이란다.”

마법사란 존재가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다.

곁에 있던 카손이 테오르의 설명에 추가로 덧붙여 준 것에 의하면 마법사는 태지천에서의 도사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듯싶었다.

많이 다른 힘을 사용하는 것 같지만 말이다.

“우와, 마법사...”

지난번 제제가 홍길동처럼 번쩍하고 나타났던 것도 마법이라는 힘이었던 건가?

“노아, 예님이가 마법에 관심이 생긴 것 같구나.”

예님이 악을 써도 좋다고 할 테오르가 어느새 정원으로 내려온 노아를 향해 말했다.

울상인 제제를 가차 없이 출장을 보내고 오는 길이었다.

노아는 제게 손을 흔드는 예님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예님, 마법을 배우고 싶은가.”

“마법 보고 싶습니다!”

“제제가 마법사이다. 나중에 제제한테 보여 달라 하자.”

노아의 큼직한 손이 예님을 자연스럽게 쓰다듬었다.

심지어는 예님이 집어주는 포도도 자연스럽게 받아먹는다.

테오르는 깜짝 놀랐다.

딱딱한 바위 같던 아들이 예님의 앞에선 누그러지며 좀처럼 볼 수 없던 모습을 보였다.

제제가 보냈던 분홍색 편지 속의 내용처럼 노아가 여자에게 푹 빠졌다는 것이 과장이 아니었다.

“보기 좋구나...”

테오르는 감동했다.

항상 막중한 책임감에 눌려 살았던 아들의 편안한 모습을 보니,

예님이 그냥 지나가는 인연이 아님을 확신할 수 있었다.

사실이냐!!

까마귀 기사단은 특훈을 다녀오고 나서 옮겨진 훈련장에 눈물을 머금었다.

새로운 훈련장은 에스티엘라 성으로부터 한참 떨어진 곳에 있었다.

이래서야 예님의 머리카락 한 올조차 볼 수 없었다.

절벽을 타고 폭포를 건너 용암을 지나 맹수와 싸워 이겨내는 혹독한 특훈에서도 귀여운 예님을 보겠다는 집념으로 버틴 그들이었다.

예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진 않았겠지?

각하는 너무해!

예님을 독차지하시다니!

몇 번은 노아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노아는 대련을 통해 이긴다면 본래 훈련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제안을 했으나, 어림도 없었다.

꿈도 꾸지 말란 말이었다.

노아는 웰츠 제국의 최강 소드마스터였다.

어떠한 대련도 진심으로 맞붙는 노아는 무서웠다.

“룬, 너 예님이랑 친하지 않았어? 요즘 뭐 하고 지내신대? 귀여움은 여전하시대?”

“몰라. 나도 못 봤어.”

룬은 특훈에 돌아온 지 꽤 됐지만, 그동안 예님을 만날 수 없었다.

특훈을 떠나는 아침 배웅을 해주는 모습이 전부였다.

방이 바뀌었는지 정원을 지나도 볼 수 없었고 야식을 먹으러 주방이나 옥상에 가도 길

이 엇갈렸는지 만날 수 없었다.

예님과 얘기하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즐거웠는데 아쉬웠다.

예님이 보고 싶었다.

우리가 돌아온 건 알까?

아마 모를 거다.

기사단은 사용하는 건물도 다르고 새로운 훈련장은 이렇게 숲에 처박혀 있으니.

예님이 여유를 갖는 법을 깨우쳐준 뒤로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체술도 의욕적으로 연습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있었다.

최근에는 노아에게 실력이 늘었다며 칭찬도 받았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그날 밤엔 평소 쓰지도 않던 일기도 썼다.

주방에서 저녁으로 간단하게 샌드위치를 챙긴 룬은 며칠 동안 가지 않았던 옥상에 가기로 했다.

아직은 해가 지지 않았으나, 곧 노을이 질 시간이었다.

“어? 룬?”

옥상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인영이 보였다.

예님이었다.

기분 좋게 웃는 얼굴이 여전히 해맑았다.

어쩐지 오늘은 온종일 생각이 나더라니, 이렇게 마주치려고 그랬나 보다.

“훈련 끝났습니까? 언제 왔습니까!”

“꽤 오래전에 돌아왔는데, 역시 몰랐나 보네.”

까마귀 기사단의 말마따나 각하 너무하시네 싶었지만, 한편으론 이해가 갔다.

예님이 그 미친 자들의 곁에서 노는 건 룬도 반대였다.

위험해...

미친놈 중 한 명이 예님을 납치해서 튈 수도 있었다. 정말로.

“룬 키가 커졌습니다.”

“예님은 말이 엄청 늘었는데?”

예님의 입꼬리가 씰룩거렸다.

그녀의 눈썹이 '뭘 이정도 가지고!'라는 기세로 드높게 올라갔다.

“나 똑똑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오, 그런 말도 할 줄 알아?”

쪼그만 한 예님이 칭찬에 우쭐대니 퍽 귀여웠다.

예님은 룬이 들고 있는 샌드위치가 담긴 그릇을 궁금해했다.

“먹을래?”

“방금 밥 먹었습니다. 그래도 먹을래!”

“와, 식탐이 대단하잖아? 너 그러다 배 터진다?”

“맛있으면 괜찮습니다.”

두 사람은 난간 벽돌에 기대어 사이좋게 샌드위치를 나누어 먹었다.

룬은 예님과 대화가 통하니 신기했다.

한 달 정도 안 봤다고 실력이 눈에 띄게 늘다니, 역시 어린애들은 뭐든 빨리 배우는 것 같다.

“훈련 재밌었습니까?”

“엄청 힘들었어.”

“어떤 훈련했어요?”

“절벽도 오르고, 사냥도 하고, 하마터면 용암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절벽 뭐예요? 용암 뭐예요?”

아직 모르는 단어는 많은 것 같지만.

평소 시답잖은 이야기를 즐기지 않는 룬이었지만 예님과 있으니 영양가 없는 문답 놀이도 재미있었다.

“룬, 싫어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딱히 없어. 너는?”

“〈팥죽〉!”

“〈팥죽〉…? 그게 뭐야?”

“빨강 콩입니다. 요리합니다. 으으.”

“그렇게 생각만으로도 치를 떨 정도로 싫은 요리인가?”

“다른 얘기 합시다. 룬,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스테이크, 고기라면 다 좋지.”

“나도 나도!”

말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좋았다.

뭐랄까... 이 기분을 표현할 수 없지만..., 귀엽잖아.

“룬.”

샌드위치를 먹고 바다 위로 석양이 지는 하늘을 구경했다.

역시 혼자 있는 옥상보다 예님과 함께 있는 옥상이 즐거웠다.

노른자 같은 태양 주변은 주황색이 가득하니 바다도 노랗다.

그 주변으로 천천히 물드는 보라색 하늘은 주황색 하늘과 분홍색으로 맞물려 하늘을 물들였다.

시간이 가는 것도 모르고 그저 보게 되는 장면이었다.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는다.

“룬, 마법사 만난 적 있어요? 마법 본 적 있어요?”

“많지. 어릴 때부터 접할 기회가 많았어. 제제 그 녀석도 마검사이고.”

“마검사?”

“마법사면서 검도 쓰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예님은 가이아가 정말 태지천과 다른 곳임을 깨달았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힘마저도 다르고 존재하는 생명체들도 미묘하게 달랐다.

예님과 같은 도깨비도 존재하지 않고, 요물들조차 희한했다. 제제처럼.

그러고 보니 제제 녀석은 요물인 주제에 사람인 척을 하고 다니는 것이 별났다.

"마법사가 흔하지는 않지만 수도에 가면 쉽게 볼 수 있어. 마탑이 있거든."

"마탑?"

"마법사들이 모여서 이것저것 하는 곳인데, 아, 너는 거기 가면 안되겠다."

"왜요?"

룬은 예님에게 어떻게 말해야할지 난감했다.

대부분의 마법사들은 태지천을 부정하는 학계의 사람들이었다.

태지천하고도 겨우 교류를 하고있는 판국에 태지천의 아이인 예님이 수도로 간다면 난리가 날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마탑을 제 발로 간다니... 위험한 일이었다.

"음, 엄청 위험한 곳이라서. 마법이 보고 싶으면 제제한테 보여달라고 하는 게 좋겠네."

제제는 싫지만, 예님이 마법에 대해 궁금해한다면 어쩔 수 없었다.

반 태지천파보다야 낫지.

제제는 노아의 명령으로 육지로 갔다.

휴가를 반납하고 일할 맛이 날 리가 없었다.

빌어먹을 몽블라체 같으니라고.

'메이론'은 몽베르 섬을 오갈 수 있는 항구가 있는 도시였다.

더불어 웰츠의 3대 항구 도시이기도 했다.

어딘가에서 울려퍼진 고동 소리와 함께 제제는 배에서 내렸다.

항구는 언제나처럼 분주했다.

살짝 늦은 오전이었지만 관광객이 적은 시간인듯 바쁘게 일하는 어민들이 대부분이었다.

바람이 꽤 불었다.

항구에 묶인 배들이 파도와 함께 출렁였다.

오늘은 폭풍이 없으려나?

그 핑계로 섬에 안 돌아가고 놀게.

메이론 항구는 관광객이 많고 수산물이 유명한 곳이었다.

메이론의 항구에 있는 배들은 대부분 관광객 용과 어선이었다.

관광객용 배와 어선은 대부분 작았다.

무역선이 많은 곳은 국경 쪽에 위치한 다른 항구였다.

보통 무역용 배는 작은 배의 수십배에 달하는 몸집을 하고 있었다.

메이론에서 무역선을 본다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그러나 메이론은 유일하게 태지천하고 거래를 하는 도시였다.

메이론에서 가끔 볼 수 있는 무역선은 바로 태지천을 오고가는 배였다.

제제는 지금 그 배를 찾고 있었다.

이 메이론에서 태지천 무역선은 무척이나 눈에 띄는 존재였다.

“저기 있군.”

누가 봐도 폭풍을 맞은 저 거대한 배가 항구의 끝자락에 아슬아슬하게 떠있었다.

다른 때에는 그저 큰 몸집으로만 눈에 띄었는데 말이다.

선체의 반이 날아가 있었다.

저 상태로 멀쩡히 물에 떠 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다.

제제는 귀찮음이 잔뜩 묻은 발걸음으로 태지천의 배로 향했다.

저 커다란 배를 어느 세월에 조사하라는 거지.

제제는 노아를 골려준 것에 대해 후회는 하지 않았다.

제제는 테오르가 노아를 향해 저런 애는 뭣 하러 주워왔느냐며 결혼이나 하라고 잔소리하기를 바랐다.

그런데 웬걸, 테오르가 예님을 보더니 당장 손녀 삼고 싶단다.

제제는 성정상 인간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했다.

인간들은 당황, 난감, 두려움, 칠색 팔색 겁에 질린 표정은 제제에게 있어, 평범한 인간이 서로를 끌어안고 자는 새끼 고양이들을 볼때 느끼는 행복감과 같았다.

어느때보다 노아의 혼란에 빠진 모습이 보고 싶어 잔뜩 기대했는데, 되려 제제가 괴로워졌다.

악질 상사는 제제가 휴일만 보고 하루 24시간 버티는 것을 알면서 휴일을 뺏고 일을 얹어줬다.

제제는 구시렁구시렁 상사 욕을 하며 제 처지를 위로했다.

“빨리 '그거'나 찾아서 돌아가든가 해야지. 이래서야 제 명에 못 죽겠네. 마족보다 더한 놈. 암, 마족보다 더하고말고.”

“세상에, 마족보다 더한 놈이 있나?”

“뭐야.”

불쑥 누군가가 제제의 앞을 가로막았다.

제제가 얼굴을 찌푸렸다.

익숙한 장미 향이 코를 찔러왔다.

“이런 데서 다 보네?”

긴 붉은 머리를 흩날리는 남자.

화려한 미모.

제제에겐 재수 없는 판떼기.

두통을 유발하는 장미향.

제제가 팔짱을 끼며 삐딱하게 고개를 기울였다.

그리고 살랑이는 바람과 함께 활짝 웃음을 짓는다.

“와, 여전히 재수 없는 면상이네요.”

상큼한 웃음과 대조되는 대사였다.

그리고 바람이 멎자,

무거운 기운과 함께 순식간에 제제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여긴 어쩐 일로? 안테르므슈 님.”

언짢은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에 안테르므슈의 유려한 입꼬리가 씨익 올라갔다.

“여긴 어쩐 일로? 안테르므슈 님.”

언짢은 기색이 역력한 제제의 목소리에 안테르므슈의 유려한 입꼬리가 씨익 올라갔다.

“반가운 얼굴이 있길래, 가족끼리 인사 좀 하러 왔지.”

“가족이라니, 소름 돋습니다만.”

제제는 안테르므슈의 새빨간 눈동자를 보고 색소가 옅은 선홍빛 핏방울을 떠올렸다.

햇빛도 안 보고 사는지 피부는 새하얘서는 안테르므슈의 희멀건 외관은 붉은 눈에 붉은 머리 털을 가진 백사를 연상시켰다.

물론 그런 우수운 꼴을 한 생명체가 존재하는 지도 궁금하지 않지만.

“섭섭하네, 한지붕 아래서 같이 포크질한 사이 아닌가?”

“그런 게 가족이라면 저는 몇 집 살림하는지 셀 수도 없네요. 단란한 가정을 갖는 게 목표입니다만 안테르무슈님과 제가 가족이라면 그 꿈 기꺼이 포기하겠습니다.”

제제가 어이가 없다는 듯 안테르므슈의 말을 받아쳤다.

게다가 그의 웃기지도 않은 말대로라면 제제는 이미 노아와 예님과 굉장히 돈독하고 화목한 가족이었다.

일 중독자 상사와 속 늙은 꼬맹이라니 그런 괴상한 가족은 사양이었다.

“역시 제노아키바. 재밌다니까.”

“칭찬은 됐습니다.”

“그나저나 '그쪽'에서 뒤치다꺼리하느라 한창 바쁜 줄 알았더니. 무슨 일로 ‘이쪽’에 있을까? 그것도 ‘그런’ 차림으로.”

안테르무슈의 말은 제제만 알아들을 수 있게 칭칭 포장 되어있었다.

제제는 제가 입고 있는 옷을 쓰윽 훑었다.

그가 말하는 ‘그런’ 차림이라면 몽블라체의 문양이 새겨진 제복을 말했다.

언뜻 보면 단순하지만 자수들이 정성껏 새겨져 고급스러웠고 기품이 묻어나왔다.

몽블라체의 제복은 몽블라체 가문의 전통만큼 오래되어 제국민이라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었다.

안테르무슈 또한 몽블라체의 제복을 알아본 눈치였다.

“인간의 종 노릇을 하나보군.”

충분히 의심을 살만한 차림이었다.

무슨 꿍꿍이인지 궁금할 테지.

상대는 악랄하기로 유명한 안테르므슈였다.

알려줄까 보냐.

그에게 무언가 꼬투리 잡힐 구실도 보여줄 수 없었다.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되나요?”

“그냥. 인간이라면 손도 닿기 싫어하던 네가 잘도 인간의 개가 됐나 싶어서. 궁금하잖아?”

“언제부터 저를 그리 잘 아셨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인간 뒤꽁무니만 졸졸 따라다니시던 분이.”

“쌀쌀맞기도 해라.”

백사 같은 눈이 실처럼 가늘어졌다.

입꼬리는 여전히 호선을 그리고 있었다.

재수 없을 만큼 여유 있는 모습이었지만 제제는 흔들림 없이 능구렁이를 마주 봤다.

속이라도 꿰뚫는 듯한 모습에 제제는 얼른 주제를 돌렸다.

무엇보다 할 이야기는 따로 있었다.

“아, 인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본론으로 가시죠.”

사실 제제는 알고 있었다.

안테르므슈가 그를 찾아오리라는 것을.

제제가 그를 불러들었다고 봐도 무방했다.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지만.

“샤론은 잘 있습니까? 끼니도 거르지 않고요?”

“그래, 잘 있더군. 덕분에. 제노아키바, 깜찍한 짓을 해놨더라? 감히‘내 여인’에게.”

‘덫’에게 ‘내 여인’이라니 더럽게 고상한 척이다.

“냄새가 너무 지독하더라고요. 하마터면 저도 넘어갈 뻔했으니 말 다했죠.”

“건방지게 내 먹잇감을 채갈 생각을 하고, 많이 컸네. 나만 보면 토끼처럼 벌벌 떨던 놈이.”

“와우, 언제적 얘기람.”

제제는 팔짱을 끼고 권위적이기 짝이 없는 안테르므슈를 비웃었다.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아슬아슬한 긴장감으로 채워졌다.

안테르므슈는 새빨간 혀로 제 입술을 느릿하게 핥았다.

살벌한 기운이 짙어진 장미 향과 함께 제제의 주변을 맴돌았다.

하얀 가죽 장갑을 낀 손이 제제의 왼쪽 어깨를 꽉 쥐었다.

“공들였던 만찬이 망가진 것을 보고 얼마나 슬펐는지.”

“다 알만하실 분이 왜 그러실까.”

제제는 제 어깨를 으깨기라도 하려는 듯 힘이 들어간 손의 손목을 잡아 떨어뜨렸다.

표정엔 벌레라도 본 것 같은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친하지도 않으면서 스킨십이야, 짜증 나게.

“인간을 이용해 폭식하는 행위는 금기입니다. 그만하셔야죠.”

“그만?”

안테르므슈가 코웃음을 쳤다.

“언제부터 우리에게 질서가 중요했던가. 혼란을 좋아하는 마족에게 고지식한 규칙은 재미 없지.”

“고지식한 건 그쪽이시고요. 요즘 트렌드 좀 읽으시죠. 안테르므슈, 포식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왕께서 직접 처벌하실 겁니다.”

제제가 날카롭게 말했다.

안테르므슈가 제 장발의 붉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눈을 감았다.

제제는 숨을 멈추고 안테르므슈를 노려보았다.

살벌한 기운이 제제의 피부 위에 여전히 내리 앉아 있었다.

날카로운 칼날이 목을 아슬아슬하게 겨누고 있는 듯했다.

“하여간 요즘 것들은 마음에 안 든다니까.”

안테르므슈가 혀를 찼다.

그는 제제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었지만, 그뿐이었다.

그의 힘은 월등했지만 지금 여기서 제제를 죽이려고 한다면 마왕의 파수꾼들이 덤벼들어 불리해질 것이었다.

‘당신이 왜 내게 끌리는지 알았어요.’

‘재밌네, 이유가 뭘까?’

예님을 찾는 데 도움을 주었단 대가로 제제가 샤론과 함께 마차를 타고 점심을 먹었던 날.

‘그냥, 잘생겼잖아.’

‘자신감이 참 매력적이라니까.’

마차 안에서 제제는 샤론의 정체를 알아챘다.

‘근데 샤론, 그거 알아?’

‘컥, 크흑...’

‘미남이라는 건 참 괴로워. 세상이 가만히 냅두질 않거든.’

그녀의 목을 조르며 물었다.

‘뭐가 그렇게 간절했어요?’

‘흐윽, 뭐...?’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제제가 거부감을 느꼈던 인간 여자 샤론.

그녀에게서 풍겼던 장미 향은 안테르므슈에게서 뿜어 나오는 것과 같았다.

‘뭐가 그렇게 간절해서, 영혼을 팔아먹었을까. 우리 샤론 양.’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안테르므슈의 숙주가 되어 이용 당하고 있던 것이었다.

포식은 아주 오래전부터 야만적이라며 금지된 행위였다.

인간과의 거래를 통해 인간의 몸을 덫으로 이용하는 사냥 습법.

제제와 같은 고상함을 미덕으로 마족에겐 이해할 수 없는 추잡한 방식이었다.

‘제대로 살아봤자 몇 년 산다고, 그걸 팔았어요. 하필 그딴 새끼한테.’

마족들은 동족의 힘을 흡수할수록 강해진다.

힘이 없는 것들은 먹힐 뿐이었다.

약육강식의 세계였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구잡이로 동족을 살해하는 행위는 금지되었다.

마족의 개체를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달이 태양을 가리는 일식, 서열 탈환의 날, 아랫서열이 윗서열에게 대결 신청을 할 수 있는 한에서만 가능했다.

제제 역시 그런 과정을 거쳐 강해졌다.

그처럼 차곡차곡 서열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정석인 반면,

안테르므슈처럼 오랜 세월을 살아온 일부 마족들은 규칙을 무시했다.

저보다 서열이 낮은 마족들을 무자비하게 죽여 힘을 키우는 것이다.

그런 자들을 소위 포식자라고 칭했다.

결국, 절대적인 지배력을 가진 마왕이 나서서 규제하기 시작하자, 포식자들은 마왕의 눈을 교묘하게 피할 수 있는 사냥법을 만들어 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을 덫으로 하는 포식법이었다.

‘냄새가 지독한 걸 보니,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네요.’

마족들은 옛날부터 인간의 영혼을 좋아했다.

특별한 쓰임새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마족이라면 하나쯤 갖고 싶어 했다.

마족이 인간의 영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래하는 것.

인간의 욕망 가득한 소원 하나를 들어주는 대가로 영혼을 받는다.

그때부터 영혼은 마족의 소유가 되고 계약 기간 끝나면 인간은 죽고 영혼은 회수된다.

‘당신...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안다면 살려줘, 제발...’

내려다 본 샤론의 눈이 후회와 두려움으로 일렁이고 있었다.

포식자들은 이 방법을 이용해 인간들을 숙주로 삼았다.

간절한 인간을 찾아 소원을 들어준다며 계약을 한 뒤 계약자의 영혼에 제 기운을 심는다.

영혼에 스며든 기운은 페로몬 역할을 하여 다른 마족들을 유인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힘을 흡수하는 것이다.

계약으로 생명의 본질을 잃은 인간의 영혼은 텅 비어있어서 무엇이든 담을 수 있었다.

숙주가 된 영혼은 제 몸에 심어있는 힘에 의해 그보다 약한 마족의 힘을 스펀지처럼 흡수했다.

이렇게 마족의 힘을 담은 영혼은 계약 기간 만료 후 회수되면서 포식자에게로 자연스럽게 힘을 넘긴다.

그야말로 쥐도 새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사냥이었다.

숙주가 된 인간은 영혼에 마족의 기운이 쌓여갈수록 신체의 진화가 느려지고 결국엔 멈추어서 음식을 먹지 않아도, 물을 마시지 않아도, 잠을 자지 않아도 멀쩡하다.

살아 있으면서도 죽은 듯.

죽어 있으면서도 살아있는 듯.

서서히 생기가 사라지고,

계약에 걸린 마법으로 목숨을 연명하다가 계약이 끝나는 날,

‘불쌍한 샤론.’

나무가 말라가듯 죽음을 맞이한다.

샤론이 그랬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마족에게 끌려 그들을 유혹했고, 힘을 흡수하여 마족을 사냥했다.

그녀가 제제에게 끌렸던 것도 안테르므슈의 힘에 조종되는 영혼이 그를 먹잇감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었다.

제제도 하마터면 멍청한 마족들처럼 당할 뻔했으나,

눈치가 빠르고 마력이 강했던 탓에 이질적인 느낌을 알아차리고 대처할 수 있었다.

‘나랑 계약할래요? 그런데 이번엔 영혼만으론 턱도 없어.’

제3자가 계약에 끼어들 순 없었다.

하지만 그 계약보다 더 강력한 계약으로 덮어씌울 수 있었다.

‘그 예쁜 눈을 포기해.’

신체를 담보로 하는 계약은 기존의 신체 접촉을 통해 하는 계약보다 효력이 좋았다.

‘정말 살 수 있는 거지…? 이대로 죽지만 않는다면... 뭐든 다 줄게.’

‘겁먹지 마. 살 만큼 살게 해줄 테니까.’

덜컹

‘꺄악!’

샤론은 그날 마차 사고로 왼쪽 눈을 잃었다.

그리고 제제는 샤론의 영혼에 기생하고 있던 안테르므슈의 페로몬과 함께 계약에 관한 기억을 모두 지워버렸다.

운이 좋은 편이었다.

겨우 눈 한쪽 잃고 목숨도 되찾고 원했던 삶을 살 수 있으니 말이다.

제제가 안테르므슈의 일을 방해해 열 받게 하고 싶다>란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샤론은 죽었을 것이다.

운이 참 좋다.

제제도 오래전 안테르므슈에 의해 힘을 뺏기고 죽임을 당할 뻔했다.

무차별적으로 동족을 살해하는 안테르므슈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지금이야 그와 맞붙어 비등한 실력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자리까지 왔지만 당시에는 눈조차 마주치지 못했다.

“분명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안테르므슈의 눈을 똑바로 본단 건 상상조차 못했지.

스스로 생각해도 대단했다.

많이 컸네, 제노아키바.

“제제, 마왕의 발닦개가 됐다고 자만하나 본데, 그쯤 해두는 게 좋아.”

안테르무슈가 제 입술을 느릿하게 핥았다.

제제의 목 깊숙이 보이지 않는 칼날이 파고들었다.

방어 할 틈도 없이 벌어진 일이었다.

커다란 칼날을 삼킨 고통과 함께 뜨거운 것이 덩어리 채로 올라왔다.

"커헉!"

기침과 함께 피가 쏟아졌다.

당장이라도 달려들고 싶었지만 몸이 굳어버린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기운이 제제를 누르고 있는 듯 했다.

“내 유희 거리를 망친 것은 꽤 화가 났었지만, 마왕의 소중한 오른팔을 죽일 순 없지.”

유희라...

잊고 있었다.

안테르므슈는 힘을 얻기 위해 동족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다.

단순히 재미 거리일 뿐이었다.

젠장.

제제는 제가 그 장난질에 죽을 뻔 했다는 사실이 분했다.

“우연히 만나서 즐거웠어, 제노아키바. 마왕님껜 안부 전해주고. 다음에 또 보자고.”

지금 당장 덤벼서 이길 거라고 보장이 없단 사실도 화가 났다.

이 자리에 서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아직도... 저 녀석에겐...

제제는 이를 갈았다.

피가 턱을 줄줄 타고 내렸다.

안테르므슈가 붉은 머리를 흩날리며 뒤를 돌았다.

한 두 걸음 멀어지더니 순식간에 진다.

동시에 몸이 자유로워진 제제는 입가에 흐른 피를 닦아 내며 안테르므슈가 사라진 곳을 노려보았다.

시끌벅적한 항구엔 제제만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는 아공간에 손을 넣어 푸른색 물병을 찾아냈다.

이걸 내가 쓰게 될 줄이야.

이 자리에 올라온 이후론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물건이었다.

벌컥벌컥

푸른 액체를 들이키자 너덜너덜 해졌던 목 안이 아물기 시작했다.

젠장.

제제는 신경질 적으로 텅빈 유리병을 내던졌다.

머리를 굴렸다.

안테르므슈의 덫이 샤론만 있진 않았을 거다.

숙주만 찾는다면 그를 쫓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당장 왕에게 보고해야 한다.

행방이 묘연하게 마계의 눈을 피해 몹쓸 짓을 하고 다니던 녀석이었다.

마왕은 예의주시하며 안테르므슈가 모습을 드러내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 이제서야 기회가 온 것이다.

녀석을 잡을 기회가.

그분께서 직접 나서 주실려나.

제제는 손수건을 꺼내 입가의 피를 닦아내며 항구의 으슥한 골목으로 들어갔다.

노란색 가면을 쓴 인영과 초록색 가면을 쓴 인영이 그림자에서 걸어 나왔다.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왕께 전해.”

“네.”

노란 가면을 쓴 자가 대답과 함께 모습을 감추고 사라졌다.

“넌 그 자의 또다른 덫들을 찾아내 안테르므슈의 행적을 파악하도록.”

“내상은 괜찮으십니까?”

“신경 쓰지 마.”

“그럼.”

초록색 인영마저 사라지고 골목에 홀로 남은 제재는 입안에 고여 있던 피를 퉤 뱉어냈다.

제제는 마법으로 제복과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아냈다.

골목 밖으로 나오자 아까 봐두었던 태지천의 거대한 배가 눈에 들어왔다.

혼자서는 그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에 여전히 속이 쓰렸으나, 애써 마음을 잡았다.

곧 마계의 규율에 반기를 든 죄로 운명을 달리할 녀석이다.

직접 잡아 넣어서 그자의 마지막 순간을 꼭 두 눈으로 볼 것이다.

그래야 성이 찰 것 같다.

테오르가 에스티엘라 성에 도착하고 다음 날 오후.

카손이 책을 정리하며 예님에게 물었다.

언어 공부가 막 끝난 참이었다.

“〈예님, 어제부터 술 달라는 말씀을 안 하시는군요. 한동안 차 마시듯 달고 사셨잖아요. 어디 불편하신가요?〉”

“〈그건 아니고 그냥 적당히 마시려고 한단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니다, 너무 적으니 일주일에 세 번 정도?〉”

“〈공작님께서 가이아의 술은 중독성이 강하다고 하셔서 그런가요?〉”

“〈에이, 도깨비가 술에 따위에 중독될 리는 없단다.〉”

사실 노아가 말했을 땐 정말 믿을 뻔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예님은 독도 안 드는 도깨비더라.

아무리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으니, 술주정뱅이가 되어 ‘술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다 때려 부술 거야!’하는 중독자가 될 일은 없더라.

물론 술을 보면 흥분하는 경향이 있지만.

큼큼.

“〈그렇게 좋아하시면서요?〉”

“〈노아를 걱정시키기 싫단다. 그 아이는 내 은인이잖니. 은인의 마음을 무시할 순 없지.〉”

예님은 지난밤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노아가 저에게 안절부절못하며 지나치게 걱정하는 이유를.

사실 예님은 노아가 저를 옆방에 두고 조심스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시간이 날 때면 항상 예님과 놀아주려 찾아오고, 예님이 심심해하면 일도 제쳐주고 놀아주며, 맛있는 것을 부족함 없이 주고 싶어 했다.

정말 고마웠다.

아무리 마음씨 좋은 자여도 낯선 이에게 친절을 아낌없이 베푼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노아의 친절함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예님을 어린아이 보듯 대한다는 것.

대부분의 사람은 보이는 대로 믿는 것에 익숙하다.

그러니 어린아이라고 굳게 믿었던 예님이 알고 보니 천살 넘은 요물이라는데 쉽게 믿어질 리 없었다.

그리보면 카손이 대단한 것이었다.

이상한 요물인 제제는 그렇다 치고 그녀를 뜻밖에 쉽게 예님의 정체성을 받아들으니까 말이다.

어느 정도 우여곡절을 겪은 삶을 살아온 여인이라 그럴까?

그에 반해 노아는 아직 새파랗게 젊은 숫총각이었고,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과 별개로 적응이 더 필요할 거다.

“〈나를 받아들이는 데엔 시간이 걸릴 테야. 그러니 나도 발을 맞춰 주어야지.〉”

저를 믿어주고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마음 하나로도 충분했다.

똑똑

“예님, 할아버지란다.”

무엇보다 이곳에 있어 다행이고 기쁘다는 생각이 들게 해주는 건,

“공부 끝났으면 놀러 가자꾸나!”

예님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다.

초록 눈의 도깨비다! 도깨비가 나타났다! 잡아서 부자가 되자!

예님이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있던 태지천의 인간들은 추잡한 욕망에 둘러싸여 있었다.

태지천의 모든 인간들이 욕심쟁이란 것은 아니다.

가이아에도 분명이 그런 자들이 있겠지.

예님이 운이 좋지 않았다면 그러한 인간들을 만났을 수도 있었을 거다.

하늘이 도운 건지 좋은 인간들을 만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지금 이대로,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참 기뻤다.

‘선녀님이세요?’

사랑스러운

‘와아, 예쁘다...’

그 아이처럼

‘선녀님 우리 마치 친구 같아요!’

친구가 될 수 있다면.

“〈이게, 무슨 기억이지? 윽...〉”

띠이

갑작스러운 이명이 들려오며 두통이 일었다.

어떤 기억이 떠오른 것 같은데, 뭐지?

순식간에 무언가 번쩍하고 빛난 기분이다.

희미한 기억으로나마 어떤 아이가 보였던 것 같기도 한데...

“예님?”

질끈 감았던 눈을 뜨니 테오르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보였다.

“괜찮니?”

“괜...찮습니다...”

머릿속이 텅 빈 느낌이었다.

속이 답답했다.

기억이 날듯 말듯 쥐어 짜보아도 결국에는 공허함만이 온 정신을 지배했다.

지워진 기억 속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예님은 테오르의 부드러운 손길에 머리를 맡기며 살며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모르겠다...

“간식 먹고 놀아요!”

현재에나 집중하자!

“그래그래! 우리 예님 배가 고파서 현기증이 났었구나!”

이런 식이라면 언젠가 생각이 날테니!

어두웠던 테오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의 뒤에서 걱정스레 서 있던 카손의 얼굴에도 다시금 미소가 돌았다.

친구들을 걱정시킬 수 없지.

예님은 테오르의 커다란 손을 잡아 이끌었다.

“주방장, 케이크 주십시오!”

“예님, 갖다 드린다니까 또 오셨 헉! 테오르 님! 안녕하십니까!”

언제나처럼 직접 케이크와 간식을 털러 간 예님은 의도치 않게 주방장 친구를 깜짝 놀라게 해버렸다.

“이쪽은 테오르 입니다. 할아버지라고 부르면 됩니다. 오늘은 두 명! 간식도 두 개! 주세요!”

“허허허, 우리 예님이는 야무지기도 하구나!”

테오르가 호탕하게 웃으며 예님을 예뻐하지 못해 안달 난 눈빛으로 바라봤다.

테오르가 온 지 일주일이 넘었다.

예님과 테오르는 단짝이 되어있었다.

노아는 예님과 단둘이 대화를 하지 못함에 불만을 가졌다.

둘만의 시간었던 디저트 때에도 테오르가 중간에 끼어드니 고작 몇 마디 대화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니 노아는 예님이 제 일상의 활력소가 되어주었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예님과의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하니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방 안에 있는 것이 답답하기만 했다.

집무실에서 일하고 있던 노아는 밖에서 까르륵 거리는 아이의 웃음소리에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아버지와 함께 즐겁게 웃고 있는 예님이 보였다.

노아는 예님에게 섭섭함을 느끼고 있었다.

같이 놀 테오르가 있다고 예님이 저를 찾는 일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하물며 술이라도 내놓으라고 찾아오면 좋을 텐데.

그러고 보니 예님이 며칠간 술을 찾지 않고 있었다.

방의 기척을 살폈을 때도 숨겨두었던 술을 마신다거나, 카손과 제제를 꼬드겨 술상을 차리는 일이 없었다.

많이 마시지 말란 말을 들어주는 것일까?

예님이 테오르와 뛰어놀다 말고 노아를 발견하곤 손을 휙휙 흔드는 것이 보였다.

노아의 입가에 미소가 걸렸다.

복잡한 생각을 하다가도 예님의 얼굴을 보면 웃음이 나왔다.

전에는 좀처럼 웃는 일이 없던 자신을 떠올리면 참 신기한 일이었다.

예님이 도깨비라는 것이라 노아를 즐겁게 하는 것일까?

예님이 특별해서가 아닐까?

그렇기에 노아는 예님을 더욱 제 곁에서 보내고 싶지 않았다.

예님도 같은 마음이길 바랐다.

바쁜 노아 대신에 예님의 옆자리를 꿰찬 테오르는 저를 질투 가득한 얼굴로 바라보는 노아를 보며 혀를 메롱 내밀었다.

유치하기 짝이 없는 아비였다.

저녁 시간.

노아가 테오르에게 진지하게 물었다.

“영지로 안 돌아가십니까. 영주가 이렇게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다면 영지가 엉망으로 될 겁니다.”

“유능한 부하들이 잘 해결할 텐데 뭐가 문제냐. 고작 몇 주 없다고 영지가 파탄이 나진 않을 게다. 걱정 고맙다, 노아.”

몇 주나 있을 작정이라니, 노아는 제 아버지를 말려보았자 소용없단 것을 잘 알았다.

그는 조용히 제 그릇 위의 구운 연어를 썰었다.

“테오르 할아버지, 어디 가요?”

예님은 저보다 어린 인간에게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살짝 불편해했으나,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테오르를 향해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다.

일단은 저가 어린아이 모습이고, 어쩌다 보니 어린아이 취급을 받는 김에 겉모습에 맞추어 행동해도 나쁠 것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럴 리가! 이 할아비는 예님과 있을 거예요~.”

“다행입니다. 할아버지 없으면 심심합니다.”

“아이고, 우리 예님이 말하는 게 어찌 그리 예쁘냐!”

테오르도 분명 전형적인 몽블라체였다.

무뚝뚝하고, 이성적이다 못해 차갑지만 제 가족들에게 만큼은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몽블라체 말이다.

아무리 가족에게 열려 있다곤 하나, 예님에게 보여주는 애정은 유독 남달랐다.

정말 손녀딸이라도 되는양...

테오르는 예님을 이미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걸 팔불출이라 하던가...

노아는 차마 아버지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없었다.

어느 때이던 위엄 있는 모습을 보이던 아버지는 어디 가고 촐랑 맞은 할아버지가 있는 건지, 혼란스러웠다.

“아구, 우리 예님이 밥도 잘 먹지! 예쁘다, 예뻐.”

적응 안 되는 아버지의 말을 뒤로하고, 노아는 지난밤 제제와 했던 대화를 곱씹었다.

‘각하, 봄이 끝나갑니다. 곧 수도로 돌아가셔야 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몽베르 섬을 떠날 날이 한 달도 남지 않았으니, 예님의 처우를 결정해야 했다.

‘태지천의 배를 덮쳤던 폭풍이 마법으로 밝혀졌으니, 반 태지천 파가 공격성을 띄기 시작한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난파되었던 태지천의 선박에서 마법에 공격받은 흔적이 발견되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항소문을 올리는 등의 자세를 취했던 과거와는 달리 공격적인 행동으로 의사를 나타낸 것은 처음이었다.

학계와 마법사로 이루어진 반 태지천 파는 웰츠 제국이 몽베르체 공작가의 주도하에 태지천과 거래하는 것을 몇 십 년 째 반대하는 중이었다.

난폭해진 반 태지천 파에 태지천과의 교류를 유지하는 몽베르체도 단호하고 확실한 주장을 보일 필요가 있었다.

얼마 전부터 떠오른 방법이 있었다.

문제는 예님이 도와주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 위험한 일에 예님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지켜줄 자신이 있었다.

예님이 허락한다면 그녀를 곁에 두고도 반 태지천 파를 더욱 팽팽하게 견제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었다.

"예님이는 잘 먹어서 좋구나. 우리 딸들하고 노아는 입이 짧아서 얼마나 걱정 했는지."

"주방장이 음식을 잘해요. 매일 매일 칭찬 합니다. 완전 완전 맛있습니다. 먹으면 힘이 납니다! 산도 백 번 그냥 오를 수 있습니다!"

예님을 바라보는 테오르에게서 미소가 가시질 않았다.

노아는 느긋하게 식기를 내려놓고 예님이 접시를 깔끔하게 비울 때까지 기다렸다.

똑 닮은 두 남자가 꿀떨어지는 눈빛으로 작은 예님을 바라봤다.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친 예님이 부른 배를 팡팡 두드렸다.

'귀엽군.'

몽블라체 부자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속으로 중얼거렸다.

노아가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입꼬리와 함께 말을 꺼냈다.

“예님 할 이야기가 있으니, 후식은 내 집무실에서 하자.”

“응, 알았어!”

명량한 대답에 이어 테오르의 싫은 기색이 역력한 대답이 들려왔다.

“네 집무실은 서류 더미로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알았다.”

“아버지는 제제가 같이 먹어 드릴 겁니다.”

“영광입니다, 테오르 님.”

마침 다른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들어온 제제가 방긋 웃으며 말했다.

“예님이를 독차지 할 생각이냐!”

테오르가 불만 가득하게 제 아들을 쏘아보았다.

“예님, 요즘 술을 달란 말이 없더군. 마실 텐가?”

세상에, 노아가 술을 먼저 권하다니!

예님은 집무실 한 쪽에 있던 와인과 잔을 가져오는 노아를 보며 눈을 반짝였다.

“그동안 자제해줘서 고맙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님 네가 원하는 데로 마셔도 좋아. 내가 예님 널 보이는 모습에만 가둬둔 것 같다. 어리석었다.”

사실 노아는 아직도 살짝은 예님이 1,725살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없었으나, 받아들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는 중이었다.

예님도 제 부탁에 술을 달라고 억지를 부리지 않으며 제게 맞춰주고 있는데, 노아라고 멍청하게 외면하고 앉아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술도 권하는 것이고,

“앞으로 예님 너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예님이라 부르기엔 좀 그러니... 흠, 〈도깨비〉님? 아니면, 어르신? 어르신 어떻습니까, 예님 어르신.”

나름대로 어르신이라는 호칭도 생각해 족보를 정리해보았달까.

“어르신...? 노아, 나 늙은이 아닙니다...! 나는 예님! 그냥 예님!”

예님은 어르신이란 단어에 깜짝 놀랐다.

어르신이란 호칭은 분명 자기보다 훨씬 연장자를 존중하는 말로... 극존칭이 아닌가...?

물론 예님이 노아에게 훨씬 연장자가 맞았지만...

으악, 아무튼 별로야! 노아, 나는 너의 친구라고!

“하지만 어르신, 1,725살이란 세월은 웰츠 제국의 건국 연도와 맞먹는...”

“아니 나는 그냥 예님입니다! 우리 친구니까 괜찮습니다!”

예님이 두 손 두 발을 내저으며 반대했다.

나는 그런 호칭 반댈세!

노아 너의 친구가 되고 싶어!

그런데 노아의 입꼬리가 실룩거리더니 이내 푸핫 하고 웃음을 터뜨린다.

“그래그래, 알았다. 친구처럼 하도록 하자. 정말이지 네 모습에 어르신이란 호칭은 말도 안 되게 어울리지 않는군.”

“그렇다, 잘 생각했습니다.”

예님이 십년감수 하듯 심장을 쓸어내렸다.

어르신이라니, 그 무슨 세대 차이 가득해 보이는 호칭이람.

노아가 제 잔을 들어 보였다.

그에 예님이 씩 웃으며 제 잔을 들었다.

두 잔이 짠하고 경쾌한 소리를 내며 부딪혔다.

“〈술맛이 좋구나. 노아와 마시니 몰래 마시는 것보다 훨씬 좋아.〉”

“예님, 내가 너를 보자고 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중요한 할 말이 있기 때문이다.”

“음?”

중요한 할 말이라니!

예님은 안주를 집어 드는 것도 제쳐놓고 노아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나는 이 주 뒤에 원래 지내던 수도의 성으로 돌아갈 거다.”

예님도 카손을 통해 노아가 살던 곳이 원래 몽베르 섬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도의 이름이 ‘샤인’이라고 했던가?

노아가 수도로 간다면 예님은 어떻게 되는 걸까.

언제까지고 노아와 함께 있을 생각은 아니었지만, 헤어질 생각을 하자니 즐겁지 않았다.

수도까지 따라가 신세를 지기엔 염치가 없으니, 다시 혼자 떠나가야 할 때였다.

언어도 어느 정도 통하고, 지금껏 그래 왔던 것처럼 이곳저곳을 여행하며 가이아에 적응해야겠지.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혼자가 되기 싫은지...

정들었던 이들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대부분의 삶을 정처 없이 떠돈 예님이었다고는 하나, 오랜만의 무리 생활에 금세 적응해버렸나보다.

에휴, 언제까지고 얹혀 살 수 없지 않느냐.

예님이 짧은 숨을 뱉었다.

헤어지기 싫어도 헤어져야 할 때가 있는 법이다.

“〈그래, 그렇다면 나도 떠날 준비를...〉”

“부탁이다, 예님. 너도 나와 함께 수도로 가주었으면 한다.”

“응?"

예님이 놀란 사슴같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두 손을 내저었다.

"나도? 하지만 노아 이미 나한테 준 거 많아요. 하지만 나 노아 줄 것 없어요. 노아 소원 없어요. 소원 왜 없어요!”

“아니다, 예님. 신세라고 생각하지 마라. 말했듯, 부탁이다. 같이 가달라는 것은 내 소원이다. 난 네 도움이 필요하다.”

노아는 예님이 떠난다는 마음을 먹었더라도 그의 부탁이라면 망설일 것이란 걸 알았다.

처음 만났을 때도 예님은 은혜를 갚겠다며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어 했으니까.

예님의 약점을 들먹이는 것 같아서 기껍지는 않지만, 그녀의 마음을 편하게 먹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다.

노아의 푸른색 눈동자가 굳건하게 빛났다.

“예님 수도로 가면 나는 널 공식적으로 후원한다고 발표하고, 널 내 수양딸로 들일 계획이다.”

...수양딸?

무슨 뜻이더라?

예님이 고개를 갸웃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책에서 수양딸이 친엄마를 찾겠다며 이러쿵저러쿵...

헉!

“노아, 날 입양?!”

“예님, 네가 내 딸이 되어주었으면 한다.”

뭐어?! 따알?

“노아, 진심입니까?”

노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처음부터 노아의 태도가 대단히 진지해서 장난일리가 없단 것을 잘 알았다.

맙소사, 진심이구나.

하기야 노아는 장난을 즐기는 아이도 아녔다.

내가 노아의 딸이 되어?!

머릿속에 있는 맷돌이 돌아가는 동시에 예님의 동글동글한 옥색 눈동자도 또르르 굴러갔다.

어린아이로 생활하기를 선택했으나 노아의 딸, 아니, 누군가의 딸이 되는 건 사고 밖의 일이다.

신의 뜻으로 생명을 얻은 예님은 부모 없이 혈혈단신으로 세상의 빛을 봤다.

가족을 꾸려 사는 인간들의 보편적인 삶과는 동떨어진 삶이었다.

그녀의 역할은 누군가의 자식이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는 것을 무수히 많이 지켜보는 것이었다.

노아가 제 딸이 되어달라는 소원을 빈 것은 무척이나 특이한 소원이었다.

그래 정말 특이한 소원이다!

딸, 아들을 낳게 해달란 것도 아니고, 딸이 되어달라니!

엄마, 할머니가 되어 달란 것도 아니고 딸이 되어달라니!

한 인간의 일생의 몇 배가 되는 세월을 겪은 그녀에게 딸이 되어 달라니!

특이해도 차암 특이하다!

한편으로는 흥미롭기도 했다.

예님의 녹색 눈빛이 호기롭게 빛났다.

도깨비 특유의 장난기를 자극하는 제안이었다.

예님은 재미있을 것 같은 일이라면 마다치 않곤 했다.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있었으니...!

“노아, 아직 어려요. 결혼 안 했습니다! 여자친구 없습니다! 그런데 딸 있으면 인기 없습니다!”

“... 그런 건 상관없다.”

노아가 이마를 이마를 짚으며 고개를 저었다.

독신남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은 태지천이나 가이아나 어딜 가던 비슷한가 보군.

그런 통념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노아였지만, 어쩐지 테오르의 잔소리가 귀에 맴돌 것 같았다.

노아는 예님을 위해 저의 제안을 쉽게 설명하고자 했다.

“예님, 전에도 말했지만, 가이아는 위험한 곳이다."

아무리 위험해 봤자 도깨비인 나한테는 별것 아니라니까.

예님 반박하려 입을 여는 순간 노아가 고개를 저으며 선수 쳤다.

" 네가 아무리 도깨비>라고 해도 말이다. 가이아에서의 위협은 태지천에서와는 사뭇 다를 거다."

"그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이야. 수많은 가이아 사람이 태지천의 존재를 부정하고 없애고 싶어한다."

태지천을 싫어한다고...?

놀란 예님의 눈이 커다래졌다.

예님의 작은 두 손이 받치고 있던 잔 속의 와인이 찰랑거렸다.

"태씨 놈들이 무얼 잘못했다니?!>"

내 그놈들을 혼내주어야겠는걸!

무의식적으로 툭 튀어나온 태지천어였지만, 노아는 알아듣기라도 한듯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지. 자세한 것은 후에 가르쳐 주마. 일단,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예님, 이곳 사람들이 동양인에게 우호적이지만은 않단 사실이야."

허어 참...

사이가 나쁜 이유를 제 상식선에선 떠올릴 수 없던 예님이 미간을 찌푸렸다.

같은 인간들끼리 견제할 이유가 뭐가 있다니, 사이좋게 지내면 좋으련만!

노아는 제 말을 잘 따라오고 있는 예님을 부드럽게 바라봤다.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잘 알아듣고 있었다.

지금의 예님은 무리 없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데다 친화력도 좋으니 보통의 상황이라면 혼자서도 무리 없이 생활할 수 있을 거다.

하나, 몽블라체의 보호에서 벗어난다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

“예님 너의 오랜 세월을 나는 모르지만, 이곳저곳을 떠돌며 정처 없는 살아왔다고 했지. 그래서 자유로운 삶이 네게 당연하단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말했듯 가이아는 동양인의 모습을 한 너에게 위협적일 테고 인종도, 문화도, 환경도 천지 차이로 달라서 혼자 그 모든 것을 겪고 경험한다기엔 무리가 있어. 나와 내 가문은 너를 보호해줄 수 있다. 네가 있을 안전한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어.”

노아는 잠시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떴다.

“무엇보다 나는 예님 너와 더 함께 있고 싶다. 운명 같은 인연으로 맺어진 소중한 친구이지 않은가.”

"소중한 친구..."

소중한 친구!!

예님의 입술이 씰룩거렸다.

그냥 친구도 아니고 소중한 친구라니, 뿌듯하구나!

“나아가 내가 너를 공개적으로 후원하겠다는 의미는, 가이아와 태지천을 위해서다. 나는 두 대륙을 가깝게 발전시킬 계획이다. 그러기 위해선, 예님, 너의 도움이 필요해.”

에스티엘라 성의 옥상에서 보는 풍경은 오늘도 아름답다.

캬

예님은 와인을 막걸리 마시듯 꿀꺽꿀꺽 들이키고 인상을 쓰며 시원한 소리를 냈다.

노아의 방에서 챙겨온 와인을 병째로 마시는 중이었다.

와인 잔을 챙기는 것을 깜빡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다.

‘예님 너의 도움이 필요해.’ 라니!

신이 나서 도와주고 싶잖아.

인간에게서 소원을 들어달란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도움이 필요하단 표현은 좀처럼 없었다.

덕분에 예님은 어감이 중요하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도움이 필요하다니, 제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꼭 도와줘야만 할 것 같았다.

안 그래도 노아에겐 은혜를 꼭 갚고 싶어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었는데, 마음씨 예쁜 노아는 말도 예쁘게 하는구나.

처음엔 황당한 소원이라 당황하는 마음도 들었다.

그러다 노아의 똑 부러지는 설명에 납득 되었다.

무엇보다 신선한 계획이라 흥미가 동했다.

근데 그게 꼭 딸이어야만 했나...?

장가도 안 간 총각에게 미안하다.

예님은 제 무릎을 탁! 쳤다.

‘테오르 할아버지’에 이어 ‘노아 아버지’라니... 이거, 할망구가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구려!

‘당장은 대답하지 않아도 좋다. 확실히 생각해보고 말해줘.’

물론 생각해볼 것도 없었다.

그래서 바로 대답하려고 했다.

'노아, 나는 너를 기꺼이 도울,"

똑똑

'각하, 황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장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지. 와인은 가지고 가서 마셔도 좋다.'

거기서 제제가 주먹만 한 돌멩이(수정구)를 들고 등장하지만 않았어도 하겠다고 말할 수 있었을 거다.

노아는 제제에게 고개를 끄덕이곤 예님에게 말했다.

'물론 다른 선택지도 있다. 지금으로선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가 태지천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고, 그동안 이 성에서 원하는 만큼 머물러도 된다. 안전한 곳이니까.'

덧붙여 끼어들기 좋아하는 제제가 알려주기를 지금 당장은 태지천의 배가 망가져 방법이 없지만 몇 개월 정도 기다리면 가이아의 배가 태지천에서 돌아온단다.

그럼 그 배를 타고 태지천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태지천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걸?

내 해외여행은 시작도 안 했어!

예님은 쫓겨나듯 노아의 집무실에서 나오며 흔쾌히 의사를 밝힐만한 타이밍을 놓쳐 버렸다.

그 동그란 돌이 계속 웅웅 거리지만 않았어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두 대륙을 위해서 돕는 일인데, 못할 것도 없었다.

가이아가 태지천을 좋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인간들은 서로를 사랑할 때 살 때 가장 아름답다.

두 대륙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격려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저런 이유로 노아와 함께 수도에 가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노아와 카손, 제제, 룬, 테오르... 모든 친구와 떨어지고 싶지 않았다.

예님은 당분간 정든 친구들과 함께 지내고 싶었다.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다.

'무엇보다 나는 예님 너와 더 함께 있고 싶다. 운명 같은 인연으로 맺어진 소중한 친구이지 않은가.'

노아 녀석 그리 사랑스러운 말을 하다니,

예뻐하지 않을 수 없구나.

“예님, 오늘도 안자고 여기 왔어?”

“허억, 룬! 안녕!”

예님은 마시고 있던 와인병을 허겁지겁 등 뒤로 숨겼다.

얼마나 깊이 생각에 잠겼으면 그가 오는 소리도 못 들었다.

“아홉 시면 침대에 가야지. 이렇게 늦게 자면 키도 안 크고 몸도 안 좋아.”

"그건 룬도 똑같습니다. 룬 아직 어려요. 키 쑥쑥!"

예님은 룬이 다가오자 와인병을 바닥에 놓고 치맛자락으로 가렸다.

그녀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 예님을 어린애로 알고 있는 룬이 깜짝 놀랄 거다.

생각해보니 옥상은 룬도 자주 오는 곳이라 술을 마시기엔 적합한 곳이 아니었다.

다음부턴 조심해야지!

얼마 전 같으면 도깨비니까 괜찮다며 신경도 쓰지 않았겠지만, 태지천과는 상황이 다르단 것을 인지하고 여러 상황을 고려하기 시작한 예님은 이것저것 조심하는 데 익숙해지고 있었다.

노아의 딸 노릇도 하려면 더 열심히 해야겠는걸.

흐음, 멋진 부녀지간으로 보여야 할 텐데, 보통 어떤 식으로 사이좋게 지내더라?

진정성 있어보이기 위해선...

아버지, 아빠

라고 불러야하나?

아니야, 노아도 미래에 가정을 꾸려야하는데 후의 2세를 위해서 남겨두자!

노아라고 불러도 충분해!

그래도... 보는 눈이 많을테니...

아버지... 정도는 괜찮으려나?

“뭐 먹고 있었어? 빵 먹을래?”

생각이 다른 곳으로 빠지려는 찰나에 룬이 빵이 담긴 바구니를 내밀었다.

예님은 얼떨결에 빵 한 조각을 집어 들었다.

“이게 무슨 냄새지?”

룬이 갑자기 땅에 묻은 간식을 찾는 강아지처럼 킁킁거렸다.

“왜요?”

“술 냄새 안 나?”

“술?”

허걱!

예님은 재빨리 제 몸에서 냄새가 나는지 확인했다.

아닌데, 안 나는데 아, 아닌데 좀 나나?

에라 모르겠다 이럴 땐 우겨야지!

연옥산 산신령 노인네처럼!

“안 납니다! 빵, 빵 냄새 있습니다. 술 냄새 없어, 없어!”

“아아, 그런가? 여기 버터랑 잼도 챙겨왔는데 발라 줄...”

“마싯다, 마싯어요! 와아, 마싯다.”

“그렇게 입에 다 넣으면 뻑뻑할”

“콜록!”

“텐데...”

“콜록, 콜록!”

당황한 예님이 꾸역꾸역 입안에 가득 찬 빵을 씹다가 사레에 들려 버렸다.

으이구, 소리를 낸 룬은 예님의 앞에 유리병에 담긴 우유의 뚜껑을 따서 내밀었다.

"자, 마셔. 빵 먹다가 사레들린 사람은 처음 본다."

숨넘어갈 뻔했던 예님의 등을 룬이 부드럽게 쓸어 내려주자 십년감수한 기분이 들었다.

술 못 마시는 어린애 노릇 하다가 염라대왕님 뵙고 올 뻔했다.

찔끔 눈물이 나왔다.

"목 아프지?"

"괜찮, 크흡, 치 않습니다."

룬이 쯧쯧 혀를 차며 우유병을 받아들곤 다시 뚜껑을 닫아 바구니에 넣으며 중얼거렸다.

"동생이 있다면 이런 느낌인가. 막 챙겨주고 걱정돼서 잔소리 나오고."

"빵이 잘못했습니다."

예님이 멋쩍게 대꾸했다.

"알았으니까, 입가에 빵가루나 닦아."

룬이 소매로 입가를 쓱쓱 닦아주었다.

"이상하네! 정말 나는데, 와인 냄새."

"으응?"

"예님... 솔직히 말해봐."

"으으응?"

룬의 노오란 눈동자가 가늘게 예님을 내려본다.

"사고 쳤지? 어디서 술 같은 거 쏟고 도망온 거 아냐?"

히익, 정말 식겁했다.

예님은 고개를 도리도리 저으며 부정했다.

"아니에요!"

그때 발에 무언가 탁, 채였다.

뗑, 데구르르

텅빈 와인잔이 예님의 치맛자락 뒤에서 굴러 나왔다.

예님의 눈동자도 데굴데굴 방황했다.

"그...그... 병이 예뻐서..."

변명이란 것은 예님에게 참으로 어려운 것이었다.

아이인척 해야한다고 의식하다보니 이상하게 당당하게 굴 수 없었다.

거짓말을 잘 모르는 예님은 땀을 삐질삐질 흘렸다.

끄응

빤히 바라보는 룬의 시선에 제가 왜 1,725살의 도깨비인 것을 숨기고 있는지 이유를 떠올리기 위해 애를 써야 했다.

그런데 딱히 이유 따위 없더라.

그냥 사람들이 안 믿어서 이런 거잖니!

1,725살 도깨비란 걸 몰라주잖니!

그렇다면 조금 뻔뻔해도 상관없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저를 아이로 믿고 있는 인간들의 믿음을 져버리고 싶지 않기에 맞추어주는 거다.

예님은 용기 있게 룬을 올려다보며 속눈썹 긴 눈꺼풀을 깜박깜박 거렸다.

어린애가 멋지게 생긴 와인병이 갖고 싶었을 수도 있지, 뭐!

그러자 룬이 못 말리겠다는 듯 푸스스 웃었다.

"알았어, 비밀로 해줄게. 병을 모으는 취미가 있었다니, 몰랐네."

역시나 보이는 것의 힘은 강하구나!

예님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야식은 최고다.

맛있어!

룬이 빵에 딸기잼을 곱게 발라주었다.

버석했던 빵에 무언가 얹어지니 훨씬 먹기 좋아졌다.

그래서 예님은 룬이 가져온 빵을 모조리 먹어치우고 있는 중이다.

보이는 것에 약한 인간들이라...

편견이란 것은 참 대단하단 말이지.

아무리 몸이 작아졌거니와 예님의 속은 그대로인 걸...

물론 작아지기 이전의 모습을 모르는 자들이다.

이곳에서는 예님에 본모습에 대해 제대로 아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

그렇다고 예님이 이들이 보는 모습에 맞추어 행동해야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지만... 일단은 편리하니까.

노아와 카손, 제제에게 설명하는 것도 한 참이 걸렸다.

만나는 모두에게 설명할 생각하니 골치가 아팠다.

보이는 것... 보이는 것... 그게 뭐길래.

오랜 세월 가까이서 지켜본 인간이지만 참 복잡미묘하다!

그러다 문득.

예전에 도깨비들과 쳤던 장난이 생각났다.

호오, 그것 참 재밌었는데.

어떤 도깨비가 그걸 알려줬더라.

감나무 도깨비였나?

자갈돌 도깨비였나?

아무튼간!

생각난 김에 해볼까?

힘이 얼마나 모였는지 시험 좀 해볼겸.

예님이 개구지게 웃으며 운을 뗐다.

"룬, 태지천에서는 엄청 신기한 거 있습니다."

"뭔데?"

"달이 있습니다. 물 있습니다, 맛있는 거 있습니다. 눈 감아요, 미래 알 수 있습니다! 미래가 짜잔~ 신기합니다!"

"...그게 뭐야?"

룬이 영문을 모르겠단 얼굴로 미간을 찌푸렸다.

"미래! 〈점! 점! 점 보는 거야!〉"

이름하여 도깨비 점!

인간들은 보이는 것에 약한 만큼 보이지 않는 것에도 약하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가장 두려워한다.

도깨비 점은 한때 태지천의 어느 지역에서 유행하던 놀이었다.

어느 누가 만든 건진 모른다.

미래를 간절히 알고 싶던 이가 만들었겠지.

어떤 요물보다 재주가 많은 도깨비를 메밀묵으로 꾀어내어 미래를 보여 달라할 생각을 하다니!

아주 그럴싸한 작전이었다.

도깨비는 메밀묵이라면 환장하니까!

기분 좋게 소원을 들어줄 수 있었다.

처음엔 인간들도 그저 심심풀이로 해겠지만, 우연히 그 놀이를 발견한 도깨비가 살짝 장난을 치면서 신빙성 있는 점으로 발전했다.

예님도 조무래기 도깨비들과 놀다가 알게 된 놀이었다.

인간들이 요물을 직접 부르다니 별나기도 하고 맛있는 메밀묵도 얻어먹을 수 있어 몇 번 부름에 응해준 적이 있었다.

우여곡절 가득한 인간들의 삶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점도 재밌었다.

준비물과 방법은 간단하다.

달이 하늘의 정중앙에 떠 있을 때, 탁 트인 야외에서 대접에 담긴 물과 메밀묵을 준비한다.

대접이 담긴 물은 달빛이 비추어지게 바닥에 놓고, 그 옆에 먹음직스러운 메밀묵을 둔다.

달빛이 비친 물에 제 얼굴도 비친다.

두 손을 모아 눈을 감고 세 번 외친다.

'도깨비님 도깨비님 제 미래를 알려주세요.'

'도깨비님 도깨비님 제 미래를 알려주세요.'

'도깨비님 도깨비님 제 미래를 알려주세요.'

예님은 이 도깨비 점에 대해 손짓 몸짓 온갖 표현을 동원한 설명해야 했다.

그러니까 도깨비는 소원을 들어주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짜잔~ 하고 보여준다니까~

"좋아, 이해했어. 한마디로 〈도깨비〉라는 신이 미래를 보여준다는 거지?"

"맞아요!"

사실 도깨비 점은 도깨비에게도 신기한 놀이었다.

아무리 재주 많은 요물이라 할지라도 미래란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미래는 운명이다.

누구도 운명이라는 신의 영역은 엿볼 수 없었다.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었다.

이 놀이가 알려지기 전엔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었다.

바로 물에 비친 모습을 통해서 영혼을 들여다보는 거다.

더불어 달이 물에 제대로 담기지 않으면 효능이 없었다.

예님은 달의 영험한 힘이 도깨비 점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양과 음의 중심에 있는 달은 양도 음도 아닌 영혼의 성질과 가장 가까우니 말이다.

그러니 달과 영혼이 물에 비추어져 가장 가까이 있을 때 도깨비가 요력을 흘려 넣어 미래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왜냐면 도깨비의 힘도 달과 가장 비슷하거든.

그래서 도깨비가 달이 뜬 밤을 가장 좋아하는 것이다.

이 도깨비 점이란 거 완벽하게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졌다.

정말 굉장하단 말이지!

예님과 룬은 바구니 속에 빵이 놓여있던 접시에 물을 담아왔다.

달빛이 가장 잘 비치는 곳에 그릇을 두어야 했다.

몇 번이고 요리조리 움직여서야 적합한 위치를 찾을 수 있었다.

옥상의 가장 중앙, 살짝 고개를 들면 달이 보이는 곳.

좋았어, 준비는 완료됐다.

예님은 룬을 그릇 앞에 세웠다.

솔직히 룬은 이 〈도깨비 점〉이란 거에 대해서 일절 기대도 하지 않고 있었다.

예님이 하도 해보자니까 하는 거지 애초에 '정해진 미래'란 걸 믿지 않았다.

"예님 한 번만 더 알려줘. 어떻게 발음한다고?"

"〈도깨비님.〉"

"〈도깨비님.〉"

"〈도깨비님.〉"

"〈도깨비님.〉"

"〈제 미래를.〉"

"〈제 미래를.〉"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잘했습니다! 혼자 할 수 있습니까?"

"후, 한 번 해볼게."

후우

이게 뭐라고 숨을 크게 들이쉬게 되는 거지?

룬은 예님의 놀이에 장단을 맞춰주는 저 자신이 우스워 작게 웃었다.

정말 동생이랑 놀아주는 기분이 이런 건가.

머쓱하게 코끝을 매만진 룬은 얼른 해보라고 재촉하는 예님에 못 이겨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문장을 읊었다.

"〈도깨비님, 도깨비님 제 미래를 알려주세요.〉"

첫 번째 외침.

예님은 룬이 눈을 제대로 감았는지 확인을 하고 슬금슬금 물이 담긴 접시의 앞으로 다가갔다.

"〈도깨비님, 도깨비님 제 미래를 알려주세요.〉"

두 번째 외침.

물에 비친 달과 룬의 얼굴이 사라지지 않게 조심스레 검지와 중지를 담갔다.

"〈도깨비님, 도깨비님 제 미래를 알려주세요.〉"

세 번째 외침.

요력을 흘려보냈다.

예님의 심장에서부터 손끝까지 옥빛의 기운이 넝쿨이 기둥을 휘감듯 쏟아 나왔다.

여전히 약한 요력이라 짧게만 볼 수 있을 거다.

과연 어떤 미래가 보일까?

크아악

예님과 룬, 두 사람의 귀에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단장님 마물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원은 아직인가!'

'알 수 없습니다! 통신석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젠장!'

은색의 갑옷, 붉은색 망토를 두른 금발의 남자가 자신의 몸집보다 거대한 괴물을 상대하고 있었다.

팔뚝만 한 이빨을 드러내고 사나운 울음소리를 내는 괴물은 두 팔과 두 발을 마구 휘두르며 남자를 위협했다.

남자는 재빠른 몸놀림으로 괴물의 공격을 피하며 괴물의 곁으로 파고들었다.

그가 들고 있는 칼에서 짙은 파란색 불꽃이 피어올랐다.

파아악

불꽃이 둘린 칼은 단번에 괴물의 머리를 베어냈다.

'대체 저건 뭐지?'

남자가 올려다보는 하늘엔 검정 구가 있었다.

너무 새카매서 커다란 구멍 같아 보이기도 했다.

하늘은 암울한 회색빛이었다.

주변은 온통 흉측하게 생긴 괴물들뿐이었다.

숨 쉴 틈도 없이 괴물들이 계속해서 남자에게 달려들었다.

남자와 그의 단원들은 지쳐있었다.

그들은 괴물의 초록색 피를 잔뜩 뒤집어쓰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물러나면 네 가족과 친구들이 죽는다! 이 악물고 싸워라!'

남자가 외쳤다.

그의 단원들은 대답 대신 기합을 질렀다.

죽을 힘을 다해야 했다.

쿠쿵 쿠쿵

갑자기 땅이 흔들리며 요란한 소리가 났다.

'마법이다. 피해!!'

누군가 소리쳤다.

동시에 하늘에서 커다란 불덩어리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불덩어리는 괴물과 사람들을 구분 없이 공격하고 있었다.

쿠우웅!

'으아악!!'

'테드!! 아벨!!'

쿵!

광음과 함께 주변이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장면이 바뀌었다.

사방이 불덩이다.

불길 사이로 금발의 남자가 칼을 짚고 힘겹게 일어났다.

그의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 이게 무슨 짓이야!!'

'기뻐해라, 이 모든 희생은 을 위해서니까.'

'미친 소리 하지마!'

'그러니 너도 을 위해 죽어라.'

검은 그림자가 손을 들어 올리자, 피할 새도 없이 검은색 빛 기둥이 튀어나와 남자의 심장을 관통했다.

남자의 몸이 힘없이 쓰러졌다.

샛노란 눈동자가 힘없이 타오르는 불길에 타올랐다.

"〈안돼!! 룬!〉"

예님의 눈이 번쩍 뜨였다.

점이 보여준 미래가 끝났다.

도깨비 점이 보여준 미래는 여기까지였다.

예님의 몸이 스르륵 주저앉았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는 아직 어린 나이의 룬었다.

고작 막 어른이 된 룬.

그런 룬이 누군가에게 살해당한다고?

모든 잔상이 없어지고도 한참을 가만히 서있어야 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의 생생한 소리에 온몸의 감각이 지배당한 기분이었다.

매캐한 연기가 후각을 가득 채우는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했다.

룬은 눈을 뜨는 동시에 저도 모르게 참고 있던 숨을 깊게 토해냈다.

“우와...”

단말마의 감탄사가 흘러나왔다.

부드러운 바람이 머리카락을 헤집고서야 시야에 드넓게 펼쳐진 밤하늘이 들어왔다.

저도 모르게 깍지를 꽉 쥐고 있던 두 손이 새빨갰다.

“방금 그거... 뭐였지?”

주먹을 쥐었다 펴며 현실을 자각했다.

뒤숭숭한 꿈을 꾼 기분이었다.

내가 무얼 본 거지?

머리는 여전히 멍해서 얼떨떨한 상태였다.

한데, 이것만은 확실하다.

“빨간 망토잖아?”

믿을 수 없었다.

빨간 망토라니...!

단장이 되었단 것과 남색 오러를 사용하는 것까진 다 좋았는데, 빨간 망토라니!

내가 감히 어깨에 파란색이 아닌 빨간색을 달았다니!

쯧, 룬은 제 머리를 헤집으며 혀를 차고 고개를 저었다.

빨간색 망토는 황실 2기사단 ‘전갈’의 상징이었다.

룬은 황실 기사단이 될 생각이 추호도 없는 사람이었다.

한번 까마귀는 영원한 까마귀, 그의 우상인 노아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룬에겐 칼을 들 이유가 없었다.

군기가 빠진 게 틀림없다.

방금 본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찝찝했다.

얼마나 초심을 잃었으면 전갈에서 단장이나 하고 있을까.

더구나 제2기사단 전갈은 명예 기사, 즉 망나니들로만 이루어진 부대였다.

제가 그런 불명예스러운 곳에 가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아무래도 오늘은 자기 전에 훈련을 더해야 잠이 올 것 같았다.

한심한 미래의 모습을 보니 동기부여는 물론 전의가 불타오른다.

“룬.”

작은 손길이 옷자락을 잡아왔다.

맞다, 예님이 같이 있었지.

룬은 그제야 방금 본 장면들이 예님과의 장난에서 나온 결과물이란 것을 깨달았다.

꿈의 내용에 정신이 팔려있다 보니 예님과 함께 있었단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괜찮아?”

올려보는 눈동자에 걱정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응? 괜찮고말고.”

룬은 그제야 제가 욕구가 넘쳐나 혼자 생난리를 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전의에 불타오르던 주먹을 뒤로 숨기며 에헴, 헛기침했다.

“생각보다 진짜 같아서 놀란 거 있지. 〈도깨비 점〉이란 거 신기하다.”

헤집어서 산발이 된 머리카락도 단정하게 정돈했다.

추한 모습을 보였다.

“정말 괜찮아?”

그런데 예님이 왜 더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거지?

“룬 미래 안 무서웠습니까?”

룬은 예님의 조심스런 물음에 목을 긁적였다.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전혀. 그런 걸 왜 물어보지?

“무섭진 않았는데...?”

“룬 안 죽었어요?”

룬, 네가 죽는 모습을 보았는데 무섭지 않니?

예님은 차마 너의 미래를 함께 봤다고 말하진 못했다.

그는 예님의 요력으로 도깨비 점이 쳐진 사실을 모르니 말이다.

죽는 게 무섭지 않니?

그녀는 묻고 싶었다.

인간이란 하여금 본능적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 마련이다.

제가 죽는 미래를 본 인간들은 대부분이 겁에 질려 벌벌 떨었다.

예님은 룬도 특별할 것 없이 제 죽음을 보고 초연해 할 것으로 생각했다.

“어? 어떻게 알았어? 이게 원래 그런 모습만 보여주는 건가?”

“으응, 뭐...”

달님의 마음대로 영혼의 미래를 아무 부분이나 마구잡이로 보이는 것이지만...

예님은 룬이 충격적인 미래를 대수롭지 않은 장난으로 여기길 바라며 대답했다.

알단은 별 것 아닌 장난쯤으로 생각하고 있으렴...

“아아, 내가 제일 마다해 하는 최악의 미래를 보여주든가 하는 짓궂은 놀이였구나. 하긴 내가 전갈 기사단에 들어갈 리 없지.”

룬이 제 가슴팍을 쓸어 내리며 안심했다.

그런데 안심하는 방향이 예님이 생각했던 방향과는 많이 달랐다.

“내 인생에 황실 기사단이 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도깨비 점〉이 보여준 미래에선 내가 황실 기사단이 된 거 있지? 장난이라니까 정말 다행이다.”

안 죽어서 다행이다가 아니라?

“죽음, 무섭지 않아요?”

“죽음? 그건 검사가 되겠다고 다짐한 순간부터 두렵지 않았어.”

룬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정말 전갈 기사단으로 내쫓기지 않으려면 더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야?

“예님, 너도 이만 자러 가자.”

제 죽음을 목격했으면서 어쩜 저리 대수롭지 않게 말하지?

떨림 없는 금색의 눈동자에는 신념만이 가득 차 있었다.

예님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다.

룬, 강한 아이구나...

그래.

자기 자신을 믿는다면 무엇도 두려워할 것 없겠지.

룬과 3층 계단에서 헤어진 예님은 노아의 방문 앞에 멈춰 섰다.

기척을 살펴보니 노아는 아직도 집무실에서 일을 하는 듯했다.

집무실은 반대편 복도에 있었으니 금방 갈 수 있었다.

시간이 된다면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그러나 집무실에 있는 노아는 늘 바빴으니, 방해하고 싶지 않았기에 고민이 됐다.

그에게서 딸 노릇을 해달라는 제안을 듣고 신이 났던 것도 잠시, 룬의 끔찍한 미래를 보았더니 정신이 사납다.

흉측한 괴물과의 전투,

수상한 사내와 불길이 펼쳐지는 ‘마법’.

그래, 그 요란한 것은 분명 마법이겠지.

점이 보여준 장면 속 룬은 다 자란 성인으로 얼추 20대의 외양을 하고 있었다.

현재 룬이 17살이었으니, 빠르면 3년 늦어도 10년 안에는 벌어질 미래라는 것이었다.

어린아이의 목숨이 고작 10년도 안 남았다니…

예님은 제 이마를 탁 쳤다.

재밌자고 시작한 장난에 본의 아니게 시한부 선고를 준 셈이었다.

룬은 제가 본 미래를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다.

거짓이 아니었단 사실을.

미래는 바꾼다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도깨비 점을 통해 미래를 본 인간들은 대부분 제가 본 것과 같은 미래를 맞이했다.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친다 하여도 운명의 굴레는 쉽게 벗어날 수 없었다.

최악의 미래를 보았다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 보았자, 운명은 결국 제 본질과 직결된 것.

게으른 한 사람이 거지가 되어버린 미래를 보았다면 열심히 노력해서 거지가 되는 것을 면할 수 있을까?

아니.

예님이 겪어온 바 그렇지 못했다.

그 사람은 아주 잠깐만 노력할 뿐 결국엔 모두 내팽개쳐 제가 보았던 미래를 부정하고 엉망인 생활만 하다가 거지가 되고 말았다.

룬의 경우엔 죽음까지 가기 위한 길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테다.

그의 성격이 그를 그곳까지 치닫게 하였을 거다.

미래를 바꾸기 위해선 다양한 노력이 필요했다.

본인 스스로 의지만 있어선 안 된다.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타인의 간섭이 필요했다.

예님은 제 친구인 룬이 살해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내가 룬의 곁에 있으니, 그를 죽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미래가 바뀔 희망은 있었다.

생각에 빠진 예님은 엉뚱하게도 복도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양반다리를 하고 턱을 괸 그녀의 머릿속엔 온통 룬과 관련된 생각뿐이었다,

생각은 이어져 제 요력에 대한 주제로 뻗어 나갔다.

그깟 도깨비 점 한 번 봤다고, 모아뒀던 요력이 다 날아가 버렸다.

무한하던 요력이 조금만 써도 바닥에서 간당간당하니 불편하다.

처음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자 마음을 먹었지만, 있어 본 자가 없이 살기란 쉽지 않은 거다.

사실 예님이 밤바다 옥상에서 시간을 보내던 것도 요력을 모으기 위해서였다.

예전에 도깨비들끼리 우스갯소리로 달빛을 쬐면 요력이 더 많아진다는 말을 주고받았던 것이 떠올랐기 때문인데, 그때 고놈들을 한 대씩 쥐어 박아주고 싶을 만큼 터무니없는 의견이었다.

달빛을 쬐는 것은 요력을 돌아오게 하는데 크게 효력이 없었다.

아무리 달과 도깨비의 요력이 상성이 잘 맞는다고는 하나, 요력이 달에서 오는 것은 아니었다.

달빛은 도깨비의 기운을 팔팔하게, 더 신이 나게 해줄 뿐이었다.

오늘 룬에게 신이 나서 도깨비 점까지 쳐줬으니 말 다했다.

원인을 알면 뭔 수라도 찾을 텐데, 도통 모르겠단 말이지.

“제제.”

“거기 앉아서 뭐해요?”

제제는 긴급회의를 마치고도 바쁜 노아를 뒤로하고 잠을 자러 가는 중이었다.

사실 잠은 둘째 치고 따로 해야 할 일이 있었지만.

그나저나 이 속 늙은 아가씨는 왜 복도 한가운데서 저러고 있는 거지.

“〈마침 잘 왔어. 여기 앉아보렴.〉”

“그렇게 대뜸 태지천어를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얼른 그때 팔찌를 하려무나!〉팔찌!”

제제는 예님의 성화에 못 이겨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어떤 말이든’ 팔찌를 꺼내 찼다.

“〈무슨 일이세요.〉”

제제가 무릎을 굽히고 앉으며 말했다.

“〈네가 원하는 데로 내가 노아의 딸이 되게 생겼잖느냐. 그래서 너와 둘이서 이야기해보고 싶었단다.〉”

예님은 제가 도깨비라는 사실을 밝혔던 날 제제가 했던 거래를 기억했다.

말이 통하는 팔찌를 줄 테니 노아를 아빠라고 부르고 딸이 되라고 했지.

“〈그땐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하셨으면서 이번엔 마음이 생기셨나 봐요?〉”

“〈네가 꾸민 짓이냐? 네가 수상쩍은 꿍꿍이로 나를 입양하라고 노아를 꼬드긴 것이라면 다시 생각해보려고 한다.〉”

“〈그렇다면 전 무조건 아니라고 할 텐데요.〉”

“〈나는 네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

예님이 단호하게 말했다.

제제는 잠시 생각해보곤 다시 입을 열었다.

“〈오늘 건 공작의 결정입니다. 재밌게도 그때의 제 바람처럼 이루어졌네요.〉”

“〈왜 그런 제안을 한 거니? 너 역시 태지천과 가이아의 관계를 위해서?〉”

“〈거기서 제가 얻는 이익은 없어요.〉”

“〈네 분홍색 머리를 걸고?〉”

“〈왜 제 머리카락을 걸어야 하죠...?〉”

“〈예쁘잖니.〉”

예님이 당연하다는 듯 답했다.

제제가 당연하다는 듯 수긍했다.

내 머리카락 색이 예쁘긴 하지.

“〈방금은 거짓말을 구별할 수 있다면서요.〉”

“〈생각보다 순수하구나. 작정하고 거짓말을 하면 나도 모른다.〉”

이렇게 어이없을 수가.

제제는 헛웃음을 지었다.

예님이 악랄하게 씨익 웃었다.

제제와 둘만이 있을 때의 예님은 밝게 웃지도, 신이나 보이지도, 맑아 보이지도 않았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초록색 눈동자와 어딘가 날카로워 보이는 신비한 분위기만 감돌 뿐이었다.

“〈그래서 네가 얻는 이익은 어디서 오니?〉”

“〈예님이 입양이 되고 난 이후부터이죠. 근데 솔직히 별 기대 없이 던진 말입니다. 당신이 해줄 거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그건 몽블라체의 핏줄이 아니라면 불가능할 테니까.〉”

“〈그게 뭔...〉”

“〈그 중요한 걸 알려줄 것이라 생각해요?〉”

제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직도 그때의 말을 담아두고 있었군.

정말 별 의미 없이 던진 말이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선 몽블라체의 힘이 필요했으니, 노아가 예뻐하는 예님을 이용해 몽블라체로 만들어버리면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실낱같은 기대를 품고서 말이다.

“〈이 팔찌 가지세요. 그렇게 정체를 쉽게 알려줄지 모르고 힘겹게 구한 거니까. 수상한 게 하나 없는 투명한 노인네, 알고보니까 하나도 재미없다. 흥 떨어졌네요.〉”

노인네라니, 너무하구나.

예님은 제게 팔찌를 넘기는 제제를 밉지 않게 흘겼다.

예쁘고 실용성도 좋은 물건을 주니 용서해주겠다.

다른 도깨비나 요물들이 장난이랍시고 예님을 노인네라고 했으면 얄짤 없이 혼을 냈을 거다.

삼시 세끼 팥죽만 먹게 한다거나, 100일 동안 간지럼만 피운다거나 해서 말이다.

“가?”

“바쁘거든요. 자야해서. 예님도 얼른 주무세요.”

제제의 분홍색 머리가 점점 복도 끝으로 멀어졌다.

일단은 제제가 별 뜻이 없단 것을 알았으니 안심이다.

예님은 손바닥에 올려진 푸른색의 팔찌를 옆구리에 차고 있던 복주머니에 넣었다.

언젠가 필요한 날이 오겠지.

당장 쓸 생각은 없었다.

다음날.

예님은 눈을 뜨자마자 노아의 방문을 두드렸다.

“노아!”

“예님?”

살짝 열린 방 틈으로 커피 향이 풍겨왔다.

맛은 쓰지만, 향만큼은 달달한 차였다.

늦게 잤으면서 피곤하지도 않은지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말끔한 모습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던 노아였다.

반면 노아보다 일찍 잔 예님은 막 일어나 머리가 산발이고 잠옷 차림에 눈곱까지 낀 상태였다.

누가보면 어디 불이라도 나서 급하게 달려 나온 것만 같았다.

그런데 그와중에도 예님의 눈만큼은 반짝였다.

마치 무언가 단단히 결심이라도 한 듯이 호기로웠다.

예님은 노아의 두 팔을 잡았다.

“나 할게요! 하겠습니다, 노아 딸!”

지난밤과 잠결에서까지,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 거렸단다!

테오르는 가벼운 아침 산책 후, 아들의 방에 들러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아침 잠이 없는 부자는 아침을 들기 전 운동을 한 후 간단하게 토스트와 커피를 즐기는 것을 좋아했다.

노아가 아주 어릴 때부터 테오르와 함께 들여온 습관이었다.

특별히 할 말도 없이 서로 묵묵하게 홀짝이고 있던 찰나에 누군가 방문했다.

테오르의 귀가 본능적으로 쫑긋했다.

기척이 낯익다 했더니, 살짝 열린 문틈으로 들려온 것은 예님의 목소리였다!

테오르는 반사적으로 예님 소리에 튀어나왔다.

노아를 제지고 예님을 맞이하려난 찰나, 예님의 입에서 나온 대사에 허억 숨을 들이키고 돌처럼 굳어버렸다.

“나 할게요! 하겠습니다, 노아 딸!”

뭐어? 따아아알?

그 말은 즉...

내 손녀가 되겠다고?!

테오르는 제 아들을 옆으로 밀어버리고 무릎을 꿇으며 외쳤다.

“환영한다, 손녀야!”

노아는 예정보다 빨리 테오르에게 예님을 후원하기로 한 이유를 설명해야 했다.

테오르가 너무 들뜰 것 같아 모든 절차가 이루어진 뒤에 말을 하려 했지만 말이다.

테오르는 제 아들의 계획을 듣고 혀를 찼다.

“네 욕심에 감히 예님을 이용하려 드는 것이냐! 예님이 위험해질 것이 틀림없다!”

“아무런 신분 없이 두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보호할 자신이 없었다면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태지천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테오르의 아버지 때부터의 노력이었다.

당시 몽블라체 공작과 웰츠의 황제는 두 대륙의 지식과 지혜를 공유하여 인류가 더욱 발전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태지천은 가이아와 모든 것이 다른 세계였고, 태지천 대해 알려진 것이라곤 그들의 정의를 부수는 신비한 힘밖에 없으니 태지천을 향한 반발심과 두려움은 지금보다 거대했다.

지금은 세대교체가 되면서 신문물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신 귀족 파들이 생겨나고 있었다.

노아의 말대로 예님의 존재를 잘 이용한다면 세력을 모으고 반태지천 파를 제압할 수 있을 터였다.

“예님을 이용한단 사실이 걸리시는 것 압니다. 저 역시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예님은 굉장한 아이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 난 무조건 찬성할 수만은 없구나.“

테오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옆에 앉은 예님을 바라보았다.

예님이 그의 맘을 잘 안다는 듯 어깨를 토닥였다.

걱정 마렴, 괜찮단다.

예님에게도 실이 될 것은 없었다.

그녀가 노아를 따라 수도로 갈 이유는 많았다.

노아에게 은혜도 갚고,

가이아와 태지천도 친하게 만들어주며,

룬도 죽지 않게 해야하니까!

“나만 믿으십시오!”

의기양양한 예님이었다.

예님은 달의 영험한 힘이 도깨비 점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양과 음의 중심에 있는 달은 양도 음도 아닌 영혼의 성질과 가장 가까우니 말이다.

그러니 달과 영혼이 물에 비추어져 가장 가까이 있을 때 도깨비가 요력을 흘려 넣어 미래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왜냐면 도깨비의 힘도 달과 가장 비슷하거든.

그래서 도깨비가 달이 뜬 밤을 가장 좋아하는 것이다.

이 도깨비 점이란 거 완벽하게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졌다.

정말 굉장하단 말이지!

도깨비가 달이 뜬 밤을 좋아하는 이유=본질이 비슷해서

이번엔 한편만 들고 왔습니당 ㅠㅠ

빠른 시일 내에 또 써올게요!

지난 번 제게 ☆설정변태★라는 말을 해주신 분이 계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으아닛? 나를 이렇게 잘 표현할 단어가 있었다니!!

그런 말이 있는 줄 몰랐어요.

딱 저네요.

설정이 너무 차고 넘쳐여...

과하다 싶지만 어쩔 수 없네요...또륵...이래야 제가 재밌는 걸요...ㅎ

다음 편부터는 수도에 올라 갈 준비가 시작되겠군요.

웰츠의 수도 샤인으로 가기까지 14일.

어느 정도 입양 준비가 끝나 가면서 에스티엘라 성의 사용인들에게도 예님의 소식이 전해졌다.

놀랄만한 소식이었지만 모두 예님이 몽블라체를 떠나지 않는 것에 크게 기뻐했다.

한 계절을 함께 보내며 지켜본 공작과 예님은 참 보기 좋은 그림이었다.

예님은 특유의 맑은 분위기로 고요하던 에스티엘라 성의 분위기를 밝게 환기했다.

그녀는 존재만으로도 일하느라 바쁘기만 하던 몽블라체의 주인을 한결 여유롭게 만들었다.

그들의 주인 곁에 예님이 있다는 것은 득이면 득이었지, 절대 해가 아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저녁 준비가 한창인 에스티엘라 성의 주방.

감자를 깎던 보조 조리사가 갑자기 울먹였다.

“예님 아가씨... 흡...”

“엥, 너 우냐?! 얘 왜 이러는지 아시는 분?”

설거지를 마치고 감자를 깎기를 도우러 온 보조 조리사2는 당황했다.

“흐어엉, 못 보내~ 우리 아가씨 어떻게 수도로 보내!!”

“이 녀석이 왜 이래! 너 혼자 양파 까냐!”

“내버려 둬라. 예님 아가씨 소식 듣더니 아까부터 저 모양이다.”

뒤편에서 당근을 썰던 보조 조리사3이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다.

“수도가 얼마나 척박하고 위험한데 그 무서운 곳에 내가 우리 아가씨를 어찌 보내! 작고 소중한 예님 아가씨 난 못 잃어, 못 보내!”

“...그럼 각하께 가서 말씀드리지 왜 나한테 감자 껍질을 던지고 그래...”

“말이 그렇다는 거잖아! 감자 껍질은 미안, 충동적으로 그만...”

“조리사님 말씀에 저도 동의해요.”

마른행주를 가져온 하녀가 찬장에 지저분한 행주를 바구니에 모으며 조리사들 대화에 끼어들었다.

“우리야 전후 사정도 알고 아가씨도 겪어봐서 반응이 유하지만, 수도 사람들은 다르겠죠. 거긴 우리 섬하고 분위기가 확 다르잖아요. 태지천에서 왔다고 해코지하는 건 아닌가 몰라요. 아, 잠깐만요. 상상만 해도 열 받네. 누구라도 우리 아가씨께 손댔다 하면 찾아가서 설사약을 맥여버릴지도 모르겠네요. 확 그냥.”

“암, 그러고말고. 우리 섬사람들은 대대로 몽블라체의 은혜를 받아 충성하는 마음으로 같은 뜻을 지지하고 있지만, 육지 놈들은 머리에 돌만 들었잖어. 어째 그리 속 좁고 고지식한지. 쯧쯧.”

보조 조리사3이 탕! 하는 소리와 함께 당근을 두 동강 내며 하녀의 말에 동의했다.

“수도 사람들이 야박하긴 해도 아가씨 매력에는 못 당해 낼 겁니다.”

두 사람의 살벌함에 어깨를 움츠린 보조 조리사2가 조심스레 말했다.

“아가씨를 안 좋아하면 그게 사람이냐! 이 세상의 생명체라면 모두 예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을 거야!”

모두가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예님 아가씨께서 애플파이 우물우물 드시는 것 보셨어요? 으아... 심장 터질 뻔.”

“맞아요, 맞아. 그것도 좋았죠. 저는 며칠 전 아침에 누가 주방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지? 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글쎄! 예님 아가씨께서 요로콤 눈을 깜박이시면서 ‘배고픕니다! 맛난 거! 맛난 거!’ 하시는데…!! 후... 할 말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꺄, 대박!”

“너 그래 놓고 지금 살아있는 거냐?! 죽은 녀석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어!”

“저... 여러분? 진정하시겠어요?”

보조 조리사 2는 예님의 극성 추종자들 사이에서 진땀을 뺐다.

“아, 저번에는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곧 있으면 주방장님 오실 텐데... 저녁 식사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저기요? 제 말 들리세요?”

끊임없는 예님 찬양은 하녀를 찾는 동료가 올 때까지 계속되었다.

”어머나! 내 정신 좀 봐! 할 게 산더미인데! 그럼 조리사님들 우리 예님 아가씨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해주세요~! 성에 계실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힘을 내자구요~!!”

“말 잘했네! 아가씨만큼 우리 음식을 복스럽게 먹어주시는 분은 없잖아? 필승을 다 해서 만들자고!”

잠깐의 수다로 주방의 기운이 활기차 졌다.

덕심은 굉장했다.

보조 조리사2는 갑자기 빠르게 돌아가는 주방일에 정신을 차려야했다.

그날 저녁,

어느 때보다도 맛있는 요리들이 예님을 기쁘게 했다.

덩달아 주방 사람들의 마음도 녹아 내렸다.

남은 식사도 맛있게 먹어주세요, 아가씨!

수도까지 10일.

의도치 않게 공작의 질투를 사는 바람에 성으로부터 쫓겨났던 까마귀들이 본래 훈련장으로 복귀했다.

굉장한 공지사항과 함께.

“모두 제자리로!”

까마귀의 단장 베럴드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단원들을 모았다.

주인을 만나고 온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중요한 전달 사항이 있다.”

단장에게 서린 근심 어린 기운에 단원들이 침을 꿀꺽 삼켰다.

나서야 할 일이 났나?

전투인가?

“내일 오전 10시.”

단원들의 허리와 어깨가 더욱 빳빳이 펴졌다.

“예님 아가씨의 호위 기사를 뽑는다.”

룬은 제 귀를 의심했다.

동료들 역시 마찬가지인 듯 주변이 술렁거렸다.

예님 아가씨의 호위 기사를 뽑는다고?

누군가 외쳤다.

“단장님 몇 명이나 뽑습니까?!”

“두 명이다.”

상황판단이 빠른 또 한 녀석이 외쳤다.

“두 명 중에 한 자리는 내 거다 넘보지 마라!”

"뭐야?!"

반발하는 목소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무슨 소리야? 여기 그 자리 노리는 사람 많다고! 허튼 수작 부릴 생각하는 거냐!!”

“더러운 욕망으로 아가씨의 곁에 있을 놈들은 내가 무찌른다!”

“누구보다 나만큼 예님 아가씨를 잘 지켜줄 놈은 없을걸! 까불지 마!”

“좋았어! 결투다!! 다 덤벼!”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진 훈련장에 베럴드가 한숨을 쉬었다.

이 자식들이 이럴 줄 알았다.

동료란 놈들이 물어뜯을 기세로 서로에게 달려들다니.

이렇게 싸워도 밖에 나가면 둘도 없는 우애를 보이는지라, 외부인들이 ‘까마귀 기사단은 동료애가 넘쳐서 늘 보기 좋아요.’라고 칭찬하면 입안이 말랐다.

세상 사람들이 까마귀단의 실체를 평생 몰랐으면 좋겠다.

“조용, 조용! 내 말 아직 안 끝났다. 수도에 있는 녀석들을 제외하고 너희에게만 말하는 건, 아가씨와 먼저 안면을 튼 너희를 위한 공작님의 배려다. 경쟁자가 준 걸 감사한 줄 알고 그만 싸워라!”

“네!”

대답은 잘하지.

“질문 있습니다!”

룬의 옆에 있던 제프가 손을 번쩍 들었다.

“기준은 무엇입니까? 결투입니까? 저 같은 신입 기사도 가능합니까?”

“중요한 걸 잊을 뻔했군. 고맙다, 제프. 신입도 가능하다. 선발 기준은 예님 아가씨의 마음이다. 하루 동안 어떻게 너희의 매력을 발산하면 좋을지, 잘 궁리해 보도록.”

호위기사 자리에 매력 발산이라니.

룬이 보기엔 베럴드도 마냥 질색하시는 게 아니라 은근히 즐기고 있는 듯 보였다.

베럴드도 괜히 까마귀의 단장이 된 것이 아니었다.

개인 훈련 시작 호령이 떨어지고, 동료들이 머리를 맞대어 어떻게 예님의 마음을 훔칠 수 있을지 궁리하기 시작했다.

그때 베럴드가 조용히 룬을 곁으로 불렀다.

“단장님, 부르셨습니까?”

룬이 고개를 숙이며 묵례했다.

“룬, 아가씨와 친한 사이라고 들었다. 너도 호위기사에 지원할 생각인가?”

“아닙니다. 훈련에 더 매진하고자 합니다.”

예님과 함께 할 수 있단 것은 즐거운 일이겠지만, 룬은 제가 아직 누군가를 지킬 실력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래.”

베럴드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각하께서도 네가 호위 자리에 지원하지 않길 바라셨다.”

룬의 금색 눈동자가 당황으로 일렁였다.

베럴드 표정에 편치 못한 기색이 스쳤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물론입니다.”

룬의 시선이 베럴드를 마주하지 못하고 모래 바닥으로 향했다.

“그럼 열심히 해라.”

단장에게 경례하고 뒤를 돈 룬은 씁쓸한 미소를 애써 삼켜야 했다.

밴드가 덕지덕지 붙은 손이 눈을 찌르는 머리를 쓸어 올렸다.

금색의 실 가락이 거칠게 흩어졌다.

이런 것에서부터 제약이 있다라...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단지, 이대로라면 룬은 제 핏줄을 결국 원망하게 될 터였다.

소란스러운 까마귀 사이로 룬은 홀로 목검을 집어 들었다.

훈련밖에 할 게 없었다.

다음 날.

한껏 멋을 낸 까마귀들이 훈련장으로 집합했다.

어떤 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광을 내기도 했고, 어떤 이는 어린 아가씨의 눈길을 끌고자 우스꽝스러운 가면을 쓰거나 머리띠를 쓰고 왔다.

“너 그게 뭐냐! 아가씨가 놀라서 쓰러지시겠어!”

“어린이들도 눈이 있어! 네가 나처럼 잘난 얼굴을 가졌다면 그딴 가면은 필요도 없었겠지, 훗.”

“막내야~ 여기 약 먹을 시간 됐다. 몽둥이 좀 가져와라~.”

까마귀 입단 8년 차의 소피아는 한심한 동료들을 보며 혀를 찼다.

어떤 놈들은 아예 두 명이 팀을 짜서 개인기를 준비하기도 했나 보다.

저처럼 단정하고 멀쩡한 차림으로 온 사람은 몇 없었다.

그녀는 제 목덜미까지 닿는 짧은 머리카락과 제복을 단정하게 매만졌다.

승산 있군.

“베라, 저 한심한 녀석들에게 한 마디 해줘.”

소피아는 옆에서 열심히 거울을 보고 있던 베라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찔렀다.

베라는 오랜만에 한 화장으로 평소보다 몇 배는 들떠 있었다.

큼큼, 베라가 목소리를 다듬더니 아랫배에 잔뜩 힘을 주고 동료들을 향해 말했다.

“이 녀석들아~ 그렇게 노력해봤자 소용없다고! 예님 아가씨께서 속 거먼 아저씨들한테 안심하고 신변을 맡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너흰 절~때 나와 소피아를 이길 수 없어! 이 미모를 봐! 아름답지 않니? 아가씨의 옆자리는 우리의 몫이야, 음하하! 기대도 하지 말라고!”

그녀의 넘치는 만큼 높게 올려 묶은 긴 머리가 찰랑댔다.

소피아가 베라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렇고 말고, 예님만이 아니라 주인께서도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하실걸.

베라는 소피아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하하하 웃었다.

“분하지만 반박할 수 없어... 확실히 소피아와 베라는 우리 사내놈들 사이에서 튈 수밖에 없잖아…! 분하다…!”

“맞아, 반칙이야!! 게다가 너희 둘이 힘을 합치는 건 너무 하잖아!”

막스가 억울함을 담아 외쳤다.

“반칙?”

소피아가 새끼손가락으로 귀를 후비적거리며 생긋 웃었다.

“소피아, 막스가 다시 태어나고 싶으니 멱을 따 달라고 한 것 같은데 제대로 들은 것 맞지?”

“소원대로 해줄까?”

“저 괴물들…!”

막스가 손에 들고 있던 토끼 머리띠를 내팽개치고 달아났다.

소피아와 베라가 그를 뒤쫓았다.

소피아와 베라는 에스티엘라 섬에 따라온 두 명의 여성단원 중 두 명이었다.

겉모습과 성격, 취향 모두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투, 작전에서든 가장 손발이 잘 맞는 완벽한 조합이었다.

막스와 다른 단원들이 두 사람을 반칙이라 하는 데에도 일리가 있었다.

노아가 믿고 맡기는 최정예 까마귀들인데, 최상의 경쟁자로 보일 수밖에.

“각하 오신다! 제자리로!”

소란스러움이 잦아들었다.

“다음부턴 누님 말에 토 달지 말아, 앙?”

“네, 네엡...”

소피아는 막스의 볼을 잔뜩 꼬집고 머리를 묶으며 자리로 찾아갔다.

까마귀 기사단 8년 차인 소피아와 베라는 건드려 봤자 본전도 못 찾고 돌아가게 되는 상대였다.

훈련장의 문이 열리고 베럴드를 선두로 노아와, 테오르, 예님, 제제가 들어왔다.

“어제 공지한 대로 예님 아가씨의 호위기사 선발 대회가 있겠다.”

베럴드는 입을 닫아도 소란스러움을 한껏 들어내는 제 단원들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매력 발산을 하라고 말한 것은 저였지만, 기대를 뛰어넘는 녀석들이었다.

기껏해야 선물이나 장기자랑을 준비해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광대처럼 꾸미고 올 줄이야.

한 놈 낸 엉뚱한 아이디어를 다른 놈들이 좋다고 하나둘 따라 했겠지.

까마귀 기사단의 자유로운 분위기 덕에 가능한 일이었다.

다른 곳이었다면, 이런 놈들 받아 주지도 않았겠지.

황실기사단과 함께 기사지망생이 가장 입단하고 싶은 기사단> 1, 2위를 다투는 몽블라체의 까마귀기사단의 단장 베럴드는 오늘도 비글 같은 단원들을 넓은 마음으로 품었다.

“선발 대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당부할 말이 있다. 알다시피 각하께서는 아가씨를 수양딸로 입양하여 공식 후원하시기로 하였다. 예님 아가씨를 모시는 것은 몽블라체를 모시는 것과 다를 것 없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나서지 않길 바란다.”

“네!!”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호위기사 선발대회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루함에 지치기 시작했다.

“참가번호 20번, 아널드와 막스. 아가씨를 위해 수도에서 유행 중인 춤을 준비했습니다! 저희를 뽑아 주신다면 춤 선생이 따로 필요 없을 것입니다!”

.

.

.

잘한다, 잘한다.

자란다자란다 잘한다...

에휴...

노아와 테오르 사이에 앉은 예님은 까마귀들의 재롱잔치에 박수를 치느라 진이 다 빠질 지경이었다.

노아와 테오르는 반응도 없이 가만히 예님의 양 옆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도 재미가 없는 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많은 참가자가 제 호위기사에 자원했단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처음엔 준비한 게 기특하기도 하고 재밌었지만 갈수록 이게 뭔가 싶어졌다.

다들 끼가 흘러 넘쳐나는구나.

호위 기사라면 무술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니니...?

체격이며 분위기이며 눈빛을 보았을 때 모두 훌륭한 무사들임이 틀림없었다.

차라리 본인들의 실력을 보여주면 참 좋을 텐데!

“안녕하세요, 아가씨! 마지막 참가자 베라.”

“소피아입니다.”

“저희는 간단한 대련을 준비하였습니다!”

정상적으로 제복을 입고 얌전히 자기소개한 참가자는 처음이었다.

얌전하고 평범한 게 되려 눈에 띌 줄이야.

그렇다고 방심해선 안됐다.

이미 몇 번 ‘어라, 평범한데?’싶은 사람들이 방심한 틈을 타‘겨울에 가장 필요한 끈은? 따끈따끈!’과 같은 공격을 해왔으니 말이다.

예님은 그들에게 어떤 반응도 해줄 수 없었다.

다시 생각해도 괴로운 순간이었다.

예님은 제가 그렇게 웃음이 없는 도깨비인줄 몰랐다.

베라와 소피아는 허리춤에 있던 칼을 뽑아들고 대련을 하기 시작했다.

지쳐있던 기색의 예님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베라는 두꺼운 검 하나로 소피아의 쌍검을 상대했다.

챙챙,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가 훈련장을 가득 채웠다.

모래바람이 날아오자 노아가 손을 올려 예님의 코와 입을 살짝 막아줬다.

챙!

세 개의 검이 맞물렸다.

베라와 소피아가 눈빛을 교환했다.

노란색 빛과 붉은색 빛이 칼날을 휘감았다.

빛이 점점 커지며 팽창했다.

서로가 서로를 튕겨냈다.

그리고 다시 순식간에 검의 날들이 맞물렸다.

챙!

두 색깔의 빛이 서로를 휘감았다.

검의 각도가 점점 기울어지더니 다시 서로를 튕겨냈다.

칼을 휘감았던 빛이 번쩍이는 동시에 사그라들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제자리로 돌아온 소피아와 베라가 거친 숨 한 번 몰아 쉬지 않고 가벼운 몸짓으로 칼을 칼집에 꽂았다.

그리고 예님과 노아를 향해 경례했다.

“재밌게 보셨나요, 아가씨?”

베라가 생긋 웃었다.

“우와...”

예님은 떡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노아가 커다란 손으로 얼굴을 가려주지 않았다면, 모두에게 추한 모습을 보였을 거다.

노아는 훈련장의 먼지가 가라앉고 나서야 손을 내려줬다.

그 모습을 보고 까마귀의 모두가 감탄을 내뱉었다.

“보여드릴게 이런 것밖에 없어 죄송할 따름입니다.”

소피아의 겸손한 태도에 기사단이 있는 곳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다.

“우우, 반칙입니다! 저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다시 하겠습니다! 마스터, 기회를 주십시오!”

단장이 모두를 조용히 시켰다.

노아가 예님에게 물었다.

“이자들이 마음에 드는가.”

“응…!”

당연한 대답이었다.

그녀들은 훌륭했다.

수도까지 7일.

예님은 충격적인 통보를 받았다.

“저는 아가씨와 함께 수도로 갈 수 없답니다.”

카손이 더 이상 예님의 곁에 머물 여력이 되지 않는단다.

이제 그녀는 본래의 일터로 돌아가야 했다.

가이아 유일의 태지천어 통역사, 제1 태지천어 통역사인 카손은 예님의 생각보다 몇 배로 바쁜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카손은 유일하게 말이 통하는 사람이고… 태지천의 문화도 잘 알아서 좋고... 카손 날 떠나지 말아 주렴…! 네 소원이라면 매일매일 이루어 줄 수 있단다!〉”

“제 소원은 예님께서 무사하시고, 행복하신 겁니다.”

카손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새하얀 백발과 주름진 살결.

그녀의 온화함 미소에는 60여년의 시간이 담겨있었다.

인간들은 나이가 먹을 수록 그들의 겉모습에 지나온 삶이 그대로 담겼다.

예님은 인간들의 시간을 참 경이롭다 여겼다.

고운 마음씨를 가진 그녀는 예님이 가장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

카손은 어릴 적 몽베르 섬에서 몽블라체의 후원을 받아 항구에서 태지천의 사람들로부터 태 지천 어를 배울 수 있었다.

평민 여성에게 무언 갈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니었다.

배움의 의지가 강했던 그녀는 앞뒤 가릴 것 없이 주저하지 않고 태지천의 세계에 뛰어들었다.

젊었던 그때 홀로 다녀왔던 태지천의 유학.

생김새부터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의 험난한 생활이었지만, 절대로 후회하지 않았다.

물론, 아무런 정보도 없이 맨몸으로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무척이나 외롭고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값진 일이었다.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된 기분은 어느 때라도 이뤄 말할 수 없었다.

“〈네가 내 곁에 없으면 누가 가이아 어를 가르쳐준다니!〉”

카손은 울상인 예님을 꼭 끌어안았다.

그녀의 나긋한 목소리에 예님은 눈을 감았다.

“저도 헤어질 생각 하니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카손...우리 같이 있을 수 없습니까? 방법 없다?”

“지금으로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영영 못 보는 것은 아니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으응...”

예님은 카손의 포근한 향기를 마시며 함께 끌어안았다.

수도가 그리 멀지 않다니, 노아와 함께 놀러 오면 언제든지 볼 수 있을 것이다.

“수도로 가면 각하께서 좋은 교사들을 불러주실 겁니다. 이제 기초적인 것은 대부분 터득하였으니, 초등 교육 과정으로도 잘 배우실 거예요.”

“〈열심히 해서 첫 스승인 카손 덕분이라고 말하고 다닐 거다!〉”

카손이 못 말린다는 듯 웃었다.

“그러면 정말 감동할 것 같아요. 부탁해요, 아가씨.”

똑똑,

누군가 예님의 방으로 찾아왔다.

낯선 기척이었다.

노아도, 제제도, 하녀도 아닌 것 같고...

“딱 맞춰서 왔네요. 아가씨,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다고 했지요?”

참! 그랬었지!

오늘 아침에 카손이 육지에서 손님이 올 것이라 했다.

새로운 친구가 생길 기회이므로 잔뜩 기대하고 있던 참이었다.

카손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다.

그녀는 허리가 좋지 않아 지팡이를 짚고 다닌다고 했다.

예님은 문으로 향하는 카손의 뒷모습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소원 욕심이 없기론 노아와 비슷하니, 가기 전에 선물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복주머니에 쓸만한 것이 있으려나.

“들어오렴.”

카손의 목소리에 문이 달칵 열렸다.

하얀 머리카락이 빼꼼 등장하더니, 잔뜩 긴장한 목각 인형 같은 소년이 삐그덕 삐그덕 걸어 들어왔다.

“〈아, 안녕하세요!〉 카이 에드가일 입니다! 12살입니다!”

“오, 안녕...?”

노아보다도 까무잡잡한 피부가 소년의 수줍은 마음을 대변하며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제비꽃 눈동자가 예님의 얼굴을 흘끗 보더니 게눈 숨듯이 고개를 푹 숙여버렸다.

“긴장했구나, 카이.”

부드러운 웃음을 머금은 카손이 지팡이를 짚고 카이에게로 다가가 어깨를 토닥였다.

그리고 예님을 향해 소개했다.

“저 대신 수도에서 아가씨를 도울 아이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카이가 꾸벅 인사했다.

“할머님께서 많이 이야기해주셨습니다! 굉장하신 분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각하와 상의하여 제 손주인 카이를 아가씨를 가장 곁에서 돕게 하기로 했답니다. 현명하고 어른스러운 데다 제 영향인지 태지천에 관심이 많은 아이랍니다.”

카손의 손주라니, 닮았다!

하얀 머리에, 하얀 머리에, 하얀 머리에...

닮은 건 백발 뿐이었다.

잠깐, 그럼 카손의 머리카락이 세월로 인한 흰머리가 아니라 원래 하얀색이란 말이야…?

“백발이 아니라 은발인데요...”

카이가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카손이 두 사람이 친해지길 바란다며 방을 떠난 후 나온 카이의 첫 마디였다.

그 첫마디는 먼저 질문을 건네었던 예님의 머릿속을 거세게 휘몰아치고 가기에 충분했다.

“카손, 카이... 머리 색... 흰색 아니에요?”

“이건 은색인 걸요...”

“나 보여요, 머리 흰색... 은색 아닙니다…!”

“자세히 보세요... 흰색이랑은 다른 걸요...?”

카이가 고개를 숙이더니 제 정수리를 보여주었다.

원한다면 만져도 좋다는 듯이 몇 가닥을 집어 내밀어 주기도 했다.

사실 예님의 눈엔 백발이나 은발이나 다를 것 없어 보였지만, 카이의 머릿결 만큼은 남달라 보였다.

머리카락이 반들반들 빛이 났다.

값비싼 비단이 머리 위에 얹어진 것 같았다.

어이쿠! 무심코 카이의 머리카락을 매만진 예님은 깜짝 놀랐다.

손가락이 빙판 위에 서 있는 두 발처럼 발라당 미끄러진 것이다!

“느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매일 빗겨주셔요. 오늘도 빗겨주셨어요... 하녀 누나들이 빗겨주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카이가 발그레 물든 얼굴로 자랑했다.

제 어미가 그리 좋은가 보다.

보기 좋은 모습에 예님의 마음도 덩달아 신이 났다.

“어머니께서 그러셨는데 할머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래요... 모계 유전이라 나중에 제 아이는 은발이 아닐 수도 있대요... 아, 모계 유전은요... 어머니 쪽에서...”

오밀조밀 말하는 것이 꽤 수다스러운 아이였다.

예님은 흐뭇한 표정으로 카이가 말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예님이 가이아 어에 서툰 것을 고려하여 어려운 단어는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데, 그 마음씨가 참 어여뻤다.

카이는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었다.

처음엔 긴장감에 몸 둘 바 모르고 우왕좌왕하다 코피까지 흘렸으니 말 다했다.

소년의 하얀 셔츠 위엔 코피 자국이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그래 놓고 지금의 멀쩡한 얼굴을 보니 웃음이 나왔다.

“맛있어요?”

끄덕.

예님은 카이가 두 손에 꼭 쥐고 있는 초콜릿 우유를 보았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라더니, 초콜릿 우유를 받자마자 잔뜩 긴장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순둥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달콤한 초콜렛 향과 함께 최상의 평온한 상태가 된 소년의 입가엔 작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여전히 예님과 눈을 마주치면 살짝 움찔하지만 하고 싶은 말만큼은 꼬박꼬박 잘했다.

“나 도깨비, 알아요?”

“할머니께서 알려주셨어요...”

“도깨비 무엇인지 압니까?”

“엄청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멋진 존재라고 들었어요... 예님 엄청 세요, 그렇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나 엄청 셉니다! 강합니다!”

예님이 허리춤에 손을 올리고 어깨를 으쓱이자 카이가 입을 떡 벌렸다.

“우와...”

아무것도 아닌 데도 반응이 굉장하다.

“도깨비님은 무술도 잘해요?”

“당연합니다.”

“그럼... 마법은요?”

“비슷한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음, 공부는요?”

“머리 똑똑합니다.”

“와아, 그럼 지금까지 책은 몇 권이나 읽었어요?”

“몰라요, 너무 많아요.”

“와... 저는 391권밖에 못 읽어 봤는데... 대단해요...”

카이의 옅은 보라색 눈빛이 초롱초롱하게 빛났다.

예님은 카이의 순수함에 감탄했다.

카이는 느끼는 그대로의 감정을 표현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표정에 감정이 다 드러나는 백지 같은 얼굴이었다.

12살이라면 영악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법했는데, 예님이 좋아하는 아이 특유의 감성이 때 묻지 않고 깨끗해 보였다.

예님은 어디를 가든 어린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지만, 카이처럼 바르게 자라고 있는 아이를 만나는 건 드물었다.

아이들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배우는 것이 빨랐기에 예님의 바람과는 달리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 나이보다 먼저 어른이 되어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예님은 카이가 조곤조곤 말하는 모습을 재미있게 바라봤다.

얼핏 보아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아, 그리고요. 할아버지께서 그러셨는데요... 할머님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모습이 엄청 멋있어서 쫓아다니셨데요... 사실 할머니는 평민이시고, 할아버지는 귀족이시니까... 할머니께서 엄청 고민하셨데요... 저는요, 두 분이 결혼하신 게 되게 멋지다구 생각해요... 사랑은 무엇도 막을 수 없잖아요.”

“사랑은 무엇도 막을 수 없어요?”

어린아이가 제법 그럴듯한 말을 했다.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에요...”

“어른들도 그거 잘 모릅니다. 카이 똑똑해요.”

“으음, 당연한 걸요... 저는 가족들을 사랑하니까 유령도 안 무섭거든요.”

“우와 대단해.”

예님이 대단하다는 듯이 엄지를 추켜세우자 카이가 쑥스럽다는 듯 고개를 숙여 초콜릿 우유를 마셨다.

어린아이들은 가끔 어른들이 놓치고 살아가는 것을 콕 집어 말할 때가 있었다.

그럴 때면 어른보다 더 어른스러워 보인달까.

카이 에드가일은 카손이 귀족과 결혼하여 낳은 딸의 아이였다.

그녀에게 다 자란 남매가 있단 것은 알고 있었으나 어떤 가정을 꾸리고 사는지는 몰랐다.

평민과 귀족의 사랑 이야기는 예님에게도 낯설지 않은 주제였다.

카손이 고생이 많았겠구나.

카이의 말처럼 사랑의 힘으로 버틸 수 있었다면 반려자 역시 좋은 사람이었을 터였다.

“있잖아요, 도깨비님… 할아버지께서 할머니 보고 싶다고 저 따라오시려고 했는데, 할머니께서 엄청 무섭게 안된다고 하셔서 할아버지께서 막 제 동생처럼 떼쓰시면서 우셨어요...”

카이가 작게 키득 이며 말했다.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나 보다.

그리고 예님은 카손이 저와 함께 있던 날들을 회상하며 카손이 가족을 보러 간 적이 없었단 사실을 깨달았다.

예님이 말을 배우겠단 심보로 카손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던 시간이 얼마나 많은가.

덕분에 집에 가서 가족을 보지 못했을 그녀를 생각해지니 한없이 미안해졌다.

카손에게 갚아야 할 은혜도 노아 못지않았다.

예님은 또 한 번 카손에게 큰 빚을 졌음을 인지했다.

사랑을 가득 받고 자란 카이에게 가족은 큰 의미였다.

그 의미는 카이의 생각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 어렴풋 짐작할 수 있었다.

어제는 뭐했니? 라고 물어보면 부모님과 동생이 무엇을 했는데, 로 시작해 온 가족이 어땠네,로 이어지며 수많은 이야기를 쏟아냈다.

이야기를 할 때면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즐거운지 입꼬리가 내려올 생각을 안하더라.

낯을 가리던 홍당무 친구는 어디로 갔는지 예님의 앞에는 이것저것 신나게 떠드는 이야기꾼만 앉아있었다.

“카이, 친구들은요? 뭐 하고 놀아요?”

카이의 가정사를 어느 정도 파악한 예님은 이제 이 사랑 가득한 소년의 교우관계가 궁금했다.

귀여운 친구와 친해지고 싶어서일까?

예님은 카이가 평소에 무얼 하고 지내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일상을 오목조목 떠드는 목소리로 하나하나 들어보고 싶었다.

“친구들이요…?”

친구들과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잔뜩 상기되어 있던 얼굴이 금세 시무룩해진다.

예님은 덩달아 긴장했다.

우리 귀여운 카이, 혹시 교우 관계에 문제라도 있는 걸까?

“사실, 아카데미에서요... 아, 아카데미는 친구들이랑 같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선생님들께 수업을 듣는 곳인데요... 친구들이 매일 저를 두고 다퉈요...”

친절한 설명과 함께 카이의 고민 고백이 시작되었다.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이 여자, 남자로 갈라져서 자꾸 서로 저를 데리고 가려고 해요... 저는 양쪽 다 같이 놀고 싶은데 매일 애들이 한쪽만 고르라고 해서 너무 힘들어요...”

강아지의 귀가 히잉 하고 처지듯이 카이의 어깨가 터 추욱 늘어졌다.

예님은 귀여운 고민에 입술을 앙다물었다.

웃으면 안 된다.

카이에겐 심각한 고민이라고!

아이가 순하고 귀여우니까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은가 보다.

심각하기는커녕 앙증맞은 고민에 오히려 기분이 좋아진 예님이었다.

고민 상담은 카이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을 기회였다.

카이의 친구들은 여자아이들과 남자아이들이 하고 노는 놀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듯했다.

실내에서 노는 것을 좋아하는 여자아이들과 몸 쓰고 뛰어놀기를 좋아하는 남자아이들.

그 사이에서 카이는 무엇을 하던 반 친구들과 함께 놀고 싶어하는 아이였다.

“여자 친구들 사이에서는 자수가 유행이에요... 저도 바느질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잘해서 같이 하고 싶어요. 아, 친구들이 가르쳐 달라고 할 때도 있어요...!”

“남자 친구들 자수 싫어요?”

“네, 자수는 여자애들이나 하는 거라면서 하기 싫대요..."

“카이가 여자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싫어요?"

“공놀이할 때 제가 없으면 다른 반 친구들한테 진다면서 슬퍼해요. 그럼 무척 난감해요. 자수만큼 공놀이도 되게 좋아하고 또 잘하거든요...”

카이는 싫어하는 것도 없고 못 하는 것도 없고 아주 기특한걸?

“다 같이 놀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예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꽤 간절했다.

누군가가 보면 속 편하고 사소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카이의 입장에서는 정말 골치 아픈 일이었다.

예님은 진지하게 카이의 고민 해결을 위한 방안을 떠올려 보고자 했다.

턱을 만져보기도 하고, 관자놀이를 콕 짚어보기도 하고, 다리를 달달달 떨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엄지를 질근 물려는 때에 예님이 아하! 하고 목소리를 냈다.

카이가 기대에 가득 찬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다.

“다 같이 놀이, 재미있는 놀이 있어요. 알려줄까요?”

“다 같이할 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요?”

예님의 머릿속에 떠오른 놀이가 있었으니!

예전에 태지천에서 꼬마 친구들과 즐겨했던 숨바꼭질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같은 단체 놀이었다.

여럿이 할 수 있는 놀이를 생각해서 함께 한다면 남녀로 나뉠 것 없이 뒤섞여 친해질 수 있을 터였다.

예님은 복주머니에서 종이 묶음을 찾아내어 꺼냈다.

그녀가 새로운 놀이를 알게 될 때마다 이것저것 기록을 해놓은 것이었다.

이 기록들이 언젠가 쓸모 있을 줄 알았다.

예님은 태지천 어를 읽지 못하는 카이를 위해 온갖 손짓 몸짓을 해가며 태지천의 놀이를 설명해줬다.

카이는 그런 단체 놀이를 다 함께해볼 생각은 못 해봤다며 예님의 제안을 굉장히 좋아했다.

“이 중에는 술래잡기처럼 제가 시종들이랑 해본 놀이랑 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귀족 친구들이 대부분이라 이런 놀이는 많이 안 해봤을 거예요. 모두 재미있어 해주겠죠?”

카이가 말하길 그의 친구들은 어릴 적부터 엄격한 예절 교육을 받아 이렇게 뛰어노는 놀이를 해본 적이 없을 것이란다.

“아! 그러고 보니까 친구들한테 오늘 아카데미에 못 간다고 말하는 걸 깜박했어요...! 어떡하죠?”

“괜찮아요, 맛있는 거 주면 괜찮아요.”

예님은 카이의 걱정에 가볍게 해결책을 제시했다.

여린 잎들의 우정에서 먹을 것이 오간다면 서운한 일쯤은 금방 풀리기 마련이다.

“도깨비님 완전히 똑똑해요! 막 속 시원한 답이 나오고 진짜 진짜 신기해요…!”

카이가 양손의 엄지를 치켜세웠다.

“쉿, 이제 도깨비님 하면 안 돼요. 나 예님이에요.”

“맞다... 할머니께서 이제 공녀님이시니까, 예님 아가씨라고 부르라 하셨어요. 죄송해요…!”

예님의 지적에 카이가 화들짝 놀라며 사색이 됐다.

귀엽기는.

“노아네 주방에 맛있는 거 많아요. 친구들 줄 맛 난 거 가지러 가요.”

예님이 일어서 방을 나서려 하자 카이가 살짝 머뭇거렸다.

낯선 곳을 갈 생각에 또 긴장되는 기색이었다.

예님은 웃으면서 손을 내밀었다.

“과자 진짜 맛있어요.”

카이는 예님의 하얀 손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도깨비님의 손은 저보다 작았지만, 굉장히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카이는 주저 없이 예님의 손을 꼬옥 잡았다.

“처음 보는 사람 괜찮아요, 다 내 친구입니다.”

혹여 또 낯을 가릴까 봐 예님이 당부했다.

카이는 예님의 의젓한 모습을 무한히 신뢰하기로 했다.

예님은 최강 도깨비님이시니까!

방을 나서기 위해 일어서자 카이는 예님의 정수리를 내려다볼 수 있었다.

키가 아버지 손으로 한 뼘 정도 차이가 나는 듯했다.

또래 친구들보다 키가 큰 카이에게는 익숙한 일이었다.

예님의 걸음걸이는 굉장히 빨랐다.

평소 느긋하게 걸어 다니는 카이는 그녀와 속도를 맞추기 위해 보폭을 빨리 움직이며 애를 써야 했다.

두 다리만 바쁜 것이 아니었다.

그의 두 눈동자도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에스티엘라 성이었다.

유명한 건축가 아티테옹의 걸작이라고 일컬어지는 에스티엘라 성!

소중한 영광을 품에 안았으니, 그 영광에 감사하며 제대로 봐두어야 했다.

반짝이는 하얀 벽과 화려하고 신기한 장식품들은 카이의 시선을 끌 만했다.

예님은 그런 카이를 눈치채고 과자가 먹고 싶어 서두르던 걸음을 천천히 늦추었다.

카이의 발을 멈춰 세운 것은 1층의 벽화였다.

모든 것이 하얀 성에 유일하게 나무판자로 이루어진 벽에 화려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우와...”

예님은 카이가 벽화 앞에 멈춰서 따라오지 않자 고개를 기울였다.

“그림 멋있어요?”

용이 정말 멋있게 그려진 그림이긴 했다.

“아까 들어올 때는 못 봤는데 여기 있는 줄 몰랐어요... 에스티엘라 성에 와서 이 그림은 꼭 보고 싶었거든요.”

“이걸? 왜요?”

“역사책에 나오는 유명한 벽화예요. 저희 제국의 탄생을 그려 놓은 그림인데요, 몽블라체 공작가의 선조 님께서 그려 놓으신 걸 여기 에스티엘라 성에 보관해둔 거래요.”

역사가 담긴 유명한 벽화라고?

눈을 반짝이며 말하는 카이의 말에 예님은 깜짝 놀랐다.

예전에 노아와 함께 한 번 본 뒤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나다녔던 벽이었다.

그림의 내용을 대충 유추해보자면 검은 머리의 사람과 노란 머리의 사람이 용을 해치우고 빛나는 검을 얻는 내용이었다.

그때 노아가 이 벽화에 관해 설명해 준 것 같긴 한데, 가이아 어를 모를 때라 한 귀로 흘려듣고 넘어갔더랬지.

“이 벽화는 책이 아니면 이곳에서밖에 볼 수 없어요.”

중요한 역사가 기록된 유물이라니 예님은 벽화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었다.

“카이, 더 말해주세요. 역사!”

“으음, 약 900년 전 이야기예요. 저 검은 머리 사람들은 몽족이에요, 몽족은 지금의 몽블라체 공작가의 조상님이에요. 그리고 노란 머리 사람들은 샤인족이예요. 옛날 사람들은 머리카락 색이 같은 사람들끼리 무리를 지어 살았데요. 종족끼리 막 경쟁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드래곤이 나타났대요. 드래곤이 사람들을 괴롭히자 힘이 센 몽족과 머리가 좋은 샤인족이 힘을 합치기로 했어요. 두 종족의 힘으로 드래곤이 쓰러지고 샤인족은 몽족과 함께 국가를 세우기로 해요. 그 나라가 지금의 웰츠가 된 거예요.”

예님이 유추해보았던 내용과 얼추 비슷한 이야기였다.

노아의 가문이 이 나라에서 굵은 뼈대를 가지고 있단 걸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저 빛나는 검은 뭐지?

예님은 쓰러진 용 앞에서 몽족이 들고 있는 빛나는 검을 유심히 보았다.

앞선 그림엔 저 검이 그려져 있지 않았으니까.

모든 그림이 유추하기 쉽게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존재감이 확실한 검이 갑자기 나타난 모양이 어색하게 보였다.

“저 검으로 드래곤 무찌른 거예요?”

“네, 몽블라체는 멋진 검사들이 많은 가문이거든요!”

그러고 보니 노아와 테오르는 항상 몸에 칼을 지니고 있었다.

얼추 느껴지는 기백이 멀리서도 그들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대단했지.

“아가씨.”

카이가 벽화 말고도 주변에 전시된 갑옷과 같은 장식품을 구경하기 바쁠 때였다.

카손이 두 사람을 찾아왔다.

“방으로 가려 했는데 여기 계셨네요. 재밌는 시간 보내셨어요?”

“응, 카이 나의 친한 친구입니다.”

예님은 카이와 잡고 있던 손을 흔들어 보였다.

“카이가 많이 긴장해서 걱정했는데 다행이네요. 카이도 많이 즐거웠던 것 같구나.”

“네, 예님 아가씨 정말 대단하셔요.”

카손은 미소와 함께 카이의 은발을 쓰다듬었다.

“아쉽지만 오늘은 이만 헤어져야 할 것 같아요. 카이가 이제 돌아가 봐야 한답니다.”

“벌써?”

“벌써요?”

동시에 두 사람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서운함을 비췄다.

“메이론에서 텔레포트를 준비한다고 하니 지금 출발해야 한단다.”

“우리 더 놀고 싶습니다!”

“카이가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이틀이나 아카데미에 빠질 수는 없다네요.”

예님이 입술을 빼쭉 내밀었다.

오랜만에 사귄 어린 친구라 그만 놀아야 하는 것이 굉장히 아쉽게 다가왔다,

“지금은 헤어지기 싫어도 다음 주면 매일 같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정녕 가야 하다니...

예님은 떨어지지 않는 손으로 어렵게 카이를 놓아주었다.

수도에서부터 먼 길 왔다는 아이를 겨우 하루 있다 보내는 것에 마음이 불편했다.

지도를 보았을 때 수도와 몽베르 섬엔 산봉우리 하나가 있었다.

마차를 타고 가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리니 힘든 여정이 될 것이었다.

왔다 갔다 하느라 수고가 많구나, 또 얼마나 고생할까.

며칠 후에야 텔레포트라는 마법을 통해 금방 수도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예님이었다.

그녀는 카이가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주방에 가서 맛있는 다과를 챙겨왔다.

가면서도 먹고 친구들이랑도 나누어 먹으라고 두둑한 양이었다.

“잘 가.”

예님이 카이의 품에 과자 상자를 안겨주며 인사했다.

“곧 뵐게요, 아가씨.”

제비꽃 눈이 보기 좋게 휘어졌다.

사랑이 흘러넘치는 아이다.

예님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카이를 배웅했다.

태양의 포근한 주황빛이 세상을 물 들이고 있었다.

카이가 탄 마차가 달그닥 말발굽 소리를 내며 굴러간다.

결 좋은 은발과 고사리 같은 손이 힘찬 인사를 보내온다.

기분 좋은 헤어짐이었다.

수도로 가기까지 6일.

에스티엘라 성에서의 생활이 일주일도 채 안 남았다.

예님이 할 만한 준비는 특별히 없어 평소처럼 사용인 친구들과 놀거나 말 공부를 했지만, 노아는 제제와 함께 여전히 바빠 보였다.

“탑의 주인이 사라지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함께 차나 마실 겸 들린 집무실에서 본 노아는 어떤 구슬과 함께 말을 하고 있었다.

구슬은 멀리 떨어진 사람과 얼굴을 보며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마법 도구였다.

마른세수하는 노아의 눈빛에 상당한 화가 앉아 있었다.

그는 고위급 관료였다.

직책이 엄중한 만큼 다루는 나랏일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거다.

예님은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차 마시는 시간을 미루기로 했다.

문을 닫고 나가기 전 예님은 하녀가 들고 있던 쟁반 위의 케이크를 집어 들고 노아의 책상 앞으로 갔다.

케이크 한 조각을 슬그머니 올려놓고 나올 생각이었다.

일하는 데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 얼른 뒤를 돌고 나오려는데, 큼직한 손이 책상 위에 올라온 팔을 잡아왔다.

“미안하다.”

노아가 나직이 말했다.

그의 눈썹 끝이 살짝 내려와 있었다.

함께 차를 마시지 못하는 것이 아쉬운가 보다.

예님은 고개를 저었다.

“먹으면서 해요.”

웃으며 노아를 격려했다.

“{얼마 전 방에 들어오지 말란 말을 하고 문을 잠근 뒤로 며칠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하가 걱정돼서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 탑의 주인이 사라지고...}”

구슬 속 목소리는 쉬지 않고 이어졌다.

“고마워.”

예님은 노아의 손등을 토닥였다.

노아는 예님을 향해 살짝 미소를 보인 뒤 다시 구슬 속 목소리와 대화를 이어갔다.

“그게 정확히 며칠이나 되었는지 알아보았나. 어째서 아무도 그의 행적을“

예님은 조심스레 집무실을 나섰다.

그리고 문을 닫기 전 노아를 향해 속삭이듯 외쳤다.

“힘내!”

수도 샤인으로 가기까지 5일.

예님은 제제에게 간단한 상식을 배우기로 했다.

심드렁하게 예님의 방을 찾아온 제제는 귀찮음을 역력히 드러내며 대충 생각나는 것을 종이에 끄적이며 말했다.

제일 먼저 귀족들의 계급이 나누어져 있으며 몽블라체는 3대 공작가 중 한 곳이란 것.

이미 카손에게 들어 알고 있는 사실 이었지만, 제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다.

“절대 먼저 인사하지 마세요, 알았죠?”

몽블라체의 힘은 황제와 거의 비등하니 어딜 가든 먼저 인사를 해선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다.

계급이 낮은 쪽이 먼저 인사를 하는 것이 웰츠의 예절이란다.

몽블라체 사람도 먼저 인사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황족이었다.

그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은 꽤 어려웠다.

양손으로 치마를 살포시 들어 올리며 무릎을 살짝 굽혔다가 펴고 고개를 꾸벅.

“이렇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보세요.”

제제 녀석이 말로만 이래라 저래라 해서 짜증이 났다.

“이렇게?”

“치마는 살짝만 잡으시라니까요.”

결국, 참다못한 예님이 제제의 정강이를 발로 찼다.

그제야 제제가 의자에서 엉덩이를 떼고 제대로 가르쳐주더라.

“가이아의 가호가 함께하시기를.”

“이제야 잘하시네요.”

진작에 성의껏 알려줬으면 됐잖니!

예님은 한 번 더 제재의 정강이를 찼다.

“본인이 못하시는 걸 자꾸 제 탓을 하시네.”

제제는 이제 아픈 척을 하는 것도 지쳤는지 먼지가 묻은 바짓단만을 능청스럽게 툭툭 털어낼 뿐이었다.

“제제에겐 가이아의 가호가 함께하지 않기를.”

예의상 하는 이 인사말은 서대륙에서 통용되는데, ‘가이아’는 서대륙을 돌본다고 전해지는 신의 이름이라고 한다.

“백금발에 황금 눈은 무조건 황족이니까 꼭 인사하시고요. 머리만 백금발이라거나 눈만 황금색인 사람은 딱히 쓸데없으니 무시하셔도 됩니다.”

“백금발이 무슨 색입니까?”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예술이라던가 미관에 관심이 없는 예님에게는 색깔이라곤 빨주노초파남보 흰 검이 전부였다.

그래서 카손의 머리카락 색도 은색이 아니라 흰색으로 치부해 버린 것이고, 제제의 머리 색도 그저 달콤할 것 같은 분홍색이지 연분홍색이라는 단어로 말하지 못했다.

세상 아래 같은 분홍색 없다지만 예님에겐 다 같은 분홍색이었다.

그냥 금발과 백금발이라던가, 진갈색과 적갈색, 진홍색과 분홍색 등을 구별하는 것은 예님에겐 곤란한 일이었다.

비슷비슷한 색을 꼭 구별해서 말해야 하나?

가이아는 머리카락 색과 눈동자가 너무 다양해서 문제다.

게다가 귀족들에겐 머리카락 색과 눈동자가 출신을 알려주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니, 여간 신경 써야 할 것이 아니었다.

“그 왜... 노란색인데 흰 끼가 도는 색깔 있잖아요.”

“음, 그 레몬이라는 과일처럼?”

“그것보다도 더 옅습니다.”

“저기 바닷가의 모래보다?”

“그것보단 더 노랗고 밝죠”

“모르겠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백번 말해봤자. 보면 알 거예요. 왜 룬님 머리카락 색처럼 말입니다. 아, 진작에 룬님을 예로 들걸. 둘이 친하잖아요.”

“룬 머리 백금발입니까?”

“네, 그 거예요. 백금발에 황금 눈. 룬님 같은 사람 보면 황족인 줄 아시고 먼저 인사하면 됩니다.”

그렇구나!

예님은 펜을 끄적여 공책에 적었다.

룬의…머리…색은…황족... 인사할…것…!

“뭐, 황후라던가 황족 구성원들은 나중에 얼굴 볼 때 옆에서 알려줄 겁니다. 그때 익히시면 되고 오늘은 상식만 배우는 거니까. 다음은...”

예님은 제제가 설명해주는 곧이곧대로 받아적으며 머리에 집어넣었다.

룬과 같은 백금발은 황족이고, 그 외에 조심해야 할 머리카락 색은 딱히 없음.

마법사들은 수도에 있는 가장 높은 탑에 모여 사는데 거긴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지 말 것.

가이아에는 마력뿐만 아니라 신력이란 것도 있다.

돈 단위는 골드 실버 등등이 있는데 볼 일 없으니 밑에 단위는 몰라도 됨.

귀족들은 웃으면서 돌려 까니 무조건 웃는다고 같이 좋아하지 말 것.

무언가 먹을 때는 식사 예절을 반드시 지킬 것.

등등등…

“참 쉽죠?”

예님은 가이아어 공부 공책 맨 뒷장에 적힌 글자들을 쭉 훑어보았다.

어째, 한 두 개를 빼면 그리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 내용이다.

대부분 수도에 가서 몸소 겪으면 저절로 알게 될 그런 것들.

이거면 됐다는데, 정말 된 것인지 괜히 찜찜했다.

“대충 아닙니까? 너무 쉽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끝났으니까 저 좀 쉬고 가도 되죠? 아아, 일하기 싫다.”

예님은 테이블에 철퍼덕 엎드린 제제의 머리카락을 쭈욱 잡아당겼다.

“쓰읍, 나가십시오! 일해!”

“너무하십니다!”

노아도 열심히 일하는 데 네 녀석이 농땡이 치는 것은 못 봐준다!

속 거먼 요물 제제에게는 인정사정 없는 예님이었다.

수도로 가기까지 4일.

오늘은 노아가 조금 여유로워졌는지 예님을 불러 와인을 대접했다.

예님은 노아와 함께 와인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샤인은 어떤 곳입니까?”

“이곳보다 훨씬 빠르게 굴러가는 곳이지.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다양한 시간이 흐르지. 어떤 이들은 살아있는 도시라고도 하더군. ”

살아있는 도시라.

매력적인 표현이었다.

노아가 말하길, 수도에 있는 몽블라체 소유의 벨루치아 성은 새하얀 에스티엘라 성과는 다르게 다채로운 색을 띈다고 한다.

크기가 훨씬 큰만큼 일하는 사람도 많고 장소도 다양해서 노아는 예님에게 길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조언을 했다.

또한 수도에 가서 가장 기대 되는 부분 중 하나는 노아의 또다른 가족들이었다.

위로 두 명있는 누나들과 그 자식들은 벨루치아 성에 같이 사는 건 아니었지만, 수도에 모여 살아 마주칠 일이 자주 있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조카들이 한창 까칠한 나이라 조심하는 게 좋겠다.”

한 살 터울의 남자 조카들은 예님보다 노아의 커다란 손바닥 한뼘만큼 크고 덩치도 산만한가 보다.

노아의 속내를 듣자하니 갓난 아기 땐 귀여웠는데 십 대 중반이 되어버린 조카들은 볼 때마다 훌쩍 커 있어 징그럽단다.

조카 녀석들은 서로 사촌지간이지만, 여느 형제와 다름없어서 서로 사이가 무척 안 좋으면서도 좋다고 한다.

예님은 노아의 조카들을 빨리 만나보고 싶었다.

테오르와 노아를 쏙 닮았다는데, 똑같이 생긴 가족이 모두 모여있으면 얼마나 신기할까 궁금했다.

이제 수도로 가기까지 3일 뿐이 안남았다.

마음이 설레어서 그런지, 하루하루가 참 천천히 굴러갔다.

무료한 마음에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방을 나서던 예님은 때마침 그녀를 찾아오던 테오르를 발견했다.

테오르는 노아 대신 예님을 놀아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다.

“예님아! 할아버지와 백화점에 가자꾸나!”

“앗싸!”

오랜만에 나가는 성 밖이었다!

예님은 신나게 마차에 올라탔다.

“할아버지 뭐 사러 갑니까?”

“오랜만에 보는 할아버지 친구들 선물 좀 사려고 한다. 예님이가 같이 골라 주겠니?”

친구라는 단어에 예님은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쯤이야 얼마든지!

예님은 테오르의 손을 잡고 백화점에 들어섰다.

그리고 곤란해졌다.

무엇에 쓰는지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어떤 것이 선물로 좋은지 감조차 잡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우리 예님이 보는 눈도 훌륭하구나! 이거 다 포장해주시오.”

그런데 테오르는 예님을 칭찬하며 선물을 구매하기 바빠 보였다.

난 아직 고른 것이 없는걸?

깜짝 놀란 예님은 테오르가 무얼 사나 들여다보았다.

그녀가 괜찮다고 하거나 관심을 보인 물건들을 죄다 구매하는 중이었다.

예님은 제가 눈길을 3초 이상 둔 물건들이 테오르의 장바구니에 들어가는 것을 알아차리고 기겁을 했다.

세상에나!

“이렇게 많이…?”

“그럼, 그럼. 다 선물로 줄 것이란다. 좋은 일이 생겼으니 여기저기 알려야지.”

테오르는 예님이 골라준 선물을 친구 녀석들에게 돌리며 잔뜩 자랑할 셈이었다.

내 손녀가 골라줬다! 하고 지난날의 설욕을 풀 생각을 하니 벌써 기분이 날뛰었다.

예님은 테오르를 말릴까 생각하다가 그가 굉장히 즐거워 보이는 것 같아 내버려 두기로 했다.

한편, 백화점 직원들은 기시감을 느꼈다.

어쩐지 오늘, 몽블라체 공작이 몇 달 전쯤 기록했던 전설의 매출량을 다시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수도 샤인으로 떠나기 하루 전.

예님은 모두가 잠든 새벽 아무도 없는 옥상에서 술을 한 잔 마셨다.

수도에 가면 예님은 태지천에서 온 무역선이 난파되며 부모를 잃은 10살 소녀로 노아의 후원을 받는 어린아이가 된다.

연극 속의 배우가 되는 기분이었다.

그녀를 주시하는 시선이 많아져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해야 할 터였다.

분명 재밌을 테지만 한편으론 지금보다도 더 술을 못 마신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불편했다.

그래서 그런가? 목을 넘어가는 술이 전보다 몇 배 더 맛있게 느껴졌다.

오늘만큼은 혼자서 마음껏 술을 즐기고 싶었다.

매일 보아도 아름다운 옥상의 전경과 기막힌 술맛에 절로 노래가 흥얼거려졌다.

예님은 나무꾼의 가락을 첫 소절을 뽑아냈다.

역시 높은 곳에서 탁 트인 하늘을 볼 때 분위기에 취해 부르기 좋은 노래였다.

엣취

저 멀리서 선녀님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고요한 새벽에 하늘이 맑게 트인 곳에서는 선녀님의 기침 소리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사실 이곳 하늘에 사는 존재들이 동대륙을 담당하던 신들과 같을 것이라 확신할 수는 없었다.

서대륙은 모든 것이 다른 곳이니까.

엣취

어찌 됐든 재채기 소리는 생생했다.

우렁찬 재채기의 주인이 누군지 알 수는 없었지만, 감각이 뛰어난 예님의 귀를 간지럽히기엔 충분한 소리였다.

엣취

동쪽 하늘, 서쪽 하늘 할 것 없이 까만 하늘 여기저기서 반짝이는 별 가루가 떨어진다.

예님은 눈을 살포시 감았다.

이곳에서 만났던 친구들이 모두 행복하기를.

드디어 수도 샤인으로 가는 당일이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슬픈 헤어짐이 코앞으로 찾아왔다.

카손을 포함한 에스티엘라 성 친구들과의 이별의 날, 예님은 바쁜 준비 기간 틈틈이 써놓았던 짧은 편지를 내밀며 인사를 했다.

편지에는 친구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길 바라는 소망이 담겨있었다.

“흐헝, 저흰 준비한 게 없는데...”

“내가 편지라도 준비하자고 했잖아! 아가씨, 금방 써올게요!!”

“감사해요, 아가씨. 소중하게 간직할게요.”

“부족한 저희에게 이런 걸 다 주시다니...”

그동안 나를 위해 일해줬잖니, 그걸로 됐단다!

예님은 가지 말라고 붙잡고 늘어지는 친구들을 맑은 미소로 달랬다.

“잘 지내요!”

모두와 인사를 나누고,

이제 남은 건 카손.

방으로 온 예님은 카손을 제 옆에 앉혔다.

가장 가까이서 예님을 돌봐주고 도와준 카손의 은혜는 어떤 것으로도 쉽게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해주고 싶었다.

더 큰 걸 주겠다고 나중으로 미룰 순 없으니까.

“〈카손, 그동안 고마웠어. 이건 내 선물이니 받아주렴.〉”

예님은 준비해두었던 책 몇 권을 내밀었다.

“〈나는 오랜 세월을 살았지만, 기록 같은 건 귀찮아서 하지 않았단다. 그런데 어느날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남겨두고 싶더라. 필요가 있겠거니 하고 여기 적어 놓았지. 역시 모든 것엔 이유가 있다는 말이 맞다. 네게 주려고 그랬나 보다. 태지천이 생기기 전 백 년과 그 후 백 년, 이백 년 동안 세월을 담은 기록한 일기란다. 동대륙의 역사를 공부하고 싶은 네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구나.〉”

“〈이렇게 귀한 것을... 제게 주시다니요...〉”

“〈받아두렴. 이런 것쯤은 내가 받은 도움에 비하면 별것 아니란다!〉”

예님은 망설이는 카손의 품에 책을 안겨주었다.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카손, 나를 안아주지 않을래?〉”

“〈물론이지요.〉”

카손은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를 내려두고 예님을 품에 끌어안았다.

그녀만의 체향과 온기가 예님을 감싸 안았다.

그녀의 품에서 아늑함을 느낀 예님은 눈을 감고 그녀의 허리에 팔을 둘렀다.

그리고 등을 천천히 둥근 원을 그리며 쓰다듬었다.

“〈아프지 말고 건강해야 해!〉”

등에서부터 초록색 빛이 퍼져나갔다.

빛이 온몸으로 퍼질수록 카손은 몸이 기지개를 켜고 난 뒤처럼 개운해지는 것을 느꼈다.

“〈며칠간 많이 먹으면서 힘을 쌓았더니 효과가 있구나. 앞으론 걷기가 더 편해질 것이야. 그래도 완벽히 낫게 해줄 만한 힘은 없어서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해. 알겠지?〉”

“〈아가씨... 제가 아가씨를 만날 수 있었던 건 정말 축복받은 일이었어요...〉”

“〈나야말로 너란 아이를 알게 되어 다행이었단다.〉”

예님은 두 눈 가득히 카손을 담았다.

잔잔하게 패인 눈가의 주름 속에서 올곧게 빛나는 눈동자, 항상 호선을 그리고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입술, 어떤 폭풍에도 굳게 견뎌온 깊게 뿌리 박은 나무처럼 올곧은 자태와 활짝 편 어깨 그리고 그 위로 내려앉은 단정하게 땋은 은빛의 머리카락.

마주 잡은 두 손에서 느껴지는 포근한 온기가 전해진다.

“〈내 사랑스러운 친구 카손, 널 위해서라면 어떤 일에라도 달려오마.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지내다오.〉”

마차에 올라타기 전 예님은 다시 뒤를 돌아 에스티엘라 성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그녀와 노아를 배웅하겠다고 하고 있던 일 모두 뒤로하고 나온 이들이었다.

셀 수 없는 이별을 겪어 왔지만, 오늘은 유달리 발이 안 떨어진다.

처음 겪는 낯선 곳에서 그녀를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들이라 그럴까?

하나도 빠짐없이 사랑스러운 이들이었다.

노아의 손을 잡고 마차에 올라탔다.

육지까지 함께 갈 카손이 맞은 편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을 보자 싱숭생숭 했던 감정이 조금 진정이 됐다.

다시 또 볼 수 있다니깐.

노아가 예님의 옆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마차의 문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닫혔다.

말굽 소리와 함께 창밖의 풍경이 천천히 밀려났다.

예님은 창문 밖으로 빼꼼 고개를 내밀었다.

“아가씨 조심히 가세요!”

“내년에도 놀러와 주세요!”

“안녕히 가세요!!”

색색의 손수건이 그들의 머리 위를 휘저었다.

예님도 손을 흔들며 진짜 마지막 인사를 했다.

정들었던 친구들아, 잘 있거라!

“안녕~!”

가지런한 치아를 드러내는 미소를 끝으로 예님은 내밀었던 고개를 빼고 푹신한 등받이에 등을 기대었다.

드디어, 수도로 가는구나!

수도답게 이름마저 기억에 잘 남는 ‘샤인’.

황족의 선대 종족 이름에서 따왔다지.

“예님, 기분이 어때.”

노아가 예님의 머리 위로 삐뚤어진 보닛을 정리해주며 물었다.

예님은 노아의 질문에 눈동자를 또르르 굴리곤 대답했다.

“한마디로 복잡 미묘.”

“... 그런 어려운 표현은 어디서 배웠지?”

“아까 할아버지 한숨 쉬면서 했습니다. 재밌는 표현!”

테오르는 예님과 노아보다 먼저 수도로 떠나있었다.

아침을 먹자마자 수도행에 오른 그는 예님과 떨어지고 싶지 않아 무척이나 괴로워했다.

괴로운 표정으로 예님의 두 손 꼭 잡고 말하길,

‘아주 비밀스러운 이 계획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구나... 아무리 내 손녀라도 절대 알려줄 수 없지. 암, 이 모두 너를 위해서란다. 허허, 기대하려무나! 허나, 그렇다고 한들… 내가 우리 강아지를 두고 어찌 발이 떨어질꼬! 가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기분을 한마디로 복잡 미묘하다고 하지!’

노아는 예님의 습득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테오르의 한탄은 아들인 노아도 흘려들을 정도로 두서없는 말이었다.

그와중에 처음 듣는 말을 주워 익히다니, 기특하다.

더불어 앞으로는 예님의 앞에선 모두가 말을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의 고급스러운 어휘 향상을 위해선 주위 사람들이 모두 그에 걸맞는 말을 사용해야 한다고 육아교육 백서에 기술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예님은 턱에 닿는 보닛의 리본을 만지작거리며 카손이 귀띔해준 일정을 되새겼다.

이 마차가 출발하면 섬의 항구까지 가고 항구에서 육지로 가는 배를 탄다.

그리고 그곳에서 텔레포트라는 것을 타는데, 공간을 이동하는 마법으로 마차를 타고 하루를 꼬박 달려야 하는 거리를 1초 만에 갈 수 있단다.

그래서 지난 번 카이가 집에 돌아가면서도 집에 금방 간다던 말이 그 텔레포트라는 것을 탔기 때문인듯 싶었다.

“노아, 여기 텔레포트 없어요?”

그런 게 있다면 이 섬에서도 편하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섬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도록 규제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텔레포트 진을 설치하지 않았다.”

“제제가 마법 하면 안 돼요?”

“텔레포트는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아주 복잡하고 힘이 많이 드는 마법이야. 보통 마법 진이라는 것을 그려서 세 명 이상의 마법사가 실행한다. 어려운 일이지. 얼른 수도로 가고 싶은 건가.”

“수도 무척 궁금합니다! 텔레포트도 궁금합니다!”

마법에 대해 들을수록 요력이나 동양의 인간들이 부리는 도술과는 면밀하게 다른 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요력은 어차피 인간이 아닌 요물들의 힘이니 제쳐놓더라도 도술은 정신수련과 몸을 갈고 닦아 도를 터득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힘이었다.

그에 반에 마법은 정밀하고 수학적인 느낌이 강한듯했다.

애초에 사용하는 힘의 근원부터 달라 보였으니, 왜 마법사 집단이 태지천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못했는지 언뜻 이해가 갔다.

너무 달라서 두려웠을 거다.

세상의 전부라고 알고 있던 것이 그저 우물 안의 하늘이었을 뿐이라니, 숨이 턱 막혔을 것이다.

성에서부터 섬의 항구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다.

예님은 노아를 따라 마차에서 내렸다.

새파란 바다 위에 배 한 척이 떠 있었다.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사실이 실감 나기 시작했다.

예님은 손을 올려 노아의 손을, 아니 검지와 중지를 잡았다.

차마 노아와 시선을 마주치진 못하고 슬쩍 곁눈질했다.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연습했던 말을 꺼냈다.

“아, 아빠... 잘 부탁드립니다.”

어휴, 역시 안하던 말을 하려니까 어렵네…!

원래는 아빠라던가 아버지라는 호칭은 노아의 2세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려 했지만, 제제 녀석이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꼭 아빠라고 해야한다며 신신 당부를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다.

돈독한 연을 맺은 부녀처럼 보여야 한다나 뭐라나...

그런데 노아의 안색이 이상하다.

“...?...”

“아니면 아버지가 좋겠습니까, 노아 아버지?”

노아의 사고회로는 이미 정지됐다.

“...”

“좋은 딸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나만 믿어!”

왜 저리 창백하지?

역시 아직 총각이라 아빠라는 말은 영 듣기 껄끄러운 걸까?

으이구, 어쩔 수 없잖아! 아빠 해주겠다며!

“역시 아버지가 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님이 힘 좀 내보라는 듯 노아의 팔을 톡톡 토닥였다.

짐을 싣어 나르는 항구의 소음들은 사라지고, 예님의 개구진 웃음만이 그를 지배했다.

비록 위장 부녀였지만, 항구에 가득한 사람들이 두 사람들 흘긋흘긋 지켜보기 바빴다.

당사자들은 모르겠지만 그림 자체만으로도 참 잘 어울리는 두 사람이었다.

부드러운 온도를 띠는 검은 머리카락, 꼭 잡은 손, 서로를 보는 따뜻한 시선.

누가 보아도 가족이었다.

봄의 끝무렵의 햇살이, 바닷바람과 함께 그들의 시작을 반갑게 맞이했다.

한편, 노아는 평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머리가 멍해지는 경험을 했다.

예님의 귀여운 아빠 소리는 마치 요정이 내려와 최면을 건 것처럼 황홀했다.

아빠, 라니.

이래서 다들 딸이 최고라고 하는 건가.

당황스럽게도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고 있었다.

노아는 화끈해진 얼굴을 진정시키고자 예님과 잡지 않은 쪽의 손등으로 이마를 눌렀다.

“노아?”

가끔 상황에 따라 써먹으려고 연습한 말에 노아가 반응이 없자 예님은 걱정했다.

설마 예고도 없이 아빠라고 해서 화가 났나?

노아가 그렇게 쪼잔하진 않을 텐데?

“하지 말까요?”

“아니.”

노아는 말없이 예님의 손을 세게 감싸 잡았다.

짭조름한 바닷바람이 세차게 휘젓고 지나갔다.

“계속해보아라.”

내 심장이 남아나질 않겠지만.

적응될 때까지 들어야하지 않겠는가?

노아는 오늘 예님을 보고 결심했다.

그녀를 위해서라면 주저하지 않고 오롯이 그녀를 위해서만 행동할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줄 것이었다..

배에서 내리고 육지에 도착했을 때 예님은 카손과 담백한 작별을 나누었다.

다시 만날 것이란 믿음이 있었으니까 가능했다.

텔레포트를 타러 가기 전 예님은 소피아와 베라의 인사를 받았다.

그녀들의 정식 호위가 시작된 것이었다,

이제부터는 어디를 가던, 밖에서는 소피아와 베라가 동행을 해야 했다.

노아와 테오르는 집 안에서도 붙여두려고 했지만 예님이 극구 반대하여 합의를 본 것이었다.

텔레포트 진이란 것은 그림들이 그려진 거대한 원이었다.

“아가씨, 텔레포트를 처음 탈 땐 조금 어지러울 수도 있으세요. 공작님 손을 꽉 잡고 계세요!”

소피아가 예님의 호위를 맡게 된 첫날의 설렘에 잔뜩 상기된 목소리로 말했다.

텔레포트 진 위로 선발대 일행이 올라갔다.

예님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원 밖의 세 사람이 그들의 허리춤까지 오는 기둥 위의 구슬에 손을 올렸다.

그러자 그들의 손에서 푸른 빛과 함께 원안의 그림들이 빛나고 그 위에 서 있던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우와...

떡 벌어진 예님의 입을 닫아준 것은 노아였다.

“가자.”

그가 텔레포트 진 위로 예님을 이끌었다.

예님은 원 위에 두 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두 눈에 힘을 주었다.

이동하는 것은 순식간이라니, 그 찰나에 어떤 광경이 펼쳐지는지 지켜볼 셈이었다.

푸른 빛이 몸을 휘감았다.

예님은 숨을 들이쉬었다.

간드앗!

그리고 숨을 뱉는 순간, 이미 다른 곳에 도착해 있었다.

문자 그대로 ‘순식간’이었다.

눈 깜짝하기도 전에 벌어진 일에 어안이 벙벙했다.

예님은 멍하니 시야에 보이는 커다란 문 위에 쓰여 있는 문장을 천천히 소리 내어 읽어 보았다.

“샤인…에…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숨 한 번 제대로 쉬기도 전에 수도에 왔구나…!

말로만 듣던, 책으로만 보던 웰츠의 수도다!

설레는 마음으로 커다란 문밖으로 나오자, 흑마 두 마리가 이끄는 마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선발대로 먼저 도착해있던 제제가 그들을 맞이했다.

“3개월이 지나도 샤인은 그대로네요. 북적이고, 정신없고.”

제제가 마차 문을 열어주며 노아에게 말했다.

예님은 창밖으로 보이는 북적이는 인파를 보고 제제의 말에 동의했다.

거리는 수많은 사람으로 붐비고 드높고 좁은 간격으로 세워진 건물들로 꽉 채워 있었다.

예상보다 훨씬 활기찬 도시였다.

“이곳은 수도의 중앙 광장이라 사람이 많다. 교외는 그나마 한적한 편이지.”

노아의 말대로 마차가 어딘가로 달릴수록 인파는 줄어들고 넓은 간격으로 집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가지각색의 지붕 모양과 네모진 모양의 유리창들, 사람들의 머리카락 색처럼 건물색도 다양하다.

방금 지나간 건물은 제제가 살고 있을 것처럼 연분홍색이었다!

노아네 집도 저렇게 생겼을까? 그렇다면, 검은색?

아주 새카만 집이라면 해가진 밤이 되면 뭐가 문인지 벽인지 분간이 안 갈지도 모른다.

집이 햇빛도 없이 칙칙한 것은 아니겠지?

“예님, 저 멀리 보이는 곳이 황궁이다.”

노아가 유리 너머의 한곳을 가리켰다.

푸른 잎들이 풍성하게 자리 잡은 나뭇가지 위로 하늘로 높게 치솟은 뾰족한 지붕이 보였다.

황금색 용이 그려진 깃발이 펄럭인다.

백금발 머리를 가졌다는 황족의 집이라서 황금으로 두른 성을 생각했는데, 그저 백색의 건물이었다.

거인이 있다면 뾰족한 지붕 위로 실수로 넘어지지 않게끔 조심해야 할 것 같았다.

황궁은 자세히 볼 시간 없이 빠르게 지나갔다.

마차는 계속해서 잘 다져진 가로수 길을 달렸다.

길목마다 보이던 건물들도 자취를 감추고, 탁 트인 잔디밭이 나타났다.

마차는 커다란 호수를 지나고,

거대한 동상들을 지났다.

마침내 먼발치에 노아의 집이 보이기 시작했다.

검은색의 둥근 지붕에 금색 띠가 둘린 거대한 건물.

벨루치아 성의 웅장한 자태는 마치 예님을 향해 어서 오라는 듯 팔을 뻗고 있는 것만 같았다.

마차의 속도가 서서히 느려졌다.

도착했습니다.

마부가 마차의 안쪽에 있는 작은 창을 통해 말했다.

동시에 감미로운 음악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음악 소리는 마차의 문이 열리자 더 크게 들려왔다.

노아의 에스코트와 함께 마차 밖으로 몸을 내민 예님은 일말의 감탄을 내뱉었다.

붉은 천이 깔린 길과 길의 양쪽으로 정갈하게 서 있는 사람들,

그 끝으로 보이는 신기한 악기들을 다루는 악단과 이 시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일곱 명의 인물.

예님은 얼떨떨하게 붉은 천이 깔린 길을 걸어갔다.

어서 오세요, 아가씨

환영합니다, 아가씨

축! 예님엘리나 몽블라체를 환영합니다! 하!

그녀가 발을 뻗을 때마다 종이 꽃가루가 날려와 머리 위에 앉았다.

"참... 거창하군."

한숨 소리가 들려 노아를 슬쩍 올려보니 이러한 환영식을 짐작하고 있던 눈치다.

붉은 천의 끝자락이 보이고, 그 끝에선 7명의 사람들이 시야에 가득 들어왔다.

그의 큰 손이 예님의 뒤통수를 부드럽게 감쌌다.

나직한 목소리가 말했다.

“너의 고모들이 될 여자들과 사촌이 될 꼬맹이들이다. 그리고 고숙들, 할아버지도. 이제부터 네 가족이다.”

“가족...”

갖게 될 것이라 상상이라도 해본 적 있던가?

언젠가 한 번쯤 해봤던 상상 속에선 어떤 모습이었지?

이렇게 눈부신 그림이었나?

가족이라는 찬란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그녀를 맞이한다.

누구보다도 기쁘게 환영하는 테오르 앞세워 쏟아지는 관심에는 두근거림과 호기심이 함께 전해졌다.

예님은 콧속으로 깊숙이 파고드는 설렘의 냄새를 맡았다.

몽글몽글한 감정에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꾹 다물고 있던 입술이 무언가 말하고 싶다는 듯 실룩샐룩.

제제는 백금발이 아니면 먼저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인사하기엔 모호한 거리이기도 하지만...

예님은 지금의 이 기쁜 마음을 참을 수 없었다.

결국, 가족들의 앞으로 가기까지 몇 발짝이 남았을 때,

예님의 입술이 고새를 못 참고 떨어졌다.

“반가워!”

“예님!! 나 왔어!”

에반은 마차가 멈추자 마자 문을 열고 튀어나와 쏜살같이 2층으로 뛰어갔다.

방금 막 아카데미에서 검술 훈련까지 끝내고 돌아온 참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고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시간이 안 가던지, 느릿하게 가는 시계의 초침과 함께 속이 터져 돌아버릴 뻔했다.

에반은 예님이 수도로 오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벨루치아 성으로 발 도장을 찍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는데, 좋은 오빠로서 동생과 놀아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에 빠져있었다.

그게 벌써 일주일이나 됐다.

에반은 다정한 오빠가 된 자신의 모습에 심취해 있었다.

에반은 제 어여쁜 사촌 동생을 마주하기에 앞서 방문 앞에 서서 숨을 골랐다.

그리고 마침 눈에 띈 문 옆의 벽에 걸려있는 작은 거울에 제 모습을 비쳐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했다.

움직이는 하얀 손가락 사이사이로 검은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휘감겼다.

왼쪽 얼굴이나 오른쪽 얼굴이나, 어디를 봐도 잘생긴 얼굴이다.

이렇게 잘생기고 친절한 오빠가 어딨어!

에반은 제 품에 안겨 있는 곰 인형을 보고 히죽 웃었다.

“분명 좋아하겠지?”

똑똑

문을 두드리자,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에반은 설레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문고리를 돌렸다.

“예님아~! 오빠가 뭘 사 왔게!”

에반은 넓은 방 안에서 어렵지 않게 작은 몸집의 예님을 단번에 찾아낼 수 있었다.

제 작은 사촌 동생은 밝은 베이지색의 드레스를 입고 남색 카펫 위에 엎드려 있었다.

이래서 꼬맹이들 옷은 번쩍번쩍한 것으로 입혀야 하나보다.

어디에 있던 금방 눈에 띌 수 있도록 말이다.

그의 새로 생긴 동생은 멀쩡한 테이블을 두고도 종종 바닥에 내려가서 책을 읽거나 공부를 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땅바닥에 앉는 것을 마다하는 에반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취향이었다.

“짜잔, 이것 봐라~!”

“오! 이것은 곰! 새끼 곰입니다! 에반, 새끼곰 잡았습니다! 카이, 새끼곰!”

에반은 예상했던 예님의 반응에 어깨를 쫙 펴고 뿌듯해 했다.

어렵게 골라온 선물이었다.

외동에, 사촌이라곤 형밖에 없었던 그였기에 강의 시간 내내 여자애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했다.

결국, 체면을 무릅쓰고 여자 동생이 있다는 녀석을 찾아가 멱살을 잡고 물어봤지만, 그렇게까지 한 보람이 있었다.

“아, 안녕하세요, 링헬코반 경.”

“뭐야, 너 또 있냐?”

에반은 예님의 옆에 찰싹 붙어 있는 은색 머리통을 보고 웃음기를 싹 지웠다.

녀석은 숙부께서 예님의 말 친구로 불러온 에드가일 백작 가의 장남이었다.

현재 에반의 행동반경에서 가장 눈엣가시인 놈이었다.

네가 뭔데 내 사촌 동생의 손을 잡고 있어?

에반이 겨울 바다보다 시릴듯한 눈빛으로 카이를 쏘았다.

히끅!

무섭도록 차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한 카이는 어깨를 부르르 떨며 예님의 손을 떨어뜨렸다.

“오라버니?”

예님은 곰 인형을 꽉 끌어안고 카이에게 겁을 주는 에반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매번 있는 일이었다.

에반이 카이를 아니꼽게 쳐다보면, 카이는 겁을 먹고 예님이 중재했다.

결국엔 잘 놀다 집으로 갈 것이면서, 에반은 카이를 볼 때마다 꼭 으르렁댔다.

에반이 다시 서글서글한 미소를 짓고 예님을 바라보았다.

예님은 노아의 둘째 조카가 여간 성질 있는 소년이 아니란 것을 잘 파악했다.

소년의 다정하고 살가운 분위기와 말투는 오롯이 그녀를 대할 때만 나타났다.

예님은 제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에반에게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됐다.

16살밖에 안된 소년이건만 살벌하게 차가운 무표정과 눈빛을 하고 아랫사람을 대했다.

제 부모나 노아를 대할 때도 무뚝뚝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무서워서야 곁에 좋은 사람들이 다가올 리 없었다.

웃지 않고 있을 때면, 올라간 눈꼬리와 핏줄이 보이도록 하얀 피부가 그를 더욱 어렵게 보이게 했다.

그래서 걱정이었다.

한창 사춘기이니, 주변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었다.

가까이에서 본 에반은 심성이 나쁜 아이가 아니었으니까 말이다.

되려 곁에 있는 사람을 잘 돌볼 줄 아는 아이였다.

“저어... 마실 것을 내오라 할까요?”

카이가 우물쭈물하다 조심스레 물었다.

“됐어, 너나 마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잔도 비웠구먼. 예님이는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나는 딸기가 좋습니다!”

“넌?”

“저는...”

카이는 대답을 망설였다.

더 마실까 말까?

어머니께서 초콜릿 우유는 하루에 딱 한 잔만 마시라고 하셨는데...!

딸랑

에반은 카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설렁 줄을 잡아당겼다.

“딸기랑, 초콜릿 우유 한 잔 더.”

예님은 에반의 목소리에 밝아진 얼굴의 카이를 보고 의자를 끌어당겨 오는 에반을 보았다.

거봐, 나쁜 아이가 아니라니까.

“뭐 하고 있었어, 예님?”

입식 생활에 길들어 있는 에반은 바닥에 앉는 대신 의자를 가져왔다.

예님은 카이와 함께 글씨를 연습하고 있던 공책을 보여줬다.

“짜짠, 어떻습니까?”

“뭐라고 쓴 거야?”

“몰라요? 못 읽어요?”

“글씨가 못생겨서 무슨 글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예님은 에반의 솔직한 평가에 펄쩍 뛰었다.

“카이는 잘 썼다고 했습니다!”

“야, 왜 거짓말 하냐? 진짜 잘 쓴 글씨가 뭔지 보여줄까?“

“예에? 하지만... 아가씨께서 열심히 하셨는 걸요…?“

“잘 봐, 멋진 글씨를 보고 배워야 쓸 때도 잘 쓰는 거야!“

카이는 에반을 일주일째 만나고 있었지만, 여전히 어려워하고 있었다.

에반의 까칠한 말투와 서슴없는 행동이 항상 그를 당황하게 했다.

그도 그런 게 에반은 어제 조금 친해진 것 같아도 오늘 보면 새로운 사람처럼 낯설었다.

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길 몽블라체의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심해 자신이 인정한 사람들 외에는 마음을 잘 열지 않는다더니 사실인 모양이었다.

이렇게 매일 얼굴을 마주치다 보면 언젠가 친해질 날도 오지 않을까?

예님은 에반과 카이를 번갈아 관찰했다.

에반이 무서울 것 없는 새끼 호랑이라면 카이는 겁 많은 새끼 곰 같았다.

기름과 물처럼 전혀 다른 두 사람이었다.

친해지기엔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함께 있는다고 불과 물처럼 어느 한쪽에 피해를 주진 않을 거다.

오히려 서로에게 좋은 기운을 준다면 몰라도.

“와아... 진짜 잘 쓰셔요...”

“거봐! 어때 예님아? 오라버니 잘 쓰지?”

아이고, 귀여운 것들.

수도 생활 일주일 차.

기대에 부풀어 샤인으로 온 것에 비해 예님의 근 일주일간 일상은 평범하다 못해 지루했다.

노아에게 태지천과 가이아의 화합을 도와달라는 거창한 말을 들어서 그런가...

그걸 듣고 대단한 임무수행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가...

위험이 널려 있다는 샤인의 자자한 악명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서 그런가...

막상 특별한 일 없이 평화로운 나날만 무한히 흘러가니 지루하다.

장소만 바뀌었지 하는 일은 몽베르 섬에서와 별다를 것 없다.

밥 먹고 산책하고 글공부하고.

에스티엘라 성에서처럼 맛있는 것도 많았고, 볼 것도 많았다.

그런데 안 좋은 점이 있었다.

노아와 함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거다.

휴가가 끝난 노아는 아침을 먹자마자 일터로 출근하고 저녁을 먹을 즈음 돌아왔다.

노아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때는 아침과 밤이었다.

수도로 오고 나서 함께 여유롭게 술 한잔 한 번 못해봤다.

하나 더,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없었다.

벨루치아 성의 사람들은 에스티엘라 성의 친구들과 다르게 상하 관계, 공과 사의 구분이 명확했다.

가장 얼굴을 많이 보는 집사도, 전담으로 시중을 들어주는 시녀도 모두 예님을 대하는 행동에 있어 깍듯했다.

예님이 말을 걸고 놀자고 해도 간결한 대화만 오갈 뿐 인형이나 과자를 쥐여 주고 자리를 피했다.

그래서 예님은 보통 오전에는 테오르와 시간을 보내다가 오후에는 아카데미를 마치고 돌아온 카이와 놀았다.

테오르와 노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제 정체를 알고 순수한 어린아이인 카이가 더 재미있어서, 카이가 오는 시간을 손꼽아 기다려야 했다.

테오르에겐 미안하지만, 그는 예님이 뭐만 해도 좋아하고 칭찬하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다.

성을 구경할 때만 해도 예님의 걸음걸이 하나하나에 경이롭다며 감탄사를 자아냈으니 말 다했다.

그에겐 뻔뻔한 예님도 민망하게 하는 재주가 있었다.

그렇게 테오르를 쉬게 두고 카이 하고 놀다 보면, 에반이 훈련을 마치고 와 해가 질 때까지 함께 놀았다.

그게 예님의 요즘 일과였다.

어째서 더 넓은 곳으로 왔는데, 세상이 더 좁아졌다.

예님이 수도로 올라와 새로이 만난 주요 인물들이라곤 테오르의 두 딸과 두 조카였다.

자식들이 모두 테오르를 똑 닮아 미인이었다.

그런데 그 네 명 중에서도 친해진 것은 두 명뿐이었다.

첫째 로렐라이는 예님이 수도로 올라온 날, 딱 한 번 얼굴을 내비친 이후로 벨루치아 성을 찾아온 적이 없었다.

그녀는 어딘가 냉소적이었으며 힘이 없고 무기력했다.

예님은 맨 처음 로렐라이와 눈이 마주쳤던 순간을 똑똑히 기억했다.

‘어서 오렴.’

입은 웃고 있지만 속은 텅 비어 있는 눈빛.

그녀 안의 공허함은 예님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웃고 있던 미소도 금세 사라졌더랬지.

‘잘 왔구나.’

그 짧은 환영 인사였지만 예님은 그녀에게서 부는 찬바람을 맞았다.

다른 사람을 당황하게 하는 차가운 태도는 다른 가족들과의 대화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로렐라이, 네가 아슈체르타 공작과 결혼한다고 내 방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기억하느냐?’

‘...네.’

‘그럼요, 장인어른! 제가 로렐라이 손을 꼭 잡고 간곡하게 부탁했죠. 따님을 믿고 시집 보내주십시오! 하는데 어찌나 떨리던지요. 제가 그때 얼마나 떨었으면 로렐라이가 제 바지가 젖었는지 안 젖었는지 확인하려고 했겠어요. 하하하.’

‘...’

어떤 주제가 오가도 로렐라이는 시큰둥했다.

아버지와 그녀의 남편이 아무리 즐거웠던 추억을 꺼내보아도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그러다가 마음이 내키면 분위기가 가라앉을 만한 설렁한 대답을 내뱉었다.

‘로렐라이 네가 그때...,’

‘기억 안 나요.’

‘하하하, 언니가 오늘은 기분이 안 좋나 보네요.’

다른 가족들 모두가 그러한 상황에 익숙해 보였다.

아슈체르타 공작부인이라는 로렐라이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제국궁수단 이끄는 출중한 궁수였다.

그녀가 남편 아슈체르타 공작을 만난 것도 기사단에서였다.

공작의 말마따나 수많은 사내에게 둘러싸인 로렐라이의 마음을 얻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단다.

아슈체르타 공작은 제 부인을 지극히 챙겼다.

그는 로렐라이의 옆에 딱 붙어 그녀를 챙기는 데에 여념이 없어 보였다.

‘예님이가 낯선 곳에서 힘들어하지 않도록 우리 가족이...’

‘먼저 일어날게요.’

‘여보!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님아, 만나서 반가웠다. 또 보자꾸나.’

다과 시간이 길어지자 지루했는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 나간 로렐라이의 행동을 사과했던 것도 아슈체르타 공작이었다.

지극정성으로 로렐라이를 살피는 아슈체르타 공작은 마치 로렐라이가 금방이라도 사라져 버릴까 봐 안절부절 전전긍긍했다.

그리고 그런 두 사람 사이에서, 예님의 관심을 끄는 한 아이가 있었다.

공작부부의 그림자 같은 아이였다.

노아의 첫째 조카, 제이드 아슈체르타.

제이드는 말 수도 없고 아주 차분하고 얌전했지만, 눈에 띄는 점이 있었다.

양쪽 눈동자의 색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푸른색을 띠는 오른쪽 눈과 노란색을 띠는 왼쪽 눈.

기이했다.

그러나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

제이드는 특별한 아이였다.

하지만 본인에게는 특별한 일이 아닌듯했다.

17살의 소년은 오로지 땅만 보며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제 예쁜 눈을 아무에게도 보여주기 싫다는 듯.

예님과 인사를 할 때도 아이는 눈이 아닌 발끝을 보고 통성명을 했다.

그런 제이드가 그나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에반이었다.

어릴 적부터 형제처럼 자라와 친한 사이인 듯 보였다.

장난기가 많은 에반이 제이드에게 말장난을 던지거나 옆구리를 찌르면 귀찮은 듯 밀어내거나 작게 성을 냈는데, 행동과는 달리 크게 싫어 보이지 않았다.

제이드는 에반과 같이 있을 때 가장 편안해 보였다.

예님은 제이드와 친해지고 싶었다.

하지만 첫날 이후로 만난 적이 없었다.

그렇다고 예님이 찾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에반에게 제이드는 언제 놀러 오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다.

‘제이드 형은 요새 집에서 잘 안 나와.’

라며 자기도 보기 힘들다며 하소연을 했다.

에반에게 제이드는 형제이자, 선의의 경쟁자였다.

그런데 제이드가 16살까지 의무적으로 다녀야 하는 아카데미를 졸업하자마자 잘하고 있던 검술을 그만두었다고 한다.

덕분에 에반도 한동안 부진한 성적에 시달려야 했다.

그가 검을 그만둔 이유는 에반도 몰랐다.

아무리 찾아가 괴롭혀봐도 웃기만 할 뿐 입을 통 안 연단다.

제이드에 대한 예님의 호기심은 더욱 커졌다.

가족 모임이나 큰 행사에서나 간간이 얼굴을 내비친다고 하니 예님이 제이드를 만나기 위해서는 참는 방법밖에 없었다.

에반의 어머니, 예님의 둘째 고모 줄리아나는 가끔 벨루치아 성을 찾아와 예님과 테오르와 함께 점심을 하곤 했다.

예님은 줄리아나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꼈다.

첫 만남을 제외하면 줄리아나와는 일주일 동안 두 번 본 것이 전부였지만, 그녀와 이야기를 나눌 때면 오랜 시간 많은 감정을 공유하고 알고 지내온 것처럼 안락한 느낌을 받았다.

그건 분명 줄리아나의 명랑한 얼굴 뒤에 자리 잡은 세심하고 배려 깊은 성격 덕이었다.

눈치가 빠른 그녀는 상대방의 분위기를 빠르게 파악하여 융통성 있게 행동했다.

사람을 가리지 않고 서글서글하게 대하는 것도 위아래로 무뚝뚝한 남매 사이에서 자라온 둘째만의 특출 난 재주인듯했다.

“무엇을 그리 골똘하게 생각하니?”

예님은 텅 빈 접시를 바라보고 있던 시선을 올려 줄리아나의 파란색 눈동자를 마주했다.

약속이 있다며 울며 겨자 먹기로 떠난 테오르를 대신하여 줄리아나가 찾아왔다.

이로써 세 번째 만남이었다.

두 사람은 벨루치아 성의 뒤편에 있는 언덕 위의 정자에 앉아 있었다.

원래는 잔디 위에서 천을 깔고 샌드위치를 즐기려 했지만, 전날보다 더워진 햇볕을 피해 찾은 장소였다.

언덕과 정원에는 여름에 피는 그 흔한 장미도 없이 초록빛 풀들이 내뿜는 청아한 기운으로 가득했다.

“더 줄까?”

제 몫의 샌드위치를 내밀며 보이는 웃음이 사근사근했다.

예님은 샌드위치를 한 조각 집어 들고 한 입 크게 베어 물며 줄리아나를 눈에 담았다.

어쩜 노아의 가족들은 다 고울까?

투명하도록 하얀 목덜미가 드러나게 머리카락을 차분하게 올린 모양새가 그녀의 분위기를 더욱 단아하게 보이게 했다.

에반의 희고 여린 살결은 줄리아나로부터 물려받았을 것이 틀림없다.

검을 쥐는 몸치고 갓 돋아난 나뭇가지처럼 얇은 뼈대도 모전자전인가 보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정식 검사는 아니지만, 꾸준히 검을 잡고 수련을 해왔다는 줄리아나의 몸은 가녀려 보이는 인상과는 다르게 탄탄한 근육으로 다져져 있었다.

몽베르체 집안은 죄 무술에 도가 텄으니, 핏줄에 흐르는 내력이 정말 강력했다.

“벌써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제 또 심심합니다. 매일 심심합니다.”

“지난번만 해도 할아버지와 성을 구경하는 데에 바쁘지 않았니?”

“다 보았습니다. 이제 갈 곳 없습니다.”

“이 거대한 곳을 며칠 새에 말이야?”

벨루치아 성은 사실 저택이지만 그 크기가 어마어마해 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려 왔을 만큼 넓은 곳이었다.

수도에는 성을 짓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벨루치아 성의 호칭은 아주 오래전 이곳을 방문했던 선대 황제가 건물 크기에 기겁하여 직접 붙여준 것이었다.

과장하여 말해보자면 공간을 따진다면 황궁보다 넓을지도 몰랐다.

황궁은 건물마다 마차를 타고 다녀야 할 정도로 높은 건물이 얼마 없이 단층으로 넓게 건물들이 포진되어 있다면, 벨루치아 성은 황궁의 사 분의 일도 안되는 부지에 7층짜리 건물을 세워 놓은 것이었다.

황궁을 걸어서 한 바퀴 돌려면 일주일이 걸린다는 말이 있는데, 벨루치아 성의 한 층을 돌아보려면 반나절이 걸렸다.

그래서 줄리아나는 이미 어렸을 때 집안의 어느 곳에 무엇이 있는지 외우는 것을 포기했다.

가장 중요한 제 방과 식당과 가족들이 있는 방 정도만 알고 있을 뿐이다.

“돌아다니는 데에 힘들지 않았어? 어린아이 몸으로 며칠 만에 보기에는 무리였을 텐데.”

“할아버지 힘들었습니다. 나는 볼 것이 많아 재미있었습니다!”

“하긴 복도마다 있는 장식품들은 우리 가문이 오래전부터 모아온 것들이니 국립 박물관보다 볼 것이 많을 거야.”

벨루치아 성에는 옥상이 없었지만, 탑이 있었다.

밖에서 보면 가장 중심인 건물의 둥근 지붕 위로 가장 높은 층보다 한 층 더 올라간 탑이 보였다.

과자에 담긴 아이스크림처럼 둥그런 지붕을 두고 기둥과 난간만으로 이루어진 탁 트인 공간이었다.

높은 곳을 좋아하는 예님에게 올라가고 싶다는 욕망을 들게 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탑으로 올라갈 방법이 없었다.

가는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성안을 구경하면서 이리저리 유심히 살펴보았지만 찾아볼 수 없었다.

숨겨져 있는 모양이었지만 테오르나 노아도 모르는 모양이었다.

성의 주인이 그것도 몰라도 되나 싶었지만, 성이 보통 큰 것이 아니니 이해가 되었다.

예님은 조만간 날을 잡고 탑으로 가는 길을 찾을 셈이었다.

“벨루치아 성을 구경하는 데에 일주일 만에 질려버리다니. 흐음, 우리 공주님과 무얼 하여야 심심하지 않을까?”

“성 밖에 나갑니다?”

예님은 조심스레 본심을 흘렸다.

그 시끌벅적하다는 수도에 와서 성안에만 있자니 답답했다.

“안 돼. 밖은 아직 위험하단다.”

“끄응, 언제 안 위험?”

“예님이의 정식 발표가 있고 난 뒤? 그때쯤이면 노아가 널 데리고 수도를 구경시켜줄 거야.”

“정식 발표?”

“다음 주 중으로 정확한 날짜가 잡힐 거야. 원래라면 이번 주말에 연회가 열렸을 테지만 어떤 일도 생긴 데다가, 폐하께서 고집을 부리시는 바람에 황궁에서 연회를 열게 되었거든. 그래서 아직 일정을 맞추는 중이야. 그런데... 예님아.”

줄리아나가 어쩐지 난감한 듯 눈썹을 늘어뜨리고 좁혀진 미간을 긁적였다.

그리고 예님을 향해 조심스레 물었다.

“많은 사람 앞에 서야 하는 데 괜찮겠니?”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정자 아래, 서늘한 그림자 안에 또렷하게 빛나는 푸른 눈동자가 되물었다.

“무수한 눈이 네게 쏠릴 것이고, 모르는 사람들의 입에서 네 이야기가 쏟아질 텐데도?”

온화함을 깨고 나온 청려한 눈빛은 두 사람 곁의 분위기를 묵직하게 내려 앉혔다.

“네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순간부터는 과분한 관심 속에서 삶을 살게 될 거야.”

줄리아나가 왜 내게 이런 말을 할까?

나는 지금 겨우 10살 난 어린아이일 뿐인데.

예님은 그녀의 의중을 놓고 고민했다.

평범한 어린아이라면 겪어보지 않은 한 관심의 무게가 얼마나 무섭도록 무거운 것인지 모를 테다.

아무리 줄리아나가 이렇게 겁을 주어도 모르겠지.

그렇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몽블라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그래. 두렵지 않니?”

겨우 10살, 줄리아나의 눈에 비치는 예님은 평범한 10살의 어린 아이.

그녀가 몸담은 세계는 겨우 10살 만으론 견딜 수 없는 곳일 테다.

예님은 줄리아나는 그녀를 넌지시 헤아려보고 있다는 것을 짐작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란 의미로 어느 정도 각오를 비추어 보이고자 했다.

예님은 앞니가 훤히 보이도록 맑게 웃었다.

“이미 선택했습니다.”

“...”

“두렵지 않습니다.”

“...제법이네?”

줄리아나가 길쭉한 두 팔을 뻗어왔다.

그리고 예님의 통통한 두 볼을 인절미 집듯 쭉 잡아 늘였다.

“그래, 몽블라체라면 이 정도 깡은 있어야지.”

“그렇게 귀여운가?”

“…예?”

웰츠의 위대한 황제 카를로스는 정갈하게 관리한 턱수염을 매만졌다.

잘 익은 보리밭을 닮은 황금빛 눈동자가 이번 봄 휴가 이후로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의 노아를 뜯어보았다.

어딘가 부드러워진 인상.

참 신기했다.

연애도 아니고 어린애 하나에 무뚝뚝한 사람이 이렇게 변하다니.

“테오르도 그렇고, 노아 자네 못 본 새에 인상이 훨씬 좋아졌어. 매서운 겨울은 어디 가고 봄 내음이 나는군. 태지천에서 왔다는 아이가 제대로 몽블라체의 마음을 휘저었나 봐?”

제국을 넘어 대륙 밖의 처녀들 사이에서도 최고의 신랑감으로 최고의 주가를 달리는 사내였다.

잘생겼지, 키 크지, 몸매 좋지, 직업 좋지, 돈 많지, 집안 좋지, 여자 없지.

돌 같은 성격만 빼고 다 괜찮은 놈이었다.

그런데 하루아침 만에 애 아빠가 되겠다고 선포하다니...

참 너무 하다.

그가 난 데 없는 미혼부가 되고자 하는 모든 내막을 알고도 함께 계획에 동조하고 있는 그였지만, 꼭 이래야만 했나 싶기도 했다.

제 딸을 포함한 많은 자가 대륙 곳곳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그러나.

그래 봤자 총각이었다.

수양딸일 뿐이었다.

대외적으로 추문이 없던 노아였으니, 그의 신부가 되기를 자처하는 이들 중에는 결혼만 한다면 수양딸 하나쯤은 업고 갈 의향이 다분한 이들이 많을 터다.

그리고 그 수양딸을 노릴 자들도 많겠지.

“공작, 마음을 홀랑 훔쳐간 꼬마 숙녀의 얼굴이 궁금하군. 언제 보여줄 텐가?”

“눈독 들이지 마십시오.”

“못할 것도 없지.”

살짝 떠본 것은 어떻게 알고, 성을 낸다.

혹여 며느리로 달라고 할까 봐 눈에 불을 켜는 저 모습을 보아라.

카를로스는 픽 웃음을 뱉었다.

“시기도 딱 좋을 때 나타났으니 딱 복덩이가 아닌가? 그 복덩이가 우리 황실에 온다면 더할 나위...”

“폐하. 그런 말 하실 거면 나가보겠습니다.”

“농일세.”

“...”

“정말 농일세. 그 무서운 얼굴 풀어.”

카를로스는 공작의 살벌한 기운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농담 한두 번 했다가 황제도 때릴 기세다.

“자네 딸을 정식 발표하는 것은 오늘 이야기 했던 내용대로 하도록 하고... 아 참, 늦었지만 휴가 중에도 국경선의 일을 잘 처리해 주어서 고맙다네. 하노아 제국에서도 빠르게 대처해주어서 고맙다고 서신이 왔어. 매번 휴가를 보내놓고도 편히 쉬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군.”

“그것이 제 일입니다.”

“쯧, 딱딱하긴.”

카를로스 샤인 반 다비오드는 충신 몽블라체를 신뢰했다.

예부터 이어온 황실과 몽블라체 공작가의 인연은 웰츠 제국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할 만큼 대단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신뢰를 천 년간 이어왔단 사실은 더욱 대단했다.

그래서 매 세대의 후계자 싸움은 누가 몽블라체의 환심을 얻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 녀석은 무리 없이 잘 지내고 있는가?”

“실력도 많이 느셨고, 이젠 기사단의 분위기에 완벽히 적응하셔서 선후배 동료들과 허울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카를로스는 제 자식들이 어려서부터 정치 싸움을 하는 것을 막고자 아이들이 노아에게 접근하는 것을 최대한 막아왔다.

몽블라체와의 대외적인 모습은 항상 깔끔하고 신중해야 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

“가장 얌전한 줄 알았던 녀석이 가장 골칫덩어리였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자네만 곤란하게 하고 항상 미안하다네.”

“심려치 마십시오, 황자님의 굳은 의지와 그 실력은 장차 모두에게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자네답지 않게 번지르르한 말을 하는군. 그럼 뭐하는가. 까마귀가 되겠다고 황위 계승권도 집어 던진 녀석이야.”

“밖으로 새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있으니 염려치 않으셔도 됩니다.”

아직도 생생했다.

위장해서까지 치른 입단 시험의 합격증을 자랑스럽게 내밀던 아들.

자식 중에서도 가장 신념 있고 총명한 녀석이라 눈여겨보고 있었던 참이었다.

그런데 대뜸 기사가 되겠다고 황위 계승권 포기 각서를 들이밀다니… 누구에게도 말 못했지만, 카를로스는 당시에 크게 식겁했었다.

누구를 닮아 그리 포부가 큰지… 나 원 참.

“좌우간, 이번 연회에서 황자의 이름으로 필히 참석하라고 전해주시게. 내 말은 통 안 들어서 말이야, 부탁하네.”

해가 막 뜨기 시작한 새벽, 벨루치아 성의 동쪽에 있는 까마귀 기사단의 기숙사.

머리를 포니테일로 질끈 묶어 올린 베라가 건물을 나섰다.

“오늘도 아가씨께 들키지 말자!”

주먹을 굳게 쥐고 다짐하는 모습에서는 굳은 의지가 느껴졌다.

포니테일의 베라가 큰 보폭의 걸음으로 빠르게 향하는 곳은 몽블라체 성의 정원에 있는 편백 숲이었다.

상쾌한 향기가 맴도는 숲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외에는 고요하기만 했다.

포니테일의 베라는 커다란 바위가 있는 나무 한 그루 아래 멈춰 섰다.

휘

포니테일의 베라가 나무 위를 향해 짧은 휘파람을 불었다.

부름에 답이라도 하듯 하늘에서 밀짚 밧줄 하나가 촤르륵 떨어졌다.

베라는 망설이지 않고 밧줄 한 줄에 지탱해 나무를 타기 시작했다.

멀지 않아 도착한 꼭대기, 베라는 나뭇가지에 발을 딛고 섰다.

“왔어?”

언제나 짧은 머리를 고수하는 소피아가 건조한 인사를 건네 왔다.

“아가씨께선?”

“아직 주무셔.”

베라는 밧줄을 다시 끌어올려 정리해 놓았다.

밑이 뻥 뚫려 있고 걸어 다니는 사람이 개미처럼 보일 정도로 아찔한 높이였지만, 두 사람은 얇은 가지 위에서도 평평한 땅을 딛고 있듯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다.

밤톨머리의 소피아는 포니테일의 베라에게 쌍안경을 건넸다.

쌍안경을 넘겨받은 베라는 예님이 머문 방을 포함하여 성과 주변 안전 상태를 확인했다.

“이상 무.”

베리와 소피아가 예님의 호위기사로서 생활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갔다.

물론 예님은 베라와 소피아가 밀착 호위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여 성 밖에서만 임무를 수행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하지만 노아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언제 어디서 닥쳐올지 모르는 위험에 긴장을 낮추지 않길 바랐다.

그래서 베라와 소피아에게 예님을 그림자처럼 지킬 것을 명령했다.

즉, 그림자처럼 찰싹 붙어 예님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몰래 보호하라는 뜻이었다.

엄호 쯤은 베라와 소피아에게는 땅 짚고 헤엄치기만큼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두 사람이 늘 해오던 일이 기척을 숨기고 잠복하고 있다가 적을 덮치는 것이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베라와 소피아의 위치가 늘 예님에게 발각되어 들키는 것이다.

까마귀 중에서도 단연 에이스인 그녀들이 어린아이일 뿐인 예님에게 숨바꼭질하듯 속수무책으로 발각되다니.

언제 어디서든 숨을 죽이고 있다 해도, 싱그러운 초록 눈동자는 그녀들을 찾아냈다.

‘호위 괜찮습니다. 나 강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지 않은 것은 베라와 소피아였다.

예님이 성안을 뛰어놀다가도, 사람들과 재잘재잘 대화를 나누다가도 소피아와 베라가 따라오면 고개를 홱 돌려 새초롬하게 쏘아봤다.

‘또야, 또!’

사랑스러운 아가씨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었다.

호위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시도해 보았다.

장애물 뒤에 숨어있다거나 천장에 붙어 따라다닌 다던가, 눈에 띄지 않는 옷만 입고 다닌다든가, 거리를 좀 더 멀리한다든가...

그렇게 멀리 멀리해서 온 곳이 이 나무 위였다.

예님의 방과 그녀의 행동 범위가 훤히 보이는 곳이었다.

예님에게 들키지 않고 주변을 탐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반대로 쌍안경이 없으며 관찰하기 힘들다는 점과 위험이 닥치면 바로 제압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대비책은 여러 가지로 마련해 두었지만 두 사람은 안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짬짬이 시간을 내어 실력을 높이고자 훈련도 게으르지 않게 하고 있었다.

예님의 가까이에 있어도 그녀들이 있단 걸 모를 정도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이다.

“이쪽은 아직 눈치 못 채셨지?”

“물론이지. 여기까지 찾아내신다면 우린 호위만 그만두는 게 아니라 까마귀를 그만둬야 할 지도 몰라.”

“하, 그렇지만 아가씨의 절대 감각은 정말로...”

베라와 소피아가 경험한 예님의 감각은 몹시 뛰어났다.

웬만한 동물보다도, 소드마스터와 같은 실력자도 타고난 예님의 감각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그녀들은 노아에게 면목이 없었다.

매일 보고를 올리며 예님의 호위기사 자리를 내놓을 각오를 하곤 했다.

분명 노아를 실망시켰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생각보다 노아는 너그러웠다.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줄 알았다는 듯 개의치 않아 하며 멀리서라도 계속해서 호위를 이어가라는 말만 할 뿐이었다.

아무래도 노아는 예님이 온종일 무얼 하고 지냈는지가 궁금했던 것 같았다.

바빠서 늘 붙어있지 못하기에 예님의 하루를 알려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걸까?

매일 저녁 보고를 듣는 노아의 입꼬리는 항상 올라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베라와 소피아는 예님의 사생활을 위해 예님의 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노아를 위해 간단한 일과는 파악해 두는 편이었다.

“오늘도 아가씨의 행동반경 파악과 순찰을 위주로 호위하자.”

“알았어. 그럼 난 간단하게 샤워하고 올게.”

“그래, 무리하지 말고 느긋하게 쉬고 오도록 해.”

밤톨머리의 소피아는 편백 숲을 벗어나 까마귀 기사단의 기숙사로 향했다.

아침 해는 어느새 어둠을 보내고 눈이 부신 빛으로 세상을 밝히고 있었다.

더운 기운이 서서히 땅을 덥히는 것이 조만간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될 것임을 암시하는 듯했다.

소피아가 기숙사 건물에 달았을 때, 마침 룬이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먼저 인사를 건네려던 찰나, 그리 좋지 않은 표정이 눈에 들어왔다.

무슨 일이 있나?

소피아는 잠시 룬을 훑어보았다.

몽블라체와 까마귀 문장이 있는 단원복 차림도 아니고 단정하게 자켓과 셔츠를 차려입은 낯선 모양새였다.

해는 완전히 떴지만, 아직 하루를 시작하기에는 이른 시간이었다.

부지런하게 어딜 가나 싶었지만, 소피아는 어제 단장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제야 룬의 표정이 어두운 것이 이해가 갔다.

룬이 소피아를 발견하고 인사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선배님.”

“지금 나가는 모양이네.”

“네, 아무래도 조용히 가는 편이 좋으니까요.”

맞는 말이었다.

그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단원들이 안다면 또 안 좋은 말이 새어 나올 터였다.

소피아는 힘 없는 룬의 등을 찰싹찰싹 아프치 않게 내리쳤다.

“일주일 동안 나가 있는다고 연습 게을리하지 말도록 해! 다음 주에 있는 너희 꼬맹이들 대련은 내가 맡은 거 알지?”

“물론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룬이 조금 밝아진 표정으로 자신 있게 웃어 보였다.

룬은 지낸 해 이맘때에 소란스럽게 입단한 신입이었다.

처음에는 그의 출신 때문에 편견도 많았지만, 지금은 그의 노력하는 모습에 단원의 대부분이 좋은 마음으로 응원하는 중이었다.

룬을 보고 있으면 누구보다도 까마귀를 동경하고, 검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럼 잘 다녀와.”

“다녀오겠습니다.”

소피아의 배웅에 굽어있던 룬의 무거웠던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룬은 불편했던 마음이 그녀의 소소한 응원에 날아간 것을 느꼈다.

응원이라기보단 겁을 준 것 같기도 하지만 당분간 연습을 못 하게 된 상황을 싫어하는 룬에겐 딱이였다.

이곳 사람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었지만, 황실에 있는 사람들보다 편안하고 따뜻했다.

많은 사람이 노력하는 룬을 인정해 주고 응원하며 도움을 주었다.

간혹 그를 아니꼽게 보는 자들은 무시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저쪽 사람들은 무시할 수도 없었다.

되려 더 알려하고 경계해야했다.

그 숨 막히는 곳을 어째서 집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룬에게 있어 진정한 집은 외숙부가 저를 키워준 로이첼 남작 가와 이곳 까마귀단 뿐이었다.

그는 황실과의 연을 끊기 위해 온갖 노력을 마다치 않았다.

하지만 전부 소용이 없었다.

그깟 핏줄이 뭐라고,

왜 이제 와서...

그들은 룬을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까마귀단을 선택하기 위해 마지막 보루로 내놓았던 황위 계승권도 무참히 기각되었다.

벨루치아 성 앞에는 마차 한 대가 서 있었다.

황족 전용의 작지만 화려한 마차였다.

남자 한 명이 마차 밖에 서 있었다.

룬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지나쳐 걸었다.

타고 갈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황금색의 황실 마크는 그가 원하는 게 아니었다.

룬은 허리춤에 찬 검을 매만졌다.

그는 그가 원하는 길을 걸어갈 힘이 있었다.

룬은 자신이 원하는 길만 걸어갈 것이었다.

몽블라체 공작이 태지천의 아이를 수양딸로 후원한다는 소문이 시작된 것은 봄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이전부터 휴가를 떠난 공작이 몽베르 섬에서 어딘가 묘하게 자신과 닮은 여자아이를 데리고 다닌다는 목격담이 있었던 지라 수양딸에 대한 소문은 단숨에 기정사실로 되었다.

소문의 확장과 함께 귀족들의 움직임은 부산해졌다.

몽블라체와 황제가 태지천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할 것으로 보이니, 그들도 저마다의 대책 마련이 시급할 터였다.

마법사와 연구자의 성향이 강한 세력을 제외하고는 아직 이도 저도 아닌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자들이 많았다.

세대가 바뀌면서 태지천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도 많이 꺾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소문에 종점을 찍을 초대장이 각 지역의 귀족들에게 전달되었다.

황실과 몽블라체의 문장이 함께 찍힌 귀한 초대장이었다.

역사적인 연회가 될 것이 틀림 없었다.

그 목적은 적혀있지 않았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을 터였다.

파벌 싸움은 벌써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했다.

중립에 서서 간을 보고 있던 이들 중 대부분은 황제의 편에 설 것이었고,

황제파였던 귀족들은 이번이 황제와 몽블라체에게 제 얼굴도장을 톡톡히 찍을 기회라고 생각할 것이었다.

기존의 반 태지천 파는 조용히 지켜보고자 했다.

그들의 세력은 여전히 거대했다.

그러니까 황제와 공작도 그들을 견제하여 휘황찬란한 연회를 여는 것이고.

그들은 아직 여유로운 듯 태연했다.

태지천 파와 반 태지천 파의 싸움은 유독 웰츠 제국에서 크게 벌어지고 있었다.

다른 제국들은 웰츠의 소문을 듣고 동향을 살피는 중일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태지천을 발견한 것은 웰츠였고, 교류하고자 하는 것도 웰츠였다.

태지천에 대한 관심도가 가이아의 다른 두 나라보다 월등히 높았다.

태지천은 웰츠의 빅블루를 통해서 가야 나오는 대륙이었다.

본래 웰츠가 동대륙을 찾아나선 것은 징트와 하노아를 견제하기 위함이었다.

약 100년 전 가이아의 삼 대국 사이에는 위험한 신경전이 오갔다.

누가 더 막강한 군사력과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강대국이 될 것인가?

징트와 하노아는 각각의 바다로 나아가 식민지를 개척했다.

그들의 바다에는 크고 작은 섬나라들이 있었고, 식민지와 속국으로 국력에 보탬이 되었다.

웰츠도 자원을 찾기 위하여 사방으로 노력했으나, 지배할만한 육지는커녕 끝없는 바다만이 존재할 뿐이란 것을 깨달았다.

언제라도 징트와 하노아가 균형을 부수고 일어설 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해왔다.

200년 전 맺은 평화 조약이 깨지고 전쟁이 일어난다면, 웰츠는 힘으로 밀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웰츠는 진정한 ‘샤인‘족의 피가 다스리고, 가장 강한 ‘몽족의 후손 ‘이 수호하는 나라였다.

배신자나 거짓말쟁이가 세운 나라와는 급이 다른 고귀한 혈통이 흐르는 국가였다.

전쟁의 위협과 더불어 자존심의 문제기도 했다.

절대 타 제국과의 보이지 않는 대결에서 지고 있을 수 없었기에 웰츠는 거대한 국비를 들여 신대륙 찾기에 혈안을 올렸다.

그리고 멀지 않아 동대륙, 태지천을 발견해냈다.

대규모의 영토 위 어마어마한 인구수와 가늠할 수 없는 신비한 힘을 가진 나라.

몇 백 년 전 그들의 황제가 수많은 나라를 통일하여 탄생하였다는 다민족의 제국은 웰츠가 함부로 덤빌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그 막강한 힘의 크기는 아마 가이아의 세 제국을 합쳐도 견주지 못할 것이었다.

웰츠는 겁에 질렸다.

가이아가 힘을 합쳐도 못 이길 힘을 가진 나라라니?

위대한 어머니 가이아께서 수호하는 자들이 사는 이 대륙만이 세계의 절대 지배자라고 자만했던 그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태지천은 너무나도 막강했다.

당시 웰츠의 황제는 일찍이 정신을 차리고 태지천을 편으로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임을 내다보았다.

문제는 잘못된 우주의 진리에 허우적대는 지식인들이었다.

그들은 태지천을 미리 대비해 두지 않은 다면 후에 당할 것이라 두려워하고 있었다.

가이아의 삼 대국이 손을 합쳐 그들을 짓밟기를 바랐다.

황제와 지식인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렸다.

당시의 웰츠의 황제는 태지천을 적으로 두기 싫음은 물론 징트와 하노아를 좋아하지 않았다.

징트는 몽족의 후손 중 샤인족만이 왕이 되는 것에 불만을 품은 파벌이 세운 배신자의 국가였으며, 하노아는 건국 민족이 아닌 가이아를 가장 숭배하는 자들이 모여 이루어 세운 국가로 그들이 신에게 선택받았다고 믿고 있었다.

당시 황제는 똑똑했다.

태지천과의 교류가 그들에게 분명 더 이득임을 잘 알았다.

그러나 내부 반란을 잠재울 무언가가 없었다.

고지식한 지식인들에게 태지천을 받아들이게 할 계기가 없었다.

그래서 한동안은 태지천과의 교류를 방해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다음 세대에서야 그 열쇠가 나타났다.

그것이 예님이었다.

귀엽고 사랑스러우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동하기에 충분한 사연을 가진 존재.

태지천에 대한 경계를 조금씩 허물기에 자연스러웠다.

완벽한 열쇠였다.

신이 내린 선물처럼 말이다.

예님은 눈앞의 드레스에 감탄했다.

예술 작품이구나!

순백의 드레스는 사방으로 빛을 내뿜는 별처럼 눈이 부셨다.

바느질 한 땀 한 땀에 투명하게 반짝이는 보석 알갱이들이 있었다.

옷을 만든 장인이 혼신의 힘을 다 해 정성껏 지었을 옷이었다.

드레스만으로도 거울 속의 예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되어있었다.

이렇게나 화려한데 하녀 아이들은 더 꾸며주고 싶은 모양이었다.

머리에 꽃장식을 올려준다기에 극구 사양했다.

머리에 꽃 꽂은 미친년이 되고 싶진 않단다!

그 대신 하녀들은 예님의 검정 생머리 위로 레이스로 된 리본 머리띠를 둘러주었다.

예쁘게 꾸며진 예님은 10살이라는 나잇대의 아이 같으면서도 성숙해 보이고 또 사랑스러워 보이기도 했다.

예님은 스스로 꾸미는 것엔 관심이 없었으나 가끔 누군가의 손길을 거쳐 변신하는 것은 언제나 즐겼다.

치장하는 것은 참 신기하고도 재미있는 일이었다.

예님이 이렇게 한껏 꾸미게 되는 날은 꽃이 활짝 피는 화전놀이 기간이나 건국제와 같은 특별한 축제가 열릴 때였다.

그럴 때면 선녀님들은 꼭 예님에게 줄 새 옷 하나 지어와 입혀 놓고 볼이며 입술이며 연지로 찍어 발라주었다.

불그스름 생기가 돌면 투박했던 얼굴은 새색시처럼 어여뻐졌더랬다.

예님은 잠시 지난날을 떠올리다가 문뜩 익숙한 시선을 따라 창문 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에휴.”

오늘도 느껴진다.

그녀들의 시선이.

예님은 창밖 멀리 나무 위에 보이는 베라와 소피아를 알고 있었다.

곁을 맴돌지 말라고 쫓아내니 저기까지 가 있더라.

일단은 며칠째 모르는 척하는 중이었다.

하지만 그녀들의 뜨거운 시선을 모르는 척한다는 건 퍽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녀들의 상사인 노아에게 그만두라 해도 그는 모르는 척 오리발을 내밀었다.

그는 예님이 베라와 소피아를 인정하고 익숙해지길 바라는 듯했다.

이 역할극에 있어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그래서 예님도 어느 정도 체념한 상태였다.

미안하지만 그녀들의 호위는 소용이 없었다.

예님이 분신을 만들어 놓고 방 밖으로 돌아다녀도 전혀 알아차리질 못하던걸.

복주머니에 있던 밀짚 인형은 예님이 방에서 잠을 자거나 공부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에 좋았다.

만약 베라와 소피아가 알게 된다면 무척이나 망연자실할 테다.

예님은 시녀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고른 단화를 신었다.

발등에 동그란 털이 달린 귀여운 신발이었다.

털 뭉치가 걸음마다 달랑거렸다.

그게 재밌어서 방을 한 바퀴 돌고 있는데,

똑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다.

“예님, 준비 다 됐어? 이제 갈 시간이야.”

에반이었다.

정갈하게 머리를 넘기고, 화려한 장식이 달린 옷을 근사하게 입으니 평소보다 훨씬 어른스러워 보였다.

“에반 오라버니, 완전 멋지다!”

“큼큼, 당연하지.”

예님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는지 에반의 광대가 메추리알처럼 둥글게 올라왔다.

“그렇지만 예님, 그런 말은 남자가 먼저 건네는 거야.”

제 목을 매만지던 하얀 손이 예님의 눈앞으로 내려왔다.

푸른 눈이 반달처럼 접혔다.

“누구 동생인지 뭘 입어도 예쁘네.”

에반의 손을 잡고 내려간 로비에는 테오르와 노아가 기다리고 있었다.

역시 평소보다 힘이 들어간 옷을 입으니 분위기들이 확연히 달랐다.

이 나라에서 가장 이름 있는 가문의 사람들이라는 말이 거짓은 아닌지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점잖고 엄숙했다.

예님은 최근 카이와 함께 읽었던 책 속에서 몽블라체의 명성에 대해 배웠다.

국가의 영웅, 웰츠의 검.

그 대단한 자들이 예님의 앞에 있었다.

“오오오! 이 한여름에 눈꽃의 천사가 강림하였구나!”

테오르가 입만 안 열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럼 더 우아해 보였을 텐데.

예님은 또 낯부끄러운 칭찬 시간이 다가왔음을 느꼈다.

“우리 예님이를 보니 더위가 싹 가신다. 이 할애비는 얼음이 따로 필요 없겠구나. 오늘따라 예님이의 초록색 눈동자에서 상큼한 사과 향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연회에 참석한 귀족들이 예님이이 뿌린 향수를 부리나케 사고 싶어 할 거야. 우리 예님이는 향수 같은 건 뿌리지도 않았지만 말이다! 우리 예님이는 눈빛만으로도 본연의 향기가 가득한 싱그러운 아이인걸!”

“할아버지 적당히 하세요.”

에반이 질린 표정으로 호들갑스러운 테오르를 향해 말했다.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었으나, 보냉 마법이 적용되고 있는 벨루치아 성의 내부는 하나도 더울 일이 없었다.

눈빛에서 향기가 난다니 그 이상한 표현은 또 무엇이고, 날이 갈수록 팔불출이 더 심해지는 테오르였다.

오죽하면 에반이 예님에게 테오르를 무시하라고 하겠는가.

“예님, 네가 할아버지께 맞장구를 쳐주니까 저러시는 거 아니야.”

“손주 녀석은 하나도 귀엽지 않구나.”

테오르가 툴툴댔다.

“예님이 부담스럽다고 도망가면 다 할아버지 책임이라고요.”

에반도 툴툴댔다.

툴툴대는 두 사람 사이로 노아가 걸어왔다.

예님은 씩 웃으며 제 드레스 자락을 살짝 들어 올렸다.

“잘 어울리는구나.”

사실 이 드레스는 노아가 선물해준 것이었다.

그가 선물해주는 옷은 옷장에 쌓여가지만 예님은 옷을 입을 때마다 항상 감사를 표했다.

예님의 작은 손이 에반에서 노아로 옮겨졌다.

훨씬 큼지막한 손이 예님의 손을 단번에 휘감았다.

“오늘이 예님으로 불리는 마지막 날이군.”

“나, 엘리나 몽블라체입니다.”

예님은 아직은 어색한 새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 보았다.

엘리나라...

오랜 고민 끝에 예님이란 이름은 대외적으로 숨기기로 했다.

긴 세월을 사는 그녀가 소중한 이름을 오래도록 쓸 수 있도록 말이다.

어쩌면 역사적으로 남을 이름이기에 진짜 이름은 숨기자는 노아의 의견이었다.

앞으로 예님은 노아를 도와 몽블라체 공작가의 수양딸 엘리나란 이름으로 살게 된다.

엘리나는 테오르가 지은 이름이었다.

그가 언젠가 손녀딸이 생기면 선물할 이름이었단다.

테오르는 엘리나라는 이름이 예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참 잘 어울릴 것 같다며 좋아했단다.

예님도 제게 또 하나 생긴 이름이 마음에 들었다.

엘리나 몽블라체.

가이아스러운 이름.

서대륙에 자연스레 섞여든 기분이었다.

마차는 지금까지 타보았던 것 중 가장 컸지만, 사람 네 명이 타고 있으니 꽉 찬 그림이 나왔다.

그러고 보니 3대가 타 있는 마차였다.

강력한 유전자를 가진 세 사람과 함께 있으니 신기했다.

다른 사람이 보면 혈육이 아님에도 오묘하게 닮은 예님까지 더해져 더 신기하게 보였지만 말이다.

예님은 몽블라체의 남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 한 소년이 떠올랐다.

푸른색과 노란색 눈을 가진 특별한 아이.

“제이드 오라버니는요?”

예님은 제이드를 다시 볼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마디 못 나눠 보았던 그와 대화를 하고 그 어여쁜 눈을 들여다보고 싶었다.

무심한 부모 뒤로 조용히 고개만 숙이고 있던 아이의 모습이 자꾸 아른 거렸다.

어두워 보였던 그 애의 마음속을 살짝 엿보고 싶었다.

“성에 먼저 가 있을 거다. 아슈체르타 공작과 누님과 함께 오겠지.”

“제이드 형이 그렇게 보고 싶어?”

저번부터 예님이 제이드를 찾고 있단 걸 알고 있는 에반이 물었다.

“응, 궁금합니다. 친해지고 싶습니다.”

사실 에반은 예님을 위해 벨루치아 성으로 제이드를 몇 번 데려오고자 했다.

하지만 제이드는 무엇이 그리 바쁜지 아슈체르타 저택까지 찾아간 에반에게 얼굴조차 내밀지 않았다.

“에반, 네가 제이드와 친하니까 도와주거라.”

테오르가 그렇게 말했어도 에반은 예님과 제이드를 친하게 하는 것은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판단을 내린 상태였다.

에반은 언젠가 제이드와 함께 대화한 적이 있었다.

여동생이 있으면 좋겠다고.

서로의 부모님께 여동생을 낳아달라고 마구 조르기도 했다.

그래서 에반이 예님이 가족이 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떠올린 사람은 제이드였다.

‘우리에게 여동생이 생긴데 제이드!’

‘그건, 진짜 여동생이 아니잖아.’

그때 알아 차렸어야 했나.

제이드가 예님을 크게 반기지 않는다는 걸.

“요즘 형이 말 수가 더 준 거 아시잖아요. 제가 말을 걸어도 조용해요.”

“둘이 치고받고 싸우며 잘 놀지 않았느냐.”

“삼촌, 그게 언제 적 이야기인데요.”

“그런가. 그새 또 커버렸나 보군.”

노아는 아무래도 제 조카들에 대한 예전 기억에 머무는 듯했다.

그에겐 둘째 누나 줄리아나가 에반이 말을 안 듣는다며 술병을 들고 찾아오던 때가 엊그제 같았다.

“사춘기라 그리 말 수가 준 것이 아닌가?”

노아는 나름대로 조카들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잠시 눈 돌린 사이에 또 자라있는 아이들을 보니 놀랍기만 했다.

“제가 보기엔 그거랑은 종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삼촌.”

에반은 제이드가 사춘기와는 달리 어딘가 변했다고 느꼈다.

“아카데미를 졸업하자마자 검술도 그만두고 집안에만 있잖아요. 이모랑 이모부께서도 크게 신경 못써줄 텐데 아무래도 형이 걱정돼요.”

“애들이란 어렵군...”

“그래, 에반이 잘 얘기했다. 제이드는 언제나 의젓해서 신경 쓸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듣고 보니 걱정이 되는구나. 내가 돌아가기 전에 제이드와 한 번 만나보마.”

이제야 모두가 제이드에게 신경을 못 쓰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다.

조용하고 의젓했던 아이이니 예님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 전까지 쉽게 떠올리지 못했던 걸까?

예님은 짐작했긴 하지만, 그동안 제이드가 방치되었다는 사실에 걱정이 앞섰다.

로렐라이도 그렇고,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마차 안에 감돌던 침묵을 깬 것은 테오르였다.

“일단 오늘은 연회에 집중하자구나. 예님이가 엘리나가 되는 중요한 날이잖느냐?”

마차의 창문 위로 올려진 테오르의 손바닥 위로 빛이 가득한 황궁이 보이고 있었다.

화려하다.

한 나라의 황제가 사는 곳답게 황궁은 구석구석 빠짐없이 화려했다.

정문에서부터 거대한 조각상이 있는 분수대까지 마차로 타고 오는 내내 예님의 머릿속에 든 생각이었다.

그저 뾰족한 지붕을 가진 새하얀 건물일 줄로만 알았던 황궁은 다채로운 문양과 호화로운 색들이 천장, 벽, 바닥 할 것 없이 가득했고, 눈을 심심하지 않게 해주는 특이한 건물이나 그림과 조각물 같은 장식품은 물론, 궁인들로 보이는 사람들의 옷은 남부럽지 않게 좋아 보였다.

궁궐 안에 들어선 뒤로 벌써 몇 개의 건물을 지나쳤는지 모르겠다.

“여기선 절대로 혼자 다니면 안 돼. 어딘가 가고 싶다면 오라버니를 불러. 나는 머리가 똑똑해서 이곳 지리를 단번에 외웠으니까 길을 잃지 않고 데려다줄 수 있어.”

영영 멈추지 않을 것 같던 마차가 푸르르 숨을 토해내는 말소리와 함께 도착을 알렸다.

여인이 물을 푸는 조각상이 있는 분수대 뒤로 보이는 단층의 노란색 건물이 그들의 목적지인듯싶었다.

예님은 노아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마차에서 내렸다.

높은 계단을 딛으며 긴 드레스 자락을 밟지 않도록 아주 조심조심해야 했다.

“이곳에서 황제 폐하를 뵌 뒤에 연회장으로 갈 거다.”

노아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구경하기 바쁜 예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안내를 위해 나왔다는 시종이 정중한 소개 인사와 함께 다가왔다.

“아슈체르타 공작부부와 링헬코반 후작부부께서는 먼저 도착해 계십니다.”

모두가 걸음을 옮기자 테오르가 예님의 옆으로 왔다.

왼편에는 노아, 오른편에는 테오르의 손을 잡은 예님이었다.

그녀는 여름날의 밝은 저녁 놀을 올려다보았다.

오늘이 수많은 사람에게 특별한 밤이 될 것을 알기라도 하는지 유난히 아름답다.

세상 저편으로 숨은 태양이 남기고 간 분홍색 하늘에 유독 가슴께를 간질이는 설렘이 있다.

시종이 안내한 곳은 건물 안쪽에 야외 테이블을 작은 펼친 정원이었다.

“아버지, 오셨어요?”

차를 마시고 있던 줄리아나가 테오르를 반기며 일어섰다.

링헬코반 후작이 뒤이어 다가와 노아와 테오르 순으로 인사를 건넸다.

“예쁘게 입었구나, 엘리나.”

줄리아나가 예님의 새 이름을 불러오며 가볍게 포옹을 했다.

예님은 줄리아나의 품에 안기며 정원 한 편에 무기력하게 앉아 있는 로렐라이를 발견했다.

아름다운 붉은 드레스를 입고도 즐거워 보이지 않는 표정으로 의미 없이 테이블 위의 찻잔으로 달그락 소리 내는 그녀였다.

억지로 오기 싫은 곳을 왔다고 시위라도 하듯 말이다.

그녀는 아슈체르타 공작이 어깨를 감싸 일으켜 세워서야 일어났다.

테오르의 앞으로 걸어온 그녀가 무미건조한 인사를 내뱉었다.

“...오셨어요, 아버지.”

“오셔서 기쁩니다, 누님.”

노아가 손을 내밀었지만, 로렐라이는 거들떠보지도 않으며 팔짱을 꼈다.

“다신 이런 자리에 불러내지 마.”

붉은 연지를 바른 입술이 미세하게 뒤틀렸다.

조금 신경질적인 말투였다.

그녀는 예님 쪽으로 몸을 돌려 자리로 돌아갔다.

고개를 돌리며 살짝 마주친 시선에는 한 톨의 관심도 담겨있지 않았다.

예님은 인사도 없이 떠난 그녀가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쌀쌀맞구나.

예님과 노아의 앞으로 잔뜩 미안한 얼굴의 아슈체르타 공작과 제 신발 코만 멀거니 바라보고 있는 제이드가 다가왔다.

“로렐라이가 오늘은 유독 기분이 안 좋습니다, 미안합니다. 공작.”

“괜찮습니다. 욕심내어 공작과 누님을 초대한 것은 이쪽이니까. 제이드, 오랜만이군”

노아가 마차에서의 대화 주제가 신경 쓰였던 탓인지 제이드를 향해 먼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외숙.”

평소 먼저 말을 걸어오는 법이 없었던 노아가 이름을 불러오자, 평소 마주칠 때면 그저 인사만 꾸벅하고 조용히 있던 제이드가 당황하며 대답해왔다.

“엘리나가 되었다고 했지, 잘 어울리는구나. 네 앞길에 가이아의 은총이 가득하길 바라마.”

“감사합니다.”

자리는 금세 어른들의 대화로 이어졌다.

노아와 아슈체르타 공작 대화에 링헬코반 후작과 테오르가 끼어들면서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시작됐다.

“안녕하세요, 제이드 오라버니?”

예님은 생긋 웃으며 아슈체르타 공작 뒤에 멀뚱히 서 있던 제이드에게로 다가갔다.

“…안녕.”

한 박자 느린 대답과 함께 힘없는 시선이 예님의 위로 떨어졌다.

파란색과 노란색의 짝이 다른 눈동자, 일전에 카이가 알려주길 서양에서는 제이드와 같은 눈을 오드아이라고 부른단다.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

제이드는 대답 대신 예님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예님은 큰 키의 제이드를 물끄러미 올려보았다.

길고양이가 경계하는 것이 풀릴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는 것처럼 예님은 가만히 기다렸다.

짧은 침묵이 그들 사이를 오갔다.

“오라버니?”

“... 야.”

제이드가 침묵을 깼다.

”오라버니라고 부르지 마.”

여전히 무미건조한 눈빛이었다.

높낮이 없이 나직이 했던 목소리는 오직 예님에게만 닿았다.

예님은 눈살을 찌푸렸다.

로렐라이도, 제이드도 상당히 까칠한걸.

아이는 마음을 들여다볼 틈조차 만들어 주지 않았다.

“왜…?”

“...’

눈앞에 쌓인 벽에 할 말을 잃은 예님은 목석이 됐다.

제이드는 어두컴컴한 밤과 같았다.

말없이 예님을 응시하던 제이드는 차갑게 뒤돌아 로렐라이 곁으로 멀어졌다.

제이드가 떠나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에반이 예님에게로 다가왔다.

무엇이 잔뜩 궁금한 표정이었다.

“제이드랑 무슨 얘기 했어?”

어른들 앞에서는 제이드를 형이란 호칭을 떼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에반이었다.

“으음, 그냥.”

얘기랄 것도 없었기에 예님은 얼버무렸다.

가볍게 제이드의 속마음을 알아볼까 하다가 찬밥처럼 내쳐졌으니 퍽 민망하기도 했다.

예님은 대화를 통해 사람들의 내면을 살짝 엿볼 수 있었다.

눈빛을 보고, 목소리를 듣고, 작은 손짓 몸짓, 표정 하나하나를 눈여겨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아냈다.

짧은 대화에서도 가능했고, 설사 대화 내용이 거짓이라도 괜찮았다.

거짓이라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고, 진실이라면 겉과 속이 같았다.

그러나 제이드처럼 대화를 초입부터 단절시켜버린다면 그 속이 어떤지 알 수 없었다.

“너한테 뭐라고 했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가서 이마에 손이라도 올려볼까?

본질을 알려주는 눈과 생각하는 마음이 가장 가까운 이마에 손을 올리면 그의 감정과 마음 상태를 단편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일전에 정체가 수상했던 제제에게도 써먹었던 방법이기도 했다.

에반은 예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단 것을 알았다.

조금 떨어져서 지켜본 것이지만 제이드가 무어라 중얼거린 말에 예님의 얼굴이 당황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제이드 저 녀석이...!

이제까지 저의 방문과 연락을 모조리 무시하던 제이드의 행동과 예님을 향한 태도가 더해져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나려고 했다.

무어라 따지기라도 하기 위해 제이드를 향해 가려는데 예님이 작은 손으로 손가락을 잡아왔다.

그리고 때마침, 시종이 황제가 왔음을 알렸다.

붉은 보석이 박힌 금황관과 땅에 끌리도록 길고 화려한 금빛 망토.

정렬된 줄을 지어 따라오는 사람들이 거대한 꼬리 같다.

백금발에 황금 눈을 가진 남자가 노아와 사람들의 인사를 받으며 정원으로 들어왔다.

이쯤 되니 그의 온몸을 둘러싼 금색에 눈이 부시다.

황금의 남자가 예님의 앞에 걸음을 멈추었다.

예님은 그를 올려다보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호오

흥미가 가득 담긴 감탄사가 던져졌다.

“네가 노아 몽블라체의 마음을 사로잡은 아이구나.”

그 낯설지 않은 색깔에 예님은 배웠던 대로 치마를 살짝 집어 올리고 무릎을 굽혔다.

“가이아의 가호가 함께하시기를. 엘리나 몽블라체 입니다.”

그제야 이슬을 머금은듯한 풀잎 색을 닮은 오묘한 초록 눈동자가 황제에게 향한다.

두 눈을 마주한 카를로스의 얼굴빛에 살짝 놀란 기색이 스쳐 갔다.

어색하고 어눌한 말투임에도 망설임 없이 직시해오는 눈빛이 견고했다.

사랑스러운 얼굴을 하고도 야무진 미소를 짓는 모습에 그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여길 수 없는 기운이 느껴졌다.

평범한 아이가 아니다.

몽블라체가 이 아이를 들인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 똘망한 얼굴을 보아라.

존재만으로도 천군만마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가?

그것만이 아니었다.

몽블라체의 피가 섞였다고 해도 믿을 만큼 새까만 검은 머리, 가이아인과는 조금 다르게 움푹 들어간 곳 없이 동글동글한 얼굴형과 가늘고 긴 눈매 오동통한 작은 입술, 동양적인 매력을 보다 뛰어나게 해주는 눈 밑의 점까지.

완벽하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보아도 오늘 연회에 온 귀족들을 전부 홀려버릴 것 같은 매력적인 외형이다.

노아가 어찌 자신 있어 했는지 알겠다.

이 아이라면 많은 이들의 호감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긋, 예님이 미소 지었다.

맙소사!

카를로스는 경악했다.

그리고 내뱉을 수밖에 없었다.

“황실로 시집오려무나.”

순간 수많은 시선이 화살 내리꽂듯 따갑게 카를로스에게로 쏟아졌다.

긴 생각 없이 튀어나온 한마디였다.

본능적으로 ‘너 내 딸 해라’라는 말은 못 뱉었건만 차라리 그게 더 나을 뻔했다.

“허허허, 농담이다. 물론 진심 없는 농담은 아니지만.”

황제가 된 뒤로 이리 살벌한 눈빛들은 처음 받아보는 카를로스였다.

제 형제와 다름없이 지내는 테오르와 궂은 장난에도 언제나 표정 변화 없던 노아, 장래에 몽블라체가 될지도 모르는 작은 녀석에 뒤에 조용히 서 있던 제 아들 녀석까지...

농담 하나로 적을 몇 명이나 만든 건지 모르겠다.

“몽블라체 공녀, 내 자식들을 소개해주지. 별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몽블라체에게 예를 보이는 일이니 그렇게 쳐다보지 말게, 테오르.”

“제가 폐하를 보고 있었습니까?”

살벌한 퉁명스러움에 사레가 들릴 판이다.

예님은 몽블라체의 사람들이 황제를 향해 소리 없이 으르렁거린다고 생각했다.

저를 친딸처럼 생각해주는 것이 고맙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다.

속으로 웃음을 터뜨리고 있는데, 어라?

황제의 뒤로 친근한 얼굴이 보인다.

“룬...?”

작게 중얼거리는 목소리에 옆에 서 있던 에반이 재빨리 어깨를 잡아오며 속삭였다.

“쉿, 지금은 모르는 척해.”

세상에, 그럼 저 백금발과 금안이 황실의 상징 그 자체였단 말이야?

“안녕하세요, 엘리나 양. 나는 제1 황자 에릭 샤인 반 다비오드입니다.”

“제2 황자 숀 샤인 반 다비오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엘리나양,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룬 샤인 반 다비오드입니다.”

룬!

으, 친구를 친구라 부르지 못하다니!

입이 근질근질하다.

샤인에 온 이후로 처음 보는 자리가 이런 곳이라니.

당장에라도 손을 잡고 방방 뛰며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보고 싶었다.

예님은 자꾸만 룬에게 향하는 시선을 애써 다른 곳으로 돌렸다.

이제서야 제제가 룬을 황족의 대표적인 생김새로 예시로 들었는지 알겠다.

저 눈동자, 저 머리카락 색 누가 보아도 황제와 매우 똑같았다.

제1 황자 에릭과 제2 황자 숀보다도 룬과 황제가 지닌 색이 훨씬 밝고 따뜻해 보이는 감상을 줬다.

예님은 신기한 눈으로 황족들을 구경하던 중 숀과 시선을 마주쳤다.

숀 역시 예님을 신기하게 바라보던 중이었던 것 같았다.

숀이 싱긋 웃었다.

예님도 싱긋 웃어 보였다.

이쯤 되면 시선을 먼저 돌릴 법도 한데 얼굴에 뭐가 묻었나 싶을 정도로 집요하다.

이상하기도 하지, 그렇게 보다간 이 어여쁜 얼굴 뚫리겠다.

기분이 살짝 불쾌해진 예님은 숀과 눈 씨름하는 것을 포기하고 황제를 바라보았다.

노아와 대화 중인 황제는 짓궂은 사람이었다.

예님은 그들의 대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 노아가 황제의 말에 난감해 하고 있단 사실 하나는 기가 막히게 눈치 챘다.

저런, 노아도 황제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신하구나.

그러게 내가 최고의 권력을 손에 쥐어준다니까. 쯧쯔!

그는 노아를 놀리는 데에 맛들린 상태였다.

노아가 예님에 관한 것에선 민감한 것을 알면서 일부러 건드렸다.

“참고로 숀과 룬은 아직 약혼자가 없지. 마음에 든다면 나는 대환영일세.”

“폐하, 사람들이 기다리겠습니다. 연회장으로 가시지요.”

어쩐지 노아의 음성이 이를 악문듯하다.

예님은 그 모습이 신선해 웃음을 터뜨리려다가 입을 꾹 다물었다.

항상 침착한 노아에게도 감정변화가 클 때가 있구나.

귀엽기도 하지.

“그래, 이제 그만 가볼까? 오늘 밤, 우물 안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자고.”

예님은 에반의 손에 이끌려 노아의 옆으로 갔다.

노아가 그녀의 손을 꽉 잡아왔다.

커다란 연회장은 눈부신 조명으로 가득했다.

노아와 예님은 두 손을 맞잡고 연회장으로 들어섰다.

“노아 몽블라체 공작님과 엘리나 몽블라체님 입장하십니다!”

“앉아서 쉬고 있거라.”

“네, 아버지.”

노아는 작은 미소를 남기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무리로 걸어갔다.

“예ㄴ... 아니지 엘리나, 정신없지?”

예님은 에반이 건네준 과일 접시를 받아들였다.

노아를 따라 주요 인물들에게 얼굴도장을 찍고 다니느라 진이 다 빠졌다.

“네, 얼굴, 이름 외우기 힘듭니다.”

“뭐? 오늘 다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돼. 네가 사교계에 데뷔하려면 한참이나 남았으니까.”

“그래도... 음, 아닙니다!”

서로 통성명을 했으니 다음에 볼 때는 아는 체를 해주는 것이 좋잖니.

빠르게 흐르는 대화를 알아듣겠다고 하도 귀를 쫑긋 세우고 있어서 그런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을 가이아 어로 뱉을 힘이 안나 그냥 입을 다물어버렸다.

그러고 보니 저녁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못 먹고 있었다.

힘을 채우기 위한 음식이 필요했다!

“에반 오라버니, 나 배고픕니다!”

“과일이라도 먹고 있어, 먹을거리 가져다 달라고 했으니 곧 올 거야.”

과일로 만족할 수 있는 허기짐이 아니었지만, 우선은 급한 대로 포도 한 알을 집어 들었다.

별생각 없이 입안으로 직행하는데, 주변이 쎄했다.

아니나다를까 수많은 사람의 시선이 그녀를 향해 있었다.

아이고, 내가 과일 먹는 모습도 궁금한가 보구나.

이 모든 것이 그녀가 감수해야 할 일이었다.

연회장에 들어선 순간부터 수많은 눈빛이 여느 시어머니가 그러듯 며느리를 평가하듯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저 아이가 우리 노아 공작님의 그 아이인가요?’

그래도 초반보다는 나아진 거다.

예님은 한 시간 전, 제가 등장하던 때의 상황을 떠올렸다.

‘태지천 사람은 처음 봐요!’

‘정말 신기하게 생겼군요!‘

‘태지천의 사람은 머리에 뿔이 달리고 엉덩이엔 꼬리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닌가 봐요!’

웅성웅성, 사람들이 호기심 가득한 행동과 말투로 저마다의 감상평을 내뱉었다.

예님은 어느 수집가의 방에 전시된 도자기가 된 기분이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한 그림이었다

생각보다 수위는 셌다.

‘공작이 아이를 아낀다는 소문이 사실이었군요.’

‘꼭 잡은 손을 봐요! 놀라워라!’

‘기대보다 평범한걸요? 몽블라체 공작이 집에 들였다기에 엘프처럼 아름다울 줄 알았는데요.’

‘뛰어난 미모라기보다는 그저 나잇대 답게 귀엽네요.’

‘저 정도의 아이는 저 역시 낳을 수 있는데... 분하네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도 공작님은 아직 미혼이시고 저 아이는 수양딸일 뿐이니까요.’

청각이 좋은 탓에 안 들어도 될 말이 들리니 퍽 난감했다.

예님은 제가 경국지색이 아니란 것을 잘 알았지만, 이렇게 평가당할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도 잘 알았다.

자기 자신과 주변의 모든 이들을 사랑하기에도 바쁜데, 굳이 자신이나 타인의 단점을 찾아 싫어하는 것은 시간 낭비였다.

각각의 예쁨과 잘생김이 있는데, 뭣 하러?

생김새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예님이 가장 쓸데없어하는 일 중 하나였다.

대신에, 예님이 신경 쓰이는 것은 노아와 저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예상보다 훨씬 노아의 옆자리를 노리는 자들이 많았다.

개중에는 노아를 보며 울먹이는 이들도 있었으니, 의도치 않게 꽃에 꼬이는 벌과 나비들을 쫓는 훼방꾼이 된 기분이 들었다.

이왕 이렇게 됐으니 나쁠 것 없었다.

노아의 색시로 마땅한 자를 골라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노아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분명 예님에게 접근할 테다.

후후, 내 기필코 노아에게 천생배필을 찾아 맺어주마!

예님은 노아 한정의 청실홍실로 남녀의 인연을 맺어준다는 월하노인이 되겠다는 열의에 불타올랐다.

“엘리나, 벌써 그걸 다 먹은 거야? 잘 먹는 건 좋지만 이런 데선 나처럼 이미지 관리를 해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우러러 바라본다고!”

에반은 예님이 비워낸 핑거푸드들의 빈 접시를 보고 절레 절레 고개를 저었다.

제 사촌 동생은 아직 어려서인지 사람들에게 멋있어 보이는 방법을 잘 모르는 듯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이미지 관리는 ‘에반님께선 이슬만 드시고 사시나 봐!’와 같은 반짝반짝 우러러보는 시선을 받기 위해선 필수였다.

“더 먹고 싶습니다. 더 주세요.”

“에휴, 하는 수 없지. 많이 먹을 거지?”

끄덕.

물론이지! 이런 코딱지만 한 음식들은 간에 기별도 안 돼서 자면서도 먹을 수 있다.

에반이 시종을 붙잡고 음식을 더 가져오라고 하는 사이, 예님은 아까보다는 줄어든 관중의 관심에 안심하며 연회장을 쓱 둘러보았다.

사람의 눈빛을 마주하는 것은 좋아하는 예님이었지만 감당할 수 없이 쏟아지는 것은 역시 거북했다.

멀지 않은 곳에 선율이 고운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곳이 있었다.

사람들은 무리 짓거나 짝을 지어 흘러나오는 노래에 맞추어 정해진 춤을 췄다.

기분 좋은 가락처럼 하늘하늘 흩어지는 여성들의 드레스 자락이 아름답다.

마침 흐르고 있던 음악이 전환됐다.

방금까지는 부드럽고 가벼운 연주가 흐르더니 지금은 경쾌하고 빠른 박자로 춤을 추는 사람들의 동작을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사람들이 박자에 맞춰 짝짝짝 박수를 췄다.

연회장에 흥이 올라 덩달아 예님의 기분도 신이 나기 시작했다.

무희가 아님에도 복잡한 몸동작으로 짜인 춤을 추는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재미있어 보였다.

유독 눈독 눈길이 가는 사람이 있었다.

춤을 추는 사람은 아니었고, 근처에서 난감한 표정으로 서 있는 여성이었다.

굽이치는 풍성한 하늘색 머리카락의 그녀는 한 남자를 향해 정중하게 부탁을 거절하는 중이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 보였다.

남성은 포기를 모르고 그녀의 손을 놓아주지 않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어째서 도와주지 않는 거지?

그녀 주위에 있는 자들이 전부 젊은 총각들인 것을 보니, 하늘색 머리카락의 여성이 이성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것이란 걸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었다.

“누구예요?”

예님은 뒤편에 인기척 없이 서 있던 포니테일의 베라를 향해 물었다.

”세실리오 백작가의 캐서린 양입니다. 아름다운 외모로 유명하신 분이죠. 함께 계신 분은 어느 가문의 차남이십니다만, 죄송합니다, 이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캐서린이라... 잡힌 손목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걸로 봐서는 남성의 태도가 무례하기 짝이 없어 보였다.

캐서린의 손목이 꽤 아파 보이는데...

“좋지 않아 보여요. 도와주고 싶습니다.”

“제가 가서 도와드릴까요?”

“부탁해요.”

베라는 예님의 첫 명령에 감동했다.

예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기꺼이 할 수 있었다.

마음씨도 좋으시지, 곤란에 처한 사람을 도울 줄도 아시고 어른스러우셔!

베라는 사람들 틈을 파고들어 캐서린을 향해 갔다.

그리고 무례한 남성의 손등을 착 내리쳤다.

저도 모르게 상당한 힘이 들어가버렸다.

“아악! 뭐하는 거야?”

“어머, 먼지를 털어 들인다는 게...”

캐서린은 틈을 타 남성에게 잡혀 있던 손을 재빠르게 빼냈다.

하얗고 가는 손목이 새빨갛게 부어올라 있었다.

베라는 높게 올린 포니테일로 캐서린 쪽으로 휙 돌아섰다.

그녀의 포니테일이 먼지 털린 남자와 주변에 서 있던 구경꾼들의 얼굴을 찰싹였다.

“어머, 괜찮으세요? 혹시 제가 그랬나요? 이럴 수가... 아가씨의 예쁜 피부에...”

“아, 아니어요, 기사님께서 잘못하신 게 아니라...”

캐서린은 미안함이 가득한 얼굴의 베라에게 정말 괜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소문대로 마음씨 여린 아가씨였다.

“이봐, 지금 뭐하는 거야? 나랑 캐서린 양이랑 대화하고 있던 거 안 보여?”

“저요? 아아, 지나가다가 경의 팔 위로 먼지 한 톨이 보여서요. 결벽증이 있는지라 저도 모르게 실례를 했네요.”

베라는 과장된 몸짓으로 제 왼쪽 가슴팍을 두드렸다.

남자는 베라의 왼쪽 가슴 위에 새겨진 마크를 보았다.

모, 몽블라체의 까마귀?

그제야 베라의 어깨 위의 푸른색 망토가 눈에 들어온다.

“제 무례를 용서하시지요.”

“쳇! 까마귀가 왜…!”

남자는 주변에 혹시 노아라도 있을까 봐 화들짝 놀라 두리번두리번 댔다.

몽블라체와 소란을 부려봤자 제 손해이다.

그는 곁에 있던 친구들을 향해 손짓했다.

“가자! 아아, 캐서린 양 다음에 꼭, 한 곡 부탁하겠습니다. 그때는 놓아드리지 않을 거니까요. 쳇.”

그 와중에도 다음을 기약하다니 참 끈질기다.

베라는 작게 혀를 찼다.

“감사합니다, 기사님... 제가 어떻게 답례를 드려야 할지. 정말 감사드려요...”

남자들이 떠나자 안심한 캐서린은 어깨를 잘게 떨고 있었다.

인기가 많은 그녀에게 이런 일은 흔하다고 한들 무섭고 힘든 상황이 적응될 리가 없었다.

“감사인사는 제가 아닌 엘리나 아가씨께 해주십시오.”

“엘리나 양께서요...?”

캐서린은 베라의 손끝에서 케이크를 먹으며 저를 향해 귀여운 미소를 짓고 있는 아이를 바라봤다.

오늘의 주인공인 몽블라체 공작의 수양딸이었다.

두 손을 모은 캐서린은 예님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님은 별 것 아니라는 듯 베시시 웃어 보일 뿐이었다.

캐서린도 마주 웃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생각했다.

‘사랑스러운 미소야.’

‘세상에 저리 사랑스러울 수가...!”

다음 날 오후.

“노아와 잘 어울릴지도...>”

“응? 뭐라고 했어?”

에반이 턱을 괴고 중얼거린 예님에게 되물었다.

그는 카이에게 지난밤 연회에서의 예님이 얼마나 예쁘고 자랑스러웠는지를 과장해서 설명해 주는 중이었다.

카이는 나이가 어린 관계로 연회에 참석하지 못해 슬퍼하는 중이었다.

“으응, 아니에요.”

“뭔가 노아, 어쩌고 했던 것 같은데? 외숙부 불러줄까?”

“괜찮습니다!”

괜찮다는 말과는 달리 예님은 에반과 카이의 대화에 집중을 못하고 있었다.

예님은 창밖으로 뭉게구름이 흘러가는 푸른 하늘을 보고 캐서린을 떠올렸다.

제대로 대화는 나누어보지 못했지만, 착한 아이 같았지?

노아가 본인이 소개해줄 때 말고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지 말라는 말만 하지 않았어도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어 친구가 되었을 거다.

언제쯤 다시 볼 수 있으려나...

"그러니까 어제 예님이 안녕하세요, 엘리나 입니다~ 하고 인사 한마디 하는데 사람들 표정이... 말도 마. 정말 볼만 했어! 음하하!! 다들 내 동생이 얼마나 귀여운지 단번에 알아차린 거지!"

"우와 역시 예님 아가씨 대단해요!"

"아주들 헤벌레 바라보는데, 내가 또 가만 있지 않았지! 우리 예님이가 불편해하면 안되니까. 불꽃같은 눈빛으로 쭈욱 째려봤어. 사람들은 화들짝 놀라서 딴짓하기 바빴지. 왜냐면 다들 알거든! 내가 노아 외숙만큼 아주 무서운 사람이란 걸!"

"우와! 에반님 정말 대단해요!"

카이는 에반의 반응 담당이었다.

에반이 무용담과 자기 자랑을 펼치면 되도록 기쁘게 반응해야 한단 것을 용케 터득한 카이였다.

어쩌면 카이가 4살은 어리지만, 지능은 에반보다 머리는 조금 더 높을지도 몰랐다.

예님은 두 사람을 보고 있으면 참 잘 어울리고 귀여운 쿵짝이라고 생각했다.

“저도 두 분의 멋진 모습을 직접 보았다면 좋았을 텐데요...”

“자식, 너도 금방 클 거야. 힘내.”

카이가 시무룩하게 말하고 에반이 다 큰 어른처럼 위로했다.

“맞다, 아버지께서 연회가 끝나면 마물 사냥대회가 있을 거라 했는데. 그땐 카이 너도 참석하여 구경 정도는 할 수 있을걸? 그때 내 멋진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지!”

“이번에 마물 습격으로 피해받은 국경선 쪽 마을을 위한 자선 사냥대회 말이죠?”

에반의 말에 풀이 죽어 있던 카이의 기운이 살아났다.

밝은 표정으로 어떤 대회에 대해 신이나게 얘기한다.

두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 예님이 갸웃 고개를 기울였다.

“마물?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마물은 사람도 짐승도 아닌 기이한 괴물이라는 거지?

태지천에 있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요물이 되겠다.

마물들은 보통 마기가 센 곳에 서식하고 출현하여 주변 생명체를 공격하는데, 무리를 몰려다니기보다는 단독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었다.

예님은 하녀에게 젖은 머리카락 손질을 맡기며 화장대 위에 올라와 있는 공책을 보았다.

에반과 카이가 가기 전까지 열심히 설명하던 마물에 대한 낙서가 잔뜩인 장이 펼쳐져 있었다.

봄이 오기 전, 그러니까 예님이 오기 직전이었다.

국경 지역의 ‘중앙 산맥’에서 마물들이 대규모로 내려와 근처 마을을 습격 사건이 발생했단다.

피해는 웰츠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도 크게 나 전 대륙이 비상이었다.

덕분에 노아는가 휴가를 받고도 몽베르 섬에서 그리 바빴던 것이다.

한 마을이 초토화 되고도 주변 지역까지 마물에게 잠식될 뻔 했으나, 어찌저찌 피해 발생 지역을 최소화하여 수습하여 안전을 되찾은듯 했다.

마물이 쏟아지듯 마을을 습격한 그날, 중앙 산맥의 ‘셸누아르’라고 부르는 봉우리에는 전에 없던 강력한 마기가 느껴졌단다.

어쩌면 이종족이 사는 마계와 연결된 판이 열렸을지도 모른다는 거다.

이세계의 마물 출몰은 가이아로 봤을 때 지옥에서 요괴, 악귀들이 넘어온다는 개념일까?

모쪼록 어제는 카이에게 한 번 더 감동한 예님이었다.

예님이 에반으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느라 생각에 잠겼을 때 카이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드랬지.

무서워하지 마요, 예님. 천하무적의 기사님들과 마법사님들이 우릴 지켜줄 거예요.

아아아아주 귀여운 위로였다!

아아,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진 아이여...!

예님이 감동에 젖어 있을 때 마물 얘기에 몰입하여 있던 에반이 카이의 말에 설명을 덧붙여 줬다.

국경지역의 제국들이 힘을 모아 셸루아르 산맥을 지키기로 했다고.

본인도 나라를 지키는 그런 멋진 기사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이번 마물 사냥대회에서 멋진 사냥감을 잡아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줄 것이란다.

어찌 아이들이 하나같이 어여쁜 마음을 지니고 있던지 예님의 얼굴에서 기분 좋은 미소가 떠나가지 않았다.

그래, 그 사냥 대회가 마물 습격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로하고자 여는 것이랬지?

하기사 그런 일이 있었다면 백성들의 불안이 꽤 클 것이다.

나라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긴 하나...

“내가 대회에 참여하고 싶다 하면 노아는 안된다고 하겠지...>”

신나는 일에 빠지지 않는 도깨비는 중얼 거리며 입을 빼쭉 내밀었다.

예님은 에반과 카이의 낙서가 있는 공책을 덮었다.

젖은 머리칼이 어느새 시원하게 말라있었다.

상쾌한 기분에 땅에 닿지 않은 발을 하늘하늘 흔들었다.

그 사냥대회에서는 제일 많은 마물을 잡은 자에게는 귀족들이 기부한 돈과 황실 지원금을 대표로 전할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진단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명성을 펼치고 싶은 이들에겐 둘도 없는 기회일 테다.

좋은 생각이 났다.

노아 몰래 사냥에 나서서 누구보다 많이 사냥을 하는 거다! 그리고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모든 사냥감을 노아에게 넘겨 명성을 펼치게 해주는 거지!

“좋아, 좋아! 아주 좋은 생각이야!>”

예님은 다시 공책을 펼쳤다.

어떤 마물이 제일 크고 무시무시해서 잡기 어려울까?

공책에는 에반과 카이가 그린 온갖 종류의 마물이 그려져 있었다.

중앙의 무수한 선들 속 눈에 띄는 윤곽의 낙서가 그녀의 시야로 들어왔다.

에반이 그린 것 같은데...

보면 볼수록 어디서 본 것 같다.

흐음, 어디 보자...

흐음...

아하!

룬의 미래에서 보았던 그 괴물들!

예님의 머릿속에서 풀어져있던 실타레들이 보기 좋게 짜여지기 시작했다.

혹시, 그날 도깨비 점이 보여준 시점에서의 장소가 셀누아르 산인 건가?

조금 더 짐작해보자면, 미래에 마물 습격이 적어도 한 번 더 있을 것이라는 말이었다.

가이아와 그 마계란 곳의 경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 분명하군.

좋았어.

이러한 정보만 있다면, 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직은 정보가 많이 부족하지만, 운이 좋게도 단서를 하나라도 얻었다.

하녀는 예님의 머리를 묶기로 결정했는지 분주하게 악세서리 함을 뒤적였다 .

예님은 따사로운 햇살에 살며시 눈을 감았다.

지난 연회에서 보았던 룬은 어둡고 과묵했다.

짧게 인사라도 나눌까 했지만 어디로 숨어버렸는지 사라져 버렸는지 머리카락 한올도 볼 수 없었다.

황자인 룬이 노아의 밑에서 수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비밀인 것을 보면, 룬에게도 말 못할 사연이 있겠거니 싶었다.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소중한 친구의 이야기라면 응당 관심이 당연히 가야 한다.

그러나 억지로 알고자 할 생각은 없다.

아이가 스스로 알려주고 싶어한다면, 귀를 기울여 들어줄 것이다.

“아가씨, 공작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오늘은 노아와 외출을 하기로 했다.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수도 시내 구경이었다.

점심과 저녁 모두 밖에서 먹을 예정이라 카이와 에반도 못 만난다.

그건 조금 아쉽지만, 오랜만에 노아와의 시간도 갖고, 처음으로 시내구경을 할 생각을 하니 기분이 참 좋았다.

“아버지! 얼른 놀러 갑니다, 빨리빨리!”

“예님, 아버지란 말 참 잘하는군...”

노아는 연회에서는 제법 자연스럽게 굴더니 아직도 아버지란 호칭이 부끄러운듯했다.

하기야 젊은 총각이 아버지 소리를 듣는데 하루아침 만에 적응이 되겠느냐마는...

예님은 노아가 적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보는 눈이 없는 데서도 그를 아버지라 부르기로 했다.

“아버지, 우리 어디로 갑니까?”

“중앙 거리로 간다. 수도를 반으로 나누는 강을 두고 상권이 발달한 구역이지.”

“요즘 젊은 귀족들 사이에서 맛있는 레스토랑이 많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평민들은 지나다닐 엄두도 못 내는 거리죠.”

분홍색 머리가 불쑥 튀어나와 설명을 덧붙였다.

“제제? 같이 갑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각하의 수행비서이니까요.”

멀건 얼굴로 ‘뭘 당연한 것을 묻냐’라는 듯이 생글생글 웃는다.

제제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오랜만이었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얼굴을 보긴 했어도, 그 시간이 짧기도 하고 예님의 주변에는 늘 가족이나 카이가 있어 말을 섞을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좀 얌전해졌나 했더니, 얌전은 커녕 여전하다.

“그리고 이 장소는 제. 가. 골랐답니다. 아가씨의 첫수도 구경을 위해 각하께서 신경 써서 알아보라고 하셨거든요.”

저 뺀질거리는 말투와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무르익나 보다.

“얼마나 고심 끝에 골랐느냐면 말입니다. 자, 아가씨 들어보세요~.”

제제는 제가 한 일에 대해 칭찬이라도 받고 싶은지, 어깨를 쫙 펴고 품에 넣어 둔 종이를 꺼내 제가 조사한 정보를 읽기 시작했다.

“큼큼, 잘 들으셔야합니다? 우선! 중앙 거리에 가서 꼭 해봐야 할 것은 강가를 따라 놓인 야외 좌석에서 식사하기입니다. 적당히 분주한 도시의 소음을 가장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죠. 어느 식당을 가도 요즘 유행인 탄산음료와 아이스티를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있고요. 또, 황립 아카데미가 바로 앞에 있어서, 부내 나는 건물 구경과 함께 하교 시간이 되면 아가씨, 도련님들을 픽업하기 위해 기다리는 마차들의 행렬도 구경하실 수 있답니다. 탄산음료 같은 경우는 저도 아직 못 먹어 봤지 말입니다. 할 일을 제치고 따라가는 만큼 각하께서 한 잔 정도는 사주시겠죠?”

“쯧.”

“지금 혀를 차신 겁니까, 아가씨?”

제제가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젓는 예님에 이해가 안 간다는 듯 물어왔다.

“제제는 시끄럽습니다.”

졸졸 따라다니는 내내 어쩌니저쩌니 중얼중얼 노아와 예님이 대화할 틈도 없이 종알댈 것이 분명했다.

“그건 그렇지.”

노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감했다.

“너무 하시네요. 저는 항상 각하를 위한 말만 합니다.”

“당신을 수다쟁이라고 합니다.”

노아가 작게 웃음을 뱉으며 무언의 동의를 던졌다.

제제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인상을 썼다.

“예님, 제제와 함께 가기 싫은가?”

그건 아니지만, 예님은 노아와 단둘이 있고 싶었다.

사실 할 얘기가 있었다.

“제제 휴가 주세요. 오지 마.”

“헉, 휴가요?”

피로에 찌들어 있던 제제의 분홍색 눈에 생기가 돌며 초롱초롱 빛난다.

간식을 눈앞에 두고 어서 달라며 꼬리를 팔락팔락 대는 개 한 마리 같다.

“좋다, 오늘은 반차로 여기서 퇴근시켜주지.”

“좋은 시간 되십시오!”

혹여 번복되기라도 할까 봐 사양 않고 신이 난 뒷모습으로 줄행랑을 치는 제재다.

아이고, 노는 것만 좋아한다니까.

예님은 시도 때도 없이 일하는 제제가 들으면 혈압이 오를 말을 속으로 중얼거렸다.

중앙 거리는 한적하게 복작였다.

일전에 수도해 도착해서 보았던 인파를 각오하고 있던 예님은 평화로운 거리에 발을 딛으며 기뻐했다.

사람 구경하기 딱 적당한 곳이다.

제제가 제법 괜찮은 장소를 골랐다.

예님은 예전에 노아가 사주었던 개구리 로브를 입었다.

노아도 조용히 다니기 위해 로브를 썼다.

더운 여름이었지만 로브를 입으니 따가운 햇볕을 가려주어 덥긴커녕 안 입은 것보다 훨씬 괜찮았다.

“아버지, 저거 강입니까?”

거리의 바로 옆에 흐르는 강에는 작은 선박들이 줄지어 둥둥 떠 있었다.

어떤 곳에는 강을 옆에 두고 테이블과 의자를 놓고 차를 마시거나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도 보였다.

저게 제제가 말한 야외 좌석이구나!

“우리 저기 점심 먹습니다!”

예님은 망설이지 않고 노아를 이끌어 야외에 테이블이 있는 식당으로 달려갔다.

“저곳이 황립 아카데미다.”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중에 노아가 예님 뒤편의 어느 곳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의 손끝에는 커다란 벨루치아 성보다 조금 큰 벽돌 건물이 하나 있었다.

강 건너편에 있었는데 건물 앞에 있는 근사한 다리를 통해 건너갈 수 있는 듯했다.

“에반 오라버니와 카이가 다니는 곳입니까?”

“그렇지. 8세부터 16세까지의 아이들이 다니며 학문을 배우는 곳이다. 학비가 비싸 귀족이나 돈이 있는 자의 아이들만 다닐 수 있다는 것이 큰 단점이지.”

노아가 안타깝다는 듯이 말했다.

“가난한 아이들은 대부분 글도 모르고 자라지만 운이 좋으면 신전에서 운영하는 배움터에서 글과 덧셈 뺄셈 정도의 수학을 겨우 뗀다.”

돈이 없다면 제대로 된 교육조차 못 받는다는 현실은 태지천과 다를 것 없었다.

“현재 폐하께서 아카데미를 평민에게도 무료로 개방하자는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귀족들의 이기적인 욕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어떤 사람들, 백성이 똑똑해지면 곤란합니다. 욕심꾸러기.”

“잘 알고 있군. 현재 정치계는 아주 고여 있어. 태지천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지.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주 많아.”

“하지만 변화를 시도하는 것 의미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있으면 분명 변화합니다.”

노아는 예님과 정치 이야기가 통하는 것이 신기했다.

저녁마다 가끔 술을 한잔 걸치며 대화를 하곤 했는데, 예님의 언어 실력이 점점 늘면서 노아는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의지를 하고 있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막혀왔던 생각에 확신과 새로운 길이 보이곤 했다.

예님이 해주는 말은 간단했지만, 많은 뜻을 포함하곤 해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실어 주었다.

그녀가 오랜 세월 많은 것을 보고 겪었었기 때문일 것이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님이 생긋 웃으며 화제를 전환했다.

노아는 그녀가 제게 물어 볼 만한 것을 짐짓 예상해보았다.

아카데미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 가령 구경하고 싶다거나...

“로렐라이 고모 이야기해 주세요.”

아,

그러고 보니 제 누님에 대해 궁금해할 법도 했다.

전혀 예상 밖의 질문이었지만, 노아는 예님이 제이드에게 관심을 보였단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노아에게는 익숙해진 데다가 바쁜 업무에 뒤처져 생각하지 않은 지 오래된 그녀의 상태였기에 미리 말해주었어야 한단 걸 잊고 있었다.

“로렐라이 누님은...”

노아는 테이블 위로 올라오는 음식을 보며 잠시 뜸을 들였다.

“제이드가 7살 때 누님이 유산했다. 임신 4개월 차에 말을 타던 중 떨어졌지.”

예님이 입술을 꾹 다물며 안타까운 기색을 내비쳤다.

“그 뒤로 일도 그만두고 우울증에 걸려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다.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성격은 완전히 변했고 항상 무기력한 상태에 있지. 아버지와 줄리아나 누님은 아무리 애를 써도 로렐라이 누님이 돌아오질 않자 아슈체르타 공작에게 맡기고 손을 놓은 상태야. 다들 지친 거지.”

“그럼 제이드는...”

“어릴 때는 의젓하게 이겨내는 줄 알았지만, 나도 얼마 전에야 그 녀석이 확실히 어두워졌다는 것을 눈치챘다. 아카데미를 졸업하자마자 잘하고 있던 검술을 그만둔다는 이야기에 생각이 있어서 그러려니 했다. 내게 알려줄 수 없는 이유가 있겠거니 하면서. 이제 생각해보니 그 아이도 우울증에 걸렸을지도 몰라. 진작에 신경 썼어야 하는데, 공작자리에 오르고 나서 바쁘단 핑계로 가족 일은 뒷전에 두었더니 이렇게 됐군.”

예님은 차가웠던 소년의 눈빛을 떠올렸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 외로웠던 걸까?

우울증이라기엔 무언가 다른 느낌이 있었다.

어그러진 태도에서 나오는 분위기,

무언가 정말 또렷한, 목표의식이 있는 듯한...

“제이드는 에반 하고는 어릴 적부터 터울 없이 지냈던 터라 여전히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어제 아버지가 만나러 가보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입만 꾹 다물고 있었다고 한다.”

여기서 가까워지고자 다가갔다간, 역효과만 날 것이 분명하다.

“흐으으음... 우선, 어른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평소처럼.”

일단 에반이 신경 쓰고 있으니까, 맡겨보자.

그날, 예님은 제제가 남기고 간 ’꼭 들려야할 샤인의 관광 명소 목록!’ 덕에 노아와 함께 즐거운 수도 구경을 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에반이 씩씩거리며 평소보다 늦게 예님을 찾아왔다.

“제이드 그 자식! 뭔가 단단히 미쳐버린 게 분명해! 자기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내버려두고 꺼지라고? 내가 다신 먼저 찾아가나 봐라! 형이라고도 안 부를 거야! 예님 너도 그 자식이랑 친해질 생각 접어둬! 카이, 너도!”

이런.

아무래도 에반도 제이드와 대화를 하는 데 실패를 했나보다.

이렇게 싸우고 올 줄은 몰랐는데...

예님은 제이드에게 잔뜩 화가 난 에반을 다독이며 쓴웃음을 삼켰다.

애들 일은 정말 예측할 수 없다니까.

에반을 통해 제이드에게 천천히 다가갈 생각이었던 예님은 대책을 생각했다.

눈에 아른거리는 아이를 두고 볼 수는 없다.

우선 제이드란 아이에 대해 알아갈 방법은 없을까?

에반은 제이드에 대해 입도 뻥긋하기 싫어하고, 노아와 테오르는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이걸 어쩐담...

예님은 에반과 카이 몰래 제 손에서 여전히 나약한 제 힘을 느껴보았다.

이거론 아직 부족하다.

하는 수 없다.

힘이 절로 돌아올 때까지 조금 참아보려 했거늘...!

내 힘이 필요해!

오늘부터 힘 키우기 특훈이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과 환한 달이 뜬 밤.

예님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베라와 소피아의 눈을 피해 방을 나섰다.

평소와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오늘부터는 성안이 아니라 성 밖으로 나갈 셈이었다.

목적지는 성의 뒤편, 달빛이 잘 내리쬐는 연못 앞 풀밭이다.

예님은 나무에 기대어 물구나무를 섰다.

앞으로 매일 밤 이렇게 명상을 하며 기를 모을 생각이다.

제이드 덕분에 힘이 있어야 뭘 마음대로 하든 말든 하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그것’만 할 수 있다면 어린애들 마음을 사로 잡아 친구가 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예님은 공중으로 두 발을 모으고 거꾸로 선 자세로 눈을 감았다.

고요한 밤 공기와 찌르르 풀벌레 우는 소리가 마음에 안정을 가져다 준다.

그렇게 기 모으기에 한창 집중할 때에,

저벅저벅,

느릿한 걸음으로 풀밭을 밟으며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났다.

“안녕하세요..., 예님.”

살짝 떨려오는 저음의 목소리.

천천히 뜬 시야로 보이는

하얀 구두,

하얀 바지,

하얀 장갑,

하얀 재킷,

하얀 셔츠,

하얀 목폴라,

하얀 망토,

하얀 고양이 가면...

누구지?